

책머리에



대중회장 류 제 구

배움도 인격도 갖추지 못한 부덕한 사람이 대중회장을 취임한 지 어언 반년이 지났습니다.

그간 대중회 발전을 위하여 베풀어주시는 경향 각지 종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간 유주춘추는 선조님께서 행하신 업적, 사회에 기여한 행적들을 기록한 보고로서 후손들에게 남겨줄 기록물입니다.

서기 2006년 제 14집을 내고서 사정에 의하여 2년간 발간하지 못하여 애석하던 차 이번 15집을 내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쉬지 않고 좋은 서적이 되도록 발간코저 합니다.

제 4대 호담 회장님께서 큰 뜻이 있어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잔여임기를 이어가면서 최선을 다해 자랑스러운 선세의 위적을 알리고 명문가문으로서 긍지를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간 본지를 펴도록 원고를 내주신 분, 그리고 편집주간, 인쇄를 해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종원 여러분의 행운을 빌면서 발간사에 대하고저 합니다.

2009. 10. 20

儒州春秋 第十五輯 目次

卷頭辭	책머리에	柳濟求	1
目次		3
特報	「서울특별시 夏亭청백리상」 제정	柳億烈	7
公示	文化柳氏 由來	文化柳氏大宗會	15
	大丞公以下五位 高麗大殿配享		19
	柳氏 姓字「류」表記		20
	大宗會 공식 홈페이지 개설		23
	大同譜刊行 顛末		25
	大同譜 CD 업데이트 설치 방법		27
	肅慕誌에 掲載된 先祖 略事		28
	柳氏記事 誤記 訂正 요청		30
	宗中 有功者 功勞表彰		36
	源派錄 削除辨		38
	「朝鮮時代 身分史 關聯 資料造作」	李樹健	41
	車譜序疑	柳淙鉉	53
	류차 문제의 전개와 전망	柳朱桓	59
	大丞獎學會 再創立	柳文冀	74
大宗會長 就任辭	柳濟求	78	
先蹟探究	柳氏 · 高麗初期人物		79
	文化柳氏 文翰 三大家		80
	忠景公 亮 事蹟	柳在振	83
	判尹公 京生后 先世事蹟	柳瑢鎭	85
	部令公 江生 事蹟	柳在華	89
	贊成公 淙의 生涯	柳三鉉	92

	松菴公 汝寧의 忠孝思想	柳大賢	100
	判書公 潛의 行蹟	柳益桓	102
	「約齋集」小考	柳淙鉉	114
	獨樂亭公 侁의 追遠契約文序	柳公鉉	118
	贈參判 孝子柳公 瑞龍 碑銘		121
	陽庵處士 柳公 芝赫 墓碣銘	柳明杰	123
文籍刊行	龔叟遺稿		128
	丘玉酬唱錄		132
	自慊窩集		134
	耕芸集	柳益烈	137
	愚齋集		139
	維石遺稿	柳晏重	142
立 碑	大護軍柳公 浣 墓表		145
	守門將柳公 世祉 墓表	柳寅奭	147
	直長柳公 世祐 墓表		150
	生員柳公 正立 墓表		153
	司直柳公 應榮 入鄉由來碑		154
	孺人羅州羅氏 孝烈碑 除幕		157
	孝烈碑 除幕 有感	柳大賢	160
	孝婦星州李氏 事蹟碑		162
	清州鄉校典校 柳公萬紀 墓表		165
	清州市長 柳公龍紀 墓表		167
	德盛柳公 秉善 爲先功績碑		169
宗中消息	夏亭公 묘소를 참배하고	柳志瑛	171
	府尹公宗中 祀壇 設置	柳在萬	174
	靈光公 齋室「靈蓮齋 外門」改築	柳大賢	176
	忠景公派 部令公宗中の 孫勢	柳在中	178

	漢洞先塋 淨化事業	181
	天安公 纁 成墳祭 奉行	柳明錫 183
	「石軒先祖의 生涯」 출간기념 학술세미나	柳鎭圭 185
	文岩先塋淨化日記	柳在豊 187
	柳根哲博士 KAIST에 578억원 쾌척	197
	海外僑胞 美洲地域 文化柳氏宗親會 결성	柳光洙 199
	文化柳氏靑壯年修鍊會 실시	柳億烈 203
人物紹介	良度公 牙山宗中會長 柳漢永	208
故 事	同春宋先生 遺事	210
漢 詩	萬壽泉	柳暎烈 211
	古都秋色	211
	文岩先塋淨化後感吟	柳在豊 212
	追慕王仁博士	柳晏重 212
	追慕梅竹軒成先生	柳淙鉉 213
	賀柳根昌大丞獎學會長功德	213
	賀柳朱桓教授宗事弘報	213
隨 想	「山垞里」地名 復元記	柳興烈 214
	조상 생각 나의 각오	柳在洪 217
任 員 錄	文化柳氏大宗會 大・小宗中任員錄	219
年例報告	主要宗務報告	柳億烈 234
	文化柳氏大宗會 沿革	235
	2009년도 정기총회 성금록	236
	大同譜 분질 현황	237
	獎學生 名單	238
刊行後記	柳淙鉉 239

【特報】

「서울특별시 하정(夏亭)청백리상」 제정



大宗會事務總長 柳 億 烈

금년에 서울특별시에서 청렴한 공무원을 발굴하여 청백리정신을 고양하고 공직사회의 지속적인 청렴문화를 정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청백리상을 제정하였다.

금년 2009년 2월 5일 동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여 제반 의견을 수렴한 후 동년 6월11일 청백리상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확정, 발표하였다.

조례안에 따르면 이 상은 서울특별시와 25개 자치구의 공무원 중 청렴결백하고 헌신 봉사하는 직원 3명을 발굴하여 엄정한 심사를 거쳐 매년 9월 한 차례씩 수상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시상금을 비롯하여 특별 승진 등 인사 상 특전이 주어질 예정이다.

상의 명칭을 「서울특별시 하정청백리상」으로 명명하였는데, 하정은 조선 초 문신이자 대표적인 청백리로 꼽혔던 류 관(柳 寬: 1346~ 1433) 선생의 호를 딴 것이다.

하정은 태조 때부터 수차 상소로서 개혁을 주장하고, 세종 6년(1424) 우의정에 올라 고려사를 수교 찬진하였으며 특히 비가 새는 집에서 우산을 받쳐 들고 지냈다는 소위 우산각의 일화로 유명하며 사후에 청백리에 록선되고 문간공으로 시호를 받은 청렴재상이시다.

그리고 우리 문화류씨 시조 대승공의 13세로 하정공파의 파조이시다.

인사말씀

서울특별시에서는 문화류씨 하정공파의 파조이신 하정공의 호를 따서 「서울특별시 하정청백리상」을 제정한다고 금년 2009년 7월10일 발표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와 25개 자치구 산하 공무원 중 청렴결백하고 직무에 헌신 봉사하는 직원을 선정하여 매년 9월1일 서울시민의 날에 시상하는 조례를 서울시의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

수상인원은 대상 1명 본상 2명 도합 3명으로 수상자에게는 상패 및 시상금을 수여하고 아울러 특별 승진 등 인사상 특전이 부여된다고 합니다.

이 제도는 하정공파 뿐만 아니라 우리 문화류씨 가문 전체의 큰 영광이요, 후세에 길이 빛날 대 역사입니다.

전국에 계신 문화류씨종친 여러분, 금번 제정된 「서울특별시 하정청백리상」에 대한 내용을 전국 방방 곳곳에 널리 알려져 하정공의 명성이 영원히 빛나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夏亭公派宗會長 柳志春

迎日縣題詠

앉아서 푸른 산을 대하니 다시 부끄러운 바,
문득 시소(尸素)로 오래 머물렀도다.
시를 지으려다 못 이루고 도로 붓을 던졌더니,
풍경이 좋아 돌아가길 잊고 홀로 누대에 기대었네.
큰 바다는 아득히 하늘 끝에 먼데,
긴 강은 세차게 성을 끼고 흐르누나.
소박한 정회로 푸른 물 달 아래 오래 앉았는데,
물 위에 흰 갈매기는 나를 이해하지 않겠나.

※ 尸素：尸位素餐의 준말, 직책을 다하지 못하고 자리만 차지하여 봉록만 받아먹는 일. 이는 자신의 겸양을 나타낸 말임.

野	巨	尋	坐	迎
情	海	詩	對	日
遍	漫	未	青	縣
坐	漫	得	山	題
滄	際	還	更	詠
波	天	投	起	夏
月	遠	筆	羞	亭
				柳
				寬
波	長	愛	却	
上	江	景	將	
白	滾	忘	尸	
鷗	滾	歸	素	
容	抱	獨	久	
我	城	倚	淹	
不	流	樓	留	



하정공 류관(1346~1433)영정

조선초기 가장 청렴한 정승 - 柳寬 -

『地方行政』 1988년 10월호

하정 류 관(夏亭 柳寬), 방촌 황 희(龐村 黃喜), 고불 맹사성(古佛 孟思誠) 세 사람을 가리켜서 「선초삼청(鮮初三淸)」이라고 부른다. 조선 초기에 활약한 세 사람의 청백리(淸白吏)란 뜻이다. 물론 이 세 사람 말고도 태종(太宗), 세종(世宗)대에 이르러 수많은 청백리들이 배출됨으로써 국기(國基)를 튼튼히 다녔다.

그러나 그 술한 어진 신하들 중에서도 유독 황 희, 맹사성과 함께 류 관을 손꼽는 이유는 저절로 명백하다. 류 관이 남긴 행적 하나하나가 만대를 두고 본받아 마땅할 일이기도 하려니와, 그가 보여준 애민보국(愛民輔國)의 투철한 정신은 실로 감동적이기 까지 하기 때문이다.

그의 일생도 황 희, 맹사성처럼 고려 말에서 시작하여 조선조 초기에 끝나고 있다. 고려 충목왕(忠穆王) 2년인 1346년에 태어났으니, 공민왕(恭愍王) 12년에 태어난 황 희보다 17세가 많고, 역시 공민왕 9년에 태어난 맹사성보다는 14세가 더 많은 편이다. 선초삼청 중에서도 가장 연장자인 셈이다.

류 관의 관계(官界) 진출은 매우 빠르다. 이것은 그가 26살이란 젊은 나이로 문과에 급제한 데서 기인한다. 공민왕 재위 20년이 되던 1371년의 일이다.

그가 고려조에서 맡은 가장 두드러진 직

책은 봉산군수(鳳山郡守)를 지냈다는 것이다. 봉산군수 시절의 류 관은 이미 청백리로서의 타고난 성품을 보여주고 있어서 그가 임기를 마치고 중앙으로 올라올 때는 모든 백성의 칭송을 받으며 아쉬움 속에서 임지를 떠나야 할 정도였다.

목민(牧民)한다는 자의 본분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보여준 귀중한 예증(例證)을 남기고 봉산군수를 이임한 것이다.

그의 어렸을 때 본명은 관(觀)이었다. 세종(世宗) 8년(1426) 4월13일에 셋째 아들 계문(季聞)이 충청도관찰사에 임명 되었는데 사직을 청하여 아뢰기를 「신의 부친 이름이 관(觀)이니 신은 가히 이 직책을 맡지 못하겠나이다」 하므로 주상(主上)께서 특령으로 관(寬)자로 고쳐 부임할 것을 명하셨다. 이것은 그의 성품과 어울리는 개명(改名)이라고 볼 수 있고, 그의 이름자인 「寬」이 보여준 실로 놀라울 만큼의 너그러움에서 류 관이란 인물의 넓이와 두께를 가늠할 수 있다는 것이다.

류 관은 동대문 밖에서 살았다. 벼슬이 의정부 우의정(右議政)에 이르렀는데도 어찌나 가난했는지 비만 오면 방에서도 우산을 쓰고 있어야 할 정도였다. 그는 너무 지나치다 할 정도로 재물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어서 그의 평생을 두고 단 한 번도 재물에 탐심을 둔 바가 없었다. 그런 류 관이었으니 만큼 집하나 변변한 것을 갖고 있을 리가 없었다.

더군다나 그 집은 울타리도 담장도 없는 두 칸 초옥이어서, 이 집이 당대의 명상(名相)이 살고 있는 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하도 딱하게 여긴 태종(太宗)이 밤새 몰래 선공감(繕工監)을 보내서 류 관의 집 주위에 울타리를 설치해 주기까지 했으니 알만한 일이다.

비가 새서 우산을 받쳐 들고 이리 저리 자리를 옮겨 다니는 모습을 어이없게 바라보고 서있는 부인에게 「이런 우산도 없는 집은 비를 어떻게 피하겠소.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라고 말했다.

그러자 부인은 「우산이 없는 집이라도 우리처럼 비는 새지 않을 테니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라고 대답하자, 류 관은 허허 웃으며 「그것 참 그렇기도 하군。」 하면서 웃고 말았다.

이 이야기가 시사해주는 바의 의미를 우리는 구태여 따지고들 필요는 없다. 그것이 그냥 구전(口傳)되어 온 상식 밖의 일이라 해도 새삼스레 그 진위(眞僞)를 규명하려들 필요도 없다.

류 관은 그런 사람이었고, 그렇게 받아들여주어야 할 당위성도 있게 마련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청백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역사가 끊이지 않고 그 명맥을 이어왔기 때문이다.

우의정 자리에 앉아서 만조백관(滿朝百官)을 거느리는 그가 신분이 천한 일반 백성과 조금도 다름없이 행동했다는 그 자체를 높이 사면 되는 것이다. 아무리 추운 겨울에라도 그의 누추한 거소(居所)에 손님이 찾아 들면 버선발로 뛰어 나와 맞아들인 정신이 중요한 것이다.

동대문(東大門) 밖 그의 두 칸 초가집은

그래서 손님이 끊이지 않았다. 귀하고 천하고 간에, 벼슬이 있거나 없거나 간에, 그리고 부자이거나 가난한 자이거나 간에 류 관의 집을 찾아간 손님들은 거기에서 따뜻하고 훈훈한 인정의 선물을 한 아름 안고 돌아가기가 일쑤였다.

거기에는 허물도 가식(假飾)도 없고 위선(僞善)도 없었다. 우의정 높은 벼슬이 풍기는 거만함이나 위압감 같은 것은 더구나 없어서 일단 류 관의 집을 찾는 객들에게는 그에게서 인간미의 관후함과 온화함을 깨우치고 돌아오기 마련이었다.

그는 가끔 호미를 들고 채소밭을 돌아다니며 직접 찬거리를 준비해오는 일도 있었다. 그렇게 해서 찾아오는 손님을 위하여 탁주 항아리 하나와 술 주발 몇 개만을 소반 위에 올려놓고 직접 채취해 온 야채를 안주로 삼아 인간사 갖가지 일들을 말로 주고받았다 하니 그 소박함은 참으로 아름답기조차 하다.

류 관은 벼슬이 정승(政丞)에 이르렀어도 제자를 두고 글 가르치는 일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

사람이 옳게 깨우치는 것은 곧 그 마음속에 어떠한 학문이 자리 잡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신념을 굳게 가진 그였다. 때문에 사람됨의 척도(尺度)를 얼마나 높게 되고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에 따라 그 기준을 두는 게 아니라 그 마음속에 가꾸어진 학문의 질과 양이 얼마만큼의 수준에 다다랐느냐에 따라서 판단했다.

이러한 신념은 그를 한평생 따라다닌 철

두철미한 기본신념이기도 해서 그가 어느 자리 어느 벼슬에 있든지 간에 제자를 모아 글 가르치는 일을 멈추지 않았던 것이다.

글을 가르친다는 단순한 행위에서 한걸음 앞서 사람이 사람 되기 위한 올바른 글을 가르침에 조금도 게을리 하지 않았던 관계로, 일단 류 관에게서 글을 배워 나간 서생(書生)들은 틀림없는 인재(人材)로 성장해 나갈 수 있었다.

오늘날 입신양명(立身揚名) 위주로 몰아부치는 교육의 현실을 생각할 때, 류 관이 정립한 철저한 인간교육은 참으로 귀중한 전범(典範)이기도 하다. 이것도 따지고 보면 그의 두드러진 청렴정신과 무관하다고 할 수가 없다.

류 관은 그 총명함이 남달리 뛰어났다고 한다. 이것은 그의 나이 스물여섯 살에 등과한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는 일이다. 확실히 그는 보통 사람에 비하여 지나칠 정도로 총명한 게 사실이었다.

그래서 그는 한번 배운 글은 평생을 두고 잊어버리지 않았다. 그런데 더욱 높이 사야 할 것은 이 총명한 머리로 학문을 익혀나가면서도 그의 머리 속에서는 항상 민생(民生)의 문제가 떠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밤중에 글을 외우면서도 그 글 속에 담긴 뜻을 민생과 연관 지워 생각하기를 잊지 않았다. 가히 타고난 선정관(善政官)이요, 하늘이 내려준 청백리라고 해도 부족함이 없을 그였다.

그는 천성이 남에게 주기를 좋아한 사람이었다. 워낙이 가난한 살림이었지만 하찮은

물건 하나라도 남에게서 그냥 얻어오는 법이 없었다. 오히려 가진 것 나누어서 주기를 좋아하며 그 집안에는 남아돌아가는 것이 없을 지경이었으니, 부인의 고생이야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였다.

조카 사눌(思訥: 강원도관찰사, 예문관대제학)이 세 살 적에 부친을 여의고 나이 열세 살에 이르러 자모 권씨(慈母 權氏)마저 또 돌아가시니, 친히 집으로 데려다가 친자(親子)와 같이 어루만져 기르며 글 읽고 학문에 힘쓰는 방도를 가르쳤다. 한편 과거에 급제하여 그 성혼(成婚)의 날에 당하기에 이르러 의관(衣冠)과 안마(鞍馬) 등 제반 혼수(婚需)를 모두 갖추지 않음이 없었으며, 그 노비(奴婢)를 나눠 줄 때에 조카를 형과 같이 보아 그 건장하고 진실한 자를 가리어 수를 더 많이 분급(分給)하니 당시에 듣는 사람마다 그 공평하고 청렴함에 감복하였다.

류 관은 재물관리에 있어서는 극단적이라 할 만큼 청빈(淸貧)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다. 아무리 가깝고 허물없는 사이라 해도 이 문제에 있어서는 분명한 주관을 개입해서 처신했기 때문에 그의 일생을 통하여 단 한 번도 남과 얼굴 붉히는 일이 없었다. 하나를 탐하기 전에 둘 셋을 주어야 직성이 풀리는 성미였으니 어느 사이에 얼굴 붉힐 틈새도 없겠지만 류 관에게 있어서의 재물관(財物觀)은 가히 초인적이라 할 만큼 깨끗하고 시원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성품이 그대로 반영되어 나타난 것이 목민관(牧民官)으로서의 자질이였다. 그는 벼슬이라는 자리를 <나>라는 주체를

떠나서 생각하는 사람이었다. 벼슬을 한다는 것이 그 사람 개인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만백성의 길잡이로서 오직 봉사해야 한다는 공복(公僕)정신이 투철했기 때문에, 류 관은 어느 벼슬자리에 있을 때, 한번은 세종(世宗) 임금에게 글을 올렸다. 그 글에서 류 관은 송 태조(宋太祖)가 모든 국민에게 술과 음식을 고루 나누어 주고 마음껏 놀게 하였던 고사(故事)를 인용하여 3월3일과 9월9일을 택해 그렇게 시행하도록 주청했던 것이다.

세종임금도 이 건의를 받아들여서 즉시 류 관을 불러 그렇게 하도록 어명(御命)을 내리셨다. 이에 조정에서는 대소 관료들을 각 지방으로 내려 보내 그곳 백성들과 함께 어울려 하사주(下賜酒)와 음식을 골고루 나누어 주고 경치 좋은 곳을 택해 관민(官民)이 일심동체가 되어 태평성대를 노래하고 어진 임금을 위해 축수하기도 했다.

관민이 이쯤 되면 사이가 멀어지려해도 멀어질 수가 없다. 서로가 서로를 믿는다는 것은 그 사이에 놓인 거리감을 없애고 불신감을 없애야 가능한 일인데 류 관의 주청으로 이루어진 이 거국적인 행사야말로 관민일체의 훌륭한 귀감(龜鑑)이 되고도 남는다.

무릇 다스린다는 하향(下向) 일변도적인 외궐 행정(行政) 만으로서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다스린다.」는 말의 진정한 뜻은 다스림을 받는 자의 삶을 진심으로 걱정하고 편안하게 해주는 데 있다. 민생이 편안하지 못하고 항상 불편한 상태에서 좌충우돌 할

때 다스림의 권위는 사실상 잃고 마는 것이다.

어떻게 하면 백성의 삶을 즐겁고 신나게 해줄 것인가에 대한 해결책의 모색이 바로 다스린다는 말의 참뜻임을 류 관은 알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벼꾼 하나하나의 시정(施政)이 모두 선정(善政)으로 칭송받을 수 있었고 훗날 우상(右相)의 높은 벼슬에 이르러서도 방만(放漫)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다.

겸허하고 청렴한 가운데 인간의 소박함과 진실함을 깨우쳤고, 그런 가운데 이도(吏道)의 올바른 길을 몸소 실천해 나간 류 관과 같은 인물, 그래서 우리 역사는 자랑스럽게 기록해 놓고 있다.

류 관은 공직에서 물러난 뒤에도 그 곳곳한 청백정신을 끝까지 견지하면서 결코 자세를 흐트리는 법이 없었다.

언제나 방정(方正)한 행실, 누구에게나 따뜻하고 훈훈한 인간애(人間愛) 넘치는 마음씨로 상대방을 교화시키던 인품, 이러한 것들이 바탕을 이루어 류 관이라는 한 인간을 형성해 놓았기 때문에 그의 노후(老朽)도 결단코 정도(正道)에서 이탈됨이 없이 바로 걸어갈 수가 있었다.

우의정에서 물러나 동대문 밖의 비새는 집에 기거(起居)할 때도 언제나 그에게 글을 배우려는 문하생들이 가득 가득 몰려들었다하니 사람으로 태어나서 류 관처럼 행복스럽고 보람찬 삶을 살다간 사람도 그리 많지 않으리라 싶다.

왕씨(王氏) 고려가 점차 패망의 길을 걸

어가던 말기에 태어나, 26세의 젊은 나이로 등과하여 이씨조선(李氏朝鮮)에서 그 열매를 맺기까지 류 관은 실로 88년의 긴 생애를 살면서 위민봉사(爲民奉仕)의 한평생을 살았다.

그가 88세의 고령으로 돌아간 것은 세종 재위 15년째 되던 1433년이였다.

류 관이 세상을 뜨자 세종대왕은 어진 신하의 죽음을 몹시 애통해 하면서 문무백관(文武百官)을 거느리고 슬피 울었다.

신하는 임금을 위해 어진 정사를 펴도록 힘껏 보필을 다 했고, 임금은 어진 신하를 위해 인군이 할 수 있는 선정의 모든 것을 다 베풀었으니 그들의 귀한 아름다움은 청사

(靑史)에 길이 남을 깨끗함 바로 그것이다.

류 관의 죽음에 잇따라서 맹사성·황희도 졸하였다. 이렇게 해서 한 시대 청백리들의 죽음과 함께 태평성대(太平聖代)는 종말을 고하고 왕조(王朝)는 서서히 피의 역사로 점철되 혼란의 시대를 열어가게 된다.

그러나 피할 수 없는 것이 역사의 진행이어서, 이들 고귀한 청백리들이 남기고 간 태평의 세월 위로 하나 둘 겹쳐오는 음산한 구름을 걷어 낼 방도는 없었다.

그렇게 왕조는 진행되고, 또 그러한 세월 속에서도 청백리는 태어나게 되어 있었던 것이다.



【公 示】

文化柳氏 由來

문화류씨(文化柳氏) 시조 대승공 류차달(大丞公 柳車達)은 황해도 유주(儒州:文化縣) 태생으로 고려 개국에 큰 공을 세워 대승의 관직과 삼한공신(三韓功臣)의 훈호를 받았다. 그 아드님 좌윤공 효금(佐尹公 孝金)은 구월산을 지나다가 큰 범을 만나 그 입 속에 걸려 있던 비녀를 빼내 주었는데 그날 밤 꿈에 범이 나타나 이르기를 『나는 산신령인데 무슨 물건이 목에 걸려 심히 괴롭던 중 공이 나를 구해주었으니 그 음덕으로 공의 자손은 반드시 대대로 경상(卿相)이 되리라.』 하였다. 그 후 문간공 공권(文簡公 公權) 문정공 경(文正公 瓚) 등 수대를 연이은 증시(贈諡)로서 고려조에 소위 사세오공(四世五公)의 별족(閥族)으로 일컬었다. 조선조에 들어와 134인이 대과(大科)에 급제하여 음사(蔭仕)를 포함, 실직당상관이 90여인에 이르고, 시호(諡號) 22장이 내렸는데 그 중에 상신(相臣) 9인, 호당(湖堂) 5인, 청백리(清白吏) 4인, 공신(功臣) 11인이 배출되었다. 국초의 청렴재상 하정 관(夏亭 寬), 사육신 낭간 성원(琅玕 誠源), 을사사화 때 강직대신 송암 관(松菴 灌), 임진왜란 때 선무공신 문흥군 사원(文興君 思瑗), 실학의 원조 반계 형원(磻溪 馨遠), 발해고 저자 영재 득공(冷齋 得恭) 등은 특히 드러난 분이다. 그리고 초야에서 학문에 전념한 유현(儒賢)과 충의효열(忠義孝烈)로 정려(旌閭)와 복호(復戶)의 은전을 받은 분이 80여인에 이르고, 무과 및 소과에 급제한 분은 헤아릴 수 없다. 이렇듯 많은 인물을 배출하여 국가와 명운을 함께한 우리 류씨는 고려 때 4대 명족, 조선 때 8대성으로 일컬어 왔으며 더욱이 문화류



씨의 영락보(永樂譜)와 가정보(嘉靖譜)는 우리 나라 족보의 효시(嚆矢)로서 동서양을 막론하고 계보학(系譜學) 연구의 세계적 문헌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이상은 고려사 및 동국여지승람, 조선왕조실록, 국조방목, 증보문헌비고, 연려실기술 등 공가문헌(公家文獻)을 철저히 고증한 기록이다. 근세에 우리 류씨와 차씨 간에 동조이성(同祖異姓) 운운하였는데 이는 위서(僞書)를 오인(誤認)한 소치로서 근년에 제반 공가문헌에 의하여 사실 무근임이 판명되었다. 우리 모두 전감후계(前鑑後戒)의 지혜를 되새겨 땃땃하고 자랑스러운 명문(名門)의 전통을 지켜 나가자!

서기 2008년 10월 일

文化柳氏大宗會

由來碑建立獻誠錄

四百萬圓

夏亭公宗中

貳百萬圓

侍郎公宗中

文肅公宗中

文平君宗中

貞肅公宗中

忠.部令公宗中

壹百萬圓

崑.都事公宗中

崑.司宰監正公宗中

中門祗候使公宗中

中.中郎將公宗中

中門使公安山宗中

左.西山公蔚山宗中

左.西山公光山宗中

左.西山公永川宗中

左.西山公密陽寅乙

左.文原君晉州宗中

檢.翰林公加平宗中

檢.翰林公和順宗中

檢.良度公牙山宗中

檢.良度公江華宗中

檢.良度公慶集宗中

檢.良度公漣川宗中

檢.奉禮公大田宗中

檢.懷仁公金堤宗中

檢.咸安公金堤宗中

檢.昌平公金堤宗中

檢.靈光公金堤宗中

檢.進士公春川宗中

檢.樹谷公金堤宗中

府.文興君宗中

忠.典祀令公宗中

忠.松菴公宗中

忠.判尹公宗中

忠.判尹公大田宗中

忠.少尹公宗中

忠.天安公宗中

忠.沃川公宗中

忠.沃川公芳花室宗中

忠.沃川公芳峴宗中

文化柳氏大田宗親會

五十萬圓

侍.令同正后西演 群山

崑.沙月堂后己桓 大邱

崑.沙月堂后尹桓 大邱
崑.沙月堂后羲洛 大邱
中.僉正公后石鉉 玄德
左.西山公后鶴烈 光山
左.西山公后在政 光山
左.潮溪公后仲奇 서울
檢.靈光公后寅高 仁川
貞.監司公后濟求 沃川
水.水使公后德鉉 서울
忠.典祀令后濟升 大田
忠.典祀令后天桓 大田
忠.盤谷公后聖烈 서울
忠.天安公后東善 天安
忠.信川公后寅源 沃川
忠.沃川公后寅壽 大田

壹十萬원

侍.提學公后暢烈 서울
左.西山公后彰鉉 서울
夏亭公后德熙 陰城
夏亭公后萬俊 華城
忠.判尹公后萬杰 唐津
崑山君后相培 大田
貞肅公宗中 沃川
文化柳氏扶餘宗親會

五萬원

文平君后根哲 會坪
左相公后春烈 大田
貞肅公后在徑 陰城
貞肅公后在山 沃川
忠景公后濟元 서울
忠景公后容習 保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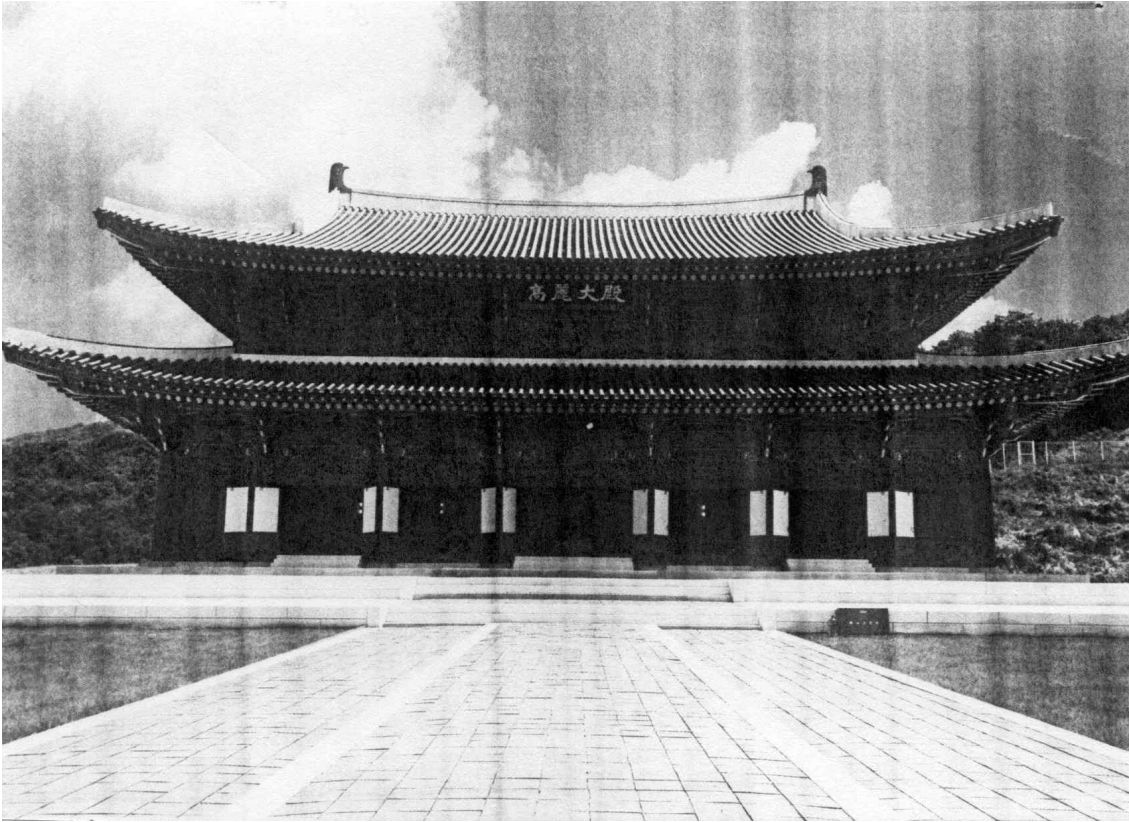
四萬원

中.石軒公后漢平 서울

貳萬원

忠.判尹公后京烈 扶餘

大丞公以下五位 高麗大殿配享



지난 2007년 10월, 경기도 파주군 탄현면 성동리 소재 고려대전에 시조 이하 5위를 배향하였다. 즉, 대승공 류차달(大丞公 柳車達), 문간공 류공권(文簡公 柳公權), 상서공 류언침(尙書公 柳彦沉), 복야공 류택(僕射公 柳澤), 문정공 류경(文正公 柳璈)등 5위이다. 매년 양 10월 중에 향사를 받들고 있다.

柳氏 姓字 「류」 表記

문화류씨 `가문의 승리`

‘두음법칙 강요는 인격권 침해’ 법원, 호적에 ‘유’ 대신 ‘류’허용

호적부 성명란에 ‘柳(유)’씨 성(姓)의 한글 표기는 ‘류’씨로 써도 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전지법 민사1부(재판장 손차준 부장판사)는 12일 유남정(柳南正 : 譜名 柳寅正) (81)씨가 호적부 성의 한글 표기를 ‘유’씨에서 ‘류’씨로 고쳐 달라며 제기한 호적정정신청을 기각한 원심을 깨고 이를 허가하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국가가 개인의 구체적 상황이나 의사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성의 한글 표기에 두음법칙 적용을 강요하는 것은 헌법상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성은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하고 혈통을 상징하는 기호인데 성의 ‘柳’씨를 ‘유’로 표기하더라도 한글 표기만으로는 동일하게 ‘유’로 표기되는 ‘劉.兪’씨와 구별되지 않고 성에 대해 두음법칙 적용을 강제할 만한 정당한 목적이거나 이익을 찾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성에 대한 두음법칙 강제는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인데도 법률 형식을 취하지 않고 행정규칙인 대법원 예규(제520호 제2항)로 정한 것은 헌법에 위배돼 무효”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유(劉.兪)씨 등과는 달리 한글 이름 성을 ‘류’씨로 불러온 문화 유(柳)씨 후손과 일부 ‘리(李)’씨, ‘라(羅)’씨 문중 등의 호적정정신청도 잇따를 전망이다.

유씨는 ‘문화 유(柳)’씨로 그 성의 올바른 한글 표기가 ‘류’인데도 호적에는 ‘유’로 기재돼 있어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법원에 호적정정신청을 냈으나 3월 1심에서 기각됐다.

이에 앞서 대법원은 1994년 호적법시행규칙 개정으로 한자 대신 한글과 한자를 함께 쓰게 되자 한자로 된 성(姓)을 한글로 적을 때는 한글맞춤법에 따라 표기해야 한다는 내용의 대법원호적예규를 제정했다.

이에 따라 ‘柳.李.羅’를 호적부에 한글로 표기할 때는 두음법칙에 따라 ‘유.이.나’로 표기하도록 했었다.

2006. 6. 13

중앙일보 대전 김방현 기자

“류씨, 유씨로 안써도 된다” 법원 호적정정 허가 결정

국가가 한자 성(姓)의 한글 표기에 두음법칙을 적용하도록 강제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법 민사1부(부장판사 손차준)는 12일 호적상 성의 한글 표기를 ‘유’에서 ‘류’로 고쳐 달라는 유남정(柳南正 : 譜名 柳寅正) (81) 씨의 호적정정 신청 항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허가 결정을 내렸다.

‘문화 유(柳)씨’인 그는 수십 년간 각종 자격증에 성을 ‘류’로 표기해 왔으나 1994년 호적법시행규칙 개정으로 한자와 한글이 병기된 호적에 ‘유’로 기재되자 소송을 냈다.

그동안 성씨에 대한 두음법칙 적용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았으나 일방적인 적용이 부당하다는 판결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리(李)씨’, ‘라(羅)씨’ 등의 호적정정 신청이 잇따를 전망이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국가가 개인의 구체적인 상황이나 의사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성의 한글 표기에 두음법칙 적용을 강제한 것은 개인의 자기결정권을 핵심으로 하는 헌법상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성명은 순수한 고유명사라는 점에서 두음법칙 적용이 원칙적으로 배제돼야 하며, 단순히 한글 표기의 통일을 위해 두음법칙을 강제한 것은 민주적 기본질서의 핵심 요소인 ‘소수자 보호’ 원칙에 반한다”고 밝혔다.

손 부장판사는 “성에 대한 두음법칙 강제는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인데도 법률의 형식을 취하지 않고 행정규칙인 대법원 예규(제520호 제2항)로 규정한 것은 헌법에 위배돼 무효”라고 덧붙였다.

2006. 6. 13

동아일보 대전 지명훈 기자

“대전지법 결정 환영, 당사자 국한 아쉬워”

“용기 있는 대전지법의 결정에 문화류씨(文化柳氏) 대종회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 문화류씨 모두가 성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필요하다면 집단소송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성씨의 한글표기 시 두음법칙을 강제해서는 안 된다는 대전지법의 결정이 나오자, 문화류씨대종회는 물론 대부분의 후손들은 크게 환영하며 들뜬 분위기다.

그동안 호적상 ‘유’씨로 기재돼있지만 일상생활에서는 ‘류’로 사용해온 후손들이 적지 않았다.

올해 한국프로야구 최고의 신인으로 꼽히는 한화이글스 류현진 선수와 일본과 동남아 등지에서 한류열풍을 선도하고 있는 탈렌트 류시원씨도 대법원 호적예규를 따르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신념은 많은 불편을 동반할 수밖에 없다.

이들이 일상생활에서 공통적으로 느끼는 불편함 중 하나가 도장과 관련된 일이다. 이들 대부분은 한자이름의 경우 柳를 사용하면 그만이지만 한글도장은 주로 ‘류’로 쓰고 있다. 이 때문에 일부 은행에서는 본인여부를 확인한 뒤에도 도장과 실제 호적상 이름이 다르다는 이유로 정상적인 업무를 취급해주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 인감도장 역시 두음법칙이 적용되지 않은 한글 성씨를 사용하려면 동사무소에서 거절된다.

일부 인터넷 사이트에서는 류씨로 회원 가입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또 다른 인터넷 사이트는 ‘류’와 ‘유’의 차이를 전혀 두지 않아 혼란스럽다.

최근 국가시험을 치른 한 문화류씨 후손은 “답안지에 성씨를 ‘류’로 쓰자니 괜시리 찝찝하고 그렇다 해서 ‘유’라고 쓰려니 시험 때문에 내 성을 버린다는 생각에 무척 혼란스러웠다”고 털어놨다.

특히 지난 70년대 일시적으로 문화 柳씨를 ‘류’로 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한 뒤 또다시 제한함에 따라 이 당시 태어난 사람은 형제지간이라 해도 한글 성씨표기가 다를 수밖에 없어 이 때문에 겪는 고통이 적지 않다.

학창시절 친구들로부터 “너희 형제는 아버지가 다른 것 아니냐”는 놀림을 수없이 당했고 하다못해 외국여행을 함께 가더라도 여권상 성씨표기가 다르다보니 가족이 아니라고 판단한 항공사측에서 비행기좌석을 나란히 배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문화류씨대중회 상임부회장인 종현(淙鉉)씨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성씨를 대법원이 마음대로 바꿔 정했던 것은 분명히 잘못된 일이었다.”며 “국민의 인권을 지켜내지 못한 어두운 과오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진정 국민을 섬기는 법원으로 거듭나겠다고 약속한 대법원장의 인사말을 이제 믿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대전지법에서 용기 있고 현명한 결정을 내려 크게 기쁜 마음이지만 한편으론 이번 결정이 신청당사자의 호적정정에 국한된다는 사실이 마음 아프다”며 “대부분의 후손들이 ‘류’씨로 살고자하는 만큼 종중내 정식적인 절차를 거쳐 집단적으로 호적정정을 구하는 방법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06. 7.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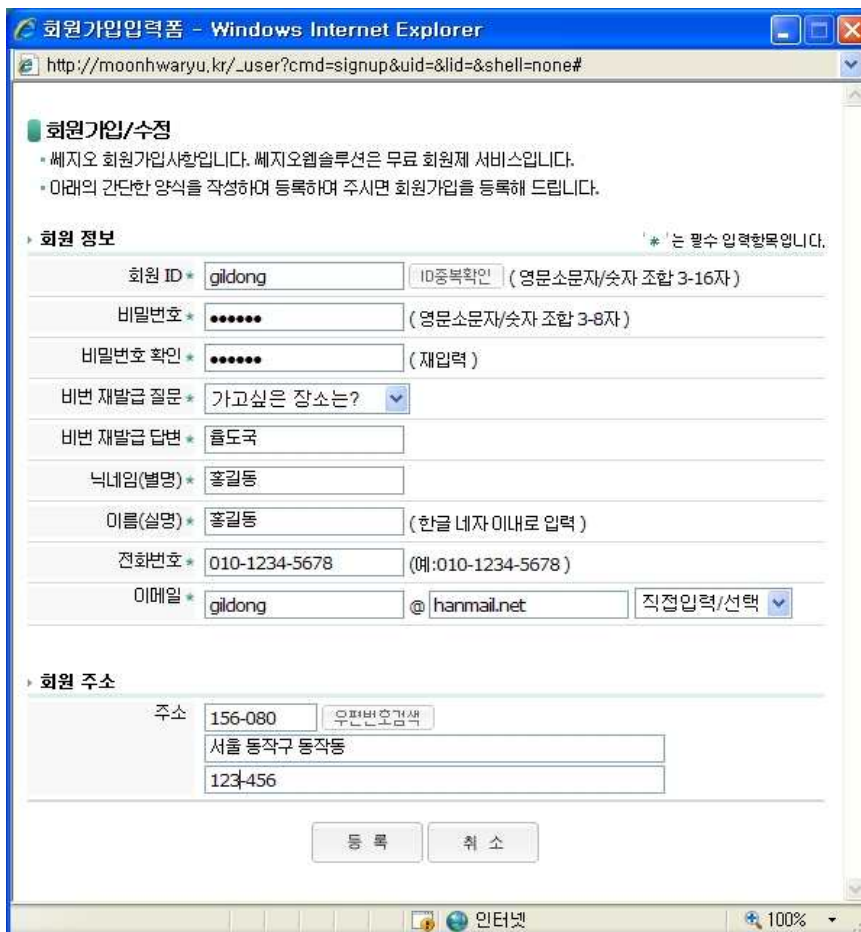
대전일보 申昊澈 기자

성자 “유”를 “류”로 정정하는 순서와 방법

- 1) 柳씨의 한글 표기는 반드시 “류”로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2) 등록기준지(호적)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가족등록부(호적) 정정 허가 신청을 하여 그 허가를 받아야 한다.(유인물 신청서)
- 3) 사건 본인 및 사건 본인과 한자 성이 같은 직계 존·비속은 공동으로 같이 신청한다.(유인물 동의 및 확인서)
- 4) 일차는 등록부 정정 허가 신청서와 직계 비속(자.녀.손)의 동의서, 그리고 종중에서 발급해주는 확인서를 첨부하여 각 지방법원 또는 지방법원 지원에 접수한다.
- 5) 지방법원에서 결정(판결)문이 가정으로 송달되면 허가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구청에 “등록부정정신청서”를 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과태료가 붙는다.
- 6) 구청에서 등록부 정정 된 것이 확인 되면 2주 이내에 자동차 등록증 등 “유”를 “류”로 변경하여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과태료가 붙는다.

大宗會 공식 홈페이지 개설

1. 주소: <http://moonhwaryu.kr/> 혹은 <http://www.moonhwaryu.kr/>



2. 주의사항:

1. 회원 ID: 영어(소문자)와 숫자로 구성된 아이디를 넣으면 됩니다. 무엇을 넣을지 고민이 되면 자신의 영문 이름을 소문자로 넣으십시오. 이때 공백이 없어야 합니다. 아이디를 타이핑해서 넣은 후 먼저 “ID중복확인” 버튼을 눌러서 사용할 수 있는 아이디인지 확인해 주십시오.
2. 닉네임(별명): 홈페이지의 게시판에 글을 게시하는 경우 이 이름으로 나옵니다. 정회원이 되고자 하시면 “닉네임(별명)”도 본명을 써 주십시오.
3. 이름(실명): 반드시 본명을 써야 합니다.
4. 회원주소: 먼저 “우편번호검색” 버튼을 눌러 나타나는 지시를 따라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동네 이름까지 주소가 저절로 입력이 됩니다. 그런 다음 나머지 주소를 완성해서 넣으면 됩니다.
5. 모든 항목을 입력했으면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한 다음 “등록” 버튼을 누릅니다. 이렇게 하면 가입이 완료됩니다.

정회원 되는 법 : 위의 방법으로 가입하면 준회원이 됩니다. 준회원은 “방명록” 게시판에 글을 올릴 수 있습니다. 다른 게시판들에는 정회원이 되어야 글을 올릴 수 있습니다(종친 소식 등). 정회원이 되려면 홈페이지에서 “홈페이지 가입 및 이용 안내” 글을 보시고 거기에 있는 요구사항을 따라주시면 됩니다.

3. 이용안내:

1. 각 종중 및 소종중에서는 소개의 글을 보내주십시오. 홈페이지에 소개 요령이 적혀 있으니 참고하십시오. (“대중회 > 파종회”)
2. 시향을 모시는 주체가 되는 종원들께서는 시향 안내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선조를 소개하고 날짜와 장소, 연락처 등을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하면 참여를 높이는 데 좋은 기여를 할 것입니다.
3. 문화류씨 및 종사 관련 소식이 있으면 홈페이지의 “종친소식” 게시판에 글을 올려 주십시오. 그리고 공식적으로 공고하기를 원하는 사항들이 있으면 대중회에 메일을 보내주십시오. (홈페이지 맨 아래에 있는 편지봉투 모양의 작은 그림을 클릭하면 메일을 보낼 수 있습니다.)

大同譜刊行 顛末

2003.

08.01 忠烈 대총회장, 보사를 추진한지 1년 남짓 경과되었으나 수보의 첫째 요건인 종인의 납단실적이 극히 저조하여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고, 또한 이전에 고안된 편수요강 등이 미비한 상태임. 이에 타 개책을 다방면으로 논의 끝에 益桓 사무총장으로 하여금 각 종중 묘사시에 적극 알리고, 또 중앙일간지에 게재하여 대대적으로 홍보하기로 함.

滌鉉 편집주간, 지난 병진대보와 역대 대동보를 두루 열람하여 편집 기획 및 보규를 보완, 수정한 후 이를 편수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 제정하기로 하고, 아울러 상계 정단작업에 착수함.

11.06 이사회 겸 편수위원회를 개최하여 대동보 편수요강과 관직 기록 및 문헌 등재범위를 논의하고, 아울러 씨족총감 등재에 대한 자료심의 확정 및 현세인물 등재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등을 원안대로 만장일치 결의함.

2004.

01.19 대동보 간행에 대한 광고를 1차로 조선일보에 게재.

02.12 대동보 간행에 대한 광고를 2차로 동아일보에 게재.

06.26 족보전문회사 서울 (주)엔코리안과 대동보 인쇄계약 체결함.

07. 대동보 하계정단 시작(普鉉,志遠)

10. 대동보 정단요원 증원(在復,濟千)

2005.

01.28 대보편수위원회에서 제반 논의 가운데 특히 선조의 관직 등재에 있어 자타가 인정하는 공가문헌을 우선하고, 또한 차서 착오와 이중 등재의 오류를 바로잡아 후세에 길이 전할 훌륭한 족보를 편수할 것을 재차 의결함.

- 05.26 이사회 겸 편수위원회에서 4월 정기총회 때 선임된 浩倓회장으로 하여금 대보편수위원장을 겸임, 추진하도록 결의함. 또한 문헌 등재범위를 전간 병진보와 한국씨족총감에 등재된 분을 기준하기로 의결함.
 - 12.04 추계총회에서 차씨들의 조작으로 밝혀진 원과목을 우리 대동보 문헌편에서 삭제하고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원과목삭제변을 수록하는 한편 최초 기사보에 실린 원문을 영인, 전재하기로 만장일치 결의함.
 - 12.30 1년 반에 걸친 정단작업을 종료함.
- 2006.
- 02.15 기 정단한 자손록을 재점검하여 족보인쇄사로 우송하고, 후속작업으로 문헌을 정리 편집하는 한편, 선세에 사행이 훌륭한데도 문헌이 누락된 분의 약사를 기술하고 기등재문헌의 번역보완에 착수함.
 - 06.20 자손록 교정 및 1차 종람 실시.
 - 09.20 자손록 교정 및 2차 종람 실시.
- 2007.
- 01.10 자손록 교정 3차 실시.
 - 09.20 총목권 문헌 1차 교정 시작.
 - 12.20 총목권 문헌 2차 교정 시작.
- 2008.
- 03.15 CD 입력분 선세유적 사진을 세대 종지순으로 편집을 시작함.
 - 04.20 자손록 및 총목권 교정을 종료함.
 - 04.30 CD 입력분 교정을 종료함.
 - 05.15 대동보봉랍, 오류처 점검 시작.
 - 05.30 대동보 출판기념회 개최.
 - 06.01 대동보 분질 시작.
 - 09.20 대동보 오류처 정정분, 해당인에 우송.

大同譜 CD업데이트 설치 방법

- 전자속보(CD)를 업데이트하시기 전에 먼저 전자속보를 설치해 주세요.
- 전자속보(CD)를 설치하신후에 반드시 한번 이상 전자속보(CD)를 실행해 주세요.
- 전자속보 프로그램을 종료하시고 아래 설명대로 따라 하세요.


1. 검색창에 '엔코리안'을 검색하여 홈페이지 접속

또는 (엔코리안 주소 : <http://www.n-korean.com/>) 주소로 직접 접속

2. 메뉴에서 고객지원->다운로드 클릭



3. **문화류씨 전자속보 업데이트 파일** 아래 설명

오른쪽에  을 클릭하시면 아래와 같은 창이 뜹니다.



실행 버튼을 누르셔서 파일을 설치하시면 됩니다.

4. 이제 문화류씨 전자속보를 실행하셔서 수정내용을 확인 하시면 됩니다.

肅慕誌에 揭載된 先祖 略事

國譯 肅慕誌 刊行

2008년 3월 사단법인 숙모회에서 한자본의 구 숙모지를 국문으로 번역, 국역본으로 간행하였는데 그 가운데 우리 문화류씨와 관련된 동계사의 유래와 동계사에 배향된 대승공 류차달과 숙모전 서무에 배향된 충경공 류성원·서산공 류자미의 사적을 이에 전제한다.

東鷄祠 由來

동계사(東鷄祠)는 신라 제19대 눌지왕(訥祗王) 때 충신 박제상(朴堤上)의 왜왕에 항거한 충혼을 제사하는 사우(祠宇)이다.(눌지왕은 당시 충열묘(忠烈廟)를 창건하고 친히 제사하였다.)

고려 태조(太祖) 19년(936)에 고려의 개국공신 류차달(柳車達)이 고려 태조의 원당(願堂)인 동학사(東鶴寺)에 와서 신라 충신 박제상의 충혼을 초혼 제사하고 동계사를 비로소 건립하였다(고려 태조가 동학사에 행차하였을 때 류차달이 박제상의 충절을 아뢰어 절 뒤에 동계사를 건립하였다고도 함. 공주읍지).

그 후 근 800년을 지나 조선 영조(英祖) 4년(1728)에 역신 신천영(申天永)의 방화로 초혼각(招魂閣)과 같이 불탄듯 하며, 순조(純祖) 30년(1830) 8월 19일 동학서원(東鶴書院)의 절목회의(節目會議)에서 결의된 것을 보면 계림백 박선생(鷄林伯 朴先生)을 이조절목(吏曹節目)에 따라 추배하되 곡배(曲配)로 정함은 의를 잃는 것과 같은 일이다. 서원이 헌종(憲宗) 2년(1836)에 철훼(撤毀)된 후로는 초혼각과 숙모전의 남쪽 벽에 동향배설

(東向配設)되어 미안하게 되어 있었다.

그 후 대한민국 수립 후 사림의 헌의(獻議)로 1956년에 오랜만에 비로소 동계사가 중건 되어 1960년 3월 류차달(柳車達)을 추배, 지금에 이르고 있다.

大丞公 柳車達

고려(高麗) 태조(太祖) 때의 공신(功臣)으로 문화류씨(文化柳氏)의 시조(始祖)이다.

후삼국(後三國) 시대에 왕건(王建)이 천하의 신망을 얻어 삼국을 통일하고자 후백제(後百濟)의 견훤(甄萱)을 정벌하려 할 즈음 군량(軍糧)의 보급이 심히 어려웠는데 이 때 공께서 수레를 많이 내어 군량을 신속히 보급하였다. 이렇듯 고려 개국(開國)에 큰 공을 세움으로써 공에게 삼한공신(三韓功臣)의 봉호(封號)와 대승(大丞)의 관작(官爵)이 내리었다.

공의 묘소는 황해도 신천군 문화면(黃海道 信川郡 文化面) 구월산 남쪽 인좌(九月山 南麓 寅坐)에 모셔있다.

공을 아사(鵝沙)라 칭함은 조선 말기에 들어 후손들이 칭한 추호(追號)이다.

공주읍지(公州邑誌)에 의하면, 「고려 태조 19년 병신(丙申 : 936)에 공주 계룡산(鷄龍山)에 태조의 원당(願堂)을 창건하였는데, 이때 대승 류차달이 공사(工事)의 도감(都監)으로 와서 어느 민가(民家)에서 신라(新羅) 충신(忠臣) 박제상(朴堤上)의 초상(肖像)을 발견하고 그 충의(忠義)를 감모하여 사당(祠堂)을 세워 초혼제(招魂祭)를 지내었다.」 하였는데 이것이 동계사의 유래이다.

이 같은 대승공의 높은 뜻을 기리어 지난

경자(庚子:1960)년에 숙모회(肅慕會)의 유론(儒論)으로 동계사에 추배(追配)하였다.

忠景公 柳誠源

(生 ? ~ 世祖2년·1456)

자는 태초(太初), 호는 낭간(琅玕), 본관은 문화(文化), 사인 사근(舍人 士根)의 아들로 사육신(死六臣)의 한사람이다.

세종(世宗) 26년(1444) 식년문과(式年文科)에 급제, 다음 해 저작랑(著作郎)으로 의방유취(醫方類聚)의 편찬에 참여하고, 29년(1447) 문과 중시(重試)에 급제하였다. 집현전학사(集賢殿學士)로 세종의 총애를 받았으며, 문종(文宗)이 즉위한 후 사경(司經) 수찬(修撰) 대교(待敎)를 역임하고 호당(湖堂)에 선발되어 사가독서(賜暇讀書)를 했다.

단종(端宗) 원년(1453) 김종서(金宗瑞) 등을 살해하고 정권을 잡은 수양대군(首陽大君)의 협박에 못 이겨 정난공신(靖難功臣)을 녹훈(錄勳)하는 교서(敎書)를 썼으나 그 후 성삼문(成三問) 박팽년(朴彭年) 등과 단종의 복위를 꾀하다가 세조(世祖) 2년(1456) 일이 탄로되자 자결했는데 곧 책형(磔刑)을 당하고 아들 귀연(貴連) 송연(松連)도 연좌되어 죽었다.

숙종(肅宗) 17년(1691)에 복관(復官)되고, 영조(英祖) 때 이조판서(吏曹判書)에 추증되었다.

홍주 노운(洪州 魯雲), 대구 낙빈(大邱 洛濱), 연산 충곡(連山 忠谷) 서원과 의성 충열사(義城 忠烈祠) 영월 창절사(寧越 彰節祠) 등에 배향되었다. 시호는 본래 절의(節義)였으나 후에 충경(忠景)으로 개시(改諡)되었다. 시조(時調) 1수가 가곡원류(歌曲源流)에 전한다. 숙모전 서무(西廡)에 배향되었다.

西山公 柳自湄

(生 ? ~ 世祖8년·1462)

호는 서산(西山), 본관은 문화(文化), 기주현감 함(基州縣監 洽)의 아들로, 류성원(柳誠源)과는 12촌 형제간이다.

문종(文宗) 원년(1451) 문과(文科)에 급제, 여러 관직을 거쳐 단종조(端宗朝)에 사헌부감찰(司憲府監察)로 재직 중, 을해(乙亥:1455)에 수양대군(首陽大君)이 왕위를 찬탈하자, 즉시 관직을 버리고 해주(海州) 수양산 신광사로 들어가 자취를 감추었다. 이듬해 사육신(死六臣) 등이 노륙(拏戮)을 당할 때 성삼문(成三問)의 손녀를 몰래 데려다 유모를 가려 길러 장성한 후 막내 자부(子婦)를 삼았다. 만년에 양주(楊州) 서산으로 옮겨 임종에 아들들에게 유언하기를 “치상(治喪)에 부도법(浮屠法)을 쓰지 말라. 그리고 내가 임금을 위해 죽지 못했으니 선인(先人)의 묘 곁에 장사하지 말 것이며, 묘비에 너희들로 인한 추은관직(推恩官職)을 쓰지 말라.” 하였다.

도암 이 재(陶菴 李緯)는 공의 묘표를 지어 이르기를 “만약 공을 일시에 드러나게 했더라면 청한자(淸寒子 : 金時習)로 더불어 마땅히 한가지로 전해졌으리라.” 하였고, 도곡 이의현(陶谷 李宜顯)은 공의 전을 지어 이르기를 “절의가 묵태(墨胎 : 伯夷 叔齊)와 짝할 분으로 열경(悅卿 : 金時習)이 가장 우뚝한데, 공을 이끌어 그에 견주리니 이 평론이 가히 이어지지라.” 하였다.

양산 칠현사(梁山 七賢祠)와 광산 덕림사(光山 德林祠)에 봉향하고 있다. 숙모전 서무(西廡)에 배향되었다.

柳氏記事 誤記 訂正 요청

문화류씨대종회

(우)301-141 대전 중구 유천동 301-43 전화 042)582-0772/FAX 042)582-0779 / 담당자 사무총장 류 지원

문서번호 : 문류대종 08-18호

시행일자 : 2008년 9월 1일

수 신 : 한국학중앙연구원

제 목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오류 정정 및 누락 보완요구

1. 위원에서 발간한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우리나라 국가적 문헌으로 근세에 이르러 그 질과 양에서 국내 초유의 대작이요 역작입니다. 이같이 거창하고 훌륭한 사업으로 민족문화창달을 위하여 노고하시는 위원관계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함과 아울러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2. 위원에서 이미 많은 문헌을 고증하여 기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본의 아니게도 智者千慮必有一失, 곧 슬기로운 사람도 많은 생각중에 간혹 실수가 있다는 옛말과 같이 오류처가 있는 것 같아 외람되이 말씀 드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저희 대종회에서는 특히 문화류씨 등재인물에 대해서 숙독하고 고찰하였습니다. 이는 현세는 물론 후세를 위하여 사실을 바르게 전하고자 하는 사명감에서이오니 선처하여 주시기 간절히 바라마지 않습니다.

- ㄱ. 오류처를 페이지 순으로 나열하였습니다.
- ㄴ. 누락처를 출처문헌을 동봉합니다.
- ㄷ. 부모의 기록이 있고 없고 일률적이지 않아서 부기하였습니다.

※ 금년 저희 대종회에서 세보를 편간하는 한편 총목권에 선세인물의 사적을 게재하였습니다.
지난 6월 귀회에 세보 1질을 기증, 우송하였아오니 이를 참고, 보완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혹 교정의 종람을 허락하신다면 방문하여 지시대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文化柳氏大宗會長 柳 浩 倓

姓名	世譜	頁	總目	訂正內容
류건영(柳健永)	18	477	987	<u>본관은 문화(文化)로 봉묵(琫默)의 아들이다.</u>
류 경(柳 璈)	1	4	162	<u>손자이고, 좌복야 택(左僕射 澤)의 아들이다.</u>
류경천(柳擎天)	2	144	880	
류계문(柳季聞)	1	14	281	
류계조(柳繼祖)	1	45	258	
류공권(柳公權)	1	2	128	<u>6세손이요, 소감 총(寵)의 아들이다.</u>
류공량(柳公亮)	1	79	586	<u>호는 하담(荷潭)이다.</u>
류 관(柳 寬)	1	12	215	<u>정당문학 공권(公權)의 6대손이며,</u>
류 관(柳 灌)	1	222	557	
류광렬(柳光烈)	16	846		<u>본관은 문화(文化)니 문흥군 사원(文興君 思瑗)의 후예로 인환(寅煥)의 아들이다.</u>
류구징(柳龜徵)	1	513	775	<u>현감 운(貫)의 아들이다.</u>
류기상(柳基常)	17	79	986	<u>1787(정조 11)~1852(철종 3) 1849년에 삼도수군통제사로 나갔다가</u>
류 달(柳 達)	2	757		<u>1602(선조 35)~? 본관은 문화(文化) 좌랑 사경(佐郎 思敬)의 서자이다.</u>
류담년(柳聃年)	1	95	350	<u>증손이요, 감찰 환(皖)의 아들이다.</u>
류담후(柳譚厚)	1	460	761	<u>현령 환(管)의 아들이다.</u>
류대원(柳大源)	11	339	950	<u>아버지는 진태(鎭台)이며,</u>
류덕중(柳德中)	1	513	895	
류 도(柳 棹)	2	438	723	<u>김한성사 원현(元顯)의 8대손으로</u>
류 돈(柳 墩)	1	30	188	<u>1274(원종 15)~1349(충정왕 1)</u>
류동수(柳東秀)	1	264	658	
류동열(柳東說)			1009	<u>문과 중정(滄楨)의 아들이다.</u>
류득공(柳得恭)	10	335	933	<u>1748(영조 24)~1807(순조 7) 사인(士人) 춘(璿)의 아들이다.</u>
류 량(柳 亮)	1	46	308	
류명립(柳命立)	2	66	807	<u>자는 낙부(樂夫)</u>
류몽정(柳夢鼎)	1	75	500	
류 발(柳 發)	1	538	905	
류백승(柳百乘)	2	501	820	
류 봉(柳 葦)	1	141	624	<u>1546(명종 1)~1604(선조 37)</u>
류봉서(柳鳳瑞)	1	370	842	
류봉휘(柳鳳輝)	1	371	8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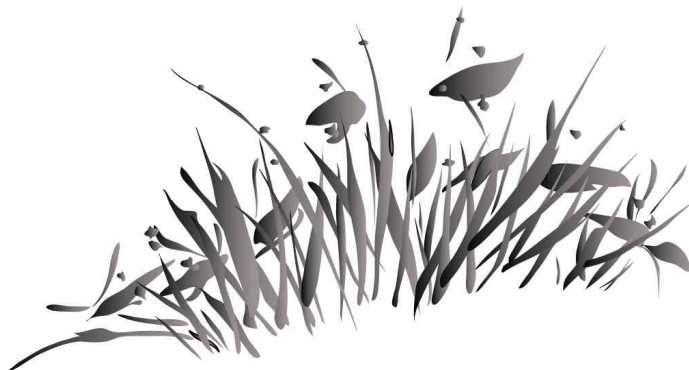
姓 名	世譜	頁	總目	訂 正 內 容
류 사(柳 泗)	1	33	325	
류사눌(柳思訥)	1	10	270	<u>전농정(典農正) 임(臨)의 아들이며,</u>
류사온(柳思溫)	1	652	896	
류사원(柳思瑗)	1	216	641	자는 경오(景悟), 사마시를 거쳐 <u>1585년 문과에 급제, 승문원에 보직되고</u>
류 상(柳 瑞)	2	234		<u>1643(인조 21)~1723(경종 3) 관찰사 경집(景緝)의 아들이다.</u>
류상렬(柳相烈)	16	142	1006	<u>1886(고종 23)~1923</u> 자는 양좌(良佐), 본관은 문화(文化) 정숙공 정현(貞肅公 廷顯)의 후손으로 근엽(根燁)의 장자인데 백부 근민(根敏)에게 출계하였다.
류상운(柳尙運)	1	370	740	
류 서(柳 漱)	1	32	320	지중추원사 은지(殷之)의 아들이다. 문천군(文川君)에 봉하여졌다.
류성오(柳誠吾)	1	370	666	
류성원(柳誠源)	1	122	355	호는 낭간(琅玕) 집현전교리였던 <u>류성원만이</u> 혼자
류세장(柳世章)	11	963		
류 수(柳 洙)	1	33	321	지중추원사 은지(殷之)의 아들이다.
류수원(柳壽垣)	1	375	890	
류 순(柳 洵)	1	143	398	
류승인(柳崇仁)	1	164	633	<u>1565(명종 20)~1592(선조 25) 조선 중기의 무신, 본관은 문화(文化)로 빈(濱)의 아들이다.</u>
류 승(柳 陞)	1	4	179	어머니는 평양군부인 단양장씨(平壤郡夫人 丹陽張氏)로 낭장 세의(郎將 世儀)의 따님이다.
류시발(柳時發)	2	266		<u>1595(선조 28)~1655(효종 6) 손자이며, 순릉참봉 담(順陵參奉 聃)의 아들이다.</u>
류 옥(柳 沃)	1	117	440	
류 운(柳 雲)	1	177	469	
류 위(柳 津)	1	96	515	<u>1548(명종 3)~1595(선조 28) 직장 충록(直長 忠祿)의 아들이다.</u>
류인길(柳寅吉)	1	185	635	1554(명종 9)~? 아버지는 참봉 언(濩)이며, [49세의 나이로 죽었으며 시호는 문청(文淸)이다.]삭제

姓 名	世譜	頁	總目	訂 正 內 容
류자명(柳子明)	20	675	971	1894(고종 31)~1985 본관은 문화(文化)니 충청공 량(忠景公 亮)의 후예로 종근(種根)의 아들이다.
류자미(柳自湄)	1	132	359	?~1462(세조 8) 처음에는 해주(海州) 수양산(首陽山) 신광사(神光寺)에 있다가 만년에는 양주(楊州) 서산(西山)으로, 성삼문(成三問)의 손녀를 데려다, 1434(세종 16)에 그린 그림이다. 이 그림은
류자신(柳自新)	1	129	610	
류 전(柳 堧)	1	149	532	
류정수(柳廷秀)	1	221	480	1483년 식년 문과에
류정현(柳廷顯)	1	41	247	침의중찬(僉議中贊) 경(璲)의 현손이며 문화군진(鎭)의 아들이다.
류 주(柳 澍)	2	82	705	호 청현(淸軒), 중번(重蕃)의 아들이다. 영남으로 내려가 살다가 진주에서 죽었다.
류주현(柳周鉉)	12	567		본관은 문화(文化)니 서산 자미(西山 自湄)의 후예로 재하(在夏)의 아들이다. 1973년 신태양사에서 <<류주현역사소설대전집>>을 간행하였다.
류중룡(柳仲龍)	1	237	654	아버지는 증승지 유춘(贈承旨 有春)이며
류중림(柳重臨)	2	236		1705(숙종 31)~1771(영조 47) [호는 문성(文城)]삭제 상(瑞)의 아들이다.
류지명(柳志明)	17	210	1012	1882(고종 19)~1909 본관은 문화(文化)니, 충경공 량(忠景公 亮)의 후예로 홍렬(洪烈)의 아들이다.
류지선(柳智善)	1	151	459	자는 명중(明仲), 생원 연(生員 演)의 아들이다.
류진산(柳珍山)	5	456		
류 즘(柳 攄)	2	433	717	본관은 문화(文化)
류차달(柳車達)	1	1	112	고려 태조 때 군량수송에, <<문화류씨 족보>>에 의하면 문화류씨(文化柳氏)의 시조가 되었다고 한다.
류 택(柳 澤)	1	4	155	경(璲)의 아버지이다. 명종(明宗)때 과거에 급제하고,
류팽로(柳彭老)	1	165	541	1554(명종 9)~1592(선조 25)
류 하(柳 河)	1	219	375	현감 흡(縣監 洽)의 아들이다.

姓名	世譜	頁	總目	訂正內容
류형원(柳馨遠)	1	538	777	
류효립(柳孝立)	2	59		
류희량(柳希亮)	2	69	702	
류희림(柳希霖)	1	198	476	현령(縣令) 복룡(伏龍)의 아들이다. 3등에 책록되어 문양군(文陽君)에 봉하여졌다. [시호는 문양(文陽)이다]삭제
류희분(柳希奮)	2	66	700	자는 형백(亨伯)
류희서(柳熙緒)	1	149	630	영의정 전(塏)의 아들이다.

本貫 誤記 訂正

姓名	世譜	頁	總目	本貫 誤記 訂正
류공진(柳拱辰)				본관은 <u>晉州</u>
류관현(柳觀鉉)				본관은 <u>全州</u>
류 기(柳 沂)				본관은 <u>瑞山</u>
류 달(柳 達)	2	757		본관은 <u>文化</u>
류돈식(柳敦植)				본관은 <u>晉州</u>
류병우(柳秉禹)				본관은 <u>高興</u>
류 염(柳 琰)				본관은 <u>晉州</u>
류 영(柳 潐)				본관은 <u>晉州</u> 공신 <u>順汀</u> 의 조카
류조인(柳祖訥)				본관은 <u>晉州</u>
류 즘(柳 楫)	2	433	717	본관은 <u>文化</u>



本貫誤記 訂正要請에 따른 證憑文獻

- 류공진(柳拱辰)** : 본관은 晉州. 朝鮮 宣祖 16년(癸未:1583)에 文科에 급제, 承旨를 지냄.
 ※參考文獻 : 國朝榜目 晉州柳氏世譜
- 류관현(柳觀鉉)** : 본관은 全州, 安東 水谷 출신으로 朝鮮 英祖 11년(乙卯:1735)에 文科에 급제, 參知를 지냄. 공의 玄孫 致明은 호 定齋니 純祖 5년(乙丑:1805) 文科에 급제, 관직이 兵曹參判에 이르고 儒學者로서 많은 著書가 있음.
 ※參考文獻 : 國朝榜目, 全州柳氏大同譜
- 류기(柳沂)** : 본관은 瑞山, 朝鮮 太宗 2년(壬午:1402)에 11월에 全羅道觀察使에 제수되고 그 후 여러 관직을 거쳐 7년(丁亥:1407)에 瑞寧君에 封君됨, 공은 高麗 恭愍王 廟庭에 配享된 文僖公 思庵 柳淑의 손자임, 朝鮮 초 學者인 泰齋 柳方善은 공의 아들임.
 ※參考文獻 : 朝鮮王朝實錄, 泰齋先生行狀
- 류달(柳達)** : 본관은 文化, 朝鮮 宣祖 38년(乙巳:1605)에 文科에 급제, 佐郎을 지낸 柳思敬의 庶子(舊譜)임. 참고문헌이 별로 없고 몇 대 지내어 絶孫됨.
 ※參考文獻 : 文化柳氏世譜
- 류돈식(柳敦植)** : 본관은 晉州, 高麗 高宗 4년(丁丑:1217) 8월 癸亥日에 崔忠獻이 啓奏하기를 『後軍兵馬使 柳敦植이 賊兵을 만나 머뭇거리며 싸우지 않았으니 敦植의 軍內 제반 將軍의 職責을 罷職시키고 終身도록 任用하지 말도록 청합니다.』 하였다. 왕이 그 청대로 따랐으나 敦植이 忠獻의 甥姪이 되기 때문에 赦免되었음.
 ※參考文獻 : 高麗史世家篇, 晉州柳氏世譜 文獻錄
- 류염(柳琰)** : 본관은 晉州, 安簡公 惠孫의 長子임, 朝鮮 世宗 때 清白吏로 관직이 吏曹判書에 이르고 諡號 文簡임.
 ※參考文獻 : 典故大方, 晉州柳氏世譜
- 류영(柳潑)** : 본관은 晉州, 南原府使 柳添汀의 長男으로, 朝鮮 中宗 때 左議政인 柳溥의 長兄이며, 領議政 柳順汀의 長姪임. 中宗反正에 功을 세워 靖國功臣 4등으로 晉陽君에 封해짐.
 ※參考文獻 : 典故大方, 晉州柳氏世譜
- 류조인(柳祖訥)** : 본관은 晉州, 공의 諱는 祖訥, 字는 訥之, 號는 泛愛, 朝鮮 中宗 때 學者인 西峰 柳藕의 아들임.
 ※參考文獻 : 韓國民族文化大百科辭典, 晉州柳氏世譜
- 류즙(柳楫)** : 본관은 文化, 仁祖 때 儒賢으로 沙溪 金長生의 門人, 나라에서 世子侍講院 諮議로 불렸으나 病으로 나가지 못하고 졸하니 孝宗 때 司憲府持平의 贈職이 내렸음. 尤菴 宋時烈이 공의 墓碣銘을 지음.
 ※參考文獻 : 宋子大全, 典故大方, 文化柳氏世譜

宗中 有功者 功勞表彰



柳南正



柳朱桓



柳箕桓

근래 우리 문화류씨의 종사(宗事)에 공헌이 현저한 류남정(柳南正：譜名 柳寅正)씨와 류주환(柳朱桓)씨, 그리고 류기환(柳箕桓)씨의 공로를 기리고자 지난 2007년 12월2일(음 10월23일) 추계 정기총회 시에 앞서 두 분에게 공로표창장을 수여함과 동시에 부상으로 금 일봉을 각각 전달하고, 2009년 4월 9일(음 3월14일) 뒤의 한분에게 감사패를 수여하였다.

류남정씨는 충경공(忠景公：亮)의 막내아드님 소윤공(少尹公：漢生)의 제2자 합천공(陝川公：綸)의 후예로서 경남 남해 출신인데 중년에 대전(大田)으로 이거한 분이다. 근래 80 노구(老軀)를 이끌고 우리 류씨의 성자(姓字) 「류」의 국문표기를 실현하고자 단신으로 갖은 난관을 무릅쓰고 수년동안 법정투쟁 끝에 마침내 2006년 6월 승소함으로써 우리 범 류씨의 반세기에 걸친 숙원사업을 성취하였다.

功勞表彰狀

大田廣城市 東區 板岩洞 柳南正

貴宗께서는 柳氏 姓字「류」의 國文表記를 實現하고자 單身으로 갖은 難關을 무릅쓰고 數年 동안 法廷鬭爭 끝에 마침내 勝訴함으로써 우리 汎柳氏 半世紀의 宿願事業을 成就하셨습니다. 이는 이 事業의 最初 實行者로서 그 崇高한 至誠을 致賀하여 이에 表彰하고 副賞을 드립니다.

西紀 2007년 丁亥 陰 10월23일

文化柳氏大宗會長 柳浩倓

功勞表彰狀

忠南大學校 教授 柳朱桓

貴宗께서는 평소 慕先敦宗의 信念이 透徹하여 奔忙한 教務의 餘暇로 先世의 文獻을 篤實히 探究, 宗報에 投稿하고 더욱이 인터넷을 통하여 文化柳氏에 대한 多様な 內容의 常識을 掲載, 우리 宗親의 啓導는 물론 國內外에 弘報하는 등 그 功勞가 顯著하여 宗親의 龜繼이 됨으로 그 崇高한 至誠을 致賀하여 이에 表彰하고 副賞을 드립니다.

西紀 2007년 丁亥 陰 10월23일

文化柳氏大宗會長 柳浩倓

류주환씨는 충경공(忠景公 : 亮)의 맏 아드님 전사령공(典祀令公 : 佐)의 후예로서 전북 완주군 운주면 산북리 출신인데 일찍이 학문을 성취하여 현재 충남대학교 교수로 재임중이다. 평소 모선돈종(慕先敦宗)의 신념이 투철하여 분명한 교무에도 불구하고 선세의 문헌을 독실히 탐구하여 종보에 투고하고 더욱이 인터넷을 통하여 문화류씨에 대한 다양한 내용의 상식을 게재, 우리 종친을 계도함은 물론 국내외에 홍보하고 있다. 특히 근래 우리 선계에 대한 차씨들의 망발에 대하여 공사 문헌을 탐구 분석, 그 실상을 공개하고 외처에서 쇄도하는 무수한 질의에 응답하는 등 그 공로가 지대하다.

류기환씨는 정숙공(貞肅公 : 廷顯)의 둘째 아드님 감사공(監司公 : 章)의 후예로서 충북 옥천군 군북면 추소리 출신인데 일찍이 부친을 따라 일본으로 건너가 사업으로 성공한 재일교포이다. 몸은 비록 해외에 거주하면서도 송조목족의 신념이 탁월하여 고향의 크고 작은 위선사업에 기여함이 많았으며, 특히 황해도 문화 구월산에 모셔있는 시조 대승공

感謝牌

柳箕桓

貴宗께서는 海外에 居住하면서도 卓越한 崇祖睦族의 信念으로 故郷의 大小爲先事に 寄與하시고, 특히 黃海道 文化 九月山 始祖 大丞公의 墓所를 南北分斷 60년만에 最初로 省掃하여 많은 後孫들의 念願을 成就하셨습니다. 이는 우리 宗親社會의 龜繼이 됨으로 그 高潔한 精神을 기리고자 大宗會의 總意로 이 牌를 드립니다.

2009년 4월 9일

文化柳氏大宗會長 柳浩倓

의 묘소를 탐방하고자 갖은 노력 끝에 본인과 아들 및 측근들을 거느리고 남북 분단 60년만인 2008년 9월, 시조의 묘소를 성소하고 간략한 제사를 모시는 한편 묘역 및 비석 등을 촬영하여 돌아옴으로써 30만 문화류씨 후손들의 염원을 성취하였다. 그리고 금년에 재차 방북하여 묘역을 정화하고 비석 등 석의를 제대로 갖추하고자 계획하고 있으나 시국의 불안정으로 아직 계획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源派錄 削除辨

源派錄削除辨

今吾文化柳氏之修譜也依其編修委員會之決議若大宗會之認准削除其源派錄惟其初載己已譜之原文因影印存之於故處蓋削因其不經而存因其為據也是自鮮末載於吾世譜文獻篇而記之濫於虛言之甚於煩自上至下數千年間之事之蹟見之如見昨日事聞之如聞今朝蹟假令氣授血禪之雲裔見之尚多疑其偽本者是豈無以者哉第此窮究之發端者去丁丑延安車氏就大田安永公園之一隅豎其由來碑而碑中有文據源派錄及吾柳者曰柳氏假姓始祖大丞公柳車達改車海二世佐尹公孝金為柳氏始祖以外詆毀柳氏等諸說有如武叔之毀孔子矣且甲申渠刊其譜就其碑文以中日英獨佛五個國語譯焉釋焉登其篇首近而頒諸域內遠而播諸海外思易一世之耳目其心之邪謀之拙可哂其不知量也然而此猶不足至吾永樂嘉靖兩譜亦拳焉踰焉斥無餘地比諸東譜嚆矢之稱何其天壤之相懸也目不可見耳不可聞而巧言過於鸚鵡邪意近於魍魎彼指鹿為馬不足為奸也於是乎同年八月吾大宗會急開對策會議彼之肆兇日甚一日勢不可仍存而爛商之餘衆論歸一曰車門主張正為史實則宜當承服可也若不然則徹底對應可也竊念為人子孫者見人誣祖而不知辨焉則有子有孫將何所用耶止人凌辱立證最善廣蒐公私文獻之有關於吾柳所自出者深層探究精密分析為文一篇登諸宗報實是一為通告宗人之資一為條辨車擾之證也然決不偏於感情惟立論理以記述者若證憑文獻同封郵送而促求是正厥後數次會議綜合討論則所謂車某雪冤記江譜源派錄全無史證而無乃我先世浸入慕華思想盲信其說後人亦盲從先緒於是乎渠乘其時且捏且曲以一加十以十增百者也竊念改名變姓數千年無婦獨身傳百世者烏曰可有之事耶至于今世間所知柳車同祖異姓之說實為虛誕也訛傳也今欲禦侮實莫先於削除此錄且況聖人曾有疑者闕之之訓吾於今日禦侮之時何不從聖人闕疑之言耶尤有明證者近聞嶺南大學校有李樹健教授以史學見重一世其論文曰朝鮮時代身分史關聯資料造作者出現而其中有車某雪冤記即其後孫頤齋三父子共著云以此觀之源派錄之除不除不待予貢之辨而自決為吾大丞後孫者在自省之地柳車同源之語漸絕於後人之口聖人闕疑之戒之義烏可曰輕之哉毋論彼此史實歪曲則不免辱先欺後之譏惑世誣人之罪益慎益戒也已車擾之發十年丁亥遂破兩姓同席講睦之會各歸其本來之所氣之爽兮如霖得晴心之快兮如早得雨此爽此快事當永傳惟願諸宗共勵其志共殫其力使今日削除此文之義繼守而勿惰焉

금번 우리 文化柳氏의 族譜를 編修함에 있어 編修委員會의 決議와 大宗會의 認准에 의하여 源派錄을 削除하고 오직 그 최초에 실린 己巳譜의 原文을 그대로 影印하여 예전 그 자리에 保存하는 바, 이를 削除함은 그 記錄이 經緯에 맞지 않은 때문이요, 保存하는 것은 그 記錄을 근거로 삼기 위함이다.

이는 朝鮮 말엽부터 世譜 文獻篇에 실려 있었는데 記錄이 虛構함이 넘치고 말이 번거로움이 심하여 위로부터 아래까지 數千年間 모든 事蹟을 보기가 어제 일을 보는 것 같고 듣기가 오늘 아침의 事蹟을 듣는 것 같은 바, 假令 氣血을 받고 태어난 후손들이라도 오히려 그를 僞本으로 의심이 많겠으니 이 어찌 까닭이 없겠는가?

이를 깊이 研究하게 된 發端은 지난 丁丑(1997)년에 延安車氏들이 大田 安永公園의 한 모퉁이에 그들의 由來碑를 세운 바, 碑石 안에 源派錄에 의거하여 우리 柳氏를 貶毀한 글이 있는데 우리 柳氏를 假姓이라 이르고, 始祖 大丞公 柳車達을 車海라 고치고, 二世 佐尹公 孝金을 文化柳氏始祖라 하고, 이 밖에 柳氏를 헐뜯는 등 여러 말은 叔孫武叔이 孔子를 貶毀한 것과 같았다.

또 甲申(2004)에 그들이 族譜를 刊行하면서 그 由來碑文을 中日英獨佛語 등 五個國語로 翻譯 解釋하여 그 책 머리에 올려, 가까이는 域內에 頒布하고 멀리는 海外에 傳播하여 온 세상의 耳目을 바꾸고자 한 바, 그 心地의 邪惡함과 謀事의 拙劣함은 그 分數를 헤아리지 못한 것으로 可笑로울 뿐이다. 그리고 이 것으로도 부족하여 우리 永樂 嘉靖

兩譜를 또한 주먹으로 치고 발로 짓밟듯 餘地 없이 排斥한 바, 海東 族譜의 嚆矢라 일컫는 것과 비교해 볼진대 어찌 그 하늘과 땅처럼 서로 다른가? 눈으로 가히 볼 수 없고 귀로 가히 들을 수 없는 바, 그 工巧로운 말이 앵무새보다 지나치고 邪惡한 뜻이 도깨비에 가까워 저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 하는 것보다 더 奸邪하였다.

이에 同年 八月에 우리 大宗會에서 긴급히 對策會議를 열어 저들의 放恣 凶惡함이 날로 심하여 形勢上 그대로 둘 수 없다 하고, 爛商 討論한 끝에 여러 議論이 하나로 모아져 이르기를 “車門의 주장이 정녕 史實이라면 마땅히 承服하는 것이 옳거니와 만약 그렇지 않다면 철저히 對應하는 것이 옳다.”는 것이었다.

곰곰 생각건대 사람의 子孫된 자로서 남이 자기 할아버지를 誣妄하는 것을 보고도 辨明할 줄 모른다면 아들을 두고 손자를 둔들 장차 무엇에 쓰겠는가? 남의 凌辱을 中止시키는 데는 證據를 세우는 것이 最善인 바, 公私家文獻으로 우리 柳氏의 由來와 관련이 있는 것을 널리 蒐集, 深層 探究하고 精密 分析하여 글 한편을 만들어 宗報에 登載하였으니 실로 이는 한편으로는 宗人들에게 두루 알리는 자료를 삼고, 한편으로는 車門의 騷擾에 대한 조목조목 分別의 증거를 삼기 위함이라, 그러나 결코 感情에 치우치지 않고 오직 論理를 세워 記述한 것과 證憑文獻을 同封郵送하여 是正을 促求하였다.

그 후 수차 회의에서 綜合討論한 바, 소위 車某雪冤記와 江譜源派錄은 전혀 歷史的 證

據가 없는 것인데 오히려 우리 先世에 慕華思想에 젖어 들어 그 말을 盲信하고 後人들 또한 先人의 遺緒라서 盲從함으로 이에 이르러 저들이 그 時期를 틈 타서 또 捏造하고 또 歪曲하여 一을 十으로 더하고 十을 百으로 불린 것이다.

곰곰 생각건대 이름을 고치고 姓을 바꾸기 數千年 동안 婦人도 없이 獨身으로 百代를 전한다는 것이 어찌 있을 만한 일이라 이르겠는가? 지금에 이르도록 世間에서 아는 柳氏와 車氏가 同祖異姓이라는 말은 실로 근거 없는 거짓이요 잘못된 傳說이다.

이제 侮辱를 막고자 함에 있어 실로 이 기록을 削除하는 것보다 于先할 것이 없고, 또한 聖人도 일찌기 疑者闕之之訓이 있다, 곧 의심되는 것은 빼라는 敎訓이 있었는데 우리가 오늘날 侮辱를 막는 때에 이르러 어찌 聖人이 이른바 의심되는 것은 빼라는 말씀을 따르지 않겠는가?

더욱이 분명한 증거가 있는 바, 근래 들으니 嶺南大學校에 李樹健 教授가 있어 史學으로 一世의 推重을 받은 분으로 그 論文에 이른 바 「朝鮮時代 身分史 關聯 資料造作」이란 글이 出現하였는데 그 가운데 「車某의 雪冤記는 그 후손 頤齋 三父子, 곧 頤齋 軾과

그 아들 五山 天輅와 滄洲 雲輅의 共著라.」 이른 말이 있다.

이로써 불진대 源派錄을 削除하고 削除하지 않음은 事理 판단에 밝았던 孔子의 弟子 子貢의 辨明을 기다리지 않고도 저절로 결정될 것인 바, 우리 大丞公의 후손된 자 스스로 反省하는 자리에 있어 柳氏와 車氏가 근원이 한가지라는 말은 점점 後人의 입에서 없어질 것이니 聖人의 의심되는 것은 빼라는 警戒의 意義를 어찌 가볍게 이르겠는가?

저들이나 우리를 논할 것 없이 史實을 歪曲 할진대 先祖를 욕되게 하고 後孫을 속인다는 譏弄과 세상을 迷惑시키고 사람을 속이는 罪를 면하지 못할 것이니, 더욱 조심하고 더욱 경계해야 할 것이다.

車門에서 騷擾를 일으킨 지 10년만인 丁亥年(2007)에 드디어 兩姓이 한 자리에서 親睦을 다지던 모임이 깨지고 각기 본래의 處地로 돌아간 바, 기분의 상쾌함이 장마에 개인 날을 얻은 것 같고, 마음의 통쾌함이 가뭄에 비를 얻은 것 같다. 이 상쾌하고 유쾌함이 마땅히 길이 전할 일로서 오직 원하는 바, 여러 宗親들은 함께 그 뜻을 힘쓰고 함께 그 힘을 다하여 오늘날 이 글을 削除하는 意義를 계속 지켜 게을리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朝鮮時代 身分史 關聯 資料造作」

李樹健 李樹奐 著

1. 머리말
2. 姓貫의 유래와 조선후기 姓貫의식의 변화
3. 姓貫·家系·人物 관련 자료의 위조와 僞書
4. 맺음말

1. 머리말

역사학은 첫째 史實에 입각해야 하며, 그 사실은 정확한 사료에 근거해야 한다. 아무리 좋은 이론과 방법을 구사했다 하더라도 그 근거자료가 거짓이거나 조작되었다면 그 주장이나 결론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올바른 史論은 정확한 사실에서 도출되어야 하며, 정확한 사실은 또한 객관적이고 진실한 史料에 근거해야 한다. 역사상 의문점은 더 고증을 위해 후세에 전해도 좋지만, 거짓이나 명백한 잘못은 전해져서는 안된다 「疑固可傳 訛不可傳」이라던지 「盡信書 不如無書」라는 孟子의 말씀과 같이 眞僞와 虛實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文獻 자료란 위험하기 짝이 없다. 따라서 역사 연구에 있어서 史料 조작에 대한 검증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된다.

사건 조작과 기록 조작은 경제사나 문화사 분야 보다는 정치와 신분사 분야에서 자주 나타나는 현상이다. 조선 왕조는 性理學적 義理와 名分 및 門閥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숭상했기 때문에 王朝 교체기와 王位 쟁탈전

또는 정치 세력간의 정권쟁탈전에 있어서 왕위의 正統성과 嫡庶·綱常·忠逆·名分 문제가 제기되었는가 하면 씨족이나 문중 단위에서는 門閥意識과 崇祖思想이 양반 사회에 만연 되면서 그러한 문제와 관련된 사건 또는 기록 조작의 사례가 자주 일어났다. 本稿는 이와 관련된 조선시대 역사 속의 기록(문자, 문서) 조작의 사례를 신분사 문제와 관련하여 개관해 보고자 한다.

조선시대 지배계급인 兩班은 성과 본관, 가계와 조상 및 족보에 대해서는 유난히 관심이 높았고 또 양반의 신분은 고귀한 혈통과 名祖·顯祖에 있다고 간주하였기 때문에 거기에 손색이 있는 자들은 그러한 자료를 자기들의 목적에 맞게 조작하거나 개변시켜 나갔다. 그 결과 兩班이 되기 전의 자료, 즉 非兩班 시절의 자료는 없애거나 후세에 남기지 않고 양반으로 성장한 뒤의 자료만 후대에 전해졌던 것이다. 따라서 현재 역사가 접할 수 있는 신분사 관련 자료 가운데 15세기 이전 자료는 극히 零星한 반면 16세기 이후의 자료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입신 출세하여 부모를 현양하는 것을 자손의 도리로 간주한 조선시대 士大夫들은 조상의 고귀한 혈통과 婚閥, 조상의 벼슬과 學行, 기타 遺德을 전기나 비문으로 남기고 그것을 다시 族譜에 기재하는 것을 효도로 간주했기

때문에 문집과 실기 또는 家乘과 族譜가 편찬될 때 조상의 世系를 소급하고 관직을 과장하고 名祖를 내세우는 풍조가 만연하였다. 조선후기 僞譜가 속출하고 조상의 업적을 현양하기 위한 僞書가 나오게 되는 것도 軍役을 면제받기 위해 양반이 되고자 한 의도에서 뿐만 아니라 양반들의 잘못된 문벌의식과 숭조사상에도 연유했던 것이다.

신분사 관련 자료의 비판에는 그 자료의 시대적 연변과정을 추적할 필요가 있다. 성리학의 의리와 명분 및 出處와 節義 문제는 고려말기와 조선전기 및 조선후기에 따라 현저한 차이가 있다. 麗末에는 아직 佛敎 사회이기 때문에 新儒學을 통치이념으로 확정한 조선전기와는 사정이 달랐고 光海 정권의 패륜 행위와 중립적인 외교책을 구실로 仁祖反正을 단행한 17세기부터는 또한 조선전기와 사정이 달랐다. 즉 仁祖反正과 丙子胡亂 이후의 시대적 분위기와 절의 출처 명분관념으로 고려말기를 보려는 데서 杜門洞 七十二賢 문제와 같은 조작된 사실이 나오게 되었던 것이다.

2. 姓貫의 유래와 조선후기 姓貫의식의 변화

한국의 姓과 本貫에 관한 가장 구체적인 모습은 「世宗實錄地理志」(이하 「실지」라 함)의 각 邑 성씨조에 담겨져 있다. 그러나 이 자료는 韓末까지 민간에 공개되지 않고 그 대신 「실지」를 축약, 혼효한 「新增東國輿地勝覽」이 조선시대 성관의 기본 자료로 인식되고, 성관의식과 보첩 편찬에 유일한

전거가 되었다. 그 결과 한국성관의 원형이 상실되고 말았다.

中國式 성씨제도는 삼국시대부터 왕실·귀족순으로 수용되어 왔지만 한국적 設官 체제가 본격적으로 정착되는 시기는 고려초기였다. 후삼국시대의 격심한 사회적 변동에 따른 신분제의 재편성과정에서 太祖 王建이 반도를 재통일한 다음, 당대의 실질적인 지배세력을 대표했던 전국의 豪族을 각 출신지, 거주지별로 역관계를 고려하여 지역적·신분적재편성을 단행한 姓貫體系가 뒷날 「실지」의 성씨조로 나타났던 것이다.

그 「실지」의 각 읍 성씨조에 의거, 15세기 초에 존재했던 전국 성씨의 종류와 본관수의 姓種別 통계자료를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관상으로는 성씨가 기재된 縣 이상 州·府·郡·縣(屬縣·廢縣 포함)은 모두 544읍, 部曲은 110개, 鄉 48개, 所 49개, 莊 9개, 處 5개, 驛 7개, 戍 3개소로서 鄉·所·部曲 등은 벌써 고려후기 이래 소멸의 과정을 밟아 15세기 초에 와서는 거의 혁파되어 토착 성씨들이 流亡했기 때문에 기재된 성관이 얼마 되지 않았으나 任內로 존속했던 고려 말 이전에는 각기 土姓吏民이 있었던 것이다.

둘째, 「실지」 소재 姓數는 대략 250성 안팎이며, 姓貫 수는 土姓이 2,079. 亡姓이 565. 來姓(亡來姓)이 381. 續姓이 565. 村姓(亡村姓)이 122. 入鎭姓이 404. 入姓(亡入姓)이 332. 賜姓·投化姓이 29, 합계 4,477 姓貫이었다.

「실지」 소재 이러한 姓種들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 本貫에 의한 구분 : 州·府·郡·縣姓·鎮姓·村姓·外村姓·鄉·所·部曲·處·莊姓·驛姓·戍姓

㉡ 姓의 出自에 의한 구분 : 天降姓·土姓·次姓·人吏姓·次吏姓·百姓姓·立州後姓·立縣後姓·加屬姓

㉢ 姓의 流亡과 移動에 의한 구분 : 亡姓·亡村姓·京來姓·來姓·入姓·入鎮姓·亡來姓·亡入姓·續姓

㉣ 賜姓(賜貫)과 歸化姓에 의한 구분 : 賜姓(賜貫)·唐來姓·向國入姓·投化姓

「실지」 소재 각 성이 딛고 선 본관은 어느 구획을 막론하고 기본적인 구성단위는 村이며, 그 村은 다시 邑治(治所, 邑內)를 중심으로 내촌과 주위의 외곽촌 및 관내의 각종 임내로 구분되는데서 성의 종류도 隣里姓·百姓姓·村姓·任內姓 등으로 구분되었다.

이상과 같이 고려초기 이래 지역을 細分하여 파악했던 姓貫 체제는 여말선초의 시대적·사회적 변동에 따라 지역적인 편제와 신분구조에 획기적인 변화를 초래하였다. 즉 임내의 승격과 소속의 변동 및 소멸, 군현구획의 개편과 병합, 폐합 등 각 姓이 딛고 선 본관의 개편과 변질이 획기적으로 가해지면서 15세기 후반부터는 종래 세분된 본관이 점차 주읍 중심으로 통합되어 가는 추세에 있었다. 다시 말하면 屬縣과 村 및 鄉·所·部曲姓이 郡縣姓에 흡수되거나 동화되어 갔고 屬縣·鄉所·部曲과 독자적인 村이 소멸되듯이 그 곳을 본관으로 했던 姓氏가 이제

는 당초의 본관을 버리고 소속 郡縣姓에 흡수되거나 그 주읍을 그들의 새 본관으로 정했던 것이다. 그 결과 15세기 초까지의 성관 체제의 실상을 구체적으로 반영했던 「실지」 소재 屬縣·鄉·所·部曲·處·莊·驛·戍·村을 본관으로 했던 성씨 대부분이 그 소속 읍을 새 본관으로 하게되자 16세기 이후는 15세기까지 존속했던 각종 任內姓이나 村姓이 거의 사문화되었다. 이러한 사문화는 본관의 개편으로 인한 것이지 그 성 자체가 소멸된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한편 양반사회의 발달에 따라 문벌의식이 고조되자 미처 名祖·顯祖를 받들지 못한 僻貫들이 既成의 名門巨族에 동화되기 위하여 본관을 바꾸는 改貫, 冒貫행위를 자행한 데서 在來 姓貫의 대대적인 통폐합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德水李氏, 潘南朴氏, 杞溪俞氏, 海平尹氏, 豊山洪氏, 金氏, 柳氏 등은 이미 조선초기에 名門士族으로 기반을 굳혔기 때문에 본관의 폐합에도 불구하고 본래의 본관을 사용하였다. 이와 같이 속현 이상의 군현을 본관으로 하면서 이미 조선초기에 사족으로 성장했거나 또는 名祖 顯祖를 확보한 가문은 본관을 바꾸지 않은 반면, 그렇지 못한 군현이나 종래 鄉·所·部曲 및 村名을 本貫으로 했던 姓貫들은 당초의 本貫을 버리고 소속 주읍을 새 本貫으로 정했던 것이다.

黃州邊氏, 延安車氏, 盈德鄭氏, 驪陽陳氏, 忠州池氏, 牙山蔣氏 등은 본래 그 本貫 군현의 관내 某村姓으로서 「실지」의 각 읍 성씨 조에 기재되었던 것이 나중에 주읍을 새 本

貫으로 한 예이다. 이와 함께 賤人層의 良人化에 따라 有姓層이 격증하게 되었는가 하면, 일반 서민층은 각기 거주지에서 編戶 됨으로써 「실지」에 없던 새로운 本貫이 각 읍마다 쏟아져 나오게 되었으나 그러한 本貫들은 顯祖가 없기 때문에 끝내 유명 本貫으로 존속하지 못하였다.

17세기 이후부터 양반사회에서 稀姓과 僻貫을 멸시하는 관념이 만연되어 갔지만 조선 전기까지는 성 보다는 本貫에 따라 성망의 우열과 가계의 차등이 정해진다는 의식이 일반적이었기 때문에 改姓 보다는 本貫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경우가 많았다. 16세기 이래 士族들은 本貫이 다르다 해도 同姓은 同出於一祖(同祖：同根 의식)란 관념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僻貫의 名貫으로의 改貫은 매우 자연스럽게 진행되었고, 그러한 후대적인 改貫행위는 分貫 전의 元本貫으로 회복한다는 의미를 갖기 때문에 처벌의 대상은 되지 않았다. 이에 반해 姓은 부계 혈통을 의미하기 때문에 改姓은 곧 換父·易祖 행위로 간주하여 죄악시 함으로써 극히 드물었다고 생각된다. 조선후기 각읍 호적대장상에 나타났던 무명의 本貫들은 주로 현거주지와 일치하는 본관으로서 이들 본관은 19세기 이래 그들의 兩班化에 따라 改貫을 자행한 결과 자연히 소멸되어 갔던 것이다.

朝鮮後期에 무명의 土姓들이 기존의 大姓名門으로 改貫했던 사례를 토착성이 가장 강인했던 慶尙道와 성씨의 대종이 거의 入鎭姓으로 구성된 平安道の 예를 들어 살펴보면, 15세기와 17세기 이후 姓貫의 변화상을 엿

볼 수 있다. 「실지」에 의거하면 慶尙道の 각읍 土姓 가운데 曹氏는 15개본, 全氏는 17개본, 尹氏는 16개본, 吳氏와 白氏는 각 11개본, 黃氏는 9개본, 宋氏와 文氏는 각 8개본으로 나타나지만 17세기 이후의 士族 층에는 曹氏는 昌寧, 全氏는 天安 沃川, 尹氏는 坡平 海平, 吳氏는 海州 高敞, 白氏는 水原, 黃氏는 長水 昌原 平海, 宋氏는 恩津 冶城, 文氏는 南平 등으로 본관의 改變이 만연되어 갔다. 平安道를 비롯한 兩界 지방은 高麗 이래 朝鮮 전기까지 남부지방의 주민을 徙民入居시켜 각기 거주지 州鎭 別로 編戶, 새 본관을 주었지만, 역시 후기에 와서 문벌의식의 고조로 인해 거주지 본관을 쓰지 않고 원 출신지본관(既成의 大姓名門) 또는 다른 유명 본관을 冒稱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였다.

한편 改姓의 예를 살펴보면, 高麗 시대에는 왕이 功臣 寵臣에게 王姓을 下賜하기도 하고 王名을 피해 荀氏가 孫氏(一直孫氏)로, 昕氏가 權氏(醴泉權氏)로 改姓한 바 있으나 朝鮮 시대에는 그러한 예가 없었다. 단 개국초에 高麗 宗姓인 王氏를 改姓케 한다든지, 水丘氏(平海郡 土姓)가 丘氏로, 義昌縣 村姓인 仇氏가 昌原具氏로 改姓하는 등 그 예는 얼마 되지 않았다. 이에 반해 改貫의 경우는 앞에서 열거한 사례 외에 朝鮮후기 慕華思想의 심화로 인해 義昌(昌原) 孔氏가 曲阜로, 熊神(熊川) 朱氏 등이 新安으로 改貫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절대 다수의 僻貫 稀貫들이 16세기 이래 改貫과 冒貫을 자행한 데서 시간이 흐를수록 名祖를 확보한 家系가 증가하는

반면 名祖가 없는 성과는 격감해 갔다. 다시 말하면 僻貫 稀貫들의 改貫 冒貫이 결국 양반의 수적 증가를 가져오게 되었고 그것은 또한 족보 편찬을 더욱 조장시키게 되었다.

3. 姓貫, 家系 人物 관련 자료의 위조와 僞書

朝鮮 시대 신분사 연구에 있어서는 무엇보다 먼저 관련 자료에 대한 치밀한 고증과 비판이 전제되어야 한다. 같은 중세사회라 하더라도 고려 조선 초기 및 조선 중기로 3등분 해서 각 시기의 文獻 자료의 특징을 살펴보면 文과 質에 있어 현저한 차이가 있다. 대체로 15세기 이전의 신라 및 고려시대는 質에 비해 文이 부족하며 고려 말기에는 문과 질이 점차 균형을 유지하는 감이 있었으나 15세기 世宗朝를 중심으로 유교 교육이 숭상되고 민족 문화를 적극 개발하자 文質이彬彬한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이후 士林 세력이 정계와 학계를 장악하는 16세기 이후부터는 文이 質을 능가하는 추세였으며, 17세기 이후로 내려올수록 「文勝」의 폐단이 더욱 심해갔다. 18세기 중반을 살았던 李 灑은 門閥 숭상과 과거제도의 폐해와 함께 당시 사회적 큰 병폐의 대표적 예로 「文勝」을 거론한 바 있고 방대한 저술을 남긴 頤齋 黃胤錫도 당시 국가적인 褒忠 彰節策에 편승한 文勝의 폐해를 지적하였다.

16세기 이후부터 15세기 이전의 길박했던 文獻 자료가 「文勝」의 폐단으로 인해 당초의 자료가 시기적으로 소급되거나 관직과 학행을 과장하거나 문벌과 祖蔭을 미화하는 방

향으로 나가게 되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文集 소재 詩文이나 疏筭 通文 등도 質 보다는 量과 형식에 치중되었다. 18, 19세기 이후로 내려올수록 윤색되고 미화된 文獻자료가 마구 쏟아져 나왔고 거기에 더하여 僞造된 자료와 僞書까지 속출하게 되었다.

16세기 이래 士林世界는 지나친 慕華思想과 自國의 기존 史書 부정 태도로 인해 「三國史記」 「高麗史」 「東國通鑑」 등이 제대로 읽혀지지 않았다. 특히 鄭道傳·河崙·鄭麟趾 등 조선왕조의 개국 세력과 世祖 공신들에 의해서 不事二君의 麗末守節者의 사적과 端宗 忠臣들에 대한 기사가 누락되거나 誣罔되었다고 간주하는 여론이 만연되어 갔다.

16세기 중엽 「車原頰雪冤記」가 편찬, 유포되고 麗末의 金 澍의 節義 사실이 조작된 다든지, 18세기 이래 英祖의 開城 행차와 함께 不朝峴 立碑와 杜門洞 七十二賢 문제가 대두된다든지, 또 한 申 賢·范世東의 「華海師全」과 「華東人物叢記」와 같은 僞書들이 속출하는 것도 위와 같은 士林의 역사의식 속에서 파생되었다고 볼 수 있다.

麗末의 守節人士에 관한 이야기를 기술한 「金澍傳」과 「車原頰雪冤記」가 善山 지방을 중심으로 한 16세기 嶺南士林에 의해 널리 소개되고 읽혀진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다. 金宗直을 領袖로 한 嶺南士林派의 系譜는 麗末의 왕조교체기에 不事二朝의 절의를 지켜 국초에는 재야세력으로 밀려났던 私學派와 15세기 중엽 世祖의 왕위찬탈을 불의로 간주했던 낙향의 在地土族 또는 新進士

類가 주축이 되었다. 金宗直父子는 圃隱·治隱의 學統을 직접 전승했을 뿐만 아니라 왕조교체기에 節義를 지켰던 인사들의 사적에 대해서도 父祖와 鄉老들로부터 익히 듣고 있었다.

金宗直은 뒷날 아버지의 권고로 世祖朝에 출사했지만 그와 그 門人들은 일찍이 李孟·專·元 吳·成·聘·壽 등 端宗을 위해 충절을 지키고 있던 절의과 名士들을 歷訪하면서 世祖의 찬탈경위와 端宗의 죽음, 昭陵의 廢位에 대하여 전후 사정을 傳聞하게 되었다. 그는 「弔義帝文」과 「述酒詩并序」를 지으면서 大義 名分을 강조하였다. 그의 역사에 대한 풍부한 식견과 충절을 강조하는 史觀은 그 제자 金駟孫 權五福 鄭汝昌 李 穆 등에 영향을 주어 世祖의 찬탈과정에서 저질러졌던 각종 宮中 비사와 世祖의 의롭지 못한 조치 및 勳舊勢力들의 非理가 그들의 史草로 나타나게 되었고 그러한 史草가 결국 戊午士禍를 일으키게 하였다. 이러한 金駟孫 등의 史草들은 주인공의 죽음과 함께 소각 당했지만, 그 史草에 담긴 내용들은 中宗反正 후 편찬한 「燕山君日記」에 실리는 한편, 戊午士林의 의식을 계승한 16세기 사림파에 의하여 野史로 후대에 전해질 수 있었다.

朝鮮王朝는 전기와 후기를 막론하고 역사가 편찬될 때 편찬 당시 어느 세력이 집권했느냐에 따라 내용이 좌우되는 경우가 많았다. 동서분당 이래 역대 「실록」은 당시 집권당에 의해 주도되었기 때문에 史筆의 공정성 문제가 야기되어 정권이 교체될 때 수정 또는 개수하는 경우가 있게 되었다. 朝鮮前

期도 二大 정치 세력인 勳舊派와 士林派가 대치하였으니 역시 공정성이 문제되었다. 조선 건국 후 편찬에 착수한 「高麗史」가 50여년이 지난 뒤에 刊頒 되었지만 그것을 보는 시각은 王朝 교체기에 執權士大夫나 不事二君의 在野士大夫냐에 따라 다르며 世祖의 찬탈에 대한 시각도 훈구파와 사림파에 따라 판이하였다. 왕조 교체기와 世祖의 찬탈과정을 편찬한 주체는 훈구파이지만 16세기 중반 이후부터 사림파가 대세를 주도하는 입장에 서게 되자, 훈구 세력에 의해 편찬되고 정리된 기존의 역사를 새로 인식하고 재평가하려는 데서 그 정도가 지나쳐 僞書와 조작된 사실이 나오게 되었다.

또한 왕조교체기와 세조찬탈기도 시기상 약 60여년의 간격이 있지만 유교적인 의리 명분론으로 두 시기를 대비해 보면 엄청난 차이가 있다. 前者는 儒佛 교체기로서 충절 의식이 아직 확립되지 않았는데 반해 後者는 太宗·世宗·文宗朝의 崇儒主義와 忠孝·綱常의 관념의 심화로 인해 世祖의 찬탈을 쉽게 용인하려 하지 않은데서 生·死六臣과 같은 많은 충절인사가 나오게 되었다. 사림파의 이러한 역사의식은 마침내 麗末의 왕조 교체기에도 世祖의 찬탈 때와 같이 불사이군의 충절인사가 수없이 많았을 것이라는 가정 아래 「車原頰雪冤記」와 杜門洞 72현 문제가 나오게 되었던 것이다.

「車原頰雪冤記」에 의하면 車·柳 양 姓貫은 高麗 太祖의 功臣인 車達의 두 아들이서 갈린 같은 뿌리로서 장자 孝全系가 車氏姓을, 차자 孝金系가 柳氏姓을 각각 취하였

다. 그리고 車原頰의 선대세계가 箕子 시대 까지 소급, 기재되어 있다. 이 「車原頰雪寃記」는 편찬 내지 간행 반포된 뒤에 朝鮮 후기 각 문중들이 그 기재 내용을 당시의 역사 사실로 확신하고 조상유래와 족보편찬에 중요한 사실로 轉載, 인용한데서 한국의 姓貫 의식과 족보 편찬에 있어 큰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朝鮮 후기 조상들의 傳記·狀碣文 작성과 족보편찬에 있어 온갖 조작과 험잡이 동원된 것도 그 연원을 추적해 보면 「車原頰雪寃記」와 관련있는 것들이 많다.

이 책은 車 軾·車天輅·車雲輅 三父子 또는 그 3인 가운데 한 사람 혹은 두 사람의 僞作이라고 하는 南克寬·黃胤錫 등 18세기의 일부 선각자의 지적과 같이 이 책은 단언하기 어려우나 그 三父子에 의해 조작된 僞書임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본다. 이 책에 대해 16세기 후반 이래 최근까지 극소수의 몇몇 學者에 의해 僞作이란 언급이 있었을 뿐 300여년 동안 학계에서 공식적으로 위서라는 판정을 내리지 못했다. 더구나 이 책이 16세기말 이래 일부 嶺南士林에 의해 입수, 읽히게 되면서 權文海의 「大東韻府群玉」과 崔 峴의 「文集」 「一善志」, 權 鼈의 「海東雜錄」, 金 佺의 「海東文獻總錄」(1637)등에 기재 유포되어 마침내 18세기 말 忠淸觀察使 朴宗岳의 序文과 吏曹判書 洪良浩의 跋文, 기타 당대의 名公碩學들의 追述書를 받아 활자본 또는 목판본으로 印頒되면서 관련 諸姓貫의 족보편찬에도 큰 영향을 주게 되었고, 文化柳氏 쪽에서도 車柳同祖論에 서서 車柳大同譜가 만들어지기도 하였다. 여기에

서 「車原頰雪寃記」의 위작 동기와 위작시기, 위작자, 위작 경위 및 유포 과정에 대하여 간단히 논술해 보기로 한다.

첫째, 僞作者와 僞作時期 : 이 책 書名과 그 내용 일부가 기재된 최초의 圖書가 宣祖 22년(1589)에 편찬된 「大東韻府群玉」이라는 데서 16세기 후반으로 추정된다. 南克寬, 黃胤錫 등에 의해 著者들로 추정되는 車軾·車天輅·車雲輅 三父子의 활동시기가 16세기 후반에서 17세기 초기까지라는 점에서 볼 때 이 책은 16세기 후반 車氏 三父子에 의해 僞作되었다고 짐작된다.

둘째, 僞作 동기와 내용 : 자신들의 寒微한 家系를 돋보이게 하기 위한 보상 심리에서 나왔다고 볼 수 있다. 「宣祖實錄」등에 나타나는 車氏 三父子의 사람됨과 행적을 추적해 보면 三父子가 모두 文才는 탁월하여 詩書 文章으로 一代를 風靡할 수 있었지만, 名祖가 없고 家系가 寒微하여 士大夫 사회에서 제대로 인정을 받지 못하였다. 그리고 車天輅 형제는 이른바 才勝德薄하여 경박한 언행이 많았고 특히 車天輅는 舉子의 試券을 借述해주고 壯元及第했다가 탄로되어 그 舉子는 削科를 당하고 자신은 원지에 流配를 간 적이 있다. 그런데 壬辰倭亂을 당해 對明 外交에서 막중한 외교문서 처리와 관련하여 車天輅와 같은 인재가 필요하여 다시 등용했으나 高官要職은 끝내 맡지 못하였다. 이러한 車天輅의 사람됨과 문장력을 미루어 보아 車氏 三父子 가운데 그가 主役을 맡아 僞作했다고 짐작된다. 僞作된 내용을 추론해 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①車柳同祖論에 입각해서 車氏의 선대세계를 정리함에 있어 文化柳氏가 고려후기에 서 조선전기에 걸친 大閼族이라는 점에서 그 시조격인 柳車達의 「車」자와 車氏와의 관계를 설정해놓고, 13~14세기 「高麗史」에 등장하는 車姓人物을 시대순으로 적당히 系譜化하고 13세기 이전의 선대세계는 현존 高麗史에는 없으므로 이를 보충하기 위해 사실이 아닌 徐熙의 「撰集餘史」, 鄭知常의 「西京野史」, 金方慶의 「草堂日記」라는 허구된 僞書를 거론하였다.

②車原頰의 선대가계를 고려후기 200여년 동안 고관에다 당대 명공 거족의 사위였다는 것으로 위조하였는데, 이것은 완전히 조작된 것이다. 그 내용을 분석해 보면 위조해도 그 정도가 너무 지나치게 과장되었다.

③車原頰 일가에 대한 加害者로서 이른바 車門의 外裔四孽로 鄭道傳, 趙英珪, 咸傳霖, 河崙을 거명한 것은 高麗史에 기재되어 있는 鄭道傳의 外家賤系와 그것으로 인한 鄭道傳의 禹玄寶 가문 모함사건에 示唆을 받아 그와 비슷한 내용으로 사건을 조작한 것 같다. 가해자로 거론한 四人의 후예는 16세기에 와서는 세대가 단절되었거나 미약해서 그러한 사실이 세상에 공개되더라도 대응하지 못할 것을 예측했던 것이다. 또 이 책의 서문과 기문 찬자를 비롯한 편찬을 주관한 인물로 朴彭年·成三問·河緯地 등을 제시한 것은 이 책이 편찬된 직후 이들이 모두 端宗復位事件으로 處刑됨으로써 이 책이 세상에 공개되지 못했다는 사실을 은연중에 내포하고 있다.

④이른바 車門의 外裔四孽 문제는, 麗末鮮初의 權門勢族 가운데는 내외 조상의 世系에 庶孽로 간주되는 인물이 많았다는 사실을 看破하고 16세기 중엽 이후의 시대적 관념으로 麗末鮮初를 보았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을 제시했다고 볼 수 있다. 太宗 13년(1413) 妻妾分揀과 庶孽差待法이 제정되기 전까지의 고려 후기 내지 선초에는 庶孽의 혐의를 받는 자가 많았다. 黃喜의 母系를 비롯한 名公巨族에도 賤系가 섞여 있었다.

⑤車原頰 일가가 죽음을 당할 때 가해자들이 庶孽系란 사실이 기재된 車柳同譜가 海州 神光寺에서 소각되고 말았다는 내용도 韓國族譜史에서 본다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한국 최초의 編刊族譜가 「安東權氏成化譜」(1476) 이므로 그보다 70년 전인 太祖 7년에 車柳族譜가 판각될 리 없으며 또 車氏와 柳氏가 同祖(同源)라는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셋째, 僞作 및 流布 경위 : 이 「雪冤記」 소재 車原頰의 先代世系와 車原頰 被殺 경위가 光海君 초 찬술된 車軾의 「神道碑銘并序」에 전제되어 있다. 이는 車天輅 형제가 先考의 碑文을 柳夢寅에게 청탁할 때 家狀 또는 行狀을 제시하였고, 柳夢寅은 天輅 형제가 제시해준 家狀 또는 行狀을 참고하고 다시 요약했기 때문이라고 짐작된다.

이 책은 편찬체제, 내용서술, 등장인물들의 행적이나 序, 記文, 48인의 應製詩 등 어느 것을 막론하고 문제가 되지 않은 것이 없다. 그런데도 최근까지 이 책을 僞書로 단정하지 못한 것은 朝鮮시대 儒學者들이

문헌 고증 의식이 결여되어 있는 반면 先賢 先祖들의 의리와 충절에 대해서는 무조건 찬양 일변도였기 때문이다.

의리와 명분을 강조했던 性理學의 보급과 士林 세력의 성장에 따라 麗末의 守節人士와 端宗 忠臣들이 16세기 이래 후대로 내려올수록 崇仰되고 반대로 鄭道傳 權 近 등 開國派와 鄭麟趾 申叔舟 등 勳舊派는 貶論되어 갔다. 이러한 양대 세력에 대한 褒貶은 곧 자료 상에도 그대로 나타나게 되었다. 17세기를 기준, 그 이전과 이후는 유교의식, 국가, 사회적 법제와 관습 및 사림 세력의 消長 등 사회적 기반과 의례·의식이 현저히 相異하였다. 朝鮮 전기 실록 및 당시의 원형을 유지하고 있는 고문서, 일기, 문집초본과 17세기 이후에 발간된 문집, 傳記 狀碯文을 서로 대비시켜 보면 자료의 연변관계를 엿볼 수 있다. 여말의 守節人士와 世祖 篡奪 때 생존했던 인사 및 역대 土禍에 희생된 인사들의 文集 傳記 狀碯文이 17세기 이후에 편간되거나 찬술될 때 15·16세기의 시대상이나 의식보다는 당시의 분위기가 크게 작용하였다. 이러한 시대적 차이점을 염두해두고 관련 자료를 비판해야 한다.

16세기 이래 자료의 변질 과정을 추적해 보면, ①. 金 澍, 金自粹, 李 行 등의 守節 문제 ②. 기타 麗末 인사들에 대해 실제 그렇지 않은데도 이른바 不事二君의 사실을 강조하는 사례, ③. 詩文 詞章에 시종한 인사를 道學에 조예가 있는 양으로 서술한 경우, ④. 文集 초고와 간행된 문집의 다른 점, ⑤. 文集 편간과정에서 주인공에게 선비 또는 학자

官人으로서 뿔가 될 만한 것의 삭제, ⑥. 문집 편찬과정에서 吏讀 사용문자의 吏讀 삭제, ⑦. 세계와 관직의 과장된 기술 등이 있었다.

고려 조선시대로 내려올수록 姓貫由來와 祖上世系에 관한 갖가지 傳會와 杜撰의인 기술이 나오게 되었는데 이를 몇 개의 유형으로 나누어 고찰해 보기로 한다.

①. 14세기 이래 지방의 土姓吏族에서 성장한 성관이나 한미한 가계에서 권문세족으로 성장한 가문들은 그들 나름대로 각기 선조의 유래와 得姓 사실을 조작하거나 부회하는 예가 많았다. 가령·文化柳氏·安東權氏·全義李氏·善山金氏 등의 시조 성명을 柳車達·權 幸·李 棹·金宣弓 이라는 字義를 두고 각기 그럴 듯한 해석을 가하여 改姓 改名 사실을 傳會하고 있는데 이러한 서술은 실제 사실과는 거리가 있다 하겠다. 고려 왕조의 진전에 따라 개국공신을 비롯하여 역대 여러 공신을 배출하게 되었고 국가에서 그들의 후손까지 우대하여 여러 가지 특혜를 주었기 때문에 중기 이후에는 실제 공신의 후예가 아닌 家系가 祖上世系를 조작하는 예가 많아졌다. 특히 高麗 중기 또는 후기에 郡縣 吏族에서 성장한 가문들이 그 시조를 麗初의 開國 또는 三韓功臣에서 찾아 조상세계를 연결하려는 데서 중간에 공백이 생기거나 代數가 맞지 않은 예가 많았다.

또한 18세기 이래 각 씨족들의 족보법례를 살펴보면 어느 씨족이나 가문을 막론하고 족보가 續刊될 때마다 기존 派系 외에 새로 添入되는 派系가 증가해 갔다. 새로 添入되거

나 連接되는 派系의 경우를 분석해보면 ①. 「無后」欄에 連接시키거나, 형제수를 늘려 끼우는 경우, ②. 同名異人의 선조명을 갖고 연결시키는 경우, ③. 貧寒한 양반 가계에 접근하여 재력으로 회유하여 합작, 편보하는 경우, ④. 名祖가 없는 기성사족이나 신흥세력이 名祖를 확보한 派系와 연합하여 공동의 조상으로 받들기 위해 한 세대를 새로 끼우거나 기존의 형제수를 늘려 끼우는 경우가 있었다.

㉠. 어느 씨족이나 가문을 막론하고 직계 조상과 자손이 누대에 걸쳐 高官 要職을 세습한 예는 극히 드물다. 그런데 朝鮮 중기 이후에 편찬된 족보 가운데는 高麗 시대 侍中. 平章事. 尙書. 侍郎과 같은 고관을 여러 대 世襲한 양 기재 되어 있다. 비록 같은 始祖나 遠祖에서 나왔다 하더라도 代數를 거듭함에 따라 여러 派系로 분기되면서 각 派系에 따라 盛衰 消長이 되풀이 되었다. 특히 朝鮮 초기까지는 養子 제도가 확립되지 않아 無子로 인해 世代가 단절된 家系가 많았다. 高麗 초기 이래 17세기까지 각 시기를 대표했던 명문 거족들의 家系내력을 추적해 보면 직계 조상과 자손 범위에서 族勢 家勢가 永續된 경우는 거의 없다. 그런데 姓과 本貫 및 조상에 관한 자료는 대개 후대에서 소급, 기술되며, 특히 신흥세력의 경우 성장되기 전의 한미한 가계나 미천한 조상의 사적은 담겨지지 않은 채 조작되고 수식된 성장후의 자료만이 후대에 남게 된다.

㉡. 先世 조상의 유래를 실제로는 土姓 吏族인데도 이를 은폐하는 경우가 많았다. 高麗

시대 金石文이나 世系圖. 族圖. 戶口單子와 같은 麗末 鮮初의 古文書 및 朝鮮 전기 戶籍 斷簡과 草譜類에는 鄉吏 家系로 기술되어 있던 것이 朝鮮 중기 이후에는 그러한 先代의 鄉吏 관계 자료가 개변되거나 삭제되는 등 운동 변질되고 조작되어 갔다. 麗末 이래 士族의 선대 鄉吏 관련 자료의 연변 과정을 살펴보면 ①. 선대의 世系를 소급하다가 鄉吏 職銜(戶長. 副戶長. 記官 등)이 나올 때 이를 버리고 그 후손 중에 官人을 택해 시조로 하는 경우, ②. 조선 후기 족보처럼 선조의 향리직함 대신에 아예 고귀한 관직으로 대체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③. 羅末 麗初나 麗末 鮮初의 왕조 교체기에 「不服臣罰定」으로 인해 향리로 전락했다느니, 혹은 본래는 士族이었는데 어떤 연유로 인해 본의 아니게 鄉吏로 격하되고 말았다는 「士族降吏」라는 그럴듯한 구실을 내세우고 있다. 鄉吏의 후예로 사족이 된 성관의 족보와 「掾曹龜鑑」의 편저자들은 바로 그러한 의도로 기술했지만, 그것은 결코 사실일 수 없다.

예컨대 ①. 조선시대 명문으로 성장한 押海丁氏 世系圖에서 父系와 連接된 母系는 운동 吏族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②. 15세기 초 士族으로 성장한 慶州의 良佐洞 孫氏 세계에서도 父系는 士族으로, 그 妻父는 현직 戶長으로 기재되어 있다. ③. 麗末 이래 大姓名門으로 성장한 光州金氏 先世도 父系와 連接된 母系에서 吏族이 나타나며, ④. 延日鄭氏 先世도 父系의 妻系가 吏族으로 나타나고 있다. ⑤. 義城金氏의 중시조격인 金龍庇는 吏族의 흔적이 없으나 그 사위 가

운데 金城丹이 義城縣 戶長으로 나타나고 있다. 현존 보첩자료 가운데 父邊직속은 후손의 조작으로 吏族의 職域이 改變되었으나 그 직계의 妻邊 外邊에서 吏族이 있는 것은 父系도 당시까지는 아직 吏族이었다는 반증이다. 왜냐하면 당시의 혼인은 階級內婚制를 지키고 있었기 때문이다. 士族이 현직 鄉吏와 혼인한다는 것은 적어도 高麗 말기부터는 없었던 것이다.

㉔. 羅末麗初의 崔致遠, 崔彦擣 등을 비롯하여 金富軾, 李奎報 및 麗末 朝鮮시대 文士들이 찬술한 人物들의 狀碣文이나 族譜序文 등에서 該姓貫의 시조 유래를 中國에서 찾고 있는데 이러한 의식은 주로 慕華思想에서 나왔다고 볼 수 있다. 특히 17세기 이래 문벌을 숭상하는 풍조가 더욱 고조되자 王室, 外戚, 駙馬, 三韓(太祖)功臣 등과 같은 국내 고귀한 旣成閥族과 연결시키기가 어려운 姓貫들은 그 시조의 유래를 中國에서 구하는 風潮가 후기로 올수록 더욱 심해 갔다. 그러나 그 姓貫이 「실지」 소재 郡縣 土姓으로 나타나는 한 그러한 시조의 東來說은 후대에 와서 조작 윤색된 것으로 설득력이 없다.

한편 사족들은 17세기 仁祖反正과 丙子胡亂 이후 大義 名分과 崇明排淸思想이 고조되면서 나타난 국가적인 表忠 獎節政策에 편승하여 자기 선조들의 贈職 贈諡 운동을 전개한다든지, 국가의 이러한 정책을 십분 이용하여 심지어 역사 사실을 조작하여 忠臣 孝子 烈女를 만들고 그렇게 조작된 선조를 봉향하기 위한 祠廟나 書院을 건립하여 鄉中士林에 公認을 받기도 하였다. 또 壬辰倭亂 丙

子胡亂 李适亂 李麟佐亂 등 전란과 반란 때 殉節 倡義者에 대한 국가의 褒彰 조치에 편승하여 嶺南 湖南 關西 등 지역별 郡縣別로 倡義錄, 會盟錄, 同苦錄, 節義錄 등이 쏟아져 나왔다.

英祖 8년(1732)과 同王 10년에 각각 撰한 慶尙監司 趙顯命의 序文과 金時炯의 跋文을 받아 간행한 倡義錄은 郭再祐의 玄孫 郭元甲과 朴胤光 등에 의하여 간행되었다. 여기에는 火旺守城圖 凡例, 龍蛇應募錄과 火旺入城同苦錄이 수록되어 있는데 火旺入城同苦錄 소재 인원을 통계해보면 郭再祐를 중심으로 한 20명 외에 67읍에 670여 명으로 慶尙右道가 19읍에 97명(14%), 慶尙左道가 30읍에 489명(73%), 他道가 18읍에 81(12%), 未詳이 11명(1%)이다. 火旺山城 주위에 있는 昌寧, 玄風, 靈山 三邑 출신은 모두 17명인데 반해 隔遠해 있는 지역인 安東은 106명, 禮安 36명, 尙州 33명, 醴泉 28명, 慶州 64명, 寧海 41명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는 데서 우선 史料的인 문제가 있다. 入城할 수 없었던 人士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壬辰倭亂과 丙子胡亂을 겪은 뒤 지방 儒林社會에서는 국가적인 表忠彰節策과 후손들이 적극 추진했던 祖先顯揚事業의 영향으로 壬亂 당시의 자기 선조들은 모두 倡義에 참여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火旺入城同苦錄 八公山 會盟錄과 같은 각종 倡義錄, 節義錄 人物의 實記, 傳記類 등의 편찬 사업이 만연되고 있었다. 특히 17세기 이래 嶺南의 유림 사회에서는 자기 선조가 文士 學者라면 으레 退溪의 학통과 연결시키려고 했던

풍조가 만연되었듯이 壬亂을 겪은 뒤 壬亂 義兵將의 후예들이나 신흥양반들은 자기들의 先祖를 郭再祐와 관련시키려고 했던 관념에서 倡義錄과 같은 자료가 나왔다고 본다.

4. 맺음말

韓國의 姓貫, 祖上에 관한 자료는 거기에 대한 의식의 변화와 함께 끊임없이 변질되어 왔다. 따라서 관련 자료의 시대적 사회적 변화에 따른 연변된 사정을 무시하고 현재 전승되고 있는 자료에 의거한다면 역사적 진실을 제대로 究明할 수 없다.

韓國의 중세사회 신분사 관련 자료가 조선 후기에 이르러 획기적으로 변질된 요소 가운데 가장 크게 작용한 것은 ①. 高麗시대까지 역대의 지배세력을 공급했던 鄉吏를 士族과 차별하는 中人層으로 신분적 격하를 하게 되자 가계, 세계, 족보 등 신분사 관련 자료에서 향리 관련 자료가 삭제되거나 개변되었다는 사실과 ②. 양반의 요건으로 名祖가 필요하게 되자 僻貫 稀貫들의 改貫, 換本, 冒貫의 험잡이 널리 작용하였다. ③. 新羅 下代 이래 朝鮮時代까지 학자 문사들의 유교적인 慕華思想의 영향으로 始祖 東來說이 만연되어 갔다. ④. 士林 정치의 개혁방향 가운데 繼絶 興亡 사상과 性理學的 收族과 친목윤리를 권장한 결과 姓貫意識과 祖上世系가 16세기 이래 韓末에 내려올수록 縱的으로는 조상의 세

계가 자꾸 위로 소급되면서 선대세계의 조작이 더욱 심해졌고, 橫的으로 종족을 수합한다는 의미에서 同姓異本들의 合譜와 대동보적 성격의 보첩류가 쏟아져 나왔다.

한편 15세기 士林派에 의해 고조되었던 절의와 명분론은 17세기 仁祖反正과 胡亂을 계기로 西人이 집권하면서부터 더욱 숭상되었고 金尙憲, 金長生, 宋時烈 등이 사상계를 영도하여 崇明排淸을 고취하고 綱常과 名分을 지나치게 강조하자, 麗末의 개국세력과 15세기의 훈구파에 대한 비판이 가해졌다. 그 대신 왕조 교체기에 「不事二君」의 節義派와 世祖 등극을 반대했던 人士가 崇仰의 대상이 되자 17세기 이후 士族들은 자기 선조를 그러한 충절과 결부시켜 국가적 포창을 받고자 하였다. 다시 말하면 閥閥政權은 그들의 정권유지를 위하여 崇明關異思想과 명분절의를 숭상하였고 정권에서 소외된 鄉班이나 倭亂 胡亂 이후 대두한 新興兩班들은 그러한 정국의 추세에 편승하여 家乘과 族譜를 편찬하고 先祖의 傳記와 文集을 출간한데서 조잡하고 과장된 보첩류가 18·19세기 이래 쏟아져 나오게 되었다.

이상과 같이 粗雜되고 改變된 朝鮮 후기에 편찬된 전기 보첩 관계 자료는 그 연변 과정을 치밀히 분석 비판한 토대 위에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車譜序疑

柳 滄 鉉

국가에 사기(史記)가 있고 가정에 족보(族譜)가 있으니 규모(規模)는 비록 다르나 그 의의(意義)는 똑같음으로 이를 큰 문헌(文獻)이라 일컫는 것이다.

문헌은 모름지기 사실(史實)에 입각하여야 하고, 사실은 마땅히 사료(史料)에 근거해야 한다. 만약 사실이 불분명하거나 사료가 허조작되었다면 이는 잡서(雜書)에 지나지 않고, 더욱이 그 세상에 퍼지는 해독(害毒)은 홍수(洪水)가 넘치고 야화(野火)가 번지는 것보다 심한 것이다.

때문에 맹부자(孟夫子：孟子)께서 일찍이 진신서불여무서(盡信書不如無書) “책을 다 믿을진대 책이 없는 것만 못하다.”라고 탄식을 하셨으니, 아아! 그 필설(筆舌), 곧 글과 말의 이롭고 해로움이 가히 하늘과 땅 차이라 이르겠다.

세상에 많은 문헌이 있는데 혹 진위(眞僞)와 허실(虛實)이 검증(檢證)되지 않은 것은 차라리 없는 것만 못하다. 그러므로 문헌을 깊이 연구하는 사람은 말할 때마다 반드시 사료 검증 운운하는데 결코 지나친 말이 아니라는 것이 오히려 여러 학자(學者)들의 견해이다.

이에 일례를 들건대 연안차씨(延安車氏)의 족보(族譜)를 살펴보면 역대 족보의 서문(序文)이 그 문헌편(文獻篇)에 차례대로 수록(收錄)되어 있는데 무자보서(戊子譜序)가 책머리

에 실려 있어 그 맨 처음의 족보임을 알 수 있는 바, 특히 그 서문의 서명(署名)에 자못 의심스런 단서가 있다.

이에 그 대강을 논하건대 서문 끝에 병술 팔월 대광보국승록대부 의정부우의정 류상운 서(丙戌 八月 大匡輔國崇祿大夫 議政府右議政 柳尙運 序)라 쓰여 있는데 류상운은 바로 약재상공(約齋相公)이다.

이 족보는 조선 숙종(肅宗) 32년 무자(戊子：1708)에 간행한 족보로써 그 당년의 간지(干支)를 따서 무자보(戊子譜)라 칭한 것이다. 이 서문의 지어짐은 족보를 발간하기 2년 전 병술 팔월(丙戌 八月：1706년 8월)인 바, 병술은 실로 약재상공이 세상을 뜬 정해(丁亥：1707) 전년으로 또한 정승의 지위에서 물러난 지 7년이 지나고, 이미 판부사(判府事：判中樞府事)의 직함마저 받고 광주 율현(廣州 栗峴) 시골집에 물러나 살던 때로서, 이 집은 지금의 서울특별시 강남구 율현동 지역이다.

이에 병술년의 년도로 논할진대 판중추부사(判中樞府事)의 직함(職銜)을 써야 마땅하고, 우상(右相：右議政)의 직함으로 논할진대 우상으로 재직했던 21년 을해(乙亥：1695)년으로 써야 마땅하다.

그런데 년도로나 직함으로나 모두 어긋나는 바, 이를 가히 약재상공이 잘못 썼다고 이르겠는가? 아마 차문(車門)에서 임의로 쓴

車譜序疑

國有史家有譜規模雖殊其義一而以是稱之大文獻也文獻須爲立脚於史實而史實宜爲根據於史料也若史實不分明史料或造作則是不過爲雜書而尤其流毒世間者甚於洪水之濫野火之熾矣故孟夫子曾發盡信書不如無書之嘆噫其筆舌之利之害者可謂天壤之差也世有許多文獻而或不檢證於真偽虛實者寧不如無之也以故磨琢文獻者言必稱史料之檢證云云決不爲過語者無乃諸學者之見解也茲舉一例按延安車氏族譜則歷代譜序次第收錄於其文獻篇而戊子譜序載在卷首可知其創譜而特其序之署名頗有疑端矣茲論其概則序末書丙戌八月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右議政柳尚運序而柳是約齋相公也此譜所以朝鮮肅宗戊子之刊者取其當年干支而稱戊子譜也是序之作在刊譜二年前丙戌八月而丙戌實相公下世丁亥之前年且退相位七年旣免判府事之銜而退居廣州栗峴鄉第之時第是今之京中江南區栗峴洞之域也茲以丙戌之歲論之則宜書判中樞府事之銜以右相之銜論之則宜書右相在職之乙亥歲也然以歲以銜俱爲差錯是謂相公之誤書耶恐不是車門之任意書之耶實是辱先欺後之過也蓋人家文字之署名也先書當年月日而次有官則書實職無官則書貫鄉以後終書姓名者古今常例也抑朝鮮之世母論職之高下或有僞書僭稱之爲則處之極刑故敢不生意者也尤有可疑者約齋集中不載於車氏譜序也人家文字指不勝屈而特譜序關於一姓一族至貴至重也然而獨不載其文者全不理會也集是古木版本而相公十代胄孫民城家所藏者以此爲底本而去丁亥冬自民族文化推進會之周旋遵其韓國文集叢刊編刊計劃刊影印本編入於韓國文集叢刊續四十二冊也披覽其內容則詩千餘首疏笱若人家文字曰行狀墓文諡狀祭文記文等百餘章也公在宦途三十餘年難其枚舉而略述大拜以後履歷則肅宗乙亥除右議政翌年丙子轉左議政同年秋爲領議政而至己卯敍判中樞府事乙酉入耆社閑居三年而逝矣公以一人之下萬人之上不翅爲官高尤以廉白聞於當世勿論我文柳而汎諸柳氏以官以名無優於公者也茲敢問於貴門或欽羨公之名望公沒直後借文借名以刊譜耶蓋譜所以錄其族之世系也序所以敍其事之原委也如此莫重之序不無疑端則其譜亦可謂無疑哉終有所告者來不遠日公認之文獻出現於世而釋此等之疑惑敬望不已焉皆己丑初秋文化柳涼鉉述

것이 아니겠는가? 실로 이는 선조를 욕되게 하고 후손을 속이는 허물인 것이다.

대개 인가문자(人家文字)의 서명(署名)에 있어 먼저 당시의 연월일(年月日)을 쓰고, 다음 관직이 있으면 실직(實職)을 쓰고 관직이 없으면 관향(貫鄉)을 쓴 후에 마지막으로 성명(姓名)을 쓰는 것이 예나 지금의 상례(常例: 恒例)이다. 또한 조선시대에는 관직의 높고 낮음을 논할 것 없이 혹 위서(僞書)하거나 참칭(僭稱)하는 일이 있으면 극형(極刑)에 처해졌음으로 감히 생각지도 못한 일이었다.

더욱이 의심스러운 것은 약재집(約齋集) 속에 차씨의 족보 서문이 실려 있지 않은 것이다. 인가문자가 손꼽아 셀 수 없이 많지만 특히 보서(譜序)는 한 성씨(姓氏)와 한 족속(族屬)에 관계된 만큼 매우 귀하고 매우 중한 것이다. 그런데 유독 그 글만이 실려 있지 않은 것은 전혀 알지 못하겠다.

약재집은 옛날 목판본(木版本)으로 약재상공의 십대주손(十代胄孫) 민성(民城)의 집에 소장되어 있던 것인데 이를 저본(底本)으로 하여 지난 정해(丁亥: 2007) 겨울에 민족문화추진회(民族文化推進會)의 주선으로 한국문집총간편간계획(韓國文集叢刊編刊計劃)에 준하여 영인본(影印本)으로 간행, 한국문집총간 속(韓國文集叢刊續) 42책에 편입되어 있다.

그 내용을 펴 보니 시(詩)가 1,000여수이고, 소차(疏筭: 上疏 筭子)와 인가문자로서 행장(行狀), 묘문(墓文), 시장(諡狀), 제문(祭文), 기문(記文) 등이 100여장이다.

공께서 벼슬 길에 계시기 30여년으로 낱낱

이 들쳐 기록하기 어렵고 간략히 대배(大拜), 곧 정승에 임명된 이후의 이력만을 기술하던데, 숙종 21년 을해(乙亥: 1695)에 우의정에 제수되고, 이듬해 병자(丙子: 1696)에 좌의정으로 옮겼다가 동년 가을에 영의정이 되었던지 25년 기묘(己卯: 1699)에 이르러 판중추부사에 서용되고, 31년 을유(乙酉: 1705)에 기사(耆社: 耆老所)에 들어 한가지 지내기 3년만에 돌아가시었다.

공께서 일인지하 만인지상(一人之下 萬人之上)으로 관직만 높았을 뿐 아니라 더욱이 청렴(清廉)과 결백(潔白)으로 당세에 알려져, 우리 문화류씨는 물론이고 모든 류씨를 통틀어서도 관직으로나 명망으로나 공보다 앞설 인물이 없었다.

이에 감히 귀문(貴門)에 묻는 바, 혹 공의 명망을 흠모하고 선망하여 공이 돌아가신 직후에 차문차명(借文借名)하여 족보를 간행했는지?

족보는 그 일가의 세계(世系)를 기록한 것이요, 서문은 그 일의 원위(原委: 本末)를 서술한 것이다. 이 같이 막중한 족보의 서문에 의심의 단서가 없지 않으니 그 족보 또한 의심이 없다 이르겠는가?

끝으로 아뢰는 바는 오는 머지않은 날에 공인(公認)할만한 문헌이 세상에 나와 이 같은 의혹이 풀어지기를 공경히 바라 마지 않는다.

때는 기축(己丑: 2009) 초추(初秋: 음7월)에 문화 류중현(文化 柳淙鉉) 씀.



丹溪遺稿(跋)

아아! 이는 단계 하선생(丹溪河先生 : 河緯地)의 유고이다. 시(詩)가 11편이요, 문(文)이 4편으로 너무 간략하고 적막하다 이르겠으나 그러나 어찌 꼭 많아야만 되겠는가? 그 인물은 국가의 참된 원기(元氣)가 되었고 그 글은 우주의 참 문장(文章)이 되어 강상(綱常)을 떠받치고 좌해(左海 : 海東)에 펼쳐 가히 일월로 더불어 빛을 다투었으니, 운운..... (中略)

그 가운데 차원부설원기 서(車原頻雪寃記序)를 볼진대 그 문자(文字)가 황당하고 비루하여 결코 선생(先生)께서 지은 글 가운데서 나온 것이 아니다. 그리고 연월(年月)을 상고해보건대 그 시기가 경태 정축(景泰 丁丑 : 1456) 5월로 되어있으니 그즉이 생각건대 그 당시 선생은 열혈고충(熱血苦衷)이 머리에 치솟고 뱃속에 가득하여 온갖 정신이 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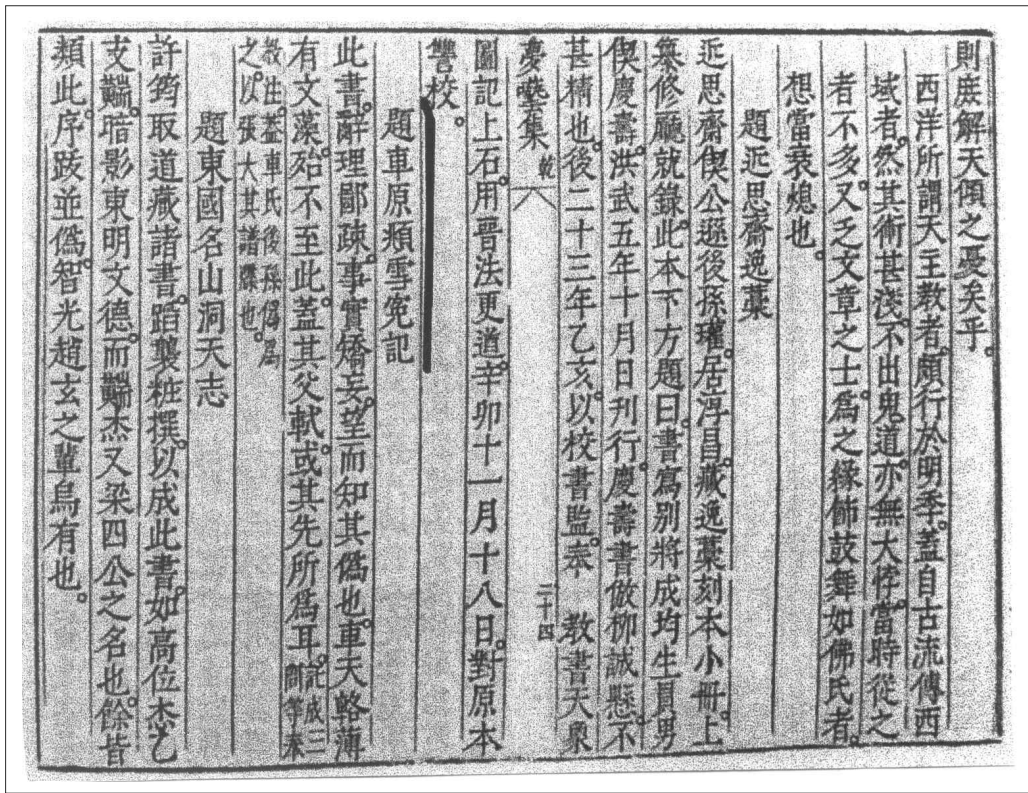
종(端宗)의 복위(復位)에 있었을 뿐, 이 같은 한가로운 저술(著述) 따위는 절대로 마음에 두지 않았던 것이 분명하다. 후일에 선생의 이름을 칭탁(稱述)하여 거짓으로 지은 바, 그 공교롭게 꾸미려다 어그러진 대목이 많이 보인다. 이에 드디어 마음을 굳히어 빼버리고 그 사실을 부기(附記)하는 바이다.

영조(英祖) 44년 무자(戊子 : 1768) 7월 하한(下澣)에

보국승록대부 행판중추부사 치사 봉조하(輔國崇祿大夫 行判中樞府事 致仕 奉朝賀) 홍계희(洪啓禧) 근발(謹跋)

※ 丹溪遺稿는 死六臣의 한 분인 河緯地의 文集으로 英祖 44년(1768)에 간행되었는데 淡窩 洪啓禧가 그 跋文을 지었다.

河緯地의 본관은 晉州로 善山 출신인데 자는 天章 호는 丹溪이다. 조선 世宗 20년(1438) 문과에 장원하여 관직이 예조참판에



이르렀는데 世祖 때 端宗의 復位를 피하다 殉節한 分으로 諡號는 忠烈이다.

洪啓禧의 본관은 南陽으로 자는 純甫 호는 淡窩로서 陶菴 李 緯의 문인이다. 英祖 13년 (1737) 별시문과에 장원하여 내외 여러 관직을 거쳐 예조참관 및 관중추부사 봉조하를 지냈는데 개혁 실천주의자로서 많은 저술을 남겼다.

夢嚙集(題車原頰雪宛記)

이 책은 사리(辭理)가 야비하고 거칠며 사실(事實)이 거짓되고 망녕되는 등 글을 보면 위작(僞作)임을 곧 알 수 있다. 차천로(車天輅)는 경박(輕薄)한 사람으로 문장력이 있었

으나 자못 이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 부친 식(軾)이 아니면 아마 그 선세(先世)에 만든 것이리라. 성삼문(成三問) 등을 칭탁한 붕교주(奉教註)도 차씨 후손들이 조작한 것으로, 이는 그 보첩을 크게 돋보이고자 한 것이다.

※ 夢嚙集은 조선 英祖 때 南克寬의 詩文集이다. 文集 가운데 「題車原頰雪宛記」 1 편이 간략히 실려 있다.

南克寬은 본관이 宜寧으로 敎官 鶴鳴의 아들이요, 領相 藥泉 九萬의 맏손자이다. 자는 伯居, 호는 夢嚙, 또는 謝施子인데 見聞이 해박하고 文章이 뛰어났었다. 26세의 젊은 나이로 죽으니 세상에서 모두 애석히 여기었다.

頤齋遺稿(草稿)

저번 날 홍백능(洪伯能)이 말하기를 지호 이공 선(芝湖 李公 選)은 본래 정말 박식하기로 일컫는 분인데 또한 수차 사기(史記)를 고찰하여 남모르는 것을 아는 것이 매우 많아 승국신서(勝國新書) 1권을 저술한 바, 그 가운데 세상에 전하는 말과 전혀 다른 것이 한 두 가지가 아니라 운운..... (中略)

또 차원부설원기(車原頻雪寃記)에 대해서도 또한 거짓 작품이라 말하였다. 내 이르니 지난해 남학명(南鶴鳴)의 아들 극관(克寬)이 지은 몽예집(夢囈集)에도 또한 설원기에 대하여 말하기를 육신제공(六臣諸公)이 지은 것이 아니고 차천로(車天輅) 부자 형제가 거짓으로 만들어 세보(世譜)를 더욱 진중하게 하고자 함이라 운운.....(下略)

※ 頤齋遺稿는 조선 英祖 때 실학자인 黃胤錫의 文集인데 本稿는 그 草稿이다.

黃胤錫의 자는 永叟요, 호는 頤齋니 본관은 平海로 漢湖 金元行의 문인이다. 隱逸로 내외직을 두루 거쳐 全義縣監을 끝으로 사퇴하였다. 實學者로서 많은 저술을 남겼다.



류차 문제의 전개와 전망



忠南大學校 教授 柳 朱 桓

한 가문의 아름다움과 추함은 그 조상들의 벼슬이나 공적에 있지 않다. 얼마나 아래로는 개개인의 존엄성을 높이고 위로는 사회의 복리를 추구하느냐의 여부에 있다. 한 가정이 세대를 이을 자녀를 잘 길러내고 사랑을 담아내는 그릇이듯이 가문은 그 구성원들을 잘 교육하고 선도하고 대를 이은 사랑을 체험하고 나누게 하는 큰 그릇이다. 여기에는 거짓이나 허세나 배타성이 들어와서는 안 된다.

2004년경부터 문화류씨와 연안차씨간의 문제가 본격적으로 드러났다. 그 여파로 몇 백년 동안 전해오던 류씨와 차씨의 관계에 대한 사실이 철저히 검토되고 재평가되었다. 그 결과 류차문제의 중심에 서 있는 『차원부설원기』라는 문헌은 위서(僞書)이자 악서(惡書)이며, 변질된 차문(車門)의 배타적 가문의식이 역사와 사회에 심각한 해악을 끼쳤음을 알 수 있게 되었다.

이 글에서는 류차문제를 개관하고, 『차원부설원기』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밝혀진 역사적 진실이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전파된

몇몇 경우들을 소개한 후, 미래를 전망하고자 한다. 차례는 다음과 같다.

1. 시조의 성이 바뀌다니
2. 류문의 대응
3. 설원기는 위서이며 악서
4. 뒤틀린 가문의식의 발로
5. 객관성의 확보와 류차관계의 해소
6. 진실의 전파
7. 차문의 역사 왜곡은 현재 진행형
8. 역사의 햇불

1. 시조의 성이 바뀌다니

2004년 연안차씨(차문) 대동보가 발간되자 문화류씨 문중(류문)은 쭈신 벌집처럼 흥분했다. 바로 그곳에 명시적으로 류문 시조인 대승공(大丞公) 류차달(柳車達)이 성씨도 이름도 모두 갈려 차해(車海)라는 이름으로 등장해버렸기 때문이다. 차문에서는 류씨를 가성(假姓) 혹은 모성(冒姓) 류씨, 곧 가짜 성이라고 부르면서 친절하게도, 대승공의 아들 좌윤공(佐尹公) 류효금(柳孝金)부터는 진짜

류씨이고, 대승공과 계보 상 그 위에 있는 다섯 분의 조상, 곧 전부 6대의 류씨들만 가짜 류씨라는 설명까지 곁들였다.

이 주장의 속에는 이런 꾸민 이야기가 숨어 있다. 곧, 대승공을 포함한 6대가 원래 차씨였는데, 화를 피하기 위해 임시로 류씨를 빌려 세상을 속이며 가짜로 쓰고 있었다. 그러다가 고려태조 왕건이 대승공 집안의 도움을 받아 전쟁에 이기고 나서 고마워서 전공을 크게 세운 만아들에게 너는 장하니 다시 예전 차씨를 다시 쓰라, 하고, 동생은 아무런 특징도 없었지만 그래도 한참동안 집안이 가짜 류씨로 행세해왔으니 버리기 아깝다, 그러니 너는 지금부터 정식으로 그 류씨가 되어서 문화류씨 시조가 돼라, 하고 자상하게 처분해주었다는 식의 이야기이다. 차문에서는 근자에 한 발짝 더 나갔다. 그러면 왕의 하사해준 것이 아니면 다 가짜 성인테(사실 아님), 대승공과 그 위의 성씨에 대해서는 뭐라고 했더라? 별말이 없었던 것 같긴 한데, 예라 한문을 억지로 해석해서 대승공도 차씨로 하라고 했다고 우기자. 그러면 그 위는 가짜 류씨들이었으니 다 자동으로 차씨로 바뀌는 것이 옳겠지.

류씨와 차씨의 관계에 대한 꾸며진 이야기를 4백 수십 년 동안 잘 믿어왔던 류씨들도 시조를 모독하니 그것만은 참을 수 없었던 것이다. 실은 그럼에도 2004년까지 류씨들은 최소한 몇 년 동안은 수수방관하고 있었다. 2001년에 차문에서는 이미 대전 뿌리공원에 유래비를 세우면서 "가성(假姓) 류씨(柳氏) 6세[필자 주: 류씨를 쓰기 시작한 후

6대째를 의미]인 류해(柳海)", "둘째아들 효금(孝金)은 류씨의 시조가 되었다" 같은 문장을 넣어서 명확히 공격의 칼을 꺼내들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대동보의 편수를 전후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종보(宗報), 각종 서적 등을 통하여 대대적으로 대승공의 성명을 바꾸는 창씨개명의 일을 자행한 것이다.

2. 류문의 대응

2004년 류문의 종보인 『유주춘추』(2004년 4월)에 차문의 가성류씨 주장에 대해 항의를 하는 글(류두열(柳斗烈))이 실렸으나 『차원부설원기』와 원과록을 그대로 인정하는 바탕으로 해석상의 문제만을 지적한 것이었다. 한편 같은 종보에는 당시 대종회 총무였던 류익환(柳益桓)의 문화에 관한 고찰이라는 글 가운데서 설원기와 원과록을 비판하면서 가성류씨 주장이 어불성설임을 밝히고 있는데 아직 직접적인 주제로 삼은 것은 아니었다.

그 후 류문에서는 본격적으로 차문의 주장의 근거를 파악하기 시작했고, 모든 것이 원과록과 설원기에 연유함을 알아냈다. 그 결과 (1) 설원기와 원과록을 배척하고, (2) 차씨가 대승공의 후손이 아님을 선언하고, (3) 차문에 시조 모독을 포함한 기만행위들을 중지하고 사과할 것을 요청하기로 하였다. 이것은 대종회장과 14개 파종회장 전체의 명의로 결정되어 2004년 8월 11자 공문으로서 당시에 존속하고 있던 차류대종회에 전달되었다. 그때까지도 차류대종회는 차문과 류문이 모두 참여하는 단체였기에 그런 중간역할을 할 단체로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차문에서는 물론이지만 류문의 일부 사람들도 그동안 수백 년 이상을 류씨와 차씨가 형제집안으로 알고 지내왔고 차류대중회라는 단체까지 결성되어 활발한 활동을 해온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아무런 문제의 해결 없이 단지 사태를 넘겨보고자 하는 시도도 있었다.

그러나 설원기와 원과록은 탐구하면 할수록 문제가 많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필자가 몇 개월의 연구조사를 바탕으로 "차원부설원기 비평"과 "문화류씨 선계(先系) 고찰"을 발표한 것이 그 즈음인 2005년 1월 중의 일이었다. 전자의 글에서는 명백한 역사적 사실들과 설원기 자체의 기술들이 합치하는지, 설원기 자체의 내부 모순은 없는지를 중심으로 설원기를 비평했고 그 결과 『차원부설원기』가 저자를 참칭해서 조작해낸 '믿을 수 없는 문헌'임을 밝혔다. 후자의 글에서는 원과록이 몇 개의 자료를 근거로 구성되어 있지만 그 주된 근거는 역시 설원기이며, 설원기가 위서(僞書)로서 배척되고 다른 문헌들도 그 원형도 알 수 없을뿐더러 그 주장들에 근거가 전무하여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원과록 또한 전체가 믿을 수 없는 기록임을 밝혔다.(구체적인 설명은 다음 장 참조.) 각종 문헌을 두루 섭렵하여 상세하게 작성된 이 글들 중 류차문제에서 더 비중이 큰 "차원부설원기 비평"은 2005년과 2006년 『유주춘추』에 약간의 형태를 달리하면서 실렸고 차문의 주장을 물리칠 수 있는 객관적이고 학술적인 근거를 제공하여 많은 중원들의 공감을 불러 일으켰다.

3. 설원기는 위서이며 악서

여기서 『차원부설원기』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2008년에 발간된 문화류씨 대동보인 무자보 이전까지 수백년 동안 류씨와 차씨가 동원(同源)이라는 "류차동원설"이 문화류씨, 연안차씨, 개성왕씨 등의 족보는 물론 각종 문헌에 실려 내려왔다. '류차동원설'보다 더 포괄적인 명칭은 "황제연원설"(필자의 명명)인데, 이에 따르면 중국의 황제(黃帝, 희씨)에서 기원하여 사씨-왕씨-차씨-류씨로 이어져 내려왔다가 고려초에 대승공의 아들 대에서 차씨와 류씨로 나뉘어졌다고 한다.

이런 황제연원설은 수천년 동안 계보가 거의 한 줄로만 내려와 있어 그 자체만으로도 문제점이 크다. 그동안 황제연원설은 문화류씨 족보의 "원과록"에 실려 내려왔는데 그 근거 자료가 세 가지이다. 그 중 하나가 설원기인데, 나머지 둘(류용수의 계보와 왕배조의 강남보)은 원본도 남아 있지 않고 전달된 내력도 의심스러우며 내용도 말뿐이라서 고증을 통해 그 진위를 판단할 수 없는 상태이며, 더구나 그 중 강남보는 차문의 족보에도 위조되었다는 글이 실리기도 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황제연원설에 대해 권위를 가질 수 있고 진위여부의 판단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설원기 하나뿐이다.

설원기의 본문 중에 류씨와 차씨로 나뉜 연유가 적혀 있고, 응제시의 저자들 중 하나로 나오는 이예장이 썼다는 글에 (1) 차제능(濟能)-...-승색(承穡)-공숙(恭叔)의 18대의 상세한 명단과 (2) 승색과 공숙이 류씨로

변성한 유래, 그리고 (3) 류씨와 차씨로 나뉜 연유가 적혀 있다. 그리고 저 18대 중에 14대가 신라 때 최고위층 벼슬인 승상이었다고 하는데, 승상이란 명칭도 역사성이 없으며, 당시 역사서나 기타 문헌에 아예 차씨가 존재하지 않았었음도 공식확인되고 있다.

황제연원설의 등장시기를 추정하여 보면, 류용수의 계보는 임진왜란 때 들었다(聞)고 했고, 강남보는 19세기 초에 나왔다. 그리고 1565년에 나온 현존하는 최고(最古)의 문화 류씨 족보인 가정보에는 황제연원설의 암시조차도 없는데, 1589년에 나온 우리나라 최초의 백과사전인 『대동운부군옥』에는 설원기를 참고문헌 목록에 넣고 있고 왕씨-차씨-류씨/차씨의 계보를 소개하고 있다. 따라서 류용수의 계보가 나온 것은 이 두 시기 사이에 분명하다. 이것은 설원기 자체도 마찬가지이며 군옥이 나오기 전에는 어떤 문헌에도 설원기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면 군옥의 간행 직전인 1580년대에 세상이 등장했을 가능성이 높다. 설원기와 류용수의 계보가 세상에 나타난 시기가 겹치는 사실은 설원기가 조작되면서 그 이야기를 뒷받침하기 위해 황제연원설이 조작되어 설원기에 포함되고 함께 세상에 퍼진 것이라는 추정을 가능케 해준다. 강남보는 상세한 명단이 더 추가된 한참 후대의 자료이며 위조된 정황이 뚜렷해서 더 언급할 가치가 없다.

그럼 설원기 자체를 평가해 보기로 한다. 이것은 『차원부설원기』, 『운암선생설원록』, 『운암실기』, 『차문절공유사』 등의 여러 이름을 갖고 있고, 형태는 필사본, 판

본, 활자본, 그리고 최근의 인쇄본(국역)이 있으며, 책 자체에 언급된 제작 시기는 필사본은 미상, 활자본은 1708년에 최초 간행, 그리고 국역본은 1984년과 1998년에 발행되었다. 책의 구성은 서문(필사본 1~14페이지), 본문(15~72페이지), 그리고 응제시(73~130페이지)로 되어 있고, 여기에 부록으로 참고자료, 차문의 계보 등이 추가되어 있기도 하다. 본문의 곳곳에는 주석이 붙어 있으며, 응제시들에는 모두 일정하게 작자들의 설명이 붙어 있다. 책에 밝혀진 저자는 서문은 하위지(어떤 본에서는 신석조), 본문은 박팽년으로 되어 있고, 응제시는 최항, 신숙주, 이석형, 박팽년, 류성원, 강희안 등 48인으로 되어 있다. 본문의 주석자료는 성삼문, 최항, 신숙주, 이석형이 나와 있다. 책에 밝혀진 저작시기는 서문은 경태(景泰:중국의 연호)7년(1456년, 세조2년) 5월 21일, 본문은 1456년 5월 17일, 그리고 본문 주석 및 응제시들은 미상이다.

설원기의 '설원'이란 억울함을 푸는 행위를 의미한다. 곧 『차원부설원기』는 차원부라는 인물이 억울하게 죽어 그 신원(伸冤)을 한다는 내용이다. 그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면 이렇다. "차원부는 고려 때 벼슬 하다가 초야에 묻혔는데, 이성계가 요동 정벌에 앞서 차원부의 의견을 물었고 차원부는 그것을 만류하여 조선 개국에 큰 공을 세웠다. 그리고 태조(이성계)에게 방원이 왕위를 계승해야 한다는 뜻의 말을 했다. 그가 방석을 지지한다고 믿은 방원 일파가 차원부를 70여명의 사람들과 함께 죽였다. 이것을 주도한 이가 하륜인

데, 그는 차씨 집안의 서열(庶孽) 출신으로서 그 사실이 차씨 족보에 기록되어 있어서 사원(私怨)을 품고 있었기 때문이다. 차원부 후손들도 화를 입었다. 후에 세종, 문종, 단종, 그리고 세조와 여러 신하들이 차원부의 설원에 깊은 관심을 보였고, 왕(세조)의 뜻에 따라 설원기를 짓게 되었다."

설원기는 역사적인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여러 왕들을 등장시키며, 책의 곳곳에 봉교(奉敎: '왕의 지시를 받듦')라는 말을 도배하고, 저자들로서 집현전 학자들과 최고위층 신하들을 등장시켜 권위를 부여하여 그럴 듯하게 지어내었다. 그리고 바로 이런 이유에서 수백년 동안 설원기가 믿어져 왔다. 그러나 엄밀하게 검토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 부분이 없는 문헌이다.

우선 간략하게 그 내용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설원기는 내용 전체가 악의적으로 꾸며낸 거짓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차원부의 행적을 조작하기 위해 4명의 사람들, 특히 그 중에 하륜을 극악한 인물로 꾸민다. 그리고 이성계의 위화도회군을 중용하여 고려를 망하게 만들었으면서도 이성계에게 벼슬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선에는 엄청난 공을 세웠고 고려에는 절신(節臣)이라는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자가당착적인 억지 이야기를 꾸며댄다. 또한 차원부를 높이기 위해 도입한 방법 중 하나가 차원부는 적자(嫡子)이고 하륜은 열자(孽子)라는 대비인데, 하륜을 악인으로 만들기 위해 그 출신을 조작하고 왕자의 난의 역사적 사실들을 교묘하게 뒤틀고 있다. 특히 당시의 이성계의 행적은

어떤 다른 역사적 기술과도 맞지 않는 극도의 왜곡을 보인다. 그리고 그렇게 대단해서 왕들뿐만 아니라 허다한 최상층 신하들의 극진한 관심의 대상이었다는 차원부라는 인물은 뒤에 살펴볼 『일성록』에서도 그리고 실록에서도 직접 등장한 적이 없고, 오히려 부인되는 기사들이 나오며, 『차원부설원기』의 등장 이전에는 다른 여하한 문헌에서도 보이지 않는다. 대개 차원부가 실재한 인물이었는지조차 의심이 갈 정도의 상황이다.

설원기는 이런 내용뿐만 아니라 형태면에서만 봐도 위서임을 명확히 알 수 있게 되어 있다. 우선 본(本)에 따라 서문의 저자가 하위지와 신석조로 혼란을 보이고 있다. 소위 왕명으로 만들어졌다는 책이 이런 실정이다. 또 그 작성연도도 본에 따라 1455년과 1456년으로 나온다. 더구나 설원기 본문의 말미에 그 저자라는 박팽년의 직책(형조참판), 이름, 작성 날짜(년월일)이 밝혀져 있는데 엄밀하게 고증하면 그 날짜에 박팽년의 직책은 중추원부사였기 때문에 맞지 않는다. 왕에게 올리는 것으로 되어 있는 본문에 비추어 보면 왕에게 자신의 직책을 속이고 있는 것이 되어 왕을 능멸하고 있는 셈이다. 더구나 그 충심의 글이라는 것을 바치는 왕이 며칠 있다가 시해하려고 했던 세조이다. 박팽년이 쓰지 않았음을 100% 증명하는 대목이다.

설원기의 위작자가 박팽년의 직책을 사실과 다르게 써 놓은 것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려준다. 곧 조선왕조실록 같은 문헌은 일반인이 보기 어려웠기에 한동안 사육신에 대한 사실은 남효온의 『육신전(六臣傳)』으로

만 알려져 있었다. 따라서 설원기의 위작자는 박팽년을 참칭하면서 『육신전』에 나온 묘사대로 그 직책을 형조참판이라고 쓸 수밖에 없었다. 『육신전』에 들어 있는 오류를 그대로 반복한 것이다. 『육신전』은 당사자가 직접 쓴 것이 아니지만 설원기의 직책을 밝히는 부분은 저자가 직접 쓴 것으로 표현되어 있어 그게 사실이라면 그런 오류가 들어갈 수 없었을 것이다. 따라서 설원기의 위작자는 후대에 입수할 수 있는 문헌과 이야기들을 가지고 조작해낸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외에도 48명의 응제시 저자들 중 많은 경우가 저자일 수 없는 다수의 문제점을 갖고 있는 등 형태적인 문제가 허다하다. 예를 들면 응제시의 마지막 저자로 나온 남효온은 설원기 제작시기인 1456년 5월 당시 만2세였고, 류씨와 차씨의 내력을 상세히 설명한 이예장은 당시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남효온은 하위지가 썼다는 서문에도 이름이 명확히 언급되어 있어 후대에 필사를 하다가 실수를 한 것이라는 등의 변명의 여지가 없다. 설원기의 위작자는 『육신전』이, 사육신변고 당시 유아였던 남효온이 30여년 지나서 전해오는 이야기를 토대로 비로소 쓴 책임을 알지 못하고 또 생육신의 하나로 추앙받는 남효온이 당연히 동시대인일 것으로 착각하고 그 이름을 도용한 것임에 틀림없다.

설원기는 작성날짜가 단종복위사건(사육신사건, 1456년 6월 2일) 직전으로 되어 있다. 결국 설원기는 그 사건을 기화(奇貨)로 삼아, 역적의 글은 파괴되어 세상에서 사라지는 사실을 이용하여 저자 참칭, 작성 시기 조작,

내용의 조작 등을 자행하고 후대에 그 조작된 문헌을 등장시킨 것이다. 이 과정에서 역사, 인물, 저자들, 왕명 등의 모든 부분을 조작했다. 설원기는 이렇게 위서(僞書)일 뿐만 아니라 후대의 평가대로 "배타적 가문의식이 변질 내지 변형된 산물"(김난옥, 고려대)로서 오로지 자신의 가문을 꾸미기 위해 악의적인 왜곡을 서슴지 않은 악서(惡書)이다. 앞으로 설원기를 지칭할 때는 필히 "위서(僞書) 설원기"라고 명시하는 것이 좋겠다.

『차원부설원기』에 대한 종합평가는 이렇다. "설원기는 서문, 본문, 응제시 전체가 그 작성시기와 작자뿐만 아니라, [변형된 극히 일부분(하륜과 이방원 관련 에피소드 등)을 제외한] 내용도 모두 위조/위작된 문헌이다." 이런 설원기라는 이해할 수 없는 위서(僞書)이자 악서(惡書)가 지금까지 문화류씨, 연안차씨, 개성왕씨 등 원과록을 받아들인 여러 관계 집안의 사람들 사이에서만 아니라 식자(識者)들 사이에서까지 큰 권위를 갖고 내려온 것은 조선 후기에 만연된 모화사상, 왜곡된 적서의식과 가문의식, 유림(儒林)의 무비판적인 충절사상 등에 그 원인이 있다. 예를 들어 두문동 72현이라는 것은 사실이 1%이고 덧대어진 것이 99%인 후대의 작품이다. 그 명단에는 무려 110명이 넘는 인원이 들어가 있고, 위서 설원기를 통해 그 행적이 조작된 차원부가 그 중 한 명으로 들어가 있으며, 두문동 72현이 충절의 대명사로 회자되고 있는 것을 보면 역사의 왜곡이 얼마나 심각한지, 그리고 그 여파로 잘못된 역사적 인식이 아직도 사회에 얼마나 만연해 있는지 알 수 있다.

4. 뒤틀린 가문의식의 발로

위서 설원기에서 시작된 역사 왜곡은 이미 1619년에 류몽인(고흥류씨)이 썼다는 차식(車軾: 차천로의 부)의 신도비명에서 확대되고 있다. 묘비명의 성씨 내력은 대개 해당 집안에서 제공하는 것을 기초로 작성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이 신도비명에서는 대승공은 일언반구도 없고 일찍이 고려 금석문에서부터 대승공이 세운 것으로 표현되어 있는 공적을 차문의 시조라는 차효전이 혼자 세운 것으로 그 몇 백 년 후에 기록하고 있다. 설원기가 조작된 것으로 판단되는 시기는 앞서 황제연원설의 등장시기에서 언급했듯이 대략 1580년대이다. 위서 설원기에서조차 차마 대승공을 배제할 수 없어 대승공과 차효전이 같이 공을 세운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을 보면 불과 몇 십년 후에는 아버의 공까지 모두 가로채고 있는 것이다.

이수건 교수도 김난옥 박사도 모두 한미한 가계를 높이려는 그릇된 가문의식에서 설원기가 나왔다고 설파하고 있고, 그런 심리적 계기를 차식, 차천로, 차운로 3부자의 재주에 비해 낮은 관직에 대한 불만, 그리고 특히 차천로와 차운로의 부정과 패악함 등을 들고 있다.

실제 실록에는 차천로의 과거 부정(1586년)과 그로 인한 유배를 언급하고 있고, 차천로가 과거 때 본관을 적지 않아 문제가 된 일도 거론되며(1596년), "어리석고 용렬"하고 "거칠고 야비한 행동을 많이 하여" 사간원의 탄핵을 받아 직책에서 파직되곤 했다(1601년, 1602년)고 밝히고 있다. 더구나 한번은

아내를 버리고 다른 종실(宗室)의 여자에게 장가들었는데, 처가 있으면서 또 처를 들인 행위가 되었기에 기강을 무너뜨린 짓이었고 뒤의 처는 아내가 될 수 없는데 왕실 계보에 아내라고 임의로 올려 선조임금도 "지금 차천로의 행위는 너무도 풍속을 해치고 윤리에 어긋나는 것"(1606년)이라고 탄식할 지경이었다. 계속 차천로는 사치스럽다, 아첨한다, 행실이 형편없다는 등의 묘사가 계속된다. 오랜 후에 1792년 정조 때의 실록 기자는 그가 글재주가 뛰어났으나 "집안이 미천하고 관직이 현달하지 못하여 그의 시(詩)도 또한 오래 전하지 못했었다"고 종합평가를 하고 있다.

차운로 역시 경망스럽다 하여 사간원의 탄핵을 받고 파직되며(1589년), 1618년에도 역시 "차운로(車雲輅)는 관원으로 있으면서 삼가지 않아서 도처에서 낭패를 당하고 더욱이 집안에서의 행동이 패려하여 사람들에게 버림받아 진신의 반열에 들 수 없으니, 파직하고 서용하지 마소서"라는 탄핵을 받고 파직된다. 1622년에도 미천한 사람이며, 백성과 관리들을 침탈하고 자기 집안 제사의 제물(祭物)까지 뜯어냈다고 탄핵을 받았다.

이런 와중에도 이들은 문장이 뛰어났다는 말이 계속 나온다. 특히 차천로는 조선 후기 까지도 문장의 대명사로 회자되었다. 그러나 한시를 좋아하는 필자로서도 현재 그의 글이나 시로서 명문으로 소개되는 것을 본 적은 없어 그 연유가 의아하다. 그 뛰어난 재주가 집안의 한미함 때문에 더 큰 출세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콤플렉스를 크게 느꼈을 가능성

은 농후하다. 차천로는 실제 아내의 일에서 신분상승을 극도로 추구했음을 알 수 있다. 실록에 드러내 밝힐 정도이기에 연구자들이 바로 이런 점을 설원기의 위작 동기로 밝히고 있는 것이다.

이수건 선생은 설원기의 위작자로 차씨 3부자(차식, 차천로, 차운로)를 들고 있는데, 설원기의 위작 시기를 1580년대 즈음으로 보면 이때 차식(1517~1575)은 이미 사망한 상태였기에 당시 20대 후반에서 30세쯤 되었을 문장의 귀재 차천로(1556~1615)가 위작자일 가능성이 가장 높다.

5. 객관성의 확보와 류차관계의 해소

위서 설원기가 믿을 수 없는 문헌임과 류씨와 차씨는 상계를 공유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세 가지 문헌을 소개하고자 한다.

그 첫 번째는 문화류씨의 가정보(1565년)이다. 이것은 우리나라 최초의 족보이자 지금은 전하지 않는 영락보(1423년)의 서문을 신고 있어 영락보를 계승하고 있음을 천명하고 있는, 객관성이 높고 만성보(萬姓譜)적 성격을 띠고 있어 학술적 가치를 크게 인정받고 있는 족보이다. 그런데 여기에는 류차관계에 대한 사항이 전무하고 작은 암시조차 주어져 있지 않다. 이것은 집안 전체의 족보를 제작하는 데 참여한 그 누구도 류차관계가 있음을 알지 못했음을, 곧 류차관계 자체가 없었던 것임을 증명한다. 그리고 이들 족보보다 앞서는 고려시대의 금석문(비석글)들에도 류차관계가 전혀 나오지 않는다.

두 번째는 조선왕조실록이다. 위서 설원기

가 주장하는 일들이 실제 일어났다면 방대한 실록에 차원부와 관련 사항들이 등장하여야 마땅하다. 그러나 실록에는 어떤 상소(1601년)의 한 구절에 성은 없이 '원부'라는 이름만 한 차례 나와 있다. 이것은 유럽들이 위서 설원기를 사실로, 그리고 차원부를 충절의 대명사로 믿고 있었음을 암시하는데, 반면에 실록의 입장에서 차원부는 한 번도 다루어지지 않은 인물임을 증명한다.

세 번째는 『일성록(日省錄)』이다. 『일성록』은 영조에서 순종까지 151년간 매일 국왕의 동정과 국정의 제반 사항을 기록한 일기체의 연대기이며, 1차적 사료로서 조선왕조실록 이상의 가치를 지녔다고 평가되는 문헌이며 국보 제153호로 지정되어 있다. 그런데 이 『일성록』의 정조 10년(1786년) 9월 7일, 정조 11년(1787년) 2월 6일, 그리고 정조 12년(1788년) 4월 4일의 3년에 걸친 세 번의 기사에는 차원부에게 시호를 내려주길 요청하는 상언(上言: 왕에게 올리는 글)이 나와 있다. 류씨와 차씨들이 올린 것인데 이들 상언에서는 설원기의 내용을 요약하여 차원부의 행적을 주장하며 조선에 공을 세운 것이기에 시호를 내려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정조와 해당 부서는 "믿을 수 없다"고 하면서 거절하고 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바로 차원부의 행적뿐만 아니라 태조에서 세조까지 역대 왕들이 차원부 및 그 설원에 큰 관심을 갖고 실제 설원을 하기도 했다는 이야기가 모두 거짓임을 의미할뿐더러, 시호 또한 내린 적이 없음을 의미한다. 이 『일성

록』은 설원기의 내용, 곧 설원기를 조선에서 공식적으로 부인한 기록으로서 설원기가 믿을 수 없는 조작된 문헌임을 증명하고 있는 중요한 사료이다.

필자는 위서 설원기를 검토하면서 『차원부설원기』를 비평한 인물들이 이미 조선시대에도 있었고 현대의 역사학계에도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특히 2007년 3월에 그 한 달 전에 학술지에 실린 학술논문 한 편을 소개받았는데 그것이 바로 영남대에서 평생 성씨 연구를 수행했던 이수건 교수의 유고(遺稿) 논문이었다. 제목은 "조선시대 신분사 관련 자료조작"(대구사학, 86집, 2007년 2월)이었고, 제목의 주제의 대표적인 예로서 『차원부설원기』를 들면서 그 문헌이 위작이라고 단언하며 그 위작자, 위작시기, 위작동기, 위작내용 등을 명백히 밝히는 내용이었다. 이 논문을 바로 대종회에 소개했고, 대종회에서는 그것을 다시 종원들에게 널리 배포했다. 그 결과 머리로 믿게 된, 차씨는 대승공의 자손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제는 가슴으로 믿을 수 있게 되었다. 이 논문은 후에 문화류씨 대동보(2008년, 무자보)에도 그대로 실릴 만큼 중시되었다. 그 후로도 김난옥 박사(현재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의 전임연구원)의 논문 "여말선초 정치변동과 배타적 가문의식(家門意識) - 정도전을 중심으로" (고려사학회, 2007년, p.243-274)도 나와서 설원기가 위작임을 논증했고, 이미 조선시대에 남극관(南克寬), 황윤석(黃胤錫), 이선(李選), 홍계희(洪啓禧) 등의 인물들이 설

원기가 위서임을 간파했음도 명확히 알게 되었다. 이들은 설원기를 '더러운 위작'이라는 내용의 표현까지 썼다.

한편 이수건 교수는 2007년의 논문과 내용적으로 유사한 논문을 1998년에 "조선시대 신분사 관련 자료의 비판"(고문서연구, 14, p.1-32) 이라는 제목으로 낸 것이 확인되어, 이 교수의 연구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었고, 또한 2003년에 나온 저서 『한국의 성씨와 족보』(서울대학교출판부)에서는 설원기를 직접적인 대상으로 다루진 않았지만 수차례에 걸쳐 그것이 위작이고 위서임을 거듭 명시하고 있었다.

2007년 5월에는 드디어 더 이상 의미 없게 된 차류대종회가 해체되었고 장학재단도 해체되어 문화류씨 단독의 재단이 설립되었다. 그리고 2008년은 여러 모로 류차문제에서 결정적인 해이다. 바로 류씨와 차씨가 완전 별개임을 선언한 문화류씨 대동보인 무자보가 발간된 해이고, 뿌리공원에 문화류씨 유래비가 세워지고 그 안에 명시적으로 같은 내용이 표현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실로 몇 십년만의 류릉의 방문을 통해 차문에서 류상운 선조께서 대승공의 성을 복성(複姓)인 "류차"라고 불렀다고 주장한 해괴한 망발을 일거에 깨뜨릴 수 있었다. 또한 그 동안의 숙원이었던 대종회의 공식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사실을 더 널리 알릴 수 있게 되었다. 여기에 필자는 다음에 언급할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차원부설원기』의 공식적 부정도 넣고 싶다.

“국가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한국학 진흥”



한국학중앙연구원



수신자 충남대 류주환 교수

(경유)

제목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오류 정정 요구에 대한 회신

1. 우리 연구원에서 발간한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 대한 귀하의 각별한 관심과 아울러 애정 어린 염려에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보내주신 정정 요구 서한(2008. 7. 2)은 잘 받았습니다.
3. 정정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우리 연구원에서 빠른 조치를 강구하기로 한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해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 가. 귀하께서 정정을 요구하신 내용에 대하여 필자 손흥렬교수님과 상의 하였으며, 본 항목기사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짐에 따라 차원부에 대한 사항을 정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즉, 류주환 교수께서 지적하신 차원부 관련 사항을 제2차 개정증보 디지털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판(2011)에 반영할 것이고, 차원부와 관련된 다른 주제어나 내용도 모두 찾아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나. 또한 차원부 항목 유지 여부 결정 및 본 항목 기사 집필의뢰 시 재차 류주환교수님의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 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단일민족을 다룬 세계 초유의 사전이기 때문에 문제점도 없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지속적인 증보개정판을 내기로 결정한 것도 그 문제점을 고쳐 나가면서 양과 질을 높여 바로 잡고자 하는 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의 경우 그 생명력은 우리 연구를 포함한 학계는 물론 귀하를 포함한 국민 모두의 관심과 참여의 심도에 따라 결정되리라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귀하께서 계속 관심과 애정 어린 질정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6. 진실의 전파

필자는 그 동안 설원기의 연구나 차문에서 주도한 설원기의 국역에 관련되었거나 혹은 기타 어떤 식으로든 설원기와 관련된 개인 및 단체들을 찾아 설원기의 실상을 알리는 노력을 해왔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한국학중앙연구원"(구 정신문화연구원)이다. 이곳은 권위 있고 인터넷의 대형 포털 사이트들에서 사용하고 있는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을 편찬한 곳이다. 그런데 이 사전에서는 "차원부" 및 관련 항목들이 실려 있고 그것들은 『차원부설원기』에 입각한 설명들을 하고 있다. 일반인들은 국사사전에도 나오는 것을 누가 믿지 않을 것인가. 그래서 이것을 수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급선무라고 판단하고 "차원부" 및 관련 항목들을 삭제 내지는 정정해달라는 장문의 요청서를 연구원에 송부했고, 드디어 2008년 8월 6일자 공문으로 필자의 요청을 모두 수용한다는 답변을 받았다. 다만 현재 개정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 작업이 2011년에 완성된다고 했다. 이 공문은 바로 『차원부설원기』의 사망선고라 평가된다. 이로써 워서 『차원부설원기』는 역사에서 사라지게 되었다.

다음은 한국 사학계의 중진이며 정도전 연구에 권위자인, 서울대에서 정년퇴직하고 지금도 이화여대 석좌교수로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신 한영우 교수이다. 한 교수는 자신의 저서 『정도전사상의 연구』의 앞부분에서 설원기를 인정하는 입장에서 정도전 가계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필자는

이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고 한 교수는 2008년 7월 19일에 설원기가 "위서가 확실하다는 믿음을 갖게 되었다"고 밝히는 답장을 보내왔다.

설원기 국역을 축하해준 작가이며 컬럼니스트인 김제영 여사에게도 연락해서 설원기가 위서임을 인정한다는 답변을 들었으며, 국역에 발간위원회의 위원으로 이름을 올린 홍일식 박사(전 고려대학교 총장)에게도 연락해서 병환으로 인해 그 비서를 통해 사안을 인지하고 있다는 답변을 들었다. 번역자문을 해준 강원대의 철학과의 고재욱 교수는 그런 문헌인지 몰랐다고 놀라는 반응을 보였다.

하륜의 진주하씨 문중의 몇몇 분에게 하륜이 설원기에서 얼마나 그릇 매도당하고 있는지를 일찍이 전언했는데, 더 이상 논의를 나눌 문중의 주체는 찾기가 어려웠다. 대신 박팽년 선생의 순천박씨종친회와는 여러 차례의 대화를 통해 박팽년 선생이 설원기의 저자로 참칭되고 있음을 알렸고 박씨 문중에서는 검토 끝에 동의한다는 연락을 해왔다. 재미있는 사실은 1998년의 설원기 국역 시 차문에서는 순천박씨종친회장까지 발간위원회 고문으로 끌어들이는 점인데, 필자는 그렇게 끌려들어간 순천박씨는 그 선조인 박팽년 선생에게 부지불식간에 얼마나 큰 불효를 행한 것인가를 생각할 때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었다. 마지막으로 그 문중에 연락을 해서 차문에 박팽년 선생의 참칭을 중지하라고 강력하게 요구하길 권했는데, 문중간의 싸움으로 비화할 것을 걱정한 탓인지 그에 대한 대답은 아직 받지 못하고 있다. 조상이 워서에 참

칭되고 있다면 그것이 무엇보다도 더 큰 문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은 필자의 좁은 소견 탓일까.

이런 맥락에서 아직도 진행 중인 사안이 몇 가지 있다. 그중 하나는 문헌 해제의 정정이다. 『차원부설원기』는 그동안 여러 이름으로 출간되어온 카멜레온 같이 종잡을 수 없는 문헌인데다 위서인데 문헌의 해제라는 것은 대개 그 책의 내용을 소개하는 것이어서 해제를 읽는 사람이 그 내용을 사실로 오인할 소지가 크다. 그런 해제를 제공하는 기관이 권위 있는 곳이라면 더욱 그러하다. 이런 일로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의 사이트에 『차문절공유사』 해제를 쓴 것으로 나와 있는 황재문 교수(서울대학교 연구교수)에게 연락을 취했는데 자신들은 역사학계에서 내리는 평가 같은 것을 함부로 내릴 입장이 아니라는 반응을 보였다. 그래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문을 제시했더니 현재는 규장각에서 근무하고 있지 않기에 어렵지만 기회가 된다면 그런 내용을 반영하겠다고 전해왔다. 규장각 자체에는 그 추이를 봐서 접근할 예정으로 있다. 하나의 예를 만든 다음 다른 많은 도서관 등지에 연락해서 비록 책 내용을 그 자체로 소개는 하더라도 최대한 설원기가 위서임을 명기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다른 사안은 설원기를 찍어냈던 목판에 관한 것이다. 그중 하나가 200년이 좀 넘는 것이라 하여 전남도의 지방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다. 필자는 목판으로서의 가치가 그 위서 자체의 해악을 상쇄할 만큼 크지 않다면 문화재지정에서 해제하도록 민원을 제기했다. 문화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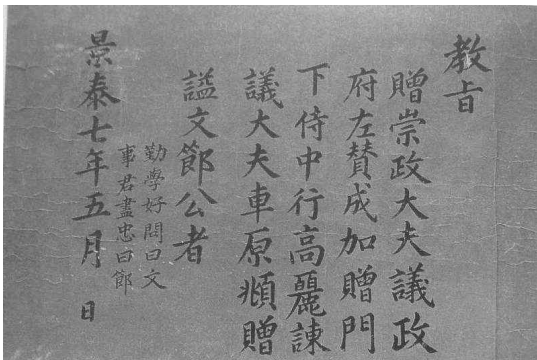
정지원도 받기 때문에 지정 해제 요청을 차문에서는 심각한 상황으로 인식해서 대책회의까지 했다고 한다. 그런데 전남도에서는 작년 말에 해제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공문을 보내왔다. 그 결정의 주체는 전라남도문화재위원회이고 인쇄사적 가치를 평가한 것이기 때문에 지정해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향후 지정해제의 방법은 없는지를 더 알아보고, 최소한 그 목판의 지정사유와 설명 문구를 검토해서 그 내용이 '사실'로서 표현되어 있다면 이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히도록 해야 하며, 일반인들에게 사회에 해독을 끼친 악서(惡書)를 기록한 목판이 세금을 들여 문화재로 보호되고 있다는 문제점을 부각시키는 노력도 필요하다.

주간동아 2005년 12월 6일자(통권 513호)의 "杜門不出" 두문동 72賢을 찾아서. 7. 연안 차씨와 차원부"에는 말미의 극히 일부분을 제외하고는 『차원부설원기』를 그대로 옮긴 기사가 실려 있다. 이에 대해 주간동아와 작가에게 설원기가 위서임을 지적했고 나아가서 두문동 72현이라는 개념 자체가 문제가 많은 개념임을 밝혔다. 주간동아는 한 발 빼고 아무런 반응이 없고 대신 작가(컬럼니스트 허시명)는 충분히 연구하지 않고 작성된 기사이며 차문의 말을 그대로 옮긴 것이라는 고백을 해왔다.

한편 2008년과 2009년 사이의 학술논문 검색을 해보았으나 차원부와 설원기 관련 논문은 보이지 않았다. 앞의 몇 개의 논문을 통해 확실하게 결론이 나 버렸기에 그것들로 족하기 때문인 듯하다.

7. 차문의 역사 왜곡은 현재 진행형

이 시점에서 차문의 교지(教旨)와 차성묘(車城墓)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다. 우선 교지라 하면 왕이 일정한 품계 이상의 벼슬이나 시호 등을 내리는 임명장이다. 그런데 차문에서는 다음과 같은 교지를 족보와 각종 서적에서 선전하고 있다.



차문에서 위조한 교지(教旨)

이 교지에는 차원부에게 벼슬들을 증직(贈職)하고 있고, 문절(文節)이라는 시호를 내린다고 쓰여 있고, 시호의 해설이 주어져 있다. 그런데 문제는 날짜이다. 바로 경태7년(세조 2년, 1456년) 5월이며, 6월 2일의 사육신 변고 직전의 시기이며 위서(僞書) 설원기의 작성날짜로 조작된 바로 그 시기이다. 그런데 앞서 살펴본 『일성록』에 따르면 차원부의 시호를 내린 적이 없음이 공식 확인된다. 이것은 저런 교지가 내린 적이 없음을 의미하며, 나아가서 저 교지가 위조되었음을 증명한다. 교지의 위조는 조선시대에는 사형에 까지 이르던 중죄였다. 이 위조는 심각해서 차문에서는 이것이 위조가 아님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심각한 도덕적 타격을 받을 것이

다. 곧 과거에 조작된 설원기의 경우는 누군가 조작한 사람 때문에 자신들도 지금까지 속았다는 변명이라도 꺼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교지는 최근의 조작임이 확실하기에 현재의 조작의 주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

교지 못지않은 또 하나의 이슈는 차성묘(車城墓)이다. '차성'은 부산 기장 지역의 오래전부터 사용되어 오는 별칭인데, 그곳에 큰 무덤(석총:碩塚)이 하나 전해져 오고 있다. 차문은 18세기 이전의 어느 시점에 그 지명을 주목하고 건강부회를 했다. 바로 그 무덤을 대승공의 꾸며진 6대조인 차건신(車建申 혹은 차건갑)의 무덤으로 둔갑시킨 것이다. 그리고는 신라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이야기를 꾸며냈다. 차건신이 신라의 높은 벼슬을 한 신하로서 40대 애장왕(哀莊王, 재위 800-809)의 섭정을 하다가 죽어 왕의 예로 기장에 장사지내서 그 고을을 '차성'이라 불렀다는 이야기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차씨는 『고려사』에 처음 등장했고 신라시대까지 그 어떤 문헌에도 나오지 않는다. 섭정이 라면 왕의 대리자로서 왕에 버금가는, 또는 경우에 따라 그 이상 가는 권력자이니, 실제 그런 인물과 사건이 있었다면 사서(史書)에 나오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차성'이라는 명칭의 유래를 보면 이미 경덕왕 16년(757년)에 전국의 지명을 한자화할 때 생겨난 지명이며, 그 뜻 역시 한문의 차(車)자와는 전혀 무관한 우리말의 한자화일 따름이다(車 = '수리'). 실정이 이런데도 차성의 車자에 가공인물 차건신의 車자를 건강부회하여 '차릉'이라고 까지 부르고 있다. 위서 설원기에서 대승공류차달의 車자 때문에 차효전을 건강부회시

킨 것과 동일한 맥락이어서 흥미롭다.

소위 '차릉'은 지금까지 차씨가 신라시대에 실존했음을 보이는 유일한 증거였는데 그것 역시 조작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 사서(史書)나 전승 어디에서고 차씨가 고려시대 이전에 존재했었음을 보이는 증거는 전무함이 판명되었기 때문이다. 한편 기장읍에 사는 김차옹이라는 향토연구가가 차성묘를 "차각간 묘" 혹은 "차씨 묘"로서 문화재로 복원해야 한다는 주장을 유교신문(2008. 12. 1)에 기고하였다. 필자는 그에 대한 반박문을 같은 신문에 기고했고, 김차옹씨와 여러 차례 대화를 통해 직접 그 주장의 오류를 설파했고, 김차옹씨는 성씨의 역사 등의 고찰이 부족했음을 토론했다.

차건신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차승색(車承穡)으로서 이 역시 벼슬이 높았고 어린 애장왕을 시해하고 왕위에 오른 헌덕왕(憲德王, 재위 809-826)을 암살하려고 시도하다 발각되어서 구월산 지역으로 도망쳐 류씨로 가짜 성을 붙이고 이름도 '색'으로 바꾸어 '류색'(柳穡)으로서 최초의 류씨가 되었다는 인물이다. 그러나 이 인물도, 당연한 얘기지만, 그런 대단한 인물이고 그런 대단한 일을 벌였다는 증거가 아무런 사서에도 나오지 않는다. 이것은 국사편찬위원회가 공문(2008. 11. 27)으로 확인한 사항이다.

"고려역사선양회"의 문제 역시 심각하며 그 해결에 노력을 경주해야 할 사안이다. 이 단체가 주도하여 건립한 고려통일대전에는 문화류씨 5위가 배향되어 있고 연안차씨는 10위가 배향되어 있다. 그런데 문제는 대승공이 "류차달"과 "차달"이라는 다른 성명으로

서 두 개의 위패로 모셔지고 있다는 경천동지할 사실에 있다.(선양회의 홈페이지 자료에 의함.) 현재 선양회는 차문 사람들이 총재 등의 임원들로 포진하고 있어 쉽지 않을 듯 하지만 어떻게든 해결하지 않으면 세인들에게 고개를 들지 못할 일이다. 나아가서 위패의 배향의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 임의의 위패 봉안 역시 새로운 역사의 왜곡은 아닌지 묻고 싶다.

차문은 현재에도 인터넷 홈페이지와 각종 문헌을 통하여 대승공의 성과 이름이 다른 것이라 주장하고 있고, 위서 설원기에 입각한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다. 그리고 홈페이지의 게시판에서 설원기 관련 의문이 제기되면 올린 글을 삭제하고 있다.

8. 역사의 횡설

『차원부설원기』는 왜곡된 가문의식이 어디까지 잘못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명백한 예이다. 앞으로 우리 사회가 올바른 가문의식을 형성하여 가문이 아래로는 구성원의 정체성의 올바른 외연(外延)으로 작용하며 위로는 사회의 복리와 안녕에 기여할 수 있는 하나의 주체로서 기능해야 한다.

차문은 왕에게서 사성(賜姓)을 받아야만 진짜 성씨가 되었다고 주장하는 등의 역사적 거짓을 일삼고, 정도전이 『고려사』를 마음대로 농단해서 대승공 류차달이 원래 다른 이름인데 류차달로 제멋대로 고쳤다는, 동기도 없고 증거도 없고 최종 『고려사』는 정도전과 전혀 무관한 것이라는 역사적 사실도 무시하면서 음모론만 제시하는 예에서 보듯 막무가내식의 주장에, 심지어 이해할 수 없

는 한문 해석의 왜곡까지 버것이 동원하면서 류차문제를 지속적으로 확대해가며 역사왜곡을 계속하고 있다. 그러나 이제 인터넷을 중심으로 한 열린 시대를 맞이하여 언제까지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행위를 계속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루빨리 이성을 되찾고 더 늦기 전에 누구나 수궁할 수 있는 역사적 인식 위에 가문사를 재정립해야 한다. 또한 차문은 그 동안의 분란에 대해 공개사과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아직 류씨와 차씨의 선계가 다르다는 사실에 심정적으로 동의하지 못하는 류씨들도 없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특히 선조들이 말로 또는 글로 명시하여 류씨와 차씨는 일가라고 전해온 것을 거역할 수 없다는 입장도 있다. 그러나 그 선조들 위의 선조들은 류씨와 차씨의 혈연관계가 없음을 알고 있었다. 또한 누가 하마를 돼지로 잘못 알았고 그렇게 자식을 가르쳤다 해서 그 후손들이 하마가 돼지가 아님을 알게 되었고도 선조인 그를 존경해서 계속 돼지라고 부르고 살아야 한다고 말한다면 웃음을 살 일일 게다. 더구나 대승공 자신께서 없던 아들이 하나 더 생겼고, 그 잘난 가짜 아들 덕에, 당신께서 류씨 가문을 일으키셨는데, 차씨까지 되었다고 행여나 영광스러워 하실까.

문화류씨는 가문사와 족보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점해왔고 그 위치를 통해 다른 가문들의 의식과 족보의 형성에 영향을 주어왔다. 그동안 깨닫지 못하는 사이 끼친 해악이 많으리라 짐작된다. 몇 백년에 걸친 그릇된 선계의 기술(記述)은 현재 각종 인터넷 자료와 문헌 등에 잘못된 정보를 넘치게 만들었

다. 일본이나 중국어 등을 쓰는 외국 사이트와 문헌 자료들에까지도 영향을 미친 경우를 종종 목도한다. 류문은 통렬한 자성을 통하여 거듭나야만 한다. 그리고 향후 총체적인 노력을 경주해서 잘못된 역사의 기술을 올바른 것으로 수정하며 더욱 진실을 전파하며 여타 가문들이 올바른 가문의식을 갖도록 하는 모범이 되는 등의 남겨진 과제들을 모두 해결해나가지 않으면 안 될 시대적 사명을 띠고 있다. 몇 백년 동안 속임수에 넘어갔던 주체였다는 죄 아닌 죄에 대한 응보라기보다는 이제는 더 이상 굽은 것이 곧은 것을 물리칠 수 없는 세상을 향해 횃불을 높이 들어야 할 때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이 글에 나타난 비판은 가문의 구성원 개인을 향한 것이 아님을 밝히며 독자의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각자 스스로의 판단을 통하여 올바른 방향으로 행동해나가기를 촉구하고 싶다. 개인적인 관점에서 류차문제를 개관해 보았는데 필경 협소한 관점에서 말한 것이나 실수도 있을 것이다. 독자의 토론과 질정을 기대한다.

충남대학교 공과대학 교수 학술박사(Ph.D.)

대승공 36세 채하 류주환(彩霞 柳朱桓)

Home: <http://kenji.cnu.ac.kr/ryu/>

E-mail: juwhan@cnu.ac.kr

大丞獎學會 再創立



常任理事 柳文冀

근세에 우리 류씨와 차씨는 동조이성이라 하며 차류대중회까지 결성하여 친히 지내왔다. 그런데 근년들어 연안차문에서 류씨의 시조 및 선계를 폄훼조작하며 소요를 일으켰다.

문화류씨대중회에서는 그 진위를 파악하고자 공가문헌으로서 류씨와 관련이 있는 것이면 모두 모아 수년동안 정밀 탐구한 결과 이제까지 알고 있던 것이 모두 조작임을 파악하고 실지 허위임을 공표하였다.

2007년 5월 28일

차류대중회중앙총본부 정기총회에서 차류대중회 중앙총본부를 해체하고 대승장학회로 명칭 변경을 결의하다.

10월 05일

차류대중회 중앙총본부 소유의 부동 유동 전 자산을 대승장학회명의로 이전완료하다.

12월 05일

제1차 회의에서 재단법인 설립안이 의결되어 2개월에 걸친 재단법인 설립을 추진하였

으나 재정수익이 취약하여 부실법인이 우려된다는 주무관청의 권유를 받아들여 재단법인 설립을 유보하다.

2008년 03월 19일

제2차 회의 시 차문 측에서 대승장학회 명칭을 차류장학회로 명칭변경을 요청하였으나 추후 재단법인 설립 시에 다시 논의하기로 협의하다.

2차에 걸쳐 심의 작성된 대승장학회 정관 초안을 최종 의결하다. 정관초안 완성 후에 차문 측에서 수차에 걸쳐 공문 및 발언을 통하여 차류장학회로 명칭을 변경할 것과 정관 제2조의 목적사항을 “차류후손의 장학사업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수정할 것을 요청하여 오다.

07월 08일

고문 이사연석회의시 차문에서 다시 차류장학회로 명칭변경 요구가 있었으나 류근창 장학회장의 집요한 설득으로 대승장학회 명칭을 예전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결의하다.

08월 02일

대승장학회 발전을 위한 모임(대승장학회 재창립총회)을 개최하다.

이에 앞서 연안차씨대중회 차화준회장이 대승장학회를 탈퇴하겠다고 하는 한편 탈퇴 조건으로 지분 1억 2,000만원을 청구하다.

이에 류근창회장이 현 장학회의 적자운영의 상황을 들어 수차 설득, 감액한 끝에 일금 6,500만원으로 최종합의를 보고, 합의금액을 차문의 장학기금 명목으로 지불하다.

이로서 류차 양문의 분쟁 관계를 깨끗이 정리하고 대승장학회는 문화류씨와 진주류씨를 주축으로 운영하게 되다.

끝으로 장학회 정관을 만장일치로 승인하고 향후 장학기금을 모금하여 재단법인 설립을 추진키로 하다

장학회 운영은 각본과 대중회 및 소파중중 중심체제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다.

2009년 2월 18일

신년하례회 겸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금년도 기금 확충 5억원 목표를 결의(장기적으로는 30억 목표)하고 재단법인설립을 재결의하다.

10월 29일

류근창회장 종중인 진주류씨 충청공파 종중 일금1억원을 위시한 문화류씨와 진주류씨 종친들의 많은 성금답지 및 본회이사 54분 전원 이사회비 완납 등의 열의에 의해 일금 5억원이상의 장학기금이 확충되어 재단법인 대승장학회 설립인가를 신청하다.

大丞獎學會 회원 명부

2009. 10. 09 기준

姓名	系派	職位	宗中經歷	住 所
柳根昌	진주	회장	대승장학회장	서울시 동대문구 제기동 1158-48 유니텔 1505
柳忠烈	김한	고문	전차류대중회회장	전북 김제시 공덕면 공덕리51-25 벽성대학교
柳興洙	충경	"	전차류대중회회장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467-6 대림아크로빌A동 2303
柳三男	충경	"	전차류대중회회장	서울시 서초구 잠원동50 롯데캐슬 101-1201
柳仁赫	문평	"	전차류대중회장대행	충북 청주시 흥덕구 모충동 247-4
柳浩倓	하정	"	전문화류씨대중회장	서울시 성동구 성수2가 3동 273-19 (주)아이템플
柳濟求	정숙	"	문화류씨대중회장	충북 옥천군 군북면 이백리 346
柳根桓	진주	"	진주류씨중회부회장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 86 아시아선수촌@6동 802

姓名	系派	職位	宗中經歷	住 所
柳炳淳	서령	"	서령류씨대중회장	충남 서산시 운산면 소중리 44-13
柳丙淳	영광	"	영광류씨대중회장	전북 남원시 사매면 오신리
柳在殷	시랑	이사	문화류씨대중회	충북 청주시 상당구 영동 평화@ 마-301
柳寅秀	시랑	"	"	충북 청주시 상당구 영운동 삼일@ 101-1102
柳在浦	문숙	"	"	인천시 서구 가좌3동 192-7 세우@ E동 301
柳志春	하정	"	"	서울시 강서구 공항동 67-22
柳善永	하정	"	"	서울시 강동구 길동 409-12
柳昌烈	하정	"	"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131-5
柳羲洛	근산	"	"	대구시 신서동 신일해피@ 101-1302
柳台紀	문평	"	"	충북 청주시 흥덕구 봉명2동 470
柳秉煥	문평	"	"	충북 진천군 진천읍 교성리 201-1 제일예식장
柳宗杰	문평	"	"	충북 청원군 내수읍 초정리 188-8
柳鎮圭	중문	"	"	광주시 북구 각화동 금호@ 8동 903
柳在光	중문	"	"	충북 진천군 진천읍 행정리 517
柳石鉉	중문	"	"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당산푸르지오@ 106-1701
柳濟善	중문	"	"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 5가 효성@ 106-401
柳松桓	중문	"	"	서울시 구로구 고척동 260-11
柳壽鉉	좌상	"	"	서울시 중랑구 망우본동 361-9번지 4층
柳益烈	좌상	"	"	충남 부여군 부여읍 중정리 511
柳在升	좌상	"	"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기지2리 888-1
柳仁鉉	좌상	"	"	경북 봉화군 석포면 석포리 607
柳三鉉	좌상	"	"	서울시 관악구 은천동 1708 두산@ 111-702
柳淙鉉	좌상	"	"	대전시 중구 유천1동 301-49
柳大賢	검한	"	"	전북 익산시 신흥동 721-1
柳德永	검한	"	"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여월동 89-19

姓名	系派	職位	宗中經歷	住 所
柳暎烈	김한	"	"	서울시 금천구 독산동 899-17 도산빌딩4층
柳在憲	김한	"	"	강원도 춘천시 신북읍 지내3리 143
柳在萬	부운	"	"	서울시 도봉구 창동 804 대우@ 103-202
柳甲善	충경	"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5-12 성우빌딩 관리실
柳能烈	충경	"	"	대전시 중구 대흥동 현대2차@ 102-804
柳吉洙	충경	"	"	경기도 오산시 오산동 789-2 오산대중사우나
柳塔鎭	충경	"	"	서울시 광진구 화양동 49-14
柳在振	충경	"	"	전북 익산시 함열읍 흘산리 198
柳在華	충경	"	"	서울시 서초구 잠원동 70 신반포나라@ 210-603
柳在中	충경	"	"	대전시 서구 도마2동 211 경남@ 102-403
柳文翼	진주	상임	진주류씨대중회	서울시 강서구 가양동 1481 S.H빌 516-606
柳起衡	진주	이사	"	경기 파주시 교하읍 동패리 동문굿모닝힐@ 609-1503
柳芳熙	진주	"	"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47-20 상아빌라 602
柳炳錫	진주	"	"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리 성호1차@ 102-2002
柳炳赫	진주	"	"	서울시 은평구 불광1동 551-24
柳錫贊	진주	"	"	인천시 강화군 송해면 상도리 394-1
柳載中	진주	"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1동 97-3 진흥@ 17-505
柳重燮	진주	"	"	서울시 구로구 고척2동 260-18
柳澤圭	진주	"	"	서울시 동대문구 청량리 2동 흥농 동부@ 103-1404
柳淑鉉	서령	"	서령류씨총회부회장	충남 당진군 우강면 송산리 401-4
柳正根	영광	"	영광류씨총회부회장	전북 남원시 고죽동 623-19
柳志遠	중문	감사	문화류씨대중회	대전시 동구 인동 듀오빌@ 101-1505
柳光煒	진주	"	진주류씨대중회	대전시 서구 갈마동 407 갈마@ 202-902

大宗會長 就任辭

문화류씨대종회장 류제구

존경하는 전국 방방곡곡 종친 여러분! 금년 4월 9일 대종회 정기총회에서 외람이 중임을 맡은 대종회장 류제구입니다.

실은 본인보다도 대종회의 현임 부회장단 및 이사진 여러분, 그리고 전국 경향 각처에 유능한 분이 기라성 같이 많은데 인품은 물론 학식, 재력, 사회적 지위 등 모든 면에서 부족한 본인을 선출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는 한편 취임인사에 임하여 두려운 마음이 또한 앞섭니다.

돌이켜 보건대 우리 문화류씨대종회가 창립된 지 어언 30여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역대 회장님들께서 대종회의 발전에 훌륭한 업적을 남겼습니다. 이에 일일이 들어 말씀드리지 못하겠고 다만 직전 호담회장님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건대 공사간 다망하신데도 수년에 걸쳐 어려운 대동보를 성공적으로 발간하시고 뿌리공원 조형물건립, 차씨 소요대응 등 참으로 수고가 많았습니다. 우리 모두 그 훌륭한 업적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대종회의 존립 요지를 대강 말씀드리자면 첫째 송조사상을 고취하여 조상의 유덕을 숭배 천양하고 유적을 수호 전승해야 할 것이며, 둘째 목종정신을 발휘하여 국내외 30만 동족 간에 백대지친의 족의로써 서로 돕고 화목해야 할 것이며, 셋째 육영사업을 추진하여 훌륭한 인재를 발굴함과 아울러 전인교육을 계도하여 크고 작은 일꾼을 많이 배출, 지역사회에 이바지하고 나아가 국가발전에 기여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 것이 소위 송조, 목종, 육영의 3대 요지로서 우리 대종회가 구현해야 할 궁극의 목표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모두 노력 실천함으로써 종친 개개인의 행복과 나아가 그 가정, 이웃, 사회, 국가의 안정 및 융성이 반드시 보장될 것입니다. 이 것이 또한 위로 조상의 음덕에 대한 보답이요, 아래로 후손의 번영을 추구하는 일로서 우리 문화류씨가 영구히번창하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우리 문화류씨는 옛 부터 삼한갑족, 곧 우리 나라의 으뜸 씨족으로 일컬어 왔습니다. 뿌리가 깊고 근원이 오래된 그야말로 저력 있는 명문거족으로써 타성씨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우리 모두 선세의 아름다운 명성을 이어 가고 후대의 훌륭한 영광을 지켜 나가기 위하여 노력과 동참은 물론 가일층 성원과 협조를 간절히 바라마지 않습니다.

본인 역시 모든 면에서 부족함이 많습지만 본인 생애의 마지막 봉사라고 생각하고 미력하나마 우리 대종회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여러분 앞에 엄숙히 약속합니다.

끝으로 국내외 종친 여러분의 각 가정에 언제나 행운이 충만하시길 빌면서 이만 인사로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기 2009년 5월

【先蹟探究】

柳氏·高麗初期人物

姓 諱	年代	略 事	貫鄉
柳天弓	太祖	太祖 初妃 神惠王后柳氏의 父	貞州
柳德英	"	太祖 六妃 貞德王后柳氏의 父	貞州
柳車達	"	三韓功臣 大丞	儒州
柳矜順	"	平安道 地域의 賊帥. 弓裔 時 豪族	
柳問津	"	918,8 廣評郎中	
柳陟良	"	918,9 珍閣省卿	
柳邦憲	穆宗	944生 門下侍郎平章事 1009 卒, 諡 貞簡	全州
柳 宗	顯宗	1011,1 顯宗 廣州行次時 扈從	
柳僧虔	"	1011,8 殿中少監	
柳仁澤	"	1011, 太史令	
柳允孚	"	門下侍郎 內史令 1015 卒, 諡 敬安	
柳高價	"	1016. 郎將	
柳 參	"	1019,3 禮賓卿	
柳 琮	"	1021, 兵部侍郎	
柳伯仁	"	1025,7 殿中侍御史	
柳 雲	"	1030,3 侍御史	
柳 喬	德宗	1032,10 工部郎中	
柳 韶	"	平章事 1038 卒, 諡 襄懿 德宗廟庭 配享	貞州
柳 彭	文宗	1047,3 春官正	
柳得韶	"	1047, 太史丞	
柳 監	"	十二公徒의 一, 忠平公徒의 師	
柳善餘	"	1054, 4 及第	
柳 涉	"	1073, 西京將軍	
柳 洪	"	肅宗 妃 明懿太后柳氏의 父 諡 匡肅	貞州

상기 도표는 高麗 太祖 때부터 文宗 때까지 즉 고려초기 160여년 동안의 인물 중 柳氏만을 高麗史에서 발췌한 간략한 기록이다.

이를 살펴건대 貞州(豐德), 儒州(文化), 全州(完山) 및 본관 미상의 많은 류씨들이 당시 朝廷에 출사하여 국가에 이바지하였음을 알 수 있고, 또한 柳氏를 高麗 四大名族 중 一族으로 일컬었음을 立證할 수 있다.

翠石 記

文化柳氏 文翰 三大家

문한가(文翰家)란 문장(文章)과 필법(筆法)이 훌륭한 집안을 일컫는 말이다.

우리 문화류씨(文化柳氏)에서 문한(文翰)이 훌륭한 집안이 많지만 특히 학문(學問)에 힘써 당대 100여년 전후로 그 유문(遺文: 遺稿)이 많이 전하고 학행(學行)으로 유명했던 세 집안을 이에 소개한다.

夏亭公后 連山家

하정공 관(夏亭公 寬)의 3자 안숙공 계문(安肅公 季聞)의 계자(季子) 사헌부감찰(司憲府監察) 조(眺)의 후손으로 주로 연산(連山) 지역에서 문한이 빈번하였다.

감찰공의 현손 위(滄)는 호 계휴정(繼休亭)이니 선조(宣祖) 계유(癸酉: 1573)에 생원에 급제하고 음사(蔭仕)로 창평현령을 지냈는데 시사(詩思)와 필법(筆法) 사기(射技)에 능하여 세상에서 삼절(三絶)이라 칭하였다.

계휴정공이 아들 4인을 두어 장남 성민(成民)은 호 내헌(耐軒)이니 선조 신축(辛丑: 1602)에 진사에 급제하고 음사로 형조정랑을 지냈으며, 2남 광민(匡民)은 광해정란(光海政亂)을 당하여 연산(連山)으로 퇴거, 관직에 나가지 않았으며, 3남 제민(濟民)은 인조(仁祖) 기묘(己卯: 1639)에 생원 진사시에 모두 급제하였는데 그가 줄함에 우암 송시열(尤菴 宋時烈) 선생이 만사로서 공의 시(詩)에 능함을 칭송 애도하였으며, 4남 정민(定民)은 사계 김장생(沙溪 金長生) 선생의 문하에 수학하여 인조 정묘(丁卯: 1627)에 진사에

급제하였다.

성민의 장자 흙(흙)은 호 용문(龍門)이니 광해(光海) 계축(癸丑: 1613)에 생원에 급제하고 병진(丙辰: 1616)에 문과에 급제하여 인조반정(仁祖反正) 후 예문관검열을 지냈으며, 차자 집(懃)은 숙종(肅宗) 갑자(甲子: 1684)에 생원에 급제 하였다.

흙의 아들 형원(馨遠)은 호 반계(磻溪)니 효종(孝宗) 갑오(甲午: 1654)에 진사에 급제하고 실학자(實學者)로서 반계수록(磻溪隨錄) 외에 많은 저술을 남겼다.

형원의 아들 하(晙)는 숙종(肅宗) 을묘(乙卯: 1675)에 생원에 급제하고 음사로 세자익위사(世子翊衛司)의 세마와 위술을 지냈다.

하의 장손 발(發)은 경종(景宗) 계묘(癸卯: 1723) 진사에 급제한 후 음사로 사재감첨정을 지내고 수직으로 자헌대부 지중추부사에 올랐으며, 그 아우 훈(薰)은 영조 기묘(己卯: 1759)에 문과에 급제, 승지를 지냈다.

광민의 3남 감(愍)은 젊어서부터 경서(經書)를 좋아하여 늙도록 더욱 돈독하였으며, 그의 아들 문원(文遠)은 호 삼우당(三友堂)이니 학행으로 누차 천거 되어 부안 동림서원(扶安 東林書院)과 연산 휴정서원(連山 休亭書院)에 배향 되었으며, 삼우당의 아우 재원(載遠)은 숙종(肅宗) 을유(乙酉: 1705) 문과에 급제, 정언과 해미현감을 지냈다.

계휴정의 아우 징(澂)은 선조 신묘(辛卯: 1591)에 진사에 급제하고 음사로 상원군수를 지냈다.

징의 손자 무(懋)는 호 휴계(休溪)니 신독재 김 집(愼獨齋 金集) 선생의 문하에서 수업, 학문에 독실하더니 병자호란(丙子胡亂) 후로는 과거를 폐하고 연산(連山)에 자취를 감추어 살았는데 조정으로부터 누차 관직 제수(除授)가 있었으나 나가지 않고 후학들을 가르쳐 후에 연산 휴정서원(休亭書院)에 향사 되었으며, 문집이 있다.

中門使公后 昌平家

중문지후사공 인수(中門祇候使公 仁修)의 7세손 석헌공 옥(石軒公 沃)의 후로 창평(昌平)에서 문한이 빈번하였다.

공은 어려서부터 문명(文名)이 있더니 15세 되던 연산(燕山) 신유(辛酉 : 1501)에 생원에 급제하고 21세 되던 중종(中宗) 정묘(丁卯 : 1507)에 문과에 장원하여 내외직을 두루 역임하였다. 특히 을해(乙亥 : 1515)에 무안현감으로 재직 시 충암 김 정(沖庵 金淨) 놀재 박 상(訥齋 朴祥)으로 더불어 중종의 원비 단경왕후 신씨(端敬王后 愼氏)의 복위를 청하는 상소를 올렸는데 지금도 순창 강천사(淳昌 剛泉寺) 경내에 그 유적으로 삼인대비(三印臺碑)가 서 있다.

석헌공의 손 홍원(洪源)은 일재 이 항(一齋 李恒) 선생을 사사하였으며, 홍원의 장자 명(溟)은 학문을 열심히 닦으니 수은 강 항(睡隱 姜沆)이 칭찬하여 이르기를 “시로써 명성은 일찍이 독보적이었고 경서의 학문은 또한 전문이었다.”고 하였다.

명의 아들 동기(東紀)는 기암 정홍명(畸庵 鄭弘溟)을 사사하여 인조(仁祖) 정묘(丁卯 : 1627)에 진사에 급제한 후 음사로 전옥서봉

사를 지내고 병자호란에 창의하였다.

동기의 아들 현(峴)은 호 수초당(遂初堂)이니 효종(孝宗) 기사(癸巳 : 1653)에 문과에 급제, 주서 병조정랑 전주판관 등을 지냈다.

홍원의 차자 호(灑)는 호 뇌천(磊川)이니 덕망(德望)이 높고 지절(志節)이 고상하여 세상에서 추중하였다.

호의 장자 동숙(東淑)은 호 야망당(野望堂)이니 기암 정홍명(畸庵 鄭弘溟)을 사사하여 덕행과 문학으로 당세에 이름을 떨쳤으며, 차자 동순(東洵)은 호 어목(漁牧)이니 현종(顯宗) 경자(庚子:1660)에 진사에 급제하였다.

동순의 장자 비(備)는 호 정관재(井觀齋)니 일찍이 과거를 폐하고 심성(心性)을 수양함으로 스스로 즐기었으며, 차자 억(億)은 호 산막(山幕)이니 우암 송시열(尤菴 宋時烈) 선생을 사사하여 우암선생과 문답한 예설문목(禮說問目)이 다수 전하고 있으며, 5자 주(倬)는 호 독락정(獨樂亭)이니 학문이 심오하고 행의가 고상하였다.

호의 3자 동연(東淵)은 호 남간(南澗)이니 효종(孝宗) 경인(庚寅 : 1650)에 진사에 급제하였으며, 동연의 차자 정(旌)은 숙종(肅宗) 갑자(甲子 : 1684)에 진사에 급제하였다.

호의 4자 동유(東游)는 호 호계(虎溪)니 효종(孝宗) 경인(庚寅 : 1650)에 숙형(叔兄) 남간과 함께 진사시에 연벽으로 급제하고 문장과 학식으로 당세에 이름을 떨쳤으며, 그 장손 성경(星慶)은 숙종(肅宗) 기사(己巳 : 1689)에 생원에 급제하였다.

左相公后 扶餘家

좌상공 만수(左相公 曼殊)의 5세손 응상(應祥)은 문음으로 금구현령(金溝縣令)을 지냈는데 공의 후로 부여(扶餘)에서 문한(文翰)이 빈빈하였다.

금구공께서 5남을 두어 장남 경인(敬仁)은 중종(中宗) 갑오(甲午 : 1534)에 생원 진사시에 모두 급제하고 을미(乙未 : 1535)에 문과에 급제하여 승문원박사를 거쳐 사간원 정언으로 재직 중 김안로(金安老)를 상소로 배척하다가 오히려 진도(珍島)로 유배되어 적소에서 졸하였다.

금구공의 4남 경지(敬智)는 호 포은(浦隱)인데 백씨 경인이 화를 당하자 충청도 부여(扶餘)로 피하여 자정(自靖)하다가 명종(明宗) 병오(丙午 : 1546)에 진사에 급제하였다.

경지의 장자 봉(奉)은 호 정재(定齋)니 선조(宣祖) 병자(丙子 : 1576)에 진사에 급제하고 임진왜란에 중봉 조 헌(重峯 趙憲)으로 더불어 의병을 일으켰으며, 차자 명(冥)은 호 죽정(竹亭)인데, 형 봉과 연벽으로 생원에 급제하였다.

봉의 장자 선춘(先春)은 광해(光海) 경술(庚戌 : 1610)에 생원에 급제하고, 차자 승춘(承春)은 일재 이 항(一齋 李恒) 선생의 문하에 수업, 학문에 독실하고 효우의 행실이 지극하였으며, 그 배위 김씨(金氏) 또한 효행이 매우 지극하여 부부 정려(旌閭)의 특전을 무릅썼으며, 3자 형춘(馨春)은 광해 정사(丁巳:1617)에 생원에 급제하였으며, 5자 수춘(秀春)은 호 송재(松齋)인데 인조(仁祖) 갑자(甲子 : 1624)에 생원에 급제하고 병자호란(丙子胡亂)에 화친(和親)을 배척하는 상

소를 올리었다.

명의 차자 진춘(震春)은 호 옥봉(玉峯)인데 효행으로 정려의 은전이 있었다.

승춘의 손 영(溟)은 호 염재(濂齋)인데 우암 송시열(尤菴 宋時烈)의 문하에 수업하여 숙종 정묘(丁卯 : 1687) 진사에 급제하고 기사(己巳 : 1689)에 인현왕후(仁顯王后)께서 순위(遜位)하시자 항소로서 대궐에 다다라 호소하고 마침내 과거를 폐하고 부여 염호(濂湖)에 자취를 감추었다.

형춘의 증손 명리(命離)는 숙종 신유(辛酉 : 1681) 생원시에 급제하고, 수춘의 아들 휘세(輝世)는 호 수졸당(守拙堂)인데 사계 김장생(沙溪 金長生) 선생의 문하에 수업하였으며, 휘세의 아들 준(浚)은 호 신곡(信谷)이니 우암 송선생에게 집지(執贄) 하였는데 졸함에 이르러 우암께서 만사(輓詞)를 지어 애도하였다.

진춘의 아들 위신(煒新)은 호 신암(愼菴)인데 관찰사가 그 효행을 나라에 알려 공조좌랑에 증직되었으며, 위신의 손 명언(命彦)은 효우와 학행으로 복호(復戶)의 은전을 무릅썼다.

영(溟)의 현손 진우(鎭愚)는 호 오산(梧山)이니 문장과 필법이 유여하고 유고가 있으며, 5대손 대원(大源)은 호 자겸와(自謙窩)인데 고산 임헌회(鼓山 任憲晦) 선생을 사사하고 의창(義倉)을 두어 종족(宗族)을 구휼하였으며 유고가 있다. 대원의 아들 병위(秉蔚)는 호 경운(耕芸)이니 학문과 덕행으로 후학의 규범이 되었으며 유고가 있다.

翠石 記

忠景公 亮 事蹟



前部令公宗中會長 柳 在 振

공의 선고는 안사(安社) 1등공신 밀직부사 증영의정 문화군 휘 계조(繼祖)요, 조부는 밀직대언 휘 보발(甫發)이요, 증조는 밀직부사 문화군 온정공 휘 인기(仁琦)이시며, 고조는 도첨의참리 정신공 휘 승(陞)이시다.

공은 고려 공민왕 4년(1355) 12월 22일에 태어나 18년(1369) 15세에 문음(門蔭)으로 산원이 되고, 17세에 생원시에 급제하였으며, 20세에 부친께서 별세하심에 모친을 봉양하며 학문에 힘썼다.

우왕 7년(1381년) 27세에 홍의위호군이 되었더니 곧바로 사직하고, 이듬해 28세에 문과에 장원급제하여 겨울에 전의부령 지체교 겸 춘추관편수관이 되시고 봉상대부의 품계를 받았다.

30세 1384년 겨울에 하정사서장관으로 명나라에 다녀왔으며, 32세에 판도사총량을 거쳐 전리사로 옮기셨고, 이듬해 33세에 중정대부 사복시정에 승진하셨다. 34세 정월에 전라도안찰사로 나가 선정을 베풀어 울연한 업적을 남기고, 이어 전교령을 거쳐 만기로 조정에 돌아와 8월에 천우위대호군이 되시고, 비순위를 거쳐 삼사우윤이 되시었다.

35세에 봉순대부 종부시판사로 승진하여 겨울에 표문을 받들고 종실(宗室)인 왕 방(王昉)과 함께 명나라 북경에 사신으로 가실 때 마침 참조하는 사람이 말을 꾸미어 고변(告變)하는지라, 공께서 사리를 들어 자세히 변론하여 명나라와의 관계를 정상화시키고 귀국하시니 임금의 칭송하고 성균관 대사성을 제수하시었다. 36세 봄 판내부전교를 거쳐 공조전서로 승진되어 봉익대부가 되셨더니 9월에 형조전서로 옮기고, 38세 4월에 호조전서로 옮겼다가 5월에 다시 형조전서가 되셨다.

동년 7월 조선이 개국(開國)함에 이르러 이조전서에 특배되었으며, 39세 2월에 중추원부사를 거쳐 8월에 교주강릉도관찰출척사로 나가셨다. 40세 6월 예문관 춘추관학사 겸 형조전서가 되셨으며, 이어 9월에 상의중추원사에 옮겨 그대로 형조전서를 겸하셨다.

41세 11월 일찍 태조(太祖)의 잠저(潛邸) 시절부터 교류한 의리로 개국원종공신에 책록 되어 상의중추원사, 세자빈객, 참지삼군부사에 제수됨과 아울러 전답 30결과 노비 9구를 하사(下賜) 받으셨다.

42세 3월에 계림부윤 겸 병마절제사로 나갔는데 12월 왜선 60여척이 영해(寧海) 축산도에 들어와 노략질하자, 태조가 우정승 김사형(金士衡)을 파견하여 여러 장수를 모아 토벌케 하니 때마침 적장이 사자(使者)를 보내와 항복을 청하였다. 그러나 공이 그 간계(奸計)를 알고 이들을 유인하여 격퇴하고자 수차 적진(敵陣) 왕래의 위태로움을 겪은 끝에 적들을 섬멸할 기계(奇計)를 세웠으나 여러 장수들이 머뭇거림으로 말미암아 승기(勝機)를 잃어 그르친 일이 있었다.

43세 정월 상의중추원사 겸 세자우부빈객으로 조정에 돌아오시니 당시 실권자 중에 앞서 사건을 기화(奇貨)로 공을 제거하고자 사헌부에 고발 탄핵함에 이르러, 태조가 공의 전공을 참작하여 불문에 붙일 것을 명하여 합포(合浦)에 유배되었다. 그러나 그들이 끝내 시비를 가릴 것을 강경히 청하여 수월간 옥고(獄苦)를 겪은 후 뒤늦게 왕이 무고임을 깨닫고 석방하여 나주(羅州)에 안치(安置)토록 하였다.

45세 9월에 강릉대도호부사로 나갔는데 백성들이 공의 선정을 우러러 생사우(生祠宇)를 세웠다.

46세 12월에 혈맹(血盟)을 맺은 바 있는 태종의 즉위와 함께 참지삼군부사가 되었고, 47세 정월에 좌명공신 4등으로 문성군(文城君)에 책록됨과 아울러 전답 60결 노비 6구 백금(白金) 문기(文綺), 구마(廐馬) 등을 하사받았는데 당시 교서에 계림부윤으로 있을 때의 사실과 좌명의 공을 매우 칭찬하시었다.

48세 11월 태종이 공을 다시 불러 황해도

도절제사에 제수하고 갑주(甲冑)와 궁시(弓矢)를 하사하시었다.

50세 6월에 예문관대제학에 제수되고 10월에는 참판으로 사평부사 및 사헌부대사헌을 겸임하였다. 51세 2월에 형조판서가 되었고 7월에 지의정부사를 거쳐 12월에 판한성부사로 전의감제조를 겸하셨으니 공은 평소 의방(醫方)에 능하셔서 왕의 미령(未寧) 시마다 어약(御藥)을 지어 올려 그 효험이 큼으로써 왕의 칭상을 받으셨다.

52세에 다시 형조판서가 되고, 윤 7월 의정부참찬이 되었으며 동지공거로서 어변갑(魚變甲) 등 33인의 인재를 선발하였다. 55세 3월에 다시 의정부참찬에 제수되고 5월에 이조판서로 사헌부대사헌을 겸하셨다.

56세에 승정대부에 오르고, 57세에 문성부원군(文城府院君)에 진봉되었으며, 58세 6월에 중궁(中宮)의 환후에 의약(醫藥)의 공이 있어 구마(廐馬) 1필을 하사받고 12월에 보국숭록대부에 승계하였다. 59세 4월에 의정부찬성사로서 판순금사사를 겸하였으며, 8월에 의복 한 벌을 하사받으셨다.

61세 태종 15년(1415) 6월 대광보국숭록대부 의정부우의정에 제수되었는데 불행히도 동년 8월부터 질고(疾苦)가 있어 사직을 간청하였으나 태종은 윤택하지 않으시고 요양(療養)할 것을 명하고 주야로 내의(內醫)를 보내어 간병토록 하였다.

62세 16년(1416) 3월 모친 혜순택주 능성구씨(惠順宅主 綾城具氏)께서 돌아가시고 이어 장자 전사령 좌(典祀令 佐)를 잃으심에 애통해하시다가 신병이 재발하여 동년 4월 2일

향년 62세로 돌아가시었다.

태종이 부음을 듣고 매우 슬퍼하여 우대언 이종선(右代言 李種善)을 보내어 치제(致祭)토록 하고 충경(忠景)의 시호를 내리는 한편 관비(官庇)로 장사토록 하였다.

묘소는 지금 남양주시 조안면 시우리 경산 아래 계좌에 모셔있다.

공의 행장은 대제학 설 순(大提學 俛 循)이 짓고, 묘지명은 영의정 하 연(領議政 河 演)이 지었다.

공의 묘소를 한 때 실전하였는데 정조 21년(丁巳:1797)에 후손 광우(匡宇)가 수년에 걸쳐 다방면으로 수소문하던 끝에 마침내 묘소

를 찾아 봉축하고 통어사 문식(統禦使 文植) 등과 상의, 산송(山訟)을 제기하여 국내(局內)에 있는 투장(偷葬)을 파내고 여러 일가들에게 알려 재실을 마련하는 한편 사패(賜牌)의 위토를 찾아 그 이듬해 무오(戊午:1798)부터 묘사를 행하여 오늘에 이르렀다.

초배 정경부인 평양조씨(平壤趙氏)는 판도판서 덕유(德裕)의 따님으로 2남을 두어 전사령 좌(佐)와 군사 근(謹)인데 근은 무후하였으며, 계배 정경부인 연안이씨(延安李氏)는 공조전서 원발(元發)의 따님인데 3남을 두어 한성관윤 경생(京生), 한성남부령 강생(江生), 종부시소윤 한생(漢生)이시다.

判尹公 京生后 先世事蹟



判尹公宗中會長 柳 琿 鎮

한성관윤 휘 경생(京生) 선조께서는 시조 대승공의 15세손이요, 우의정 문성부 원군 충경공 휘 량(亮)의 3남으로 조선 개국 초에 출생하셨다.

공께서는 효심이 지극하여 벼슬에는 큰 뜻을 두지 않고 부친을 대신하여 조모 능성구씨(綾城具氏)를 극진히 봉양하며 집안

에 충실하시던 중, 태종 15년(乙未:1415) 3월에 조모께서 돌아가시고 이어 백형 전사령공 좌(佐)가 돌아가시자 부친께서 애통해하시다가 신병이 재발되어 서거하시는 애척을 거듭 당하시었다.

공께서 지극히 애통하며 복제를 마친 후에도 부모 잃은 죄인이 출사할 수 없다며 벼슬

을 사양하시다 마침내 문음(門蔭)으로 상서사(尙瑞司) 겸주부(兼主簿)에 임명되어 재임 중 세종 6년(甲辰:1424) 11월10일에 조정으로부터 사신의 조서(詔書)를 펴본 류경생(柳京生) 윤 린(尹 麟) 원지어(元志於)에게 징계를 내렸다고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되어 있다.

그 내용은 당초에 명나라 사신이 조서를 도로 가지고 갈 때 펴보고서 구김살이 나고 먹 점이 있는 것을 책망함에 따라 왕이 사헌부에 명하여 사실을 조사토록 하여 징계를 받게 되었는데 당시 상서사의 겸주부인 류경생, 겸소윤 윤 린, 겸록사 원지어에게 조서를 더럽힌 율을 적용하여 류경생 원지어는 장(杖) 90 도(徒) 2년반, 윤 린은 장 80 도 2년에 처하였는데 감형하여 윤 린은 장 80, 원지어는 장 90을 속(贖)으로 받아들이게 하고, 류경생은 공신(功臣)의 아들이므로 다만 관직만 파직하고 장과 도의 형은 면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세종 10년(戊申:1428)에 왕께서 공의 효심과 능력을 인정하여 공신도감승(功臣都監丞)에 특배되어 홍주목사(洪州牧使)로 제수되었으나 모친 정경부인 연안이씨(貞敬夫人 延安李氏)를 모시는 것을 이유로 굳이 사양하다가 조정의 명을 어길 수 없어 부임하게 되었는데 부임 후에 혜정(惠政)을 베풀고 청렴결백하게 직무를 수행하는 한편 노모에 대한 효심이 극진하였다.

18년(丙辰:1436) 12월17일 기사에 의하면 왕이 지임천군사 우경부(知林川郡事 禹敬夫)와 회양부사(淮陽府使) 류경생 두 사람을 불러 이르시기를 “지금 충청도는 흉년이 극

심하여 각 고을에 거주하는 백성들이 먹을 수 있는 푸성귀도 없어 부종이 나고 굶주리는 백성이 많다고 하니 정성을 다하여 굶주리는 백성을 구휼(救恤)하라.”는 어명을 내리셨다. 공께서는 명을 받들어 정성을 다한 결과 고을 백성들로부터 칭송을 받았다.

공의 이러한 청렴결백하고 성실함이 인정되어 내직으로 승진, 22년(1440)에 정2품인 자헌대부 한성판윤(資憲大夫 漢城判尹)을 제수하셨는데 그 기록이 영의정 하연(領議政 河演)의 경재집(敬齋集) 5권 신도비문과 좌찬성 강희맹(左贊成 姜希孟)의 사숙재집(私淑齋集) 7권 외 양주목사의 금양완문(禁養完文)에 기록되어 있다.

문종 즉위(庚午:1450) 3월 25일 충청도관찰사 권극화(權克和)가 홍주목사 류경생을 보내어 향(香)을 진상 하였다. 라고 실록에 기록되어 있다.

2009년 6월말 불초후손 용진(瑢鎭)이 고귀 문헌인 세조 2년(丙子:1456)에 반포된 공신회맹록(功臣會盟錄) (폭 50센치 길이 5미터) 명단에 좌명공신의 자 검교한성판윤 류경생이 수결한 문서의 영인본을 확보하게 되어 당시 공의 행적을 더욱 명확히 입증하게 되었다.

공의 묘소는 경기도 남양주시 오남읍 팔현리 산 31번지에 공의 장인 영의정 하연(河演)의 선고이신 호조판서 하자종(河自宗), 곧 공의 처조부 묘하 우록에 안장되어 있으며, 세향일은 음 10월 8일이다.

공의 묘소 주변은 오랜 세월 정화를 하지 않아 잡목과 잡초가 많을 뿐 아니라 봉분 둘

레석이 없고 상석도 적어 2009년 4월 24일 (음3월29일)부터 3일간 정화작업을 하였는데 상석은 5자로 교체하고 들레석은 17간에 3단으로 하여 십이지(十二支)를 넣고 전면 중앙에 류(柳)자를 넣어 설치하는 한편 묘소 주변을 깨끗이 정화하고 제반 석의를 두루 갖추었다.

배위는 정부인 진주하씨(晉州河氏)로 영의정 하 연의 따님인데 묘소는 실전되었으나 세일사(歲一祀)는 부군과 합사하고 있다.

관윤공께서는 진주하씨와의 사이에 5남3녀를 두시었다.

장자 휘 찬(纘)은 송화현감이요, 그 배위는 숙인 음성박씨(陰城朴氏)로 첨지 소(昭)의 따님이신데 슬하에 아들 호군 윤(胤)과 사직 복(復)을 두었다. 묘소는 포천군 가산면 금현리 산 138번지이며 족후손 문학박사 홍렬(洪烈)이 지은 묘표 및 제반 석의가 고루 갖추어 있다.

차자 휘 혜는 호 송재(松齋)니 회양부사를 역임하고 관직에서 물러나 청주 땅에 정거하였다. 배위는 숙인 연안이씨(延安李氏)로 영목(永睦)의 따님인데 묘소는 충북 청주시 흥덕구 신전동 7-1번지 자좌로서 부군과 합편으로 모셔있다. 비문은 매계 조 위(梅溪 曹偉)가 지었는데 근래에 1994년 3월 묘역을 정화함과 더불어 제반 석의를 고루 갖추었다. 슬하에 5남3녀를 두었으니 장자 맹손(孟孫)은 세종 11년(己酉:1429)에 문과에 급제, 홍문관정자를 지내셨고, 차자 흥손(興孫)은 중묘서령이요, 3자 문손(文孫)은 충의위이고, 4자 천손(千孫)은 충의위이고, 5자 계손(繼

孫)은 현감이다.

관윤공의 3자는 휘 적(績)으로 호는 반곡(盤谷)이다. 문음으로 진위(振威:현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현령으로 부임하여 엄정 명백하게 선정을 베푸니 관민 모두 자기 직분에 충실한 한편 살기 좋은 고을이 되었다고 기뻐하고 재상의 친손으로서 어진 수령이라고 칭송이 자자하였다.

연산군 4년(1498) 무오사화에 많은 사대부와 선비들이 화를 당하거나 유배되는 것을 보고 장차 더 큰 화가 일어날 것을 예측하고 벼슬을 버리고 안의 석반동, 현 경남 함양군 안의면 봉산리 석반동으로 낙향하였다. 낙향 시 진위 고을 백성들이 친 부모를 보내는 것과 같이 슬퍼하였다고 한다. 넷째 아들 순손(順孫)을 데리고 석반동에 터를 잡아 살면서 집 좌측에 반송(盤松)을 심고 우측 높은 바위에 앉아 반곡이라 자호하고 조용히 여생을 즐기며 학문에 열중하였다. 중종반정 후 조정에서 공의 높은 학문과 능력을 인정하고 수차 불렀으나 끝까지 굳이 사양하여 나가지 않으셨다.

배위는 숙인 서원이씨(西原李氏)니 목사 길(佶)의 따님으로 좌의정 거이(居易)의 손녀이다.

묘소는 함양군 안의면 봉산리 석반동 반계사(盤溪祠) 뒤 선산에 계룡 간좌로 부군과 함께 합부로 모셔있다. 묘전에 묘같이 세워져 있으며 제반 석의가 고루 갖추어 있다.

매년 음 3월 14일 반계사에서 공을 기리는 향사를 지역 유림과 공의 후손들이 함께 받들고 있다.

슬하에 5남2녀를 두어 장남 사직 효손(孝孫)의 후손은 경남 합천에 살고 있으며, 차남 사직 효남(孝男)의 후손은 전라도 함열에 살고 있으며, 3남 부사정 효제(孝悌)는 무후하였으 며, 4남 호군 순손(順孫)의 후손은 함양에 세거하고 있으며, 5남 정손(正孫)은 진사로서 감찰과 사직을 지냈는데 그 후손들이 거창에 살고 있다.

반곡공이 고향을 그리워하며 심은 반송은 청룡 황룡이 서로 감고 있는 십자(十字) 형상으로 동쪽 줄기는 장남 효손과 5남 정손이 있는 합천 거창 쪽으로, 서쪽줄기는 차남 효남이 있는 전북 함열 쪽으로, 남쪽줄기는 아우 집(緝) 진(縝)이 있는 전남 곡성 쪽으로, 북쪽줄기는 고향인 서울로 향하고 있었다.

이 반송은 한국 최고의 명물이었으나 일제 때 일본인이 욕심을 내어 일본 황실(皇室) 정 원수로 이식을 추진하다 실패한 후 2차대전 때 송진 채취를 많이 하여 상처를 입고 수령(樹齡)이 다 되어 현재 밀둥치만 남아 있다.

반곡공이 만년에 즐겨찾던 큰 바위의 틈 사이에 반송(盤松)의 씨가 날아 들어가 제2의 반송이 현재 자라고 있는데 공이 심었던 반송과 똑같아 많은 사람들이 문화재로도 손색이 없을 정도라 말하고 있다.

공이 입향 시 반송 밑에 판 샘물은 매우 깨끗한 물로서 그 수량이 장마 때나 가뭄 때나 변함이 없어 지금도 제사를 지낼 때 사용하고 있으며 이 샘물을 떠놓고 반송 앞에서 기도하면 과거에 급제한다 하여 옛날 서부 경남 일대 선비들이 많이 찾았다는 전설이 지금까지 전해 내려오고 있다.

반곡공의 사당 앞에는 선조 30년(1597) 정유제란 시 공의 5대손 강(樞)이 황석산성에서 나라와 부친 세홍(世泓)을 위하여 목숨을 바침으로써 그 효행비가 지금도 서있다. 반곡공께서는 돌아가실 때까지 반복되는 사화(土禍)를 보시고 후손들에게 벼슬길에 나가지 말도록 유언을 하셨다.

위 기록은 함양군지 안의현지에 기록되어 있다.

판윤공의 4남 휘 집(緝)은 어모장군 충좌 위 좌부 부사정을 역임하셨는데 연산군 4년(戊午 : 1498) 무오사화에 아우 진(縝)과 더불어 조부 충경공의 회맹록(會盟錄)을 받들고 곡성군 원예산면 대리로 피신하여 지내다가 수년 후 임술(壬戌 : 1502) 4월23일에 졸하니 묘소는 곡성군 오곡면 방축동 임좌에 모셨다. 묘전에는 묘갈과 제반 석의가 고루 갖추어 있다.

사정공 집께서 심은 은행나무는 현재까지 잘 자라고 있으며 후손들이 1960년 봄에 기적비를 세워 사정공의 뜻을 기리고 있다.

배위는 숙인 경주김씨(慶州金氏)로 봉상시정 지로(智老)의 따님이다. 묘소는 부군 묘서록 해좌에 모셔져 비가 서 있다.

슬하에 3남1녀를 두었으니 장자는 현손(賢孫)으로 어모장군 수의부위 사정이요, 2자는 연손(連孫)으로 어모장군 사정이요, 3남은 승손(承孫)으로 선략장군 충좌위 부사 용이시다.

판윤공의 5남 휘 진(縝)은 어모장군 사직을 지냈는데 무오사화에 형 집과 함께 충경공의 회맹록을 받들고 곡성군 원예산면 대리

로 피신하셨다. 묘소는 곡성군 오곡면 방축동 갈마우지 을좌이다. 배위는 숙인 연안이씨(延安李氏)로 그 묘소는 부군의 묘하 을좌인데 묘갈이 갖추어 있다.

슬하에 2남2녀를 두어 장자 흠손(欽孫)은 어모장군 사직이요, 차자 종손(終孫)은 충의 위이다.

관윤공께서는 3녀를 두셨는데 큰사위는 이징(李澄)으로 상장을 지냈고, 둘째사위는 이인견(李仁堅)으로 한산인인데 문과에 급제, 홍문관전한을 지냈으며, 셋째사위는 정지손(鄭智孫)으로 초계인이다.

외손에 대해서는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음애선생집(陰崖先生集)에 나타난 이운(李耘)의 기록 밖에 없다.

이운은 조선 전기의 문신으로 이인견의 아들인데 연산군 원년(乙卯:1495) 진사시에 급제한 후 7년(辛酉:1501) 문과에 급제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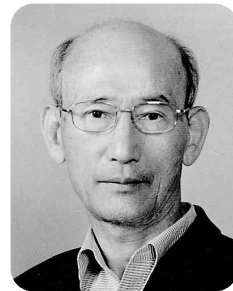
에몽관감(兪夢館監)을 승경생(承慶生)이라 함 중령(中領) 정공(正公) 천취(天취) 조위랑(趙維良) 예남영랑(李南寧良) 사복신(司復新) 조철원(趙澈源)을 두루 지내고 외직으로 경기도도사(京畿道都司) 황릉(皇陵) 대도호부사(大都護府司) 제주목사(濟州牧司) 진주목사(鎭州牧司) 선산부사(仙山府司) 등을 역임하였으며 중종반정에 참여하여 정국 원종공신에 책록되었다.

끝으로 관윤공께서는 내외직에 계실 때 많은 혜정을 베풀어 아름다운 사적이 구전(口傳)으로 많이 전해지고 있으나 문헌의 기록으로는 다만 상서사겸주부, 호군, 부사, 목사, 부윤, 한성관윤만이 전하고 있다.

공께서는 일신의 영달을 추구하지 않고 오직 국리민복(國利民福)을 위해서 헌신하였으며, 효성과 우애의 가규(家規)를 지키신 사대부이셨다.

2009년 7월 10일

部令公 江生 事蹟



部令公宗中 會長 柳在華

년 기묘(己卯 : 1399)년 12월12일에 부친
충경공께서 강릉대도호부사(江陵大都護府
使)



로 계실 때 강릉(江陵)에서 태어나셨다.

공은 태종(太宗) 13년 계사(癸巳:1413) 15세에 문음(門蔭)으로 공신도감청록사(功臣都監廳錄事)에 발탁되어 514일 만에 만기(滿期)로 퇴관(退官) 후 지방수령(地方守令) 채용시험에 합격하여 봉훈랑(奉訓郎)의 품계(品階)에 올라 17년 정유(丁酉: 1417) 19세에 양구현감(楊口縣監)으로 부임하여 선정(善政)을 베풀어 성망(聲望)이 울연(蔚然)하였다.

세종(世宗) 3년 신축(辛丑:1421)에 내직(內職)으로 돌아오기에 이르러, 고을의 이민(吏民)들이 공의 수레를 붙잡고 길을 막으며 이별을 아쉬워하였다.

공은 이 때 통훈대부(通訓大夫) 품계에 올라 한성부 남부령(漢城府 南部令)으로 부임

하시었다.

문화류문(文化柳門)에는 시호가 똑같은 충경공(忠景公)이 두 분이 계시는데, 다른 한 분은 중문지후사공의 후예로 단종조(端宗朝)에 사육신(死六臣)의 한 분이신 충경공 류성원(忠景公 柳誠源)이시니, 곧 충경공 류량(忠景公 柳亮)의 삼종손(三從孫)이다.

충경공 류량께서는 태종조에 성균관 대사성(成均館 大司成) 및 호조(戶曹)·이조(吏曹)·형조판서(刑曹判書)를 거쳐 경주부윤(慶州府尹)으로 계시다가 상의중추원사(商議中樞院事)를 거쳐 강릉대도호부사 등 내외 관직을 두루 역임하시고, 좌명공신(佐命功臣)에 책록(策錄), 문성부원군(文城府院君)에 봉작되신 후 대광보국승록대부 의정부우의정(大

匡輔國崇祿大夫 議政府右議政)을 지내셨다.

5자를 두시니, 장자 좌(佐)는 전사령(典祀丞)이며, 차자 근(謹)은 한성부소윤(漢城府少尹)을 지냈는데 절손되고, 3자 경생(京生)은 한성부판윤(漢城府判尹)이요, 4자 강생(江生)은 한성부남부령(漢城府南部令)이요, 5자 한생(漢生)은 종부시소윤(宗簿寺少尹)이시다.

공의 부친 충경공께서 경주부윤으로 계실 때 왜구의 침입이 있어 그들의 간계(奸計)를 알고 유인(誘引)하여 격퇴(擊退)하고자 수차 적진왕래(賊陣往來)의 위태(危殆)로움을 겪은 끝에 그들을 섬멸(殲滅)할 기계(奇計)를 세웠으나 여러 장수들이 머뭇거리 승기(勝機)를 잃었던 바, 이 일을 기화(奇貨)로 모략(謀略)하는 자들이 있었다. 이로서 태종이 수개월 간 문초(問招) 끝에 마침내 무고(無辜)로 밝혀져 강릉대도호부사로 제수하였던 것이다.

그 후 충경공 별세 후에도 수차 경주의 왜구사건을 들추어내어 벌줄 것을 간한 세력들이 있었는데, 공께서 남부령(南部令)으로 재직 중 세종(世宗) 5년(癸卯:1423) 5월 관내(管內)에 있었던 역적(逆賊) 임군례(任君禮)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공을 제거(除去)하고자 문제삼는 자들이 있어 공이 환멸(幻滅)을 느끼고 관직을 버린 후 남도로 내려오셨다.

당시 대사헌 하 연(大司憲 河演)이 쓴 충경공 묘지명(墓誌銘)에 “강생 남부령 취판사 이운노여 생이남”(江生 南部令 娶判事李云老女 生二男)이라고 기록된 내용으로 보아 세종 22년 경신(庚申:1440) 42세에 2자 신(紳)께서 출생하였으므로 남부령(南部令)으로 관직(官職)을 마쳤음을 알 수 있다.

공의 부친께서 너무나 대단하시고 훌륭한 분이셨기에 대립되는 반대 세력들이 득세(得勢)함에 따라 그 아드님인 공께서 관직을 사양하고 은둔(隱遁)생활을 하신 것이다.

공께서는 시골에서 유유자적하다가 문종(文宗) 원년 신미(辛未: 1451) 12월 21일에 향년 53세로 졸(卒)하시었다.

묘소는 대전시 유성구 방동 산 101번지 자좌(子坐)에 모셔있다.

배위 숙인 고성이씨(淑人 固城李氏)는 판사 윤로(判事 云老)의 따님인데 묘는 공의 묘계하(階下) 자좌(子坐)이고, 계배(繼配) 숙인 제주고씨(淑人 濟州高氏)는 부사 득중(府使 得宗)의 따님인데, 묘는 공의 묘소에 합부하였다. 세일제일(歲一祭日)은 매년 양력 3월 10일이다.

공은 2남을 두시어 장자(長子) 수(綏)는 좌익원종공신(佐翼原從功臣)으로 부정(副正)인데 증손 대에서 절손되고, 차자 신(紳)은 절충장군 충좌위 대호군(折衝將軍 忠佐衛 大護軍)이시다.

대호군공 이하 5대 묘소는 전북 익산시 함열읍 흘산리 산 45번지 도선산(都先山)에 모셔 있고, 후손은 함열읍 흘산리, 황등면 용산리, 용안면 칠목리 등지에 세거하고 있다.

이상 내용은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과 묘갈명(墓碣銘)을 참고하여 기술하였다.

贊成公 滄의 生涯



名法博.公州大客員教授 柳 三 鉉

抑忿과 怨恨의 歲月속에 묻혔던 初年시절

朝鮮 太祖 7年 戊寅(1398年) 8月 제1차 王子의 亂에 희생된 左相公과 中樞公 父子분의 悽絶한 被禍로 長房 遺孫 4男妹는 相公의 配位 寧淑宅主 南陽洪氏의 親家인 楊州 땅으로 避身하여 世宗 元年(1419) 父祖의 伸冤이 頒布되기 까지 무려 21年간을 艱難과 屈辱의 歲月 속에 묻혀야 했다.

父祖께서 俱沒하신 戊寅년에 贊成公 諱 滄께서는 겨우 11歲의 少年이었으나 世宗 元年에는 32歲의 壯年으로 성장하였으니 左相公 父子분의 伸冤이야말로 그 遺孫들에게는 하늘이 내려주신 雪冤이 아니었겠는가.

抱川郡誌에서는 伸冤 당시의 狀況을 다음과 같이 記錄하고 있다.

世宗朝에 와서 威化島功臣 柳曼殊가 억울하게 죽은 사실을 알고 즉시 柳曼殊를 伸冤토록 命하였으며 그의 孫子들로 하여금 벼슬길에 나오도록 特命하였다. 先王이 저지른 過誤를 주저없이 是正하여 義를 세우신 世宗 大王이야말로 萬世에 빛나는 聖君이라 할 것이다.

左贊成公의 出仕는 王命에 의한 것이나 연

속된 陞進과 內職으로의 발탁은 公의 뛰어난 能力이 公認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니 楊州 땅 陳外家宅 祖母 슬하에서 21年간 臥薪 嘗膽 學問과 人格을 깊이 갈고 닦은 力量을 헤아려 남음이 있다 할 것이다.

公께서 슬하에 5男2女를 두셨는데 7男妹 모두가 蕃衍共榮하였을 뿐만 아니라 孫子 諱 洵(1441-1517), 玄孫 諱 堧(1531-1589) 등 領議政이 續出하였음은 公의 處仁蓄德하신 蔭德의 餘慶으로 보아야 하지 않겠는가.

이에 抱川郡誌에 실린 贊成公의 行蹟과 墓表 및 神道碑文을 後孫들의 一讀을 勸하는 바이다.

抱川郡誌 人物篇

柳公의 諱는 滄이니 高麗 禑王14年(1388)에 출생했다. 芳碩의 亂에 祖父 曼殊와 父 原之의 慘禍를 당하여 어쩔 수 없이 祖母 洪氏의 보살핌에 힘입어 장성하였다.

世宗朝에 父祖께서 雪冤된 후로 內外職을 역임하고 晩年에 抱川 自作里에 터를 잡아 定着하니 文化柳氏로서 抱川에 처음으로 入鄉한 先祖이다.

世宗朝에 이르러 威化島功臣 柳曼殊가 억울하게 죽은 사실을 알고 즉시 柳曼殊를 伸冤토록 命하였으며 그의 孫子들로 하여금 벼슬 길에 나오도록 特命하였다. 이로써 公께서는 楊口. 稷山縣監, 漢城判官을 거쳐 永柔縣令을 지냈다.

世宗 27年(1445)에 病卒하니 享壽 58歲이다. 公의 묘는 抱川郡 新北面 溪流里 防築洞 戌坐原에 계시는데 石儀가 갖추어 있다.

아들 5兄弟를 두었는데 長男 思溫은 縣令을 지내고, 次男 思恭은 벼슬이 洗馬에 그쳤으나 그 둘째 아들 洵은 漢城判官, 戶曹參判, 副提學 등을 거쳐 領議政에 이르렀으며, 三男 思忠은 訓導이고, 四男 思問은 中軍司正이며, 五男 思義는 鐵山郡守를 지냈다.

思義의 孫子가 5兄弟인데 仁善, 恩善, 禮善, 智善, 貞善으로서 孝道와 友愛가 극진하여 나라에서 孝友旌閭를 命하였다. 현재 抱川 自作里에 孝友碑가 있다.

思義의 曾孫 가운데 또 領議政이 나왔으니 바로 壘으로 湖堂에 選入되고 이어 淸宦을 두루 거쳐 領相을 역임하였는데 禮善의 아들이다.

墓表(譯文)

公의 諱는 淙이니 文化人으로 中樞院副使

贈贊成柳公淙墓表

公諱淙文化人中樞院副使原之之第二子也妣西河任氏洪武戊辰二月己酉公生及長筮仕爲行首職歷任楊口稷山縣監漢城判官永柔縣令正統乙丑三月壬辰病卒七月丁丑安葬公娶大護軍李蔓實之女生五男二女長曰思溫錄事次曰思恭左洗馬次曰思忠直長僕正次曰思問司勇次曰思義郡守二女長適司勇李孝根次適直長司正李之善公歿後三十八年癸卯以洗馬之子洵爲觀察使褒典 贈嘉善戶曹參判今有內外諸孫凡百三十四人

原之의 第2子이며 妣는 西河任氏이다.

洪武 戊辰(高麗 禑王 14年.1388年) 2月

己酉日에 公께서 태어났는데 長成함에 出仕



贊成公墓所

하여 行首가 되고 이어 楊口 . 稷山縣監과 漢城判官 永柔縣令을 지내시고 正統乙丑(世宗 27年.1445年) 3月 壬辰日에 病卒하시니 7月 丁丑日에 安葬하였다.

公이 大護軍 李蔓實의 따님과 결혼하여 5男2女를 낳았으니 長子는 思濫이니 錄事요, 次는 思恭이니 左洗馬요, 次는 思忠이니 直長 司僕寺正이요, 次는 思問이니 司勇이요, 次는 思義니 郡守이며, 長女는 司勇 李孝根에게 출가하고, 次女는 直長 司正 李之善에게 출가하였다.

公께서 돌아가신 38年후 成宗 癸卯(1483年)에 洗馬의 아들 洵이 觀察使가 되어 그 褒典으로 嘉善大夫 戶曹參判에 贈職되었다.

지금 內外 諸孫이 무릇 134人이다.

神道碑(譯文)

公의 諱는 淙이요 姓은 柳氏로 文化人이다. 始祖 諱 車達은 高麗 太祖를 도와 三韓을 통합하여 壁上功臣에 策錄되고 官職은 大丞이다. 그 후에 代代로 名公과 碩輔가 빛났으니 6世를 전하여 諱 公權은 金紫光祿大夫 政堂文學 參知政事로 諡號가 文簡인데 筆蹟과 詩文이 海東筆苑과 東文選에 실려있고, 이분의 아들 諱 澤은 官職이 翰林學士 尙書左僕射이며, 이분의 아들 諱 璵은 匡靖大夫 修文殿集政太學士 世子師로 諡號는 文正이요, 이분의 아들 諱 陞은 都僉議使 司事로 諡號는 貞愼이요, 이분의 아들 諱 璵은 都僉議贊成事로 始寧君에 封하고 諡號는 章敬이며, 이분의 아들 諱 總은 右副代言으로 贈領議政이니 公의 曾祖이다. 祖는 諱 曼殊이니 朝

鮮朝에 들어와 太祖를 도와 威化島回軍 一等功臣이 되고 開國功臣에 參錄되어 官職이 左議政인데 迷信을 打破하여 지금까지도 무당들의 노래에 먼저 公의 諱를 들치며, 先考는 開國 原從功臣에 策錄되어 贈吏曹判書이며, 先妣는 西河任氏로 密直使 毅의 따님이다.

公이 洪武 21年 戊辰(高麗 禔王 14年 1388年)2月 己酉日에 出生하였는데 天性이 純粹하고 才質이 特出하여 敦厚醇謹하였다. 장성하여 벼슬길에 나가 行首가 되었더니 이어 楊口縣監으로 나갔다가 곧 稷山縣監으로 옮기고 內職으로 들어와 漢城判官이 되었다가 永柔縣令으로 轉補되었는데 이르는 곳마다 事務를 간소화하고 政事를 清廉하게 하니 百姓들이 그 恩惠를 칭송하였다.

晩年에 벼슬을 그만두고 돌아와 抱川 王方山 아래에 터를 정하고 살았다. 抱川郡誌에 이르기를 公은 재주와 행실을 겸비하고 德을 쌓음이 깊었으며, 5子를 두었는데 子孫에 宰相과 높은 벼슬이 많고 子孫이 번성하여 스스로 一村을 이루니 그로부터 自作里라 일컬었다. 또 마을에 傳說이 있어 이곳은 三政丞이 날 터라고 하였는데 公의 孫子 領議政 洵과 玄孫 領議政 堧과 堧의 甥姪 領議政 漢陰 李德馨이 다 이곳에서 出生하였으니 아! 장하도다. 公이 德을 닦은 應報과 터를 가려 處仁한 餘慶으로 이 같음이 있음인저.

世宗 27年 乙丑(1445年) 3月 壬辰日에 病患으로 卒하니 同年 7月 丁丑日에 高을 북쪽 溪流里 坊築洞 戊坐原에 安葬하였다.

公이 돌아가신 38年후 成宗 14年 癸卯(1483年)에 孫子 洵이 觀察使가 됨으로써 그



贊成公神道碑

褒典으로 嘉善大夫 戶曹參判에 贈職되고 그로부터 또 23年후 中宗 元年 丙寅(1506年)에 洵이 領議政 靖國功臣이 됨으로써 褒典으로 崇政大夫 議政府左贊成에 贈職되었다.

配位는 贈貞敬夫人 鷄林李氏로 大護軍 蔓實의 따님인데 5男2女를 두어 長子 思溫은 錄事요, 次子 思恭은 左洗馬로 贈領議政 文川府院君이요, 3子 思忠은 直長으로 贈司僕寺正이요, 4子 思問은 司勇이요, 季子 思義는 鐵山郡守로 贈吏曹判書이며, 長女는 司勇 李孝根에게 출가하고, 次女는 直長司正 李之善에게 출가하였다. 長房의 손자는 縣監인 濠와 沂이며, 濠의 아들은 繼金이요, 沂의 아들은 福重이며, 福重의 아들은 聖枝이다. 次

房의 손자 渭는 蔚山府使요, 洵은 文科에 급제하여 領議政 靖國功臣 文城府院君으로 諡號는 文僖 號는 老圃堂이다, 沉은 典牲署 參奉이며, 따님은 水軍節度使 李永蕢에게 출가하였다.

渭의 아들 應禎은 三陟府使요, 金溝縣令 應祥和 應祚이다. 洵의 아들 應龍은 吏曹參判인데 靖國勳으로 文原君에 封하고 贈吏曹判書이며, 應臺는 軍器寺判官이요, 長女는 僉正 安熟에게 출가하고, 次女는 縣監 李長堅에게 출가하였으며, 沉의 아들은 參奉인 應辰과 應期, 應任이다.

應禎의 아들은 萬戶인 敬宗과 武科宣傳官인 敬福이다. 應祥의 아들 弘文館博士 敬仁은 上疏로써 金安老를 排斥하다가 誣告를 입고 珍島로 流配되어 죽하였다. 敬義는 蔭職으로 從仕郎인데 伯氏 博士公의 被禍를 痛憤히 여기고 扶餘에 隱居自靖하였으며, 敬禮는 羅州判官이요, 敬智는 進士로 號 浦隱인데 仲氏를 따라 扶餘에 隱居하다가 長陵參奉에 薦舉되었으나 나가지 않았다. 敬信은 萬戶이다. 應祚의 아들 敬誠은 郡守이다. 應龍의 아들 敬元은 經歷이요, 敬長은 豊基郡守이다. 應辰의 아들 敬忠은 僉使요, 敬孝와 敬悌이다. 應任의 아들은 敬春이다. 3房의 孫子 津은 進士로 贈戶曹參議요, 池는 生員이며, 泚는 參奉이다. 津의 系子 繼胤은 贈戶曹參判이요, 池의 아들은 龜壽와 麟壽요 繼胤은 伯父(龜壽)後로 出系하였으며, 長女는 南憐에게 출가하고, 次女는 翰林 李忠佐에게 출가하고, 3女는 輔德 李夢尹에게 출가하였다. 泚의 아들은 元宗, 亨宗, 興宗, 貞宗이다.

繼胤의 아들 敬先은 嘉善大夫 咸鏡北道 兵馬節度使이다. 龜壽의 아들은 敬德이요 敬業은 奉事이다. 亨宗의 아들은 敬言이요 興宗의 아들은 東夏이다.

4房의 孫子 洞은 仁同縣監으로 비로소 晋州 元塘里에 살았으며, 洞의 아들 永年은 習讀이요, 添年은 禦侮將軍이다. 永年の 아들 誠은 縣監이요, 誠은 孝行으로 旌門이 내렸다. 添年の 아들은 忠順衛인 玉男과 福男 寶男이다. 誠의 아들은 宗仁和 宣務郎 宗義이며, 誠의 아들 宗智는 號가 潮溪로 曹南冥의 高弟로서 遺逸로 薦舉되어 參奉에 除授되었으나 나가지 않았고 晋州 大覺書院에서 享祀하고 있다.

季房의 손자 潤은 司直이요, 演은 教授로 贈左贊成이며, 溥는 參奉이요, 波는 護軍이요, 淮는 展力副尉이고, 澗은 萬戶이며, 女는 牧使 金淑에게 출가하였다.

潤의 아들은 壽永과 壽堅이요, 壽永의 아들은 涑이요, 壽堅의 아들은 胤裴이다.

演의 아들은 仁善, 恩善, 禮善, 智善, 貞善인데 5兄弟가 한마을에 함께 살며 蓍물을 함께 마시면서 孝誠과 友愛가 特異하여 仁善은 行誼로 薦거되어 四山監役을 지내고 明宗 4年 己酉(1549年)에 孝友로서 旌門이 내리고 孝友旌閭碑가 세워졌으며 그 蓍물을 孝友井이라 이르고 碑와 蓍이 지금까지 自作里의 遺墟에 전하고 있다. 恩善은 叔父後로 出系하고, 禮善은 金城縣令으로 贈領議政 文城府院君이며, 智善은 文科로 刑曹參判 開城留守를 역임하였으며, 貞善은 南營統制虞候이다.

溥의 系子 恩善은 文章이 簡古하였으나 자

취를 감추고 出仕하지 않았으니 世上에서 處士라 일컬었다. 波의 아들 希元은 生員이요, 淮의 아들은 世光이다.

仁善의 系子 堞은 秉節校尉요, 禮善의 아들 埴은 縣監이요, 堧은 文科로 領議政인데 宣祖 22年 己丑(1589年)에 平難功臣에 策錄되어 始寧府院君에 封하고, 諡號는 文貞公이고, 末, 壘이며, 長女는 許滾에게 출가하고, 次女는 知中樞府事 李民聖에게 출가하였는데 그의 아들 德馨은 宣祖朝에 領議政이다.

智善의 아들 堯은 司憲府監察이요, 堞은 伯父後로 出系하고, 城은 勵節校尉 別提이며, 埴은 成均生員 察訪이다.

貞善의 아들 坊은 敦勇校尉인데 孝行으로 旌門이 내렸으며, 恩善의 아들은 壤이요, 壘은 僉使요, 堧와 埴이다.

世光의 아들은 圻이다. 이하는 기록하지 않는다.

삼가 살펴 보건대 公은 벼슬이 비록 顯達하지 못하였으나 德을 쌓음이 깊고 멀어서 子孫이 繁盛하였고, 領議政과 좋은 벼슬이 堂內에서 잇달아 나왔으니 어찌 그렇게 盛하였던가. 생각하건데 朝鮮時代의 政治와 敎化가 世宗時代보다 더 盛況을 이룬적이 없었다. 이때에 어진 官吏들을 가리고 有能한 이를 반드시 任官을 시켰는데 公이 세고을의 守令과 漢城判官을 지냈으니 비록 작게 시험하였다고 이르겠으나 진실로 재주가 높고 行實을 갖추지 않았으면 어떻게 官職에 任用되어 능히 地方官의 責任을 다하였겠는가. 그는 반드시 善을 쌓고 仁을 쌓음이 있어 옛날

公諱(龔廉①)의 治化에 비길만 하도다. 이렇게 公을 評함이 무릇 증거 없는 말이라 하지 않을 것이다.

지난 高宗 己亥(1899年)에 15世孫 基一이 朝鮮末葉의 儒學者로서 특히 先祖를 追慕하고 報本하는 精誠을 이루어 左尹公 이하 五代의 壇과 文簡公 貞愼公 章敬公 代言公 中樞公의 壇을 局內에 모셨는데 그 후에 얼마 안되어 文簡公 貞愼公 章敬公의 墓를 長湍에서 得傳하여 三位는 撤壇하고 五代壇과 代言公 中樞公의 壇은 그대로 모시었다.

아아! 公이 돌아가신지 500년이 되도록 神道碑를 세우지 못하여 後孫들의 쌓인 恨이 오래 되었는데 一門에서 힘을 모아 神道碑를 세우고자 나에게 碑文을 請하였다.

내가 늙어 눈이 어둡고 精神도 혼란하여 두세번 公이 사양하였으나 그 請함이 더욱 근심한 바, 氣色을 살펴보니 나의 글을 얻지 못하면 그만 두지도 않고 가지도 않을 뜻이었다. 이에 그 千里 먼 길을 와서 글을 청하는 誠意에 感動하여 끝내 사양치 못하고 결국 右와 같이 글을 짓고 이어 銘에 이르노니,

朝鮮時代に 百姓을 다스림에 世宗께서 가장 잘하셨도다.

어진 이를 벼슬 주고 能한 이를 任用하여 人才를 반드시 가렸도다.

公께서 고을의 官印을 차고 內外의 職責을 누차 지냈도다.

百姓을 사랑하고 잘 다스려 敎化를 행함에 恩澤이 있었도다.

祖父께서 政丞으로 계셔 높은 벼슬이 代代로 이었도다.

孫子와 玄孫이 領相의 높은 地位에 올랐도다. 仁義로 處身하고 德을 쌓아 後孫에게 전하였도다.

善한 집의 남은 慶事로 後孫이 크게 繁盛하였도다.

높다란 저 왕방산 아래에 스스로 한 마을을 이뤘도다.

文翰과 禮儀를 떨어뜨리지 않고 벼슬을 서로 전해왔도다.

오직 공께서 쌓으신 德을 이에 가히 보겠도다.

坊築골 山所 앞 길에 事蹟을 드러낸 碑石이 없었도다.

子孫들이 이를 두려이 여기고 이에 神道碑를 세웠도다.

내가 그 碑銘을 지으니 名聲이 비로소 드러났도다.

後世에 碑를 보는 이는 무릇 考徵할 수 있으리라.

①龔廉：漢나라 南平人 龔遂의 별칭이니 渤海에 盜賊이 많았는데 宣帝가 龔遂로 渤海太守를 삼으니 盜賊이 변하여 良民이 되고 잘 다스려 百姓이 富裕하게됨.

年 譜

年 代			公의 年歲	主 要 內 容	備 考
西 曆	王 朝	干 支			
				一家系 .曾祖父:總(右副代言) .祖 父 :曼殊(左議政) .父 :原之 (商議中樞院事) .母 :豊川任氏 .子 :思溫(縣令) 思恭(贈左贊成) 思忠(贈司僕寺正) 思問(中軍司正) 思義(贈吏曹判書)	조선왕조실록 세종실록 문화류씨세보 문화류씨좌상공파보 문화류씨보감 포천군지
1388	高麗 禎王 14年	戊辰	1	5月 漢陽에서 태어남	

年 代			公의 年歲	主 要 內 容	備 考
西 曆	王 朝	干 支			
1398 1419	太祖 7年 世宗 元年	戊寅 己亥	11 32	왕자의 亂으로 左相公 父子분의 悽絶한 被禍로 相公의 配位 寧淑宅主 南陽洪氏(祖母)의 親家인 楊州 땅에 避身, 21년간 艱難과 屈辱의 歲月속에 묻혀서 지냄	조선왕조실록 세종실록 문화류씨세보 문화류씨좌상공파보 문화류씨보감 포천군지
1419	世宗 元年	己亥	32	世宗大王의 特命으로 左相公 父子분의 伸冤이 頒布됨	"
.	.	.	.	32歲의 壯年으로 성장한 公은 伸冤頒布이후 蔭仕로 行首를 거쳐 楊口縣監命稷山縣監, 奉直郎 漢城判官, 永柔縣令 등 內外職을 두루 역임하였으나 그 年度는 傳해오지 않음	"
1445	世宗 27年	乙丑	58	晩年에 抱川 王方山 아래에 터를 정하고 餘生을 이곳에서 보냄	문화류씨세보 문화류씨좌상공파보 문화류씨보감 포천군지
1445	世宗 27年	乙丑	58	3月 壬辰日에 病患으로 別世	문화류씨세보 문화류씨좌상공파보 문화류씨보감 포천군지 등
1445	世宗 27年	乙丑	58	7月 丁丑日에 新北面 溪流里 坊 築洞 戊坐原에 安葬	"
1487	成宗 14年	癸卯		贈嘉善大夫戶曹參判	조선왕조실록 문화류씨세보 문화류씨좌상공파보 문화류씨보감 포천군지
1506	中宗 元年	丙寅		贈崇政大夫議政府左贊成	"
1987		丁卯		神道碑豎立 .前成均館長哲學博士昌山 成樂緒撰 .抱川鄉校典校漢陽趙健行 書 .成均館典學南陽洪永吉篆	

松菴公 汝寧의 忠孝思想



檢漢城公派宗會長 益山 柳大賢

조선조(朝鮮朝) 500년 역사상 최대 국난(國難)으로 일컫는 소위 임진왜란(壬辰倭亂)에 왜적(倭賊)을 막아 국가의 사직(社稷)을 지키고 백성의 안녕(安寧)을 위한 대의(大義)에서 일문(一門) 전원이 의병(義兵)으로 참전하여 전장에서 장렬히 순절(殉節)하시고, 그리고 규중(閩中)의 연약한 부인으로서 부군을 따라 순절하시는 등 참으로 일문의 대의(大義)가 하늘에 뻗어있던 바, 이 같은 선조(先祖)님들의 행적이 수은 강 항(睡隱 姜 沆) 선생의 간양록(看羊錄)과 호남절의록(湖南節義錄) 등에 등재되어 있다. 400여년 전의 민족수난기(民族受難期)에 충(忠)·효(孝)·열(烈)의 삼강(三綱)을 바르게 세우신 선조님의 행적을 이에 다 기술하지 못하고, 다만 송암(松菴) 선조님의 행적만을 이에 간략히 기술(記述)하겠다.

공의 휘는 여평(汝寧)이요 자는 중구(仲懼)이며 호는 송암(松菴)이니 문화류씨(文化柳氏)로 시조 대승공 차달(大丞公 車達)의 19세 손이다. 계파(系派)는 시조 후 13세에 분파한 검한성공(檢漢城公) 파로서 파조(派祖)는

검한성사 원현(檢漢城事 元顯)이다. 파조 후로 회인공 형(懷仁公 衡), 영광공 효장(靈光公 孝章), 죽계공 인홍(竹溪公 仁洪), 참봉공 사근(參奉公 思謹), 성인재공 희현(成仁齋公 希賢)의 계통으로 공에 이르렀다.

공은 부친 성인재공(成仁齋公)과 모친 진주강씨(晉州姜氏) 사이에 선조(宣祖) 16년 계미(癸未:1583)에 김제(金堤)에서 태어났다.

일찍이 백씨(伯氏) 여평(汝宏)과 함께 학문을 닦았는데 풍채(風采)가 훌륭하고 문장(文章)이 뛰어나 사문(師門)에서 귀인영재(貴人英才)라 칭찬하였다.

동 25년 임진왜란으로 나라가 위난(危難)에 처하자, 부친 성인재공(成仁齋公)께서 사림대표(士林代表)로 창의(倡義)하여 의병(義兵)을 지휘하는 호군별제(護軍別提)로 상주성(尙州城) 방어전에 출전하셨는데, 이 때 공의 모친 진주강씨(母親 晉州姜氏)와 숙부 희철(叔父 希哲), 백씨 여평(汝宏) 등 일문 전원이 호국의병(護國義兵)으로 참전하셨다. 격전(激戰) 3일 만에 성이 적도(賊徒)에게 함락되고



공의 부친인 성인재공과 숙부가 순국(殉國) 하시니 모친께서 부군(夫君)을 따라 동일에 하종(下從) 하시었다.

소년 의병이었던 공 형제는 더욱 격분하여 적도와 혈투(血鬪)를 벌이다가 불행히 포로(捕虜)가 되어 왜국(倭國)으로 압송 억류(押送 抑留)되는 비운(悲運)을 맞았다. 왜국 대관성(大阪城)에 억류시절에 공이 지은 시문(詩文)을 보고 왜장(倭將)이 감탄하며 귀화(歸化)할 것을 강권(強勸)했으나 굽히지 않고 억류 수년 만인 기해(己亥:1599) 7월 귀국 길에 형 여굉(汝宏) 및 강 항(姜 沆) 정희득(鄭希得) 등과 함께 배를 타고 동래(東萊)에 이르러 연명(聯名)으로 외환대비책(外患對備策)을 상소함에 선조대왕(宣祖大王)께서 가납(嘉納)하시고 비국(備局:備邊司)에 보존케 하였다 한다.

공은 귀향(歸鄉)에 앞서 상주성(尙州城) 전적지를 찾았으나 순절하신 부모님의 시신(屍身)을 수습(收拾)할 길이 없어 위령제(慰靈

祭)를 모시고 양위(兩位)의 혼령(魂靈)을 초혼(招魂)하여 고향인 김제군 공덕면 송산 전록 유좌(金堤郡 孔德面 松山 前麓 西坐)에 예장(禮葬)하였다.

공은 명문(名門)의 유생(儒生)으로 왜적에 포로 된 일과 부모님의 시신을 수습하지 못한 죄가 크다며 중죄인(重罪人)을 자처(自處)하고 평생을 은거(隱居)하다 세상을 뜨시니 사림(士林)에서는 국난 중에 성인재 일문에서 세운 충(忠)·효(孝)·열(烈) 삼강(三綱)의 사적을 글로 나라에 올려 정려(旌閭)의 특전이 내리었다.

위의 기술은 문화류씨세보(文化柳氏世譜)와 가장(家狀) 및 호남절의록(湖南節義錄) 간양록(看羊錄) 등 사료(史料)를 고증(考證)으로 하여 선조(先祖) 송암공의 생애(生涯)와 행적에서 국가 위란 시 대처했던 4세기 전의 사림(士林) 사회의 충·효·열 사상을 조명해본 기록으로 남기는 바이다.

判書公 潛의 行蹟



安山宗中 事務局長 柳 益 桓

경기도 시흥시 능곡동에 광해군의 국구(國舅) 문양부원군 류자신(文陽府院君 柳自新) 선조의 묘소가 있다. 그 위로 봉분 몇 기가 더 있는데 맨 위 묘소 앞 양쪽에 여덟모가 진망주석(望柱石) 한 쌍이 있고, 그 아래 문인석(文人石) 한 쌍이 있으며, 묘소 정중앙에 상석과 그 뒤에 용트림하는 형상의 커다란 표석(表石)이 있어 예사 분의 묘소가 아님을 알 수 있다.

그 묘표에는 자헌대부 공조판서 겸오위도총부도총관 증의정부영의정 류공지묘(資憲大夫 工曹判書 兼五衛都摠府都摠管 贈議政府領議政 柳公之墓)라 쓰여 있고 우측에는 정경부인 하동정씨 부장(貞敬夫人 河東鄭氏 附葬)이라고 쓰여 있어 공조판서를 역임한 류 잠(柳 潛) 선조님의 묘소임을 알려준다.

공께서는 조선 중종조에 문과 급제하고 출사하여 인종, 명종, 선조 등 4임금을 모신 문신(文臣)으로 재상(宰相)의 반열에 오른 분이다.

공께서는 삼사(三司), 방백(方伯) 등 주요 내외직을 두루 거쳐 재상의 반열까지 오르셨음에도 세상은 물론 후손들에게도 거의 알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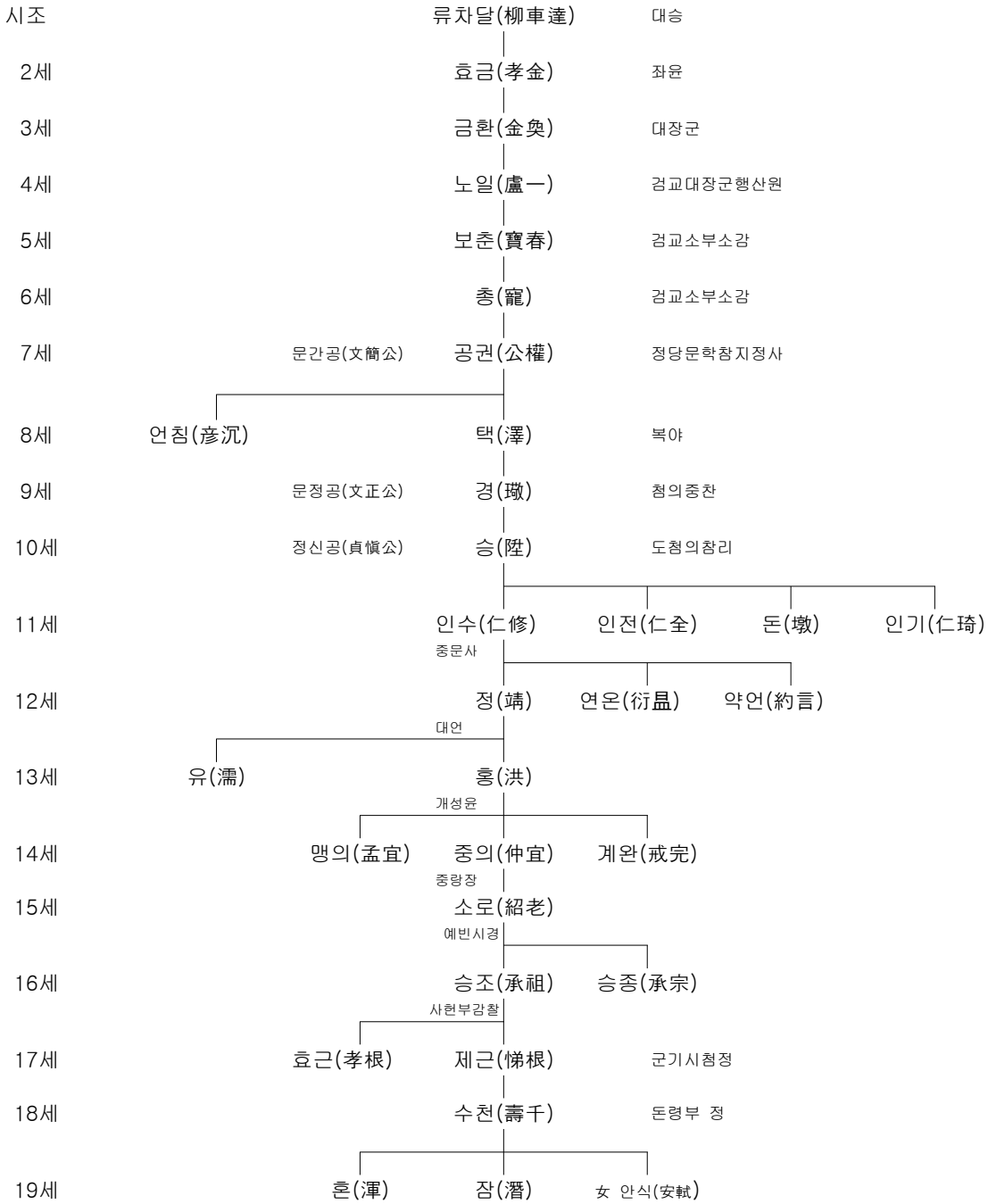
지지 않아 후손의 한사람으로 매우 안타깝고 죄송스럽게 생각하여, 수년 동안 공의 행적을 찾기에 진력하였다. 마침 금년이 공의 탄생 500주년이 되는 해라 기념할 것을 찾던 중, 공을 세상에 알리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였다. 그리하여 그간 조선왕조실록을 비롯하여 공사가문헌(公私家文獻)에 수록된 공에 관한 기록을 발췌한 내용을 토대로 공의 행적을 기술하여 보았다.

I. 탄생과 가계

1. 탄생

어느 해나 여름은 덥지만 1509년 조선의 여름은 유난히 무더웠으니 그해 6월 23일 일기가 너무 더워 대비전 탄일 하례(誕日賀禮)의 절차를 다 밟지 않고 거행하는 의식인 권정례(權停例)로 행하라는 전교가 있었다고 실록은 전한다. 다음날 더위를 식혀줄 비가 왔다는 기사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아 다음날인 24일도 무더웠을 것인데 그 무더운 날 공이 더위를 날려 보낼 만큼 우렁찬 울음을 토해내며 태어나셨다.

[류 잠의 직계도]



공의 명(名)은 잠(潛)이고, 초자(初字)가 원량(元亮)인바 이는 중국의 남북조 시대 시인으로 귀거래사(歸去來辭)로 유명한 도연명(陶淵明)의 명(名)과 자(字)가 같으니 이는 공이 도연명과 같은 훌륭한 인물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지어준 이름이라 보여진다.

2. 가계와 친척

(1) 가족과 친척

공의 증조부는 사헌부 감찰(司憲府監察)을 지내신 휘 승조(承祖)이시고, 증조모는 증숙부인(贈淑夫人) 단양장씨(丹陽張氏)이시며, 조부는 감찰공의 2자로 군기시첨정(軍器寺僉正)을 역임한 휘 제근(悌根)이시고, 조모는 증정부인(贈貞夫人) 안동권씨(安東權氏)이다. 부친은 휘 수천(壽千)이신데 공이 생원(生員)에 급제하던 당시 종6품의 귀후서(歸厚署)의 별제(別提)였는데 후에 진주판관(晉州判官), 울진현령(蔚珍縣令), 내자시판관(內資寺判官), 안성군수(安城郡守) 등을 거쳐 돈녕부정(敦寧府正)을 역임하셨다.

공이 태어났을 당시 가계(家系)를 족보를 통하여 살펴보면 조부모는 이미 돌아가시고 부모님과 한 분의 형 밖에 없는 단출한 가정이었다. 그 후 누이동생이 태어나 3남매를 이루어 가족은 총 5명이 되었는데 가까운 친척으로는 한 분의 고모만이 계셔 진사인 변창(邊昌- 原州人)에게 출가하셨다.

형 류 혼(柳渾)은 중종 23년(1528)에 공과 함께 사마시에 응시, 생원 진사 양시에 급제하고, 중종 36년(1541) 별시문과에 장원으로 급제하여 호조좌랑을 거쳐 내외직을 두루 역임

하고, 중종 39년(1544) 천추절을 하례하는 진하사(進賀使)로 북경을 다녀왔으며, 고양군수로 재임 중 큰 흉년이 들어 진휼(賑恤)에 전력한 공으로 1품계 특진하였고, 사헌부장령으로 있던 명종 7년(1552) 청백리(清白吏)에 녹선(錄選)되었고 사헌부집의, 사간원사간을 거쳐 10년(1555) 경상도암행어사로 나가 진휼(賑恤)하고 돌아와 사복시정(司僕寺正), 이조참의(吏曹參議)를 거쳐 20년(1565) 승정원(承政院)에 들어가 좌부승지(左副承旨)와 우승지(右承旨)를 역임하였으며, 이듬해 3월 장단부사(長湍府使)로 나가 선정을 베풀었다. 배위는 연안김씨(延安金氏)로 2남을 두어 장남 세신(世新)은 음사로 등용되어 사헌부감찰과 우봉현령을 역임하였으며, 손자 혼(忻)은 현감을 역임하였는데 적자를 두지 못하고 서자 기립(起立)을 두었으나 그 4대 이후 알려지지 않아 알 수 없으며, 2자 사신(思新)은 명종 때 생원, 진사 양시 및 알성문과에 급제하여 예문관검열, 병조좌랑, 호조정랑 등을 역임하였다. 1남 1녀를 두어 아들 개(愷)가 2남 4녀를 두었으나 그 후손을 알 수 없다.

공의 누이는 상원군수(祥原郡守)를 역임한 충주 안방진(忠州 安方進)의 장자인 안 식(安軾)에게 출가하였다.

공의 아버지(諱 壽千)는 형제가 없는 관계로 공에게는 4촌이 없고, 다만 장흥고주부를 역임한 큰할아버지(諱 孝根) 덕이 있어 예빈시직장을 역임한 당숙 한 분(諱 三陽)만 계시고, 그 아들 휘 중번(宗蕃)과 부사직을 역임한 휘 중수(宗壽) 등이 재종간으로 가장 가까운 친척이다.

(2) 어머니와 외가

공의 어머니는 안동김씨(舊 安東金氏)로 김성동(金誠童)의 3남 4녀 중 넷째로 딸 중에는 둘째인데 그 외에 전해지는 바가 없다.

安東金氏 (공의 어머니)				
曾祖	同知中樞	慶州	領議政	清州
	金宗淑	李氏	鄭昌孫	鄭氏
祖	左議政		東萊鄭氏	
	金 碩			
父	富平府使			
	金誠童			
外曾祖	知敦寧	青松	觀察使	韓山
	姜碩德	沈氏	安崇孝	李氏
外祖	左贊成		順興安氏	
	姜希孟			
母	晉州姜氏			

외조부 김성동(1452 ~ 1495)은 자가 명보(明甫)로 좌의정을 지낸 상락부원군 김 질(金 碩)의 아들로 음보(蔭補)로 출사하여 적성현령(積城縣令)으로 재임 중 성종 23년(1492) 식년문과에 갑과로 급제하여 당상관(堂上官)으로 승진하였고 이어 부평부사(富平府使)로 나갔는데 2년이 못 되어 선정과 치적이 조정에 알려져 종2품 가선대부(嘉善大夫)에 올랐으며 관직생활에 있어 성실성과 뛰어난 인품으로 많은 사람들로 부터 재상감이라는 기대를 모았으나 일찍 돌아가셨다. 박처륜(朴處綸)과 함께 성종조에 가장 유능하고 성실한 관리로 꼽혔던 분이다. 외조모

진주강씨(晉州姜氏)는 세종의 이질(姨姪)이고, 화가 희안(希顔)의 동생으로 좌찬성에 오른 사숙재(私淑齋) 강희맹(姜希孟)의 따님이시다.

II. 科學及第

1. 생원(生員) 급제

공이 어릴적 기록은 전해지는 것이 없어 알 수 없지만 공은 당시 한양에서 태어나서 성장하신 것으로 보이며 매우 총명하고 열심히 공부하셨던 것으로 보인다. 공은 중종 23년(1528) 무자 4월 12일에 실시된 사마시(司馬試)에 20세의 나이로 형 류 혼(柳 渾)과 함께 응시하여 나란히 생원시(生員試)에 급제하였다. 당시 형 류 혼은 생원시뿐만 아니라 진사시(進士試)까지 급제하였으니 당시 집안은 완전히 축제분위기였을 것이다.

생원과 진사는 사마시(司馬試) 또는 소과(小科)라고도 불리는 생원시와 진사시에 합격한 사람들을 칭하는 것으로 당시 국립 최고교육기관인 성균관(成均館)에 입학할 수 있는 자격을 받았으니 근래의 국립 최고대학인 서울대학교에 합격한 것과 같다고 보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

2. 문과 급제

생원 급제 이후의 기록도 전해지는 것이 없어 알 수 없지만 공은 대과에 급제하기 위하여 매우 열심히 공부하셨던 것으로 보인다. 생원이 된지도 어느덧 12년이 지난 중종 35년(1540) 경자 3월 22일 식년시 문과에

공은 32세로 응시하여 병과로 급제하셨는데 사마시에 동반 합격하였던 형님은 이듬해 별시에 합격하셨으니 공이 먼저 급제하시고 관직에 들어가셨다. 문과 급제는 공의 직계로 보면 10대조이신 문정공(文正公 諱 璉) 이후 300여년만의 일이니 대단한 경사라 아니할 수 없다. 그런데 이듬해 공은 당시 나이로는 매우 늦은 33세가 되시어 드디어 첫째 아드님(문양부원군 자신)을 두시었으니 공께서 얼마나 대과 급제를 위하여 진력을 하셨는지 짐작할 수 있다.

Ⅲ. 당하관 시절

1. 내직생활

당하관(堂下官)은 조선시대 관리 중에서 문신은 정3품 통훈대부(通訓大夫), 무신은 정3품 어모장군(禦侮將軍) 이하의 품계를 가진 자를 이르는 말로 정해진 근무일수를 채워야만 관품이 높아질 수 있고, 정해진 촌수 이내의 사람과 같은 관청에 근무할 수 없으며, 의복·가마에 이르기까지 많은 제약을 받았다.

공께서 출사하여 명종 원년(1546) 11월 지평으로 계시기 이전까지 5년간 관직 및 행적은 알 수 없고, 조선왕조실록을 통하여 그 이후 공이 당상관에 오르신 명종 9년(1554) 9월 18일 이전까지 당하관 시절의 관직을 살펴보면 명종 원년(1546) 정5품의 사헌부지평, 1547년 홍문관 부수찬, 수찬, 검토관, 교리, 1548년 지평, 병조정랑, 부수찬, 장령(정4품), 1549년 수찬, 교리, 장령, 1550년 교리를 거쳐 2년 후인 1552년 4월 사헌부집의(중3품)에 승진하시고, 홍문관부응교, 의정

부사인, 그 이듬해(1553) 5월 상의원정(정3품), 6월 사복시정 등을 두루 거치셨다.

사간원, 사헌부, 홍문관을 함께 일컬어 삼사(三司)라고 한다. 조선 시대에 대관(臺官)은 관리를 감찰하는 벼슬아치이며, 간관(諫官)은 임금에게 간언하는 벼슬아치이다. 이들은 좁게는 사간원과 사헌부의 관직이며, 넓게는 이 2관소와 홍문관까지를 아우르는 관직이다. 홍문관은 경연의 자리에서 국왕의 교수역할을 하였기 때문이다. 대간을 언관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조선 시대에 언론을 주도한 관직이기 때문이다. 또한 조선 시대에는 유교 문치주의를 표방한 사회였으므로 이러한 대간을 매우 중요시하여 이들 대간 직책은 청빈함을 요구하여서, 청요직(淸要職)이라 불렀다. 이 때문에 삼사에는 문과 출신자만이 임명될 수 있었다. 사헌부, 사간원, 홍문관의 삼사의 언관은 벼슬의 품계는 높지 않았으나 학문과 덕망이 높은 사람을 주로 임명하였다. 이들은 특별한 일이 없는 한 판서나 정승 등 고위 관직에 오를 수 있었다. 삼사의 언론은 고관들은 물론 왕이라도 함부로 막을 수 없었고, 이를 위한 여러 규정이 관행으로 받아들여졌다.

의정부사인(議政府舍人)은 백관(百官)을 통솔하고 서정(庶政)을 총리하던 조선시대 최고의 행정기관인 의정부에 둔 정4품관으로, 정원 2명이었다. 낭청(郎廳)과 함께 육방(六房)으로 나누어 사무를 정리하여, 정승의 결재를 받아 육조의 관원에게 나누어주는 일을 맡아보는 직이고, 상의원정(尙衣院正)은 조선시대 임금의 의복과 궁내의 재화(財貨)·금은·보화 등을 관리하고 공급하는

일을 맡았던 관청의 정3품이고 사복시정(司僕寺正)은 고려·조선 시대 궁중의 가마·마필(馬匹)·목장 등을 관장한 관청의 정3품직이다. 이렇듯 공은 당하관 시절 조선의 가장 중요한 관직을 두루 거치셨다.

2. 특별한 직무

공께서 당하관 시절 주로 삼사의 요직을 두루 거치셨는데 그 외에 특별히 눈에 띄는 직이 있으니 암행어사(暗行御史) 활동과 중종실록(中宗實錄) 참여라 할 것이다. 암행어사나 실록 참여는 일시적 직책이나 이는 아무에게나 내리지 않는 직책이므로 중요하다 할 것이다.

(1) 암행어사(暗行御史)

암행어사라 하면 마패(馬牌), 박문수(朴文秀) 그리고 춘향전의 이몽룡(李夢龍) 등을 떠올리는 분들이 많을 것이다. 이몽룡이 암행어사가 되기 전에 행적을 보자면 그 아버지를 따라 한양으로 올라가 과거에 급제한 후 암행어사가 되어 남원고을로 내려왔는데 충헌공(忠憲公) 박문수도 1723년(경종 3) 증광문과에 급제하고 1727년 영남, 1730년 호서 어사로 활동하였다. 암행어사는 일시적인 직책이지만 거의 과거 급제한 신진기에 중에서 임금이 직접 선발하여 파견하므로 그 중요성은 말 할 나위가 없는데 퇴계 이황(退溪 李滉)과 다산 정약용(茶山 丁若鏞) 같은 분들도 암행어사로 활동하셨다.

공이 병조정랑으로 있던 명종 3년(1548) 3월 10일 암행어사로 명을 받아 즉시 평안도

로 떠나 구황(救荒)을 잘하는 지의 여부를 살피고 즉시 서계를 올리니 3월 23일 임금은 공의 서계를 보고 그에 따른 전교가 있었다.

(2) 실록 참여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은 조선 태조부터 철종까지 25대의 역사적 사실을 편년체(編年體)로 기술한 역사서로 1997년 10월 유네스코에 세계기록유산으로 등록된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이다. 명종 5년(1550년) 9월 선왕인 중종의 실록이 좌의정(左議政) 풍성부원군(豐城府院君) 이기(李芾)의 주재 하에 105권 102책으로 간행되었으니 표제는 《중종공회휘문소무흠인성효대왕실록(中宗恭僖徽文昭武欽仁誠孝大王實錄)》인데 당시 공은 통훈대부 행홍문관교리 지제교 겸경연시독관(通訓大夫 行弘文館校理 知製敎 兼經筵侍讀官)으로 기주관(記注官)－사관(史官)직의 하나로 역사의 기록과 편찬을 담당하였으며 시정(時政)을 기록하는 일을 맡았다 -이 되어 실록에 참여하셨으니 이 또한 특이한 이력이라 할 것이고 후손으로서 자랑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3) 경복궁 복원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의 중심지인 광화문 4거리에서 북쪽을 바라보면 아름답고도 멋진 북악산이 있는데 그 산 아래 조선의 정궁 경복궁이 있어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도 많이 찾는 명소이다. 이 아름다운 경복궁이 태조 4년(1395) 완공된 후 그 동안 많은 화재를 당하였고 임진왜란 때는 불타 없어졌다가 후에 수차의 복원을 통하여 지금에 이

르고 있지만 아직도 경복궁이 건재한 것은 수많은 화재에도 불구하고 복원을 게을리 하지 않은 선조들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라 할 것이다.

명종 8년(1553) 9월 14일에도 실화로 강녕전(康寧殿)에 불이 나서 사정전(思政殿), 흠경각(欽敬閣)과 근정전(勤政殿)이 타버리는 일이 발생하였다. 그 후 1년 동안 복원공사를 하였는데 공께서 참여하시었으니 지금의 경복궁에도 공의 흔적이 남아 전해지고 있다 할 것이다.

IV. 당상관에 올라

공은 경복궁 복원 후 당상관(堂上官)으로 승급되었다. 당상관은 조선시대 관리 중에서 문신은 정3품 통정대부(通政大夫), 무신은 정3품 절충장군(折衝將軍) 이상의 품계를 가진 자를 이르는 말로 넓게는 명선대부(明善大夫) 이상의 종친, 봉순대부(奉順大夫) 이상의 의빈(儀賓)을 포함한다. 조정에서 정사를 볼 때 대청[堂]에 올라가 의자에 앉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를 가리키는 데서 나온 용어로, 왕과 같은 자리에서 정치의 중대사를 논의하고 정치적 책임이 있는 관서의 장관을 맡을 자격을 지닌 품계에 오른 사람들을 가리킨다.

1. 외직생활과 종사참여

조선시대 외직 중 가장 고위직은 관찰사로서 지금의 각도 도지사에 해당한다. 감사(監司)·도백(道伯)·방백(方伯)·외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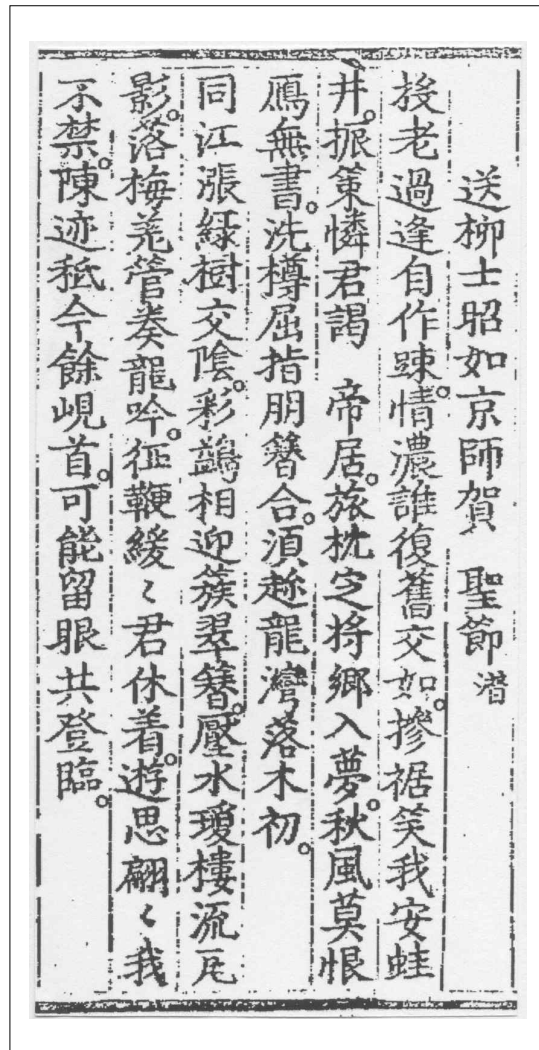
(外憲)·도선생(道先生)·영문선생(營門先生) 등으로도 불리는 관찰사는 종2품으로 주된 업무는 임금을 대신하는 지방 장관으로 도내의 군사와 행정을 지휘 통제하였다. 고을 수령의 관직으로는 지금의 광역시장에 해당하는 부윤(종2품)이 다스리는 경주, 전주, 평양, 의주 등 4곳이 있었고, 다음으로는 목사(정3품)나 대도호부사가 다스리고, 그 다음은 도호부사(종3품)가 그 다음은 군수(종4품)가 그 다음은 종5품의 현령이 마지막으로 종6품의 현감이 다스렸는데 공은 당하관 시절 외직의 기록은 없으니 출사하신지 16년째 되던 명종 10년(1555) 8월 10일 전주부윤으로 발령된 것이 외직생활의 처음으로 보여진다. 전주에서 임기를 마치고 내직으로 다시 들어와 형조참의(1558), 승정원동부승지(1559)를 거쳐 병조참의로 있던 명종 15년(1560) 성절사가 되어 북경에 다녀오시고, 2년후 1562년 형조참판으로 승진되었고 명종 19년(1564) 2월 다시 외직인 충청도관찰사가 되어 공주로 나가셨으며 그 후 정확한 연대는 모르지만 경기도관찰사(京畿道觀察使) - 백담집(栢潭集)에 공을 경기관찰사 겸병마수군절도사로 임명한 후 내린 교서가 전한다 - 가 되시었다.

공은 국사의 바쁜신 가운데도 종사도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하셨으니 단적인 것이 가정보(嘉靖譜) 발간의 참여라 할 것이다. 가정보 서문을 보면 공께서는 유배 중에 있던 침정 휘 희잠(希潛)공이 경북 의성에서 족보를 편찬한다는 소문을 듣고 형님

(承旨公 諱 渾)과 함께 직접 방문하는 열의와 협조를 아끼지 않으셨더니 그 후 명종 9년(1554) 족보를 발간하려 하였으나 흥년으로 인하여 발간할 수 없게 되자 침정공이 2본을 손수 써서 1본을 공에게 보내어 후일 인쇄에 대비하게 하고 1본은 공이 소장하여 자손에게 전하였다고 쓰여 있으니 공의 족보 발간에 참여와 협조가 단순하지 않고 상상 이상으로 다대했음을 알 수 있다. 그 후 하삼도(충청,경상,전라) 관찰사 및 수령 등이 합심하여 드디어 명종 20년(1565)에 가정보가 완성되었는데 당시 공께서 충청도관찰사로 계셨으니 이를 우연이라고만 할 수 있을까.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적으로 계보학 연구에 정평있는 자료인 가정보의 발간에 공의 참여와 기여만으로도 공은 송조목종의 귀감이라 할 것이다.

2. 외교관과 시관

명종 15년(1560) 5월 2일 공은 병조참의로 재직 중 성절사가 되시어 북경으로 가서 황제를 알현 성절(聖節)을 하례하고 겸하여 사은(謝恩)하는 외교관으로도 활동을 하시었는데 인재 홍상공(忍齋 洪相公) - 홍섬(洪暹) 영의정을 3번이나 역임, 공과는 생원에 동반 합격하였고 선조 6년(1573) 4월 같이 정시(庭試) 시관(試官)이 되었음 - 이 공의 북경행을 칠언율시(七言律詩)로 진송하였다. 이에 그 시를 아래에 실어 당시 동료간의 우의(友誼)를 음미해보고자 한다.



送柳士昭潛如京師賀聖節- 류사소 잠이 성절을 하례하러 경사(연경)에 감을 전송함.

投老過逢自作疎 늙어감에 서로 만나기가 저절로 드물어지지만,
 情濃誰復舊交如 두터운 정은 또한 예전 사귄과 같다오.
 摻裾笑我安蛙井 옷깃을 여미고 샘 속 개구리처럼 지내는 내가 우습고,
 振策憐君謁帝居 말채찍을 휘두르며 황제를 뵈러 가는 그대가 그림구려.
 旅枕定將鄉入夢 나그네 베개 머리에 고향 꿈을 꿀 것이니,
 秋風莫恨鴈無書 가을바람에 오가는 서신 없음을 한탄하지 말게.
 洗樽屈指朋簪合 술잔 앞에 벗끼리 모일 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바,
 須趁龍灣落木初 모름지기 나뭇잎 떨어지기 전에 용만에 다다르게.

同江漲綠樹交陰 대동강변 늘어진 나무 푸른 그늘 좋겠고,
 彩鷁相迎簇翠簪 뱃머리에 새긴 새 질푸른 비녀와 같겠지.
 壓水瓊樓流瓦影 물 위에 아름다운 누각 기와 골처럼 흐르고,
 落梅羌管奏龍吟 매화 앞에 피리 소리 용의 울음처럼 들리리.
 征鞭緩緩君休着 그대는 느릿느릿 채찍을 치며 도착하겠지만,
 遊思翩翩我不禁 나는 서로 오가며 놀던 생각 잊을 수 없다오.
 陳迹祗今餘峴首 지난 자취 지금도 고갯마루에 남아있거니,
 可能留眼共登臨 가능하면 후일에 눈여겨보며 함께 올라가보세.

시관(試官)은 인재를 선발하는 직책인데 선조 6년(1573) 4월 24일(계유) 공이 65세에 정시(庭試) 시관이 되시었으니 또 하나의 훌륭한 공의 이력이다. 당시 시관으로 권철(權 轍)·홍섭(洪漚)·박순(朴淳)·노수신(盧守愼)·송기수(宋麒壽)·원혼(元混)·박충원(朴忠元)·류잠(柳潛)·이순형(李純亨)·류희춘(柳希春) 등 10분이었다.

3. 태릉수릉관

공께서 1565년 2월 충청도관찰사의 임기를 마치고 내직으로 들어와서 동지중추부사로 계셨다. 2달 후인 4월 6일 문정왕후가 창

덕궁(昌德宮) 소덕당(昭德堂)에서 돌아가시었는데 명종께서 공을 수릉관(守陵官) - 왕실의 능을 지키는 직책이지만 이는 왕을 대신하여 3년상을 치르는 자리이니 유교 국가인 조선에서 그 중요성은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 삼으셨다. 그런데 명종은 공이 수릉관 3년 사이에 질병과 사고가 반드시 없을 것이라 할 수 없다 하여 당시 진사(進士)인 공의 아들[諱 자신(自新)]을 특별히 참봉으로 명하였으며, 1년 후 1566년 4월 7일 소상을 치르고 나서 공과 공의 아들을 각각 1자금을 더해 주었다. 그리고 이듬해 3년상을 무사히 마치니 그 공(功)을 인정하여 공을 한성판윤

연 보

년 도	나이	내 용
1509 (중종 4)	1	6월 24일 탄생
1528 (중종 23)	20	생원급제
1540 (중종 35)	32	문과급제(식년시)
1541 (중종 36)	33	12월 장자 자신(自新) 출생
1546 (명종 1)	38	사헌부 지평
1547 (명종 2)	39	9월 홍문관부수찬, 10월 수찬 검토관 12월 교리
1548 (명종 3)	40	1월 지평, 병조정랑, 3월 평안도 암행어사 5월 홍문관부수찬, 10월 사헌부장령 2자 덕신(德新) 출생
1549 (명종 4)	41	2월 사헌부장령, 5월 수찬, 6월 교리, 7월 사헌부장령
1550 (명종 5)	42	중종실록 기주관으로 참여
1552 (명종 7)	44	4월 사헌부집의 7월 홍문관부응교, 12월 의정부사인
1553 (명종 8)	45	5월 상의원정, 6월 사복시정
1554 (명종 9)	46	9월 18일 당상관 승급, 9월 장악원 정
1555 (명종 10)	47	8월 전주부윤
1558 (명종 13)	50	1월 형조참의
1559 (명종 14)	51	2월 승정원동부승지
1560 (명종 15)	52	5월 성절사로 북경에 다녀옴
1561 (명종 16)	53	9월 병조참의
1562 (명종 17)	54	10월 형조참판
1564 (명종 19)	56	2월 청흥도관찰사
1565 (명종 20)	57	2월 동지중추부사 , 4월 태릉수릉관
1566 (명종 21)	58	4월 1자급 가자 8월 1자급 가자
1567 (명종 22)	59	4월 8일 한성부판윤, 4월 25일 지중추부사
1567 (선조즉위)	59	10월 공조판서
1572 (선조 5)	64	9월 형조판서
1573 (선조 6)	65	4월 정시 시관
1574 (선조 7)	66	11월 한성부판윤 제수
1576 (선조 9)	68	10월 16일 졸

제수를 명하였으니 태릉수릉관은 공에게는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4. 재상의 반열에 올라

선조 즉위년(1567) 10월 공조판서에 제수되시었다. 그리고 5년 후인 1572년 9월 형조판서에 전임되었고, 그 2년 후인 1574년 11월 한성판윤에 제수되셨다. 조선은 중앙관청 6조를 두었는데 그 서열을 주례(周禮)에 따라 이·호·예·병·형·공으로 하였다. 공은 당상관에 올라 6조 중 병조(참의), 형조, 공조(판서) 등에 업무를 주로 맡아보셨으며, 그 중에서도 서열이 앞서는 형조는 참의, 참판, 판서를 모두 역임하셨고 더욱이 한성판윤을 2번이나 제수되었는데 묘표에 최종직도 아니고 6조중 가장 서열이 뒤인 공조판서라고 표기한 것은 아마 공조판서 재임 기간이 가장 길었던지 아니면 상의원정(공조의 아문), 1년간의 경복궁 복원공사 참여, 태릉 수릉관, 공조판서 등 공조의 업무를 많이 수행하여 당시 세인들에게 공조판서로 많이 알려졌기 때문이 아닐까 한다.

1574년 한성판윤에 제수된 이후 왕조실록에 공의 기록은 나타나지 않는다. 그리고 2년 후인 선조 9년(1576) 10월 16일에 향년 68세를 일기로 돌아가시니 후에 대광보국승록대부 의정부영의정 문녕부원군(大匡輔國崇祿大夫 議政府領議政 文寧府院君)에 증직되시었다.

V. 가족과 후손

공의 혼인 시기는 전하는 기록이 없어 알 수 없고 다만 배위 하동정씨는 조선 전기 문신 겸 학자로 세종~문종 대에는 문화 발전에, 단종~성종 대에는 정치 안정에 기여한 정인지(鄭麟趾)의 증손녀이고 증 참판 정승렴(鄭承濂)의 따님인데 2남을 두어 장자는 후에 한성판윤으로 광해군(光海君)의 국구가 된 문양부원군 휘 자신(自新)이고 2자는 돈령부도정에 오른 휘 덕신(德新)이다.

공은 12명의 손자와 10명의 손녀를 두었으니 장자 문양부원군에게서 희갱(希鏗), 희담(希聃), 희분(希奮), 희발(希發), 희량(希亮), 희안(希安) 등 6명의 손자와 한창군 조국필(趙國弼), 군수 이덕일(李德一), 조선 15대 임금 광해군(光海君), 현감 김시보(金時輔) 등에게 출가한 4명의 손녀가 있고, 도정공에게서 희성(希成), 희로(希老), 희설(希契), 희익(希益), 희연(希衍), 희윤(希尹) 등 6명의 손자와 금산군 이성윤(李誠胤), 평안감사 박 엽(朴燁), 부사 이대득(李大得), 도정 양 역(梁嶷), 감역 이정양(李貞陽), 감역 김 석(金皙) 등에게 출가한 6명의 손녀가 있다.

희갱은 생원 진사 양시에 급제하였으나 일찍 졸하고, 희담은 생원에 급제하고 후에 문원군으로 장례원판결사에 이르렀고, 희분은 생원 진사 양시 및 문과에 급제하여 문창부원군으로 병조판서와 우참찬을 역임하였고, 희발은 생원 진사 양시 및 문과에 급제, 호당에 들고 이조참판에 이르렀으며, 희량은 생

원시 및 문과에 급제, 호당에 들고 경기관찰사를 역임하였으며, 희안은 사복시첨정에 이르렀으며, 희성은 군수를 거쳐 첨지중추부사에 이르렀고, 희로는 생원시에 급제하고 부사를 거쳐 돈령부도정을 역임하였으며, 희설은 토산 및 양구현감을 역임하였으며, 희익은 첨정이고, 서손자 희연은 인천감목관이 되었다.

증손 이하는 일일이 나열할 수 없는 바, 그 성세만을 간단히 살펴보면 우리 문화류씨로 조선조에 문과 급제하신 분이 134분이신데 그 중 판서공(諱 潛) 이하에서 15분이 나왔으니 이는 문화류씨 전체의 11.2%에 해당하고 그 형님(諱 渾)과 조카(諱 思新)를 포함하면 17명이 되고 12.6%를 차지한다. 그리고 조선조 생원 진사 중 현재 파악되는 우리 문화류씨 급제자는 총 427장인데 이중 판서공 이하의 급제한 수는 44장으로 문화류씨의 10.3%에 이르고, 그 형님 및 조카를 포함하면 48장이 되어 11.2%가 된다. 그리고 우리 종중에서 정승에 오른 분은 안타깝게도 안계시지만 유일하게 왕비(공의 손녀- 光海君 妃로 文城郡夫人)를 배출하였고 정1품인 보국승록대부(輔國崇祿大夫)에 오른 분이 2분(諱 自新, 希奮), 한성판윤을 역임하신 분이 3분(諱 潛, 自新, 希奮), 판서가 2분(諱 潛, 希奮) 관찰사가 2분(諱 潛, 希亮), 그 외에 참판, 승지, 참의, 판결사, 도정, 부사 등이 계시고 실질 당상관을 역임하신 분들을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으며, 특히 신진기에 인정되는 호당에 들은 분이 2분(諱 希發, 希亮), 또 암행어사를 역임하신 분이 2

분(諱 渾, 潛) 등이 계시고 또한 문장으로는 국중에 명성을 떨친 영재공(冷齋公 諱 得恭) 선조와 드러나지 않았지만 매둔공(梅墩公 諱 廣善) 선조 등이 우리 문중의 자랑이다.

현세에 이르러서도 인물이 끊이지 않으니 대법관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역임한 지담(志潭 -33세), 현 외교통상부 장관인 명환(明桓 -36세) 등을 꼽을 수 있다. 이와 같이 많은 인물을 배출한 것은 우리 문류 뿐만 아니라 타문의 어느 종중에도 찾아보기 어렵다. 이는 공으로부터 시작하여 작금에 이르기까지 끊이지 않고 이어졌음은 모두 공의 음덕이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재인 능곡동묘역이 류자신선생의 묘역으로 표기되어 있고, 또한 세인들은 우리종중을 광해군 처가로만 알고 있다. 물론 광해군의 국구(國舅)이신 문양부원군(諱 自新)께서 세상에 더 많이 알려졌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정확히 우리 종중은 조선 중종조에 출사하여 명종, 선조조에 문신으로 청요직을 거쳐 판서와 판윤 등을 두루 역임하신 류 잠(柳 潛)할아버지 후손들의 종중이다. 또한 형님이신 승지공(諱 渾)의 혈손이 이어지지 않은 관계로 본 종중은 판서공의 조부로 군기시첨정(軍器寺僉正)을 역임하시고 이조판서에 증직되신 휘 체근(諱 悌根) 선조님의 혈통을 잇는 유일한 종중이다.

우리 안산 종중은 지난 2005년 12월에 서울 구로구 고척동에 지하 1층, 지상 9층의 종친회관(문화골든타워)을 마련하여 운영 관리하고 있으며, 종친회는 지선(志善) 회장님께서 이끌고 계신다.

「約齋集」小考

柳 滄 鉉

조선 숙종조(肅宗朝)의 영의정으로 시호 충간공(忠簡公)이신 약재상공 류상운(約齋相公 柳尙運)의 유고(遺稿) 「約齋集」이 2007년 12월에 한국문집총간 속(韓國文集叢刊續) 42책에 편입, 간행 되었다.

이는 국가적 대사업으로 한국학 기초자료의 보전과 확장을 위하여 민족문화추진회에서 「한국문집총간편간계획」에 따라 삼국시대부터 구한말까지의 저술로서 한국인의 현존문집 4,000여종 중에서 주요문집을 선정하고 이를 표점(標點), 영인(影印)하여 발간한 것으로 1986년부터 제1차로 663종 350책을 간행한데 이어 제2차로 600여종을 150책으로 간행하였다.

본 영인 저본(底本)은 공의 9대종손으로 일찍이 문화류씨대종회를 창립, 육성한 초대회장 유명 근영(流影 根榮)의 장자 민성(民城)이 소장했던 원본으로서 분량은 총 6책 391판(782 페이지)으로 되어있는데 2007년도 교육인적자원부의 지원 하에 고전국역 사업비로 간행되었다.

약재집의 내용을 간략히 기술하건대 시(詩)가 1,000여 수로 전체에 6할 정도이다.

시는 공개서 기거했던 순서대로 12편으로 분류되어 있는데 대강 소개하자면 첫째 서암록(西巖錄)이니 효종(孝宗) 10년(己亥 : 1659) 광주 울현(廣州 栗峴) 마을에 거주할 때 마을에서 서쪽으로 수석(水石)이 좋은 곳

이 있었는데 그윽하고 조용한 그 경치를 사랑하여 서암(西巖)이라 자호(自號)하였던 바, 이 때에 지은 것으로 22수이며, 둘째 영남록(嶺南錄)이니 현종(顯宗) 12년(辛亥 : 1671) 경상도도사 재임시부터 지은 것으로 40수이며, 셋째 청원록(淸源錄)이니 숙종(肅宗) 2년(丙辰 : 1676) 강계부사 재임시부터 지은 것으로 139수이며, 넷째 관서록(關西錄)이니 6년(庚申 : 1680) 평안감사 부임 시부터 지은 것으로 51수이며, 다섯째 남한록(南漢錄) 25수가 있으며, 여섯째 연행록(燕行錄)이니 9년(癸亥 : 1683) 사은부사(謝恩副使)로 청나라에 가면서부터 지은 것으로 311수이며, 일곱째 파릉록(巴陵錄)이니 재차 평안감사로 부임시부터 지은 것으로 41수이며, 여덟째 북정록(北征錄)이니 12년(丙寅 : 1686) 함경도 고시관으로 있으면서 지은 것으로 75수이며, 아홉째 광릉록(廣陵錄)이니 13년(丁卯 : 1687) 호조판서 재임 시부터 지은 것으로 152수이며, 열째 검암록(黔巖錄)이니 17년(辛未 : 1691) 직산 검암(稷山 黔巖 : 天安 小東面)에 우거(寓居) 시부터 지은 것으로 101수이며, 열한번째 수집록(搜輯錄)이니 전후로 저술한 시로서 상자 속에 흩어져 있던 것을 거두어 기록한 37수로 연대가 미상하며, 열 두번째 사산록(蛇山錄)이니 28년(壬午 : 1702) 중도부처(中途付處)의 명이 내려 직산 사산(蛇山)에 유배된 후에 지은 것으로



約齋相公 影幀

57수이다.

다음 현종 14년(癸丑 : 1673)부터 숙종 32년(丙戌:1706)까지 30여년 동안에 올린 소차(疏劄)가 67장인데 내용은 주로 사직(辭職)을 청하는 상소와 시무(時務)를 논하는 차자로 되어 있는 바, 연도순으로 간략히 기술하겠다.

현종 14년(癸丑 : 1673)에 홍문관 부수찬의 사직을 청하는 상소를 올리고, 숙종 6년(庚申 : 1680)에 사간원 대사간의 사직소를 올리고, 8년(壬戌 : 1682)에 또 대사간 사직소를 올렸다.

9년(癸亥 : 1683)에 비변사 당상의 사직소를 올리고, 동년 가을에 형조참판 사직소를 올리고, 이어 부제학 사직소를 올렸다.

12년(丙寅 : 1686) 봄에 호조판서 사직소를 올리고, 14년(戊辰 : 1688)에 이조판서 사직소를 올리고, 15년(己巳 : 1689)에 류위한(柳緯漢)의 상소 후에 대죄소(待罪疏)를 올리고, 동년에 호조판서 사직소를 올렸다.

20년(甲戌 : 1694)에 이조판서 사직소를 올리고, 21년(乙亥 : 1695)에 또 이조판서 사직소를 올리고 동년에 대배(大拜), 우의정에 제수되어 우의정 사직소를 4차례 올렸다.

22년(丙子 : 1696)에 좌의정으로 옮겨 사직소를 3차례 올리고, 동년 가을에 영의정으로 옮겨 그로부터 사직소를 11차례 올리고, 다른 일로 2차례 차자를 올렸으며, 23년(丁丑 : 1697)에 영의정 사직소를 4차례 올리고, 다른 일로 차자를 5차례 올렸다. 24년(戊寅 : 1698)에 영의정 사직소를 7차례 올

리고, 다른 일로 차자를 4차례 올렸으며, 25년(己卯 : 1699)에 영의정 사직소를 5차례 올리고, 다른 일로 차자를 3차례 올리어 마침내 윤희(允許)가 내려 광주 율현(廣州 栗峴)으로 돌아왔다.

26년(庚辰 : 1700)에 한직(閑職)인 판중추부사(判中樞府事)에 제수되어 사직소를 올리고, 27년(辛巳 : 1701)에 율리(栗里 : 栗峴)로 퇴거하여 대죄소를 올린 후 이어 녹봉(祿俸)을 사양하는 상소와 자신의 소회(所懷)를 아뢰는 상소 등을 3차례 올렸다. 동년 10월에 춘궁(春宮:王世子)의 소생모 장희빈(張禧嬪)에게 자진(自盡)의 명이 내린 소식을 듣고 전은(全恩)을 베풀어 사약(賜藥)을 거두어 줄 것을 상소로서 청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8년(壬午 : 1702)에 공에게 중도부처(中途付處)의 명이 내려 직산(稷山)으로 유배되었다니 동년 겨울 곤궁(坤宮 : 王妃)의 책봉이 있는 후 전리(田里)로 내치라는 명이 있어 율리 옛 살던 곳으로 돌아와 아우 대사간공과 함께 거처하다가 30년(甲申 : 1704) 6월에 아우 대사간공의 상을 당하였다.

동년에 매월 월봉(月俸)으로 지급하는 미곡(米穀)을 받지 않고자 사양하는 상소를 올리고, 32년(丙戌 : 1706)에 다시 판중추부사 사직소를 올려 윤희를 얻었다.

다음 우의정 신익상(申翼相)의 행장(行狀) 1편이 있고, 해주목사 이익주(李翊周) 외 8편의 묘지명(墓誌銘)과 풍덕부사 이적길(李迪吉) 외 3편의 묘갈명(墓碣銘) 등 총 11편의 묘문(墓文)이 있다. 다음 판서 이기조(李基祚

處之道。不可一日苟冒於職次。揆以朝廷大體。亦不當使有罪之人。倖免刑章。以致國言日滋。輿情益激。此臣所以不避煩瀆。仰干嚴誅者也。伏乞聖慈。亟命削臣職名。仍令攸司。勘正臣罪。以尊國體。以謝公議。不勝幸甚。取進止。

辭領議政疏 己卯

伏以皇天冥隲。祖宗默佑。王世子痘患。不日平復。一國臣民之鼓舞擯祝。曷有極哉。方其議藥廳之設也。雖以如臣之殘喘。不得不奔走於起居之班。及其獻賀領慶之日。又自不覺其跛躄。蹈拌於蒿呼之列。今雖溘死。更無所憾。第臣身帶重任。酷被人言。而誠淺辭拙。尚今躄冒。臣罪尤萬矣。臣自上年春夏以後。為法受罪之論。廉取道喪之斥。前後相續。臣進而待罪。退而陳情者。非止一再。業已聖明之所下燭。畢竟臺疏。迭上罪名。狼藉執法之地。特未及擬律而勘罪耳。噫。不誠人臣之極罪。自明士夫之賤行。而奸邪之目。又隱然說及於引用古事之際。一人之身。衆惡咸萃。而猶且晏然於具瞻之地。此事體事理之所必無。臣自得此以來。誠不敢為更舉顏朝端之計。而大分所在。亦不免為卡入旋出之歸。私心愧惧。

已不勝言。而若又因此幸會。盤礴不退。則是誠鄙夫。聖明亦將焉用哉。况臣落傷之後。右邊肢體。受傷甚重。行步蹒跚。作一廢疾之人。加以素患風眩之症。日漸添重。昨自賀班退歸之後。移時昏室。僅得回甦。而委頓床席。實無復起為人之望。區區至願。唯在於一息未泯之前。得釋重負而已。伏乞聖慈。上念國家之大體。俯察微臣之至懇。將臣本兼職名一併鑄削。使臣得以杜門調息。以延危喘。則實天地父母終始生成之澤也。臣無任瞻天望聖。切祝懇禱之至。

辭領議政疏 己卯

伏以臣之無似。謬膺匪據。五年于茲。而曰臣私悃。許令解免。亦已屢矣。如臣賤品。致位至此。罪戾之中。曲加全保。疾痛之呼。輒蒙矜諒。恩山德海。不足諭其高深。仰戴鴻私。退守愚分。日夕耿耿。祇自感祝我天地父母。終始生成之澤矣。今茲重卜之命。又及於千萬夢寐之外。臣聞命震竦。水炭交中。累日而不能自定也。鼎軸之首。何等職任。飢荒之餘。何等時勢。臣之陋劣。又何等人。而卡遠旋授。至再至三。上累則哲之明。下感四方之聽。臣之妨賢病國之罪。固

)의 시장(謚狀) 1편이 있고, 다음 숙종조의 문신이요 예학자인 현석 박세채(玄石 朴世采), 우의정 조사석(趙師錫) 등에 대한 16장의 제문(祭文)이 있으며, 청천당기(聽泉堂記)의 4장과 영팔정발(詠八亭跋)의 4장 등 총 8장의 기문(記文)이 실려 있는데 이상 소개한 것은 모두 옛날 목판본(木版本)이다.

그리고 지난 1956년 2월에 공의 8대손 기혁(起赫 : 民城의 祖父)이 보충 완성한 약재연보(約齋年譜) 38판(76페이지)과 공이 기로연(耆老筵)에서 명곡상공 최석항(明谷相公 崔錫恒) 등 명신 8인과 함께 지어 읊은 시문 3판(6페이지)이 필사본(筆寫本)으로 맨 끝에 붙어 있다.

獨樂亭公 伯의 追遠契約文序

獨樂亭公 八代孫 柳 公 鉉

공의 휘는 주(倬)요. 자는 도보(道甫)이니 정간공 석헌선생 옥(靖簡公 石軒先生 沃)의 5대손이요, 뇌천처사 호(磊川處士 灑)의 손이요. 어목진사 동순(漁牧進士 東洵)의 아들이다.

현종(顯宗) 4년(癸卯 : 1663) 6월13일에 남원 말천방(南原 末川坊), 현 임실군 삼계면 강촌에서 출생하였는데 천성이 강직 명쾌하고 행위가 바르며 덕업의 도량이 깊은데다 효우의 행실이 독실하여 항상 증자(曾子)와 자사(子思)의 독행(獨行)과 공자(孔子)와 안자(顔子)의 낙도(樂道)를 흠모하시어 독락(獨樂)이라고 호를 일컬었으니 그 돈독하고 미더움을 가히 상상할 수 있다. 일찍이 공께서 시를 지어 “홀로 만고에 삼강의 기둥을 세우고, 넉넉히 한 몸으로 백행의 근본을 얻었도다.”

獨扶萬古三綱柱 贏得一心百行源

이라 하였는데 이 시를 세상 사람들이 음미하고 탄상하였다. 또한 공께서 그 지행(志行)이 합당하였으니 만일에 안차성(安且成) 삼자(三字)의 공부가 없었다면 어찌 능히 이 같은 시가 있었겠는가?

공께서는 벼슬길에 나가시라고 주위의 권유에도 마다하시고 후동(後洞), 현 두월리에 독락대(獨樂臺)를 마련하여 사우(士友)들과 더불어 시례(詩禮) 문학(文學)의 장으로 학덕연마와 제자양성에 진력하니 세상에서 처사라 일컬었다.

또한 아버이 섬김에 효성을 다하고 선세의 덕업을 계승하는데 성의를 다하는 한편 추원계(追遠契)를 조직하여 후손대대로 송조사상을 돈독히 하도록 가르치셨다.

영조(英祖) 18년(壬戌 : 1742)에 향년 80세로 고종(考終)하시었다.

후에 중10대손 석송공(石松公:柳昌秀)

서 공의 묘갈명을 지었는데 그 명사에 이르기를, 자품을 천성으로 타고났으니 힘써 이룬 것이 아니요,

행실은 내 몸에서 이루어졌으니 한갓 사욕이 아니었다.

사람이 믿지 않은 이가 없으니 나는 공의 뛰어난 행감을 흠모하네.

곧은 빛돌에 명사를 새기어 백년 억년을 기다리노라.

姿出於天非日致力 行成於己不徒私欲
人無不信我欽公卓 銘以貞珉用俟百億

라고 하였다.

현재 정각은 폐쇄되고 구지에 대석(臺石)만 남아 「獨樂臺」라 새겨진 글씨가 옛 정취를 간직하고 있으며, 또한 문집(文集)이 있고, 유적이 남원 용성지(龍城誌)의 유일편(遺逸篇)과 학행편(學行篇)에 등재되어 있다.

배위는 순천박씨(順天朴氏)니 문숙공 석명(文肅公 錫命)의 후예 장림(章林)의 따님으로 4남1녀를 두시었다. 아들은 오경(五慶) 응경(應慶) 선경(善慶) 문경(文慶)이요. 사위는 죽산 안세림(竹山 安世霖)이다.

공의 후손들은 현재 강촌에 2·3호 정도가 선산과 고향을 지키고 있으며, 고향에서 차편으로 1시간 거리인 전주시(全州市)에 대부분 거주하고, 그 외에 서울과 경기도 등지에 산재하고 있다.

이어서 공께서 지은 추원계약문서를 다음과 같이 기록하오니 각박한 현실 사회에서 위선지심을 함양하는데 다소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하다.

[追遠契約文序]

계의 이름을 추원(追遠)이라 함은 어떠한 인가? 이는 부모의 제사를 받들기 위하여 실시한 것이다. 계라는 것은 일정한 규약이 없고 때에 따라 규약을 변통하였는 바, 처음에는 묘소를 살피며 제사를 받들게끔 조약을 만들었고, 중간에는 기제사를 받들게끔 조약을 만들었으며, 끝으로는 해마다 한번 제사를 받들게끔 조약을 만들었다. 앞뒤로 제사 받드는 조약이 명확하고 예법에도 어김이 없었으며, 능히 인정에도 합치되는 것이니 우리 형제의 자손들은 모두 이어 받들 것이요. 또한 게으르고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아아! 선비가 제사 받드는 전답이 없으면 제사를 받들지 못할 것이나 이제 전답이 준비 되었으니 한결같이 추원계약문을 준수하여 삼가 죄과(罪科)에 범치 말도록 하고 산소와 가묘(家廟)에 제사 드리는 예절을 공경히 받들어 할아버지가 곁에 계시는 것과 같이 정성을 다할 것이다. 그리고 대진(代盡:玄孫까지 忌祭가 끝남)한 뒤에도 정은 비록 다함이 없으나 예는 선현들이 제정한 절차가 있으니 그 얻어 받들 바는 바로 세일제(歲一祭)로서 제사에 그 정성을 다할 따름이요. 대수가 멀다고 이르지 말지니라.

아아! 나로부터 미루어서 올라가면 아버지와 할아버지를 거슬러 시조에까지 이르고 시조로부터 미루어 내려오면 아들과 손자를 거쳐서 나에 이르게 된다. 비록 백세후에 멀다고 할지라도 다 우리 선조에게서 나오는 바이니 가히 근본을 잊어버리고 감히 선조의 제사에 소홀히 하겠는가?

追遠契約文序

契之名以追遠何也以其爲父母祭祀而設也契無一定隨時變通始以奉掃祀而有奉掃祀之條約中以奉忌祀而有奉忌祀之條約終以奉歲祭而有奉歲祭之條約前後祭祀條約明白而不違於禮法能合於人情爲吾兄弟之子孫者皆可以奉承而不可以怠忽噫士無田則不祭而今既有田則一遵約文慎勿犯科而山所家廟敬修奠獻之禮以致如在之誠而至於代盡之後情雖無窮禮則有節其所得爲者一歲祭也祭盡其誠勿謂世遠噫自吾而推而上則父父祖祖以至於始祖自始祖而推而下則子子孫孫以至於吾雖百世之遠皆吾之所自出也其可以忘其本而敢忽於祭先祖乎代盡後歲祭載在禮書且有契物可以供祭苟非葛伯孰有放而不祀者乎噫觀吾之序則追遠之心油然而生矣世世傳守此契不廢香火於百代則吾兄弟可謂有後孫矣

崇禎後百十一年戊午十一月初四日壬子佃序

대진이 되면 세일제(歲一祭)를 만드는 것이 예서에 실려 있고 또 계물(契物)이 있어 가히 제사를 받들고 있으니 진실로 갈백(葛伯)이 아니고서야 누가 방치하고 제사를 받들지 않을 수 있겠는가?

아아! 나의 추원계 서문을 본다면 선조를 사모하는 마음이 저절로 나올 것이니 대대로 이 추원계를 전하고 지키어 향화(香火)를 백대토록 폐하지 않을진대 우리 형제는 가히 후손을 잘 두었다고 이르지니라.

숭정(崇禎) 후 111년(英祖15년 戊午:1738) 11월초4일 임자일(壬子日)에

주(佃) 씀.

贈參判 孝子柳公 瑞龍 碑銘



효성이 지극하면 가히 신명(神明)이 감동한다 이르는 바, 신명은 지극히 깊고 먼데 감동하는 단서를 어떻게 보겠는가?

시기가 아니면 얻기 어려운 물건은 사람의 지혜와 힘으로 가히 구하지 못할 것인데 효자는 그 뜻을 이루니 혹 사람의 생각 밖의 일이라 이르겠다. 그 연고를 자세히 궁구할진대 감응의 신묘함이 깊지 않게 드러나는 바, 곧 효도를 논함에 이렇게 정의하는가 싶다.

증참판 류공(贈參判 柳公)은 하늘에서 낸 효자이다. 아버지의 뜻을 순히 받들고 항상 안색을 부드럽게 가져 봉양하고 예기(禮記)의 소의(小儀) 내칙(內則)등의 규범을 좇아 행하였으며, 아버지의 질환을 시중드는데 정성을 다함으로서 신령스럽고 기이한 일이 많았다. 곧 약을 구하여 밤에 돌아올 때 범이 호위하여 뒤를 따라오고 또 즐겨 자시는 것

을 생각하여 구하고자 함에 꿩이 날아와 품속으로 들어 왔으며, 여름에 홍시(紅柿)를 얻고 얼음이 굳게 언 여울에서 뛰는 물고기를 얻었으니 이는 보통의 정으로 얻은 것이 아니요. 곧 하늘이 도와 응한 바라 이르겠다.

이로서 보는 이마다 놀라 탄식하며 예전 중국 진나라 때 왕상(王祥)이 얻은 잉어와 오나라 때 맹종(孟宗)이 얻은 죽순에 비하였으니 이같이 순수한 효성의 돈독함은 예전에도 드문 바였다. 또한 상(喪)을 당하여 피눈물을 흘리되 3년을 게을리 하지 않고, 날마다 산소를 살펴 성묘하되 추우나 더우나 폐하지 않았는데 이는 공에게 있어서는 자그만 절차에 불과하였다. 이 사실이 원근에 전해짐에 모두 똑같은 말로 공의 효성을 칭찬하였다.

선비들이 이 사실을 일제히 호소하고, 고을 수령(守令)이 아울러 포상(褒賞)을 청하는

贈參判孝子柳公碑銘并序

誠孝之至謂可以感神明神明至幽遠也感之之端曷以見之哉非時難得之物非人智力之可求而孝子之致之也或於人意慮之外細求其故感應之妙非幽而伊顯卽此而論孝斯定矣 贈參判柳公天出之孝也承順色養直少儀內則而侍疾殫誠多致靈異求藥夜歸虎隨護行思嗜欲求雉飛入懷夏月而得紅柿水灘而獲躍魚非常情之偉得而寔冥佑之攸應也見者驚歎比之王鯉孟筭純孝之篤往昔所罕而至若居喪泣血三年不懈日省攀栢寒暑不廢在公爲疎節也遠近傳聞一辭稱孝襟紳齊籲侯伯并褒春曹論稟特 贈亞卿烏頭之典 次將下旌褒已及表之墟里遂豎碑建閣風聲將百世永也公之曾孫寅燮東燮等遠涉水程以 屬不佞老廢耗憤不堪是役而彝好之外兼有百世之誼未可以終辭也公諱瑞龍字聖淵文化人相仁之子郡守淵之來孫家世孝敬之風有所傳云銘曰
公孝格天古罕今覲飛潛及走益彼嘉實并致靈驗萬古俱嘖幸逢聖朝特蒙綽楔琢石紀蹟過者必式
屠維協洽日南至 完山柳必永撰

한편, 춘조(春曹 : 禮曹)에서 논하여 특별히 참관의 증직이 내리었다. 아울러 공의 효행을 표창하기 위한 특전으로 정려(旌闈)의 명이 내려 공께서 살았던 마을에 드디어 효자비를 세우고 효자정려의 비각(碑閣)을 세웠으니 그 훌륭한 명성이 장차 백세토록 영원할 것이다.

공의 증손 인섭(寅燮) 동섭(東燮) 등이 멀리 얼음길에 찾아와서 글을 청하였다.

내가 늙고 정신 또한 어지러워 이 일을 감당치 못하겠으나 몇몇한 도리를 좋아하기 이외에 겸하여 백세(百世)의 친의가 있어 끝내 사양하지 못하였다.

공의 휘는 서룡(瑞龍)이요. 자는 성연(聖淵)이니 문화인(文化人)으로 상인(相仁)의 아들이요. 군수 연(淵)의 후손이다.

한편 집안 대대로 부모에게 효도하고 어른을 공경하는 기풍이 전해지고 있다고 한다. 명사에 이르노니,

공의 효성은 하늘을 감동시켰거니,
예전에 드문 바를 지금에 보겠도다.
새와 물고기와 짐승은 물론,
더욱이 저 아름다운 과일까지도,
모두 신령스런 징험이 나타났으니,
만고에 함께 칭찬이 그치지 않으리라.
다행히 거룩한 임금의 조정을 만나,
특별히 정려의 은전을 무릅썼도다.
비석을 다듬어 행적을 기록하는 바,
지내는 이는 반드시 공경하리라.

기미(己未 : 1919) 동지일(冬至日)

완산 류필영(完山 柳必永) 지음.

陽庵處士 柳公芝赫 墓碣銘



柳明杰

양암처사 류공(陽庵處士 柳公)이 천지가 닫혀 막힌 때를 당하여 정의를 지켜 글만 읽다가 69세에 졸하니, 원근 사우(士友)들이 슬퍼하지 않는 이가 없고, “현인(賢人)이 갔구나!” 하며, 장사 날에 온 고을에서 다 몰려 제문(祭文)과 만장(輓章)을 다 셀 수 없었으니 진실로 사람들이 그 덕행(德行)에 깊이 감동되지 않았으면 어찌 그럴 수 있으리요?

돌아가신지 10년에 세상이 더욱 어수선하니, 공의 손자 춘걸(春杰)과 사위 안승춘(安承春)이 공의 아름다운 덕행이 난리 속에 민물 될까 두려워하고 장차 돌에 새겨 오래도록 전하고자 나에게 묘문을 청하니 내가 어찌 감당하겠는가만 사양타 못하여 삼가 살펴 쓴다.

공의 휘는 지혁(芝赫)이요, 자는 수여(秀汝)이며 본관은 문화(文化)이다.

원조(遠祖) 휘 차달(車達)은 고려 때 대승(大丞)이니 이로부터 이름 높은 인물과 훌륭한 관직이 대대로 연이어 났었다. 조선조에 들어와 휘 사눌(思訥)은 시호 문숙(文肅)이요, 2세를 전하여 휘 경조(敬祖)는 문과로 참의(參議)이고, 그 아들 휘 희석(熙

錫)은 감찰이요, 4세를 전하여 휘 시필(時弼)은 증참의요, 또 3세를 전하여 휘 건(健)은 수지중추니 공의 6세조이다. 증조는 휘 창조(昌祚)요, 조는 휘 봉기(鳳基)요, 선고는 휘 흥무(興武)로 호 만락헌(晩樂軒)이니 회당 윤선생(晦堂 尹先生 : 尹膺善)이 기문을 지었으며, 선비는 강릉유씨(江陵劉氏)로 재택(載宅)의 따님이다.

공이 고종(高宗) 병술(丙戌 : 1886)년 2월 8일에 청풍 개양동(淸風 開陽洞) 자택에서 태어났는데 용모가 아름답고 기질이 맑았다. 그러나 몸이 약하고 또한 병이 많으므로 만락공이 민망히 여겨 글을 독촉하여 가르치지 않고 마음대로 놀게 하였으나 본디 진중하여 문득 성인(成人)과 같았다.

9세에 비로소 종형(從兄)인 임당처사(任堂處士 : 柳毅赫)에게 수업하였는데 재성(才性)이 영오하여 배운 바에 심히 민첩함으로 사람들이 모두 중하게 여겼다.

이 때 의당 박선생(毅堂 朴先生 : 朴世和)이 세상을 피하여 불역산(蕪德山) 중에서 강도(講道)할새, 이곳에 출입하며 학문을 배운 이가 많았는데 임당이 곧 그 중에 한분이었다.



공이 또한 따라가 뵈옵고 학문을 닦는 요지를 듣고 개연히 성인(聖人)의 학문을 배울 뜻을 품었다.

갑진(甲辰: 1904)에 의옹(毅翁: 毅堂)이 화양동(華陽洞)에서 강의할새, 공이 따라가 만동묘(萬東廟)를 봉심하고 우암선생(尤菴先生: 宋時烈)의 사당 및 묘소를 참배하였다. 얼마 후 임당이 돌아가시니 의옹을 스승으로 섬겨 구도(求道)에 더욱 부지런하고, 불역산이 집에서 거리가 거의 100리인데 춘추로 책을 지고 다니며, 학문을 닦는데 감자와 도토리를 먹어가며 노고를 꺼리지 않았다.

산 아래 용하구곡(用夏九曲)이 있는데 의옹이 무이(武夷) 고사를 본 때 이름부친 것이다. “흰 돌 맑은 물은 굽이굽이 기이한데 꽃피는 봄, 국화 피는 가을이면 지팡이 짚고 거닐며 유연히 집에 돌아가기를 잊고 즐거운 낙이 있었다.”

의옹이 공을 향시 사랑하여 ‘陽庵’으로 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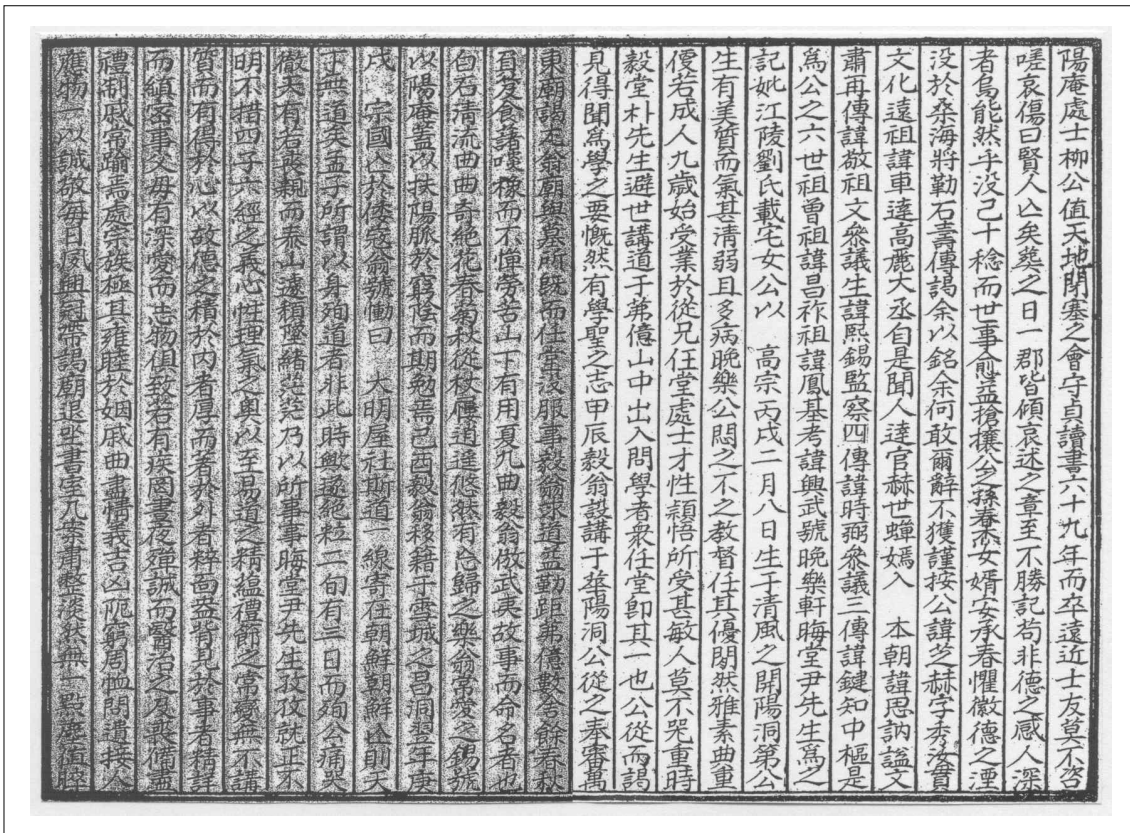


를 지어 주었으니 이는 ‘궁음(窮陰) 속에 양맥(陽脈)을 붙들라.’는 뜻으로 권면한 것이다.

기유(己酉: 1909)에 의옹이 음성 창동(陰城昌洞)으로 이사하시고, 그 이듬해 경술(庚戌: 1910)에 국권이 왜구(倭寇)에게 넘어가니 옹이 통곡하시며 “명(明)나라가 망할 때 사도(斯道)의 한 실마리를 조선(朝鮮)에 넘겼는데 조선이 망하면 천하에 도가 없어진다.” 하시었다

맹자(孟子)의 말씀에, “몸으로써 도를 따라 죽는다고 하셨는데 이 때가 아니겠는가?” 하시며, 드디어 식음(食飮)을 끊으신지 23일 만에 돌아가시니 공이 하늘에 닿게 통곡할새, 친상(親喪)을 당한 듯이 태산이 무너진 듯 두서러 잃었다.

한편 의옹을 섬기든 성의로 회당 윤선생(晦堂尹先生: 尹膺善)을 섬겨 부지런히 바르는데 나아가 미상한 것이 없이 사자육경(四子六經)의 의리와 심성이기(心性理氣)의 심오한 것과 주역(周易)의 깊은 뜻과 예절(禮節)의 변칙 등을 두루 강론하고 질문하여 마음에 통하지 않음이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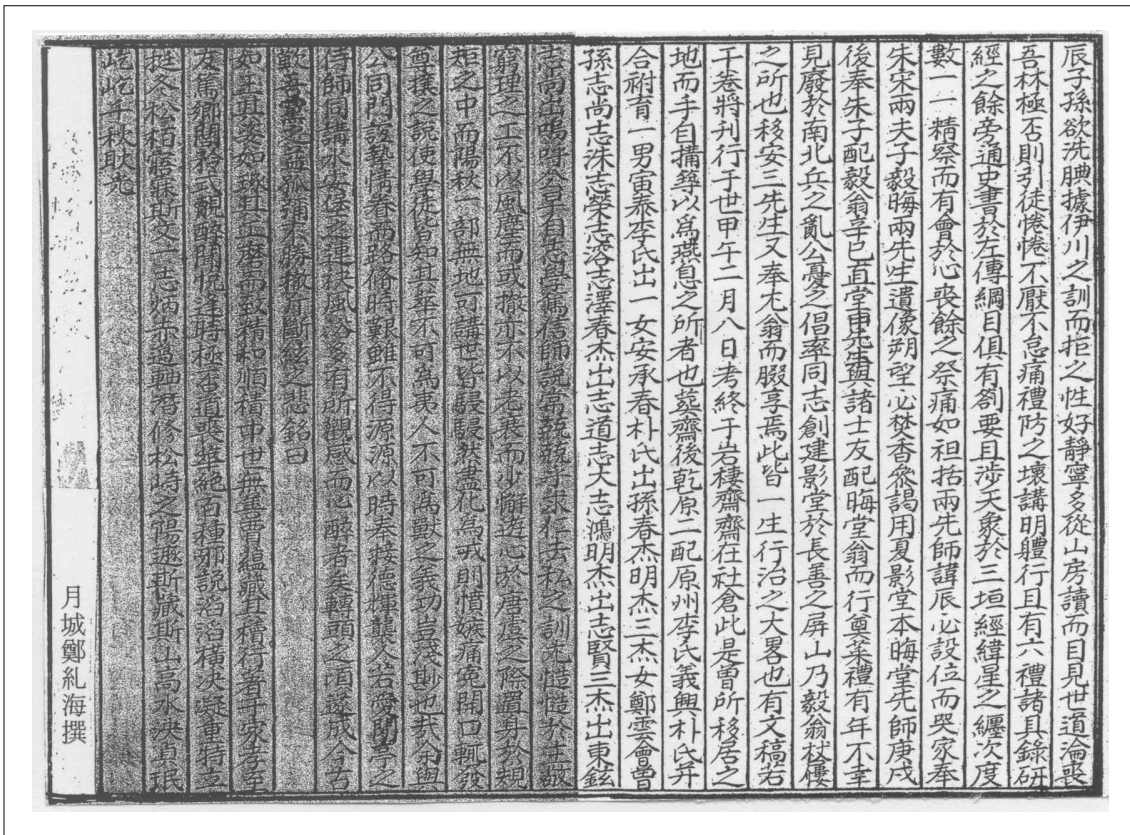
이로써 덕이 심중(心中)에 두텁게 쌓여 외면에 나타났으며, 일을 봄이 정확 자상하고 치밀하였으며, 부모를 섬김에 깊이 사랑하여 뜻과 물건으로 극진히 봉양하고, 만약 병환이 있을 때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정성을 다하여 치료하더니 드디어 상사를 당하여 예절을 극진히 갖추고 애통함이 매우 지나쳤다.

종족에 극히 화목하고 인척간에도 정의를 꼭진히 하며, 길흉사를 물론하고 빠짐없이 묻고 빈궁한 사람에 구휼을 빠짐없이 하며, 사람을 접하거나 사물을 대하는데 성의와 공경을 한결같이 하며, 매일 일찍 일어나 의관(衣冠)을 갖추고 사당(祠堂)에 배알한 후 서

재(書齋)에 물러와 제안(几案)을 정리하고 앉아 있음에 담연히 한점의 티끌이 없었다.

회갑을 맞이하여 자손들이 헌수(獻壽)를 하려고 하자, 이천선생(伊川先生 : 程頤)의 유훈(遺訓)을 들어 거절하였다.

천성이 고요함을 좋아하여 산방에서 글 읽기를 많이 하였다. 세도(世道)가 떨어지고 유림(儒林)이 비색함을 직접 눈으로 보고, 생도를 인도하여 정성껏 부지런히 훈도하고, 예절이 크게 무너짐을 통탄하며 강명(講明)하고, 체행(體行)한 나머지 육례제구록(六禮諸具錄)을 제작하였고, 경서(經書)를 연구한 나머지 사서(史書)를 통달하여 좌전(左傳)과 강



목(綱目)에 모두 차요(筭要)를 저술하였고, 또 천문(天文)을 섭렵하여 삼원경위(三垣經緯)와 성신도수(星辰度數)를 낱낱히 정밀히 살피어 심중에 터득하였다.

상사(喪事)를 마치고 기제사(忌祭祀)를 지낼 새 애통함을 초상 때 같이하고, 양선사(兩先師)의 휘신(諱辰)에 반드시 신위(神位)를 갖추어 곡을 하며, 집에 주자(朱子:晦菴 朱熹)와 송자(宋子:尤菴 宋時烈) 및 의당 회당 양선생의 유상(遺像)을 모시고, 초하루 보름으로 분향, 참알(參謁)하였다.

용하영당(用夏影堂)은 본래 회당선생께서 경술(庚戌: 1910) 후에 주자의 위패를 봉안

하고, 의옹을 배향한 곳인데, 신사(辛巳: 1941)에 직당 신선생(直堂 申先生:申鉉國)이 여러 사우(士友)들과 더불어 회당옹을 배향하고 석채례(釋菜禮)를 봉행하여 온지 몇 해 후에 남북병란(南北兵亂: 庚寅事變)에 불행히도 폐지되자, 공이 이를 안타깝게 여기고 동지들을 창술하여 장선(長善)의 병산(屏山)에 영당을 창건하였으니, 이곳은 의옹께서 평소 머무르신 곳이다. 삼선생(三先生)을 이 안하고, 또 우옹(尤翁)을 봉안하여 향사를 올렸으니, 이것이 다 일생 동안 행치(行治)의 대강이다.

문집이 몇 권 있는데 장차 세상에 간행할

것이다.

갑오(甲午 : 1954) 2월8일에 암서재(巖棲齋)에서 고종(考終) 하였다. 암서재는 사창리(社倉里)에 있는데 일찍이 이거한 곳으로 손수 건축하여 거처하는 장소로 삼은 곳이다. 재실 뒤 건좌(乾坐)에 안장하였다.

배위가 두 분으로 원주이씨(原州李氏)와 의흥박씨(義興朴氏)인데 모두 합부하였다.

1남 인태(寅泰)는 이씨의 소생이요, 1녀는 안승춘(安承春)의 처로 박씨의 소생이다. 손자는 춘걸(春杰)·명걸(明杰)·삼걸(三杰)이요, 손녀는 정운회(鄭雲會)·원용선(元容璇)이며, 증손에 지상(志尙)·지수(志洙)·지영(志榮)·지용(志溶)·지택(志澤)은 춘걸의 소생이요, 지연(志淵)·지묵(志默)·지홍(志鴻)은 명걸의 소생이요, 지현(志賢)·지우(志雨)는 삼걸의 소생이다. 동현(東鉉)·남현(南鉉)·성현(成鉉)은 지상의 소생이다.

아아! 공이 일찍이 학문에 뜻을 두어 스승의 말을 돈독히 믿고, 항상 인(仁)을 구하고 사(私)를 버리는 교훈을 조심하였으며 더욱이 경(經)을 주장하고 이(理)를 궁구하는 공부에 독실하여 풍진(風塵)에도 중단하지 않고, 노쇠(老衰)해도 게으르지 아니하며, 마음은 당우(唐虞 : 堯舜) 때와 같고, 몸은 규구(規矩:法度) 가운데 두었으나 춘추(春秋) 일부를 강론할 곳이 없고, 세상이 점점 오랑캐가 되어감으로 분통을 금치 못하여 입을 열면 문득 존화양이(尊華攘夷), 곧 중화를 존중하고 이적을 배척하는 것을 설명하여 학도들로 하여금 중화(中華)가 이적(夷狄)이 될 수 없고, 사람이 짐승이 될 수 없다는 의리를 알게 하였으니, 그 공이 어찌 적다할 수 있겠는가?

내가 공으로 더불어 동문(同門)으로서, 정 의가 두터웠으나 길이 멀고 세상이 어지러워 때때로 자주 만나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그 아름다운 덕이 사람에게 풍기는 일은 애한정(愛閑亭)에서 선생을 모시고 같이 강(講)하고 수안보(水安堡)에서 옷깃을 연하고 풍욕(風浴)하였는데 이 때 관감(觀感)함이 많았고 마음에 도취한 바 있었다. 작별한 지 얼마 안되어 드디어 고인이 되었으니 우리 무리의 더욱 외로움을 탄식하며 더욱 이 친구를 잃은 슬픔을 금치 못하노라. 명사(銘辭)에 이르노니,

옥같은 그 자질에 같고 닦은 그 공부, 같고 닦아 더욱 정밀하고 화순함이 심중에 쌓였네.

세상에 제 값이 없으니 독 속에 쌓아 두었고, 행실이 가정에 나타난 바, 효성이 지극하고 우애가 독실하였네.

향리에서 본받아 볼수록 취하고 들을수록 기뻐했도다.

만난 시기가 극히 비색하여 도가 상하고 중화가 끊어져,

백가지 사실이 도도히 비껴 흐르도다.

무겁고 우뚝 솟은 기상은 겨울에 빼어난 송백이로다!

자나 깨나 사문(斯文) 걱정 한 뜻이 붉었도다!

거처하고 장수(藏修)함이 송치(松峙)의 양지로다.

이에 숨어살고, 이에 혼을 묻었으니, 산이 높고 물이 맑도다.

비석이 높고 높아 천추에 빛나리라.

월성 정규해(月城 鄭紉海) 지음

【文籍刊行】

龔叟遺稿

龔叟遺稿序

대저 산수를 아름답다 일컫는 것은 필시 그 곳에 머물렀던 사람으로 인하여 귀중한 것이지, 어찌 산이 높고 물이 깊은 것으로서 귀중하다 하겠는가.

천안 목천(天安 木川)은 산수가 아름다운 지방이다. 목천에서 남쪽으로 십여리 떨어진 곳에 운주산과 마령재가 높이 하늘을 받친 듯이 솟아 있으며, 은석산과 흑성산, 갓모봉, 취암산이 앞에 벌려 서있고, 성계천이 가로 흐르며 초정 샘물이 주야로 졸졸 흘러 끊이지 않으니 이곳이야말로 은인(隱人)과 달사(達士)가 조용하게 거처할 만한 곳이다.

이렇듯 구옥(丘玉), 수옥(漱玉) 형제 분이 동서로 각기 한 구역을 차지하고 살되, 마음대로 유쾌히 놀면서 시도 읊고 인지(仁智)의 즐거움을 붙여 살았는데, 그 중에 목천은 농수(龔叟)라는 호를 가진 류공정서(柳公廷瑞), 이 분이 학문을 강론하고 자취를 숨기어 수양하던 곳이다.

공은 문화세가(文化世家)로 조선 태종조(太宗朝) 공신인 충경공 문성부원군(忠景公文城府院君) 량(亮)의 후손이다. 효우의 덕과 신의의 두터움은 가히 천성으로 타고났고, 자품이 도에 가까워 일찍이 학업을 성취

하였다.

한편 향약(鄉約)을 설립하여 바른 풍속을 일깨워 주시고 의창(義倉)을 마련하여 어려운 이들을 구원하고 강당을 지어 후학들을 힘써 가르치니 역천 송선생(櫟泉 宋先生 : 宋明欽)께서 그 편역을 청류정사(清流精舍)라고 써 주셨다.

천성적으로 산수를 좋아하여 동쪽으로 금강산과 서쪽으로 백마강 일대를 두루 구경하면서 그 물의 근원을 찾아보고 그 심오한 곳을 다니면서 이르는 곳마다 아름다운 경치를 감탄하며 그 답답한 심정을 풀기도 하고 기분이 날을 듯

이 좋으면 노래하고 시를 읊었으며, 맑고 맑은 곳에 다다르면 속된 세상을 벗어난 것 같았으니 공은 그야말로 산수의 취미를 얻어 산수의 즐거움을 모두 누리신 분이라 이를진저!

만년에 8.9 동지와 같이 기로계(耆老契)를 함께 닦아 조석으로 서로 만나 우의를 돈독히 하며 세상사에 관여하지 않고 유유 자적 하는 한편 벼슬길을 구하는 일 없이 항상 시주(詩酒)로써 스스로 즐겼으니 또한 태평성대에 과묵히 지내는 백성이라 가히 이를진저!

나의 천박하고 고루한 학식으로 어찌 공의

蘇東坡遺稿序

夫山水之稱必由乎人而為重焉豈以華然高峻泓然深長之貴也哉宣城之大麓山水勝麗之鄉也沿之南十餘里有雲住馬峯撐天而為柱銀石巖冠峯巒巖諸山羅立而為業聖溪橫流而衿帶日泉混混不舍晝夜宜幽人達志靈靜燕息之處也有若丘玉漱玉昆季兩人分居而東各占一區跌宕遊詠以寓仁智之樂而其爭顏之而聲望者柳公廷瑞講學藏修之所也公文化世家朝辭太宗朝勳臣忠景公文城府院君亮之后以孝友之德信義之孚天資近道早就學業設解約而擢正俗之義舍而周窮恤上策講舍勉進後學標泉宋先生題其額曰清流精舍性又愛好山水東遊金剛西遊白馬溯其源而探其流隨處賞詠感發其幽鬱之懷婆娑嘯味遊心於虛明澄澈之中超然乎出塵之外公可謂得山水之趣而享山水之樂者歟晚年相與八九同志共修耆老稷斯夕相從不闕世渡悠悠自適不求聞達嘗以詩酒自娛亦可謂聖世逸民也

以余之淺陋義學無足以知公而今讀其書誦其詩亦可以知之七分矣世之自托於詩文沾沾自以為能而背懷齷齪名行虧損者著作雖多何所取焉公其賢矣哉有遺稿一冊藏于家後孫普鉉氏不忍其精華之或泯沒將付剗削公諸世以余翻譯原文又責其弁卷之末筆後而卒其弟思鉉明鉉浩星因承其後以無拙不辭者特有感於述先之誠考又悲公之有其具而不遇時也

西河后人 任龍淳序

깊은 뜻을 알리요 만은 지금 그 분의 글을 읽고 그 분의 시를 외우니 공의 심사를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을 듯하다.

세상에 시문을 많이 지어 과시하고 자만하되 마음속에 악착한 생각을 두어서 명성을 손상 시킨 자라면 그가 지은 글이 아무리 많다 해도 취할 것이 무엇이랴! 이로 볼진대 공은 참으로 어지신 분이시다.

유고(遺稿) 한 권이 있어 집에 간직되었던바, 후손 보현(普鉉)씨가 공의 정력이 담긴이 글이 행여나 없어질까 염려되어 장차 인쇄하여 세상에 알리고자 나에게 원문 번역을

부탁하고 또 서문을 지어 달라고 하였다. 그런데 이 일을 마치지 못하고 돌아가시니 그의 아우 사현(思鉉), 명현(明鉉)과 그 차남 호성(浩星)이 그 사업을 이어 마치고자 거듭 부탁하였다.

내가 변변치 못한 글이지만 사양하지 못한 것은, 이는 특히 선업을 계승하는 성효에 감동하고, 또 공이 이와 같은 학문을 갖추고서도 때를 만나 빛을 보지 못하게 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 때문이다.

2008년 10월

西河后人 任龍淳序

龔叟先生集卷之二

東遊錄

余嘗聞華人有言曰願生朝鮮國一見金剛山蓋
 知華山之勝不獨擅海東而為天下最也生於中
 國者猶願一見則況生於東者乎幸余生於東而
 地之相去幾千里世故多端抽身未易引領東望
 徒費夢想者久矣適南公宅夏守淮陽淮陽金剛
 內山也成公願護守襄陽襄陽金剛外山也二公
 與余皆有連姻之誼且外從李滌即成公女婿也
 丁亥秋余欲觀國之光入于京李從迎而謂余曰
 今幸金剛內外俱有主人聘君且以主司未出春
 川春川距京才三日程昭陽清平亦一勝地也今
 若直到春川優得行資歷覽諸勝轉向金剛則皆
 者東遊之約今可諧矣余聞其語心甚喜擺却細
 故遂決東遊之計戰藝後翌日啓程

龔叟先生 關東遊覽序

내 일찍이 듣건대 중국 사람들이 말하기를
 조선 나라에 태어나 금강산을 한번 보는 것
 이 소원이라 하였으니 이 산의 경치가 우리

나라뿐만 아니라 천하에 으뜸이 됨을 알 수
 있다. 중국에 사는 사람들도 보기를 그토록
 원하였거늘 하물며 이 나라에 사는 사람이야
 오죽하랴. 내가 조선 땅에 태어나서 나의 사
 는 곳과 금강산의 거리가 천리쯤 되지만 세

상 살아가는 일이 복잡하고 몸을 빠져나올 틈이 없어 머리를 들고 동쪽만 바라보며 공연히 꿈속에서 헤맨 지 오래되었다.

이때 마침 남공택하(南公宅夏)씨가 회양(淮陽)군수로 가 있는데 회양은 내금강산이며, 또 성공석기(成公碩夔)씨가 양양(襄陽)군수로 가 있는데 양양은 외금강이다. 남공과 성공은 나와는 다 같이 인척간이요, 또 나의 외종 이계(李繫)는 곧 양양군수의 사위이다.

정해(丁亥:1707)년 가을에 내가 국내를 관광하려고 서울을 갔는데 외종 이계가 맞이하면서 나에게 하는 말이 “지금 다행이도 내금강, 외금강에 모두 주인이 있고, 그리고 장인께서 향시(鄉試)의 시관으로 춘천에 나와 계시다 합니다. 춘천은 서울에서 사흘 정도 걸리는 거리로서 가는 도중에 소양강, 청평강이 있는데 이곳 또한 한번 볼만한 명승지입니다. 지금 만일 춘천으로 곧바로 가신다면 노자도 후하게 얻을 것이요, 여러 명승지도 관람해가며 금강산으로 향해갈진대 예전에 함께 관동유람을 약속한 바를 금번에 모두 만족히 이루게 된 셈입니다.” 하였다.

내가 그의 말을 듣고 마음속으로 심히 기뻐 소소한 일을 다 제치고 바로 관동을 유람하기로 결심하고 국가에서 치르는 과거 날 그 다음날에 길을 나섰다.

정해년 구월 초하룻날 외종 이계와 같이 말을 타고 길을 떠나 광나루에 도착하여 아우 태서(泰瑞)를 남쪽으로 보내면서 시 한수를 지어 기록하다.

聯翩同渡廣津頭 去路迢迢不暫留

湖樹嶺雲從此隔 陌南離思更悠悠

동행하여 다 같이 광나루를 건넜으나,
가는 길 멀고멀어 잠시도 머무를 시간 없네.
호서와 영동이 지금부터 막혔거니,
남도에서 떠난 생각 아득하구려.

오후에 장례촌(長禮村-서울에서 50리)에서 말 먹이고, 저녁 때 보은진(報恩津)을 건너와 사공(士肯)의 운으로 시를 짓다.

驅馬寒山路 愔愔問去津
晚來風色好 厚意謝江神

싸늘한 산 길을 말 타고 지나면서,
자주 자주 나루 길을 물어 보았네.
늦가을 풍경이 너무나 좋거니,
후한 성의를 강신에 사례하노라.

※ 지면관계로 이하는 생략함.

龔叟先生 略事

자 몽경(夢卿), 호 룡수(龔叟).

울봉도찰방 형장(栗峰道察訪 亨長)의 7대 손이요, 현풍현감 인수(玄風縣監 仁壽)의 손이요, 통덕랑 집(通德郎 輯)의 장자로 현종(顯宗) 5년(甲辰 : 1664)에 목천(木川)에서 태어났다.

친품이 어질어 학업에 부지런하고 행의(行誼)가 독실하였으며 문달(聞達)을 꾀하지 않고 의창(義倉)을 설치하여 가난한 종족을 구제하고 향약(鄉約)을 실시하여 고을의 예속(禮俗)을 순화하는데 진력하였다. 한편 강당(講堂)을 세워 자제들은 물론 향리의 젊은이

들을 가르치니 역천 송명흠(櫟泉 宋明欽) 선생이 그 액호(額號)를 청류강사(清流講舍)라 지어 주었다.

또한 본래 산수를 사랑하여 동쪽으로 금강산(金剛山)·서쪽으로 백마강(白馬江)을 구경하고 그 근원과 깊숙한 유서를 더듬어 이르는 곳마다 정경을 읊고 우울한 마음을 풀어 유고(遺稿) 및 창수록(唱酬錄)이 전하고 있다.

만년에는 절곡 김시관(節谷 金時觀) 형제와 당진현감(唐津縣監)을 지낸 황 만(黃 鑄)으로 더불어 기로계(耆老契)를 같이 닦아 스스로 노년을 즐기고 『龔叟』라 자호하였다.

영조(英祖) 13년(丁巳 : 1737) 4월24일에 졸하니 향년 74세였다.

배위 창녕성씨(昌寧成氏)는 현(玃)의 따님이요, 초계변씨(草溪卞氏)는 동도(東道)의 따님인데 묘소는 정랑봉 좌록 임좌(正郎峰 左麓 壬坐)에 3위 합부(合祔)로 모셔있고 부제학(副提學) 안동 김경규(安東 金敬圭)가 묘갈명을 지었다.

2남 3녀를 두어 아들 혼(混)은 영조(英祖) 9년(癸丑 : 1733)에 진사(進士)에 급제하고 시서(詩書)에 능하여 유고(遺稿)가 있고, 온(溫)은 숙부 응서(應瑞)의 후로 출계하였으며, 따님은 청송 심정옥(靑松 沈廷玉)·이천 서양우(利川 徐陽遇)·전주 이영중(全州 李英中)에게 출가하였다.

후손은 천원군 성남면 석곡리(天原郡 城南面 石谷里) 대정리(大井里)에 세거하고 있다.

丘玉酬唱錄

丘玉錄序

산수(山水)를 좋아하고 천석(泉石)을 좋아하는 사람이 간혹 있지만 어느 누가 우리 형제처럼 흑심하게 좋아하는 자가 있겠는가? 지금 호서 호동으로 각각 경치 좋은 구역을 차지하고 질탕하게 물놀이 하는 것 같이 가는 곳마다 만족해하는 바, 이를 일러 바로 강산이 내 집으로서 만년(晩年)의 청정한 기분이 이보다 더함이 있으랴.

백씨께서 만년에 이와 같은 구릉(丘陵)을 만나게 된 것은 젊은 시절부터 성심껏 구한 소치이다. 한 가닥 샘물을 깊은 산 빈 산골

속에서 겨우 얻었는데, 비탈을 다듬어 괴상한 돌을 들어내고 뚝을 쌓아 연못을 만들며, 단풍, 대나무, 국화, 소나무와 매화, 버들, 복숭아, 오얏 등 각종 풀 나무를 좌우로 벌려 심어 놓고, 이 곳의 이름을 소구(小丘)라 부르게 되었다. 소구 위에 조그마한 정자를 짓고 사모(四謀)로 써 편액을 붙였으니, 이는 옛날 유자후(柳子厚)의 고무 기(鉤鋤記) 속의 말을 취한 것이다. 물의 청냉함과 영영함은 유연하고 허전하며 연연하고도 고요한 것이 모두 우리 백씨의 이목과 신심에 부합하거늘 하물며 이 같은 명구(名區)를 선 영 곁에 얻어 친척들과 정

五玉錄序

嗜山水貪泉石人或有之而誰如我兄弟酷好之甚者今於湖西東各占一佳區跌宕游泳果極所適則是謂江山一際而暮境清分或可自多耶伯氏之晚遇茲丘者寔是自少誠亦之致也跡得一奈泉於窮山空谷之中峯崖而出奇石築堤而開芳沼楓篁菊松共梅柳桃李之卉羅絡其左右矣名茲境曰小丘：之丘起小亭扁之以四謀蓋取柳子厚銘中語而水之清冷者澄：者澄也而意者淵然而靜者皆已謀合於吾伯氏耳其目神其心也况茲名區得之於先隴之側而益之以親藏之情話伯氏記末所云真是的語余之寄跡懸雷尚爾若返者不有烟霞之痼疾能若是邪青密翠壁刊作屋後之屏障飛瀑清川峯為枕邊之瑟筑十數里丘壑之美盡為吾私有山水之興佳則佳矣而臨溪築舍不與漁政之懷則豈比乎吾伯氏不出鄉閭之外能專濠濮之樂者哉蓋吾兄弟二人自少年好遊湖西南可觀之雲盡是節辰之暇與閑東之遊亦盡先游而又晁晝吟分占佳境則豈天者歟今二人終始為青山綠水中人耶國朝金慕齋先生居子贖利之間相與菴糧之地而京母性來時續續第之樂此吾今日之所當起飲也吾二人已為老翁之物切名事業宜勉子徑之輩而白首在亭閑曠是尚則塞駟米性有時酬唱七豈非一勝事也哉崇禎歲己未漱玉居士序

다운 담화를 겸하게 되었으니, 백씨께서 기문 끝 구절에 이른 바는 참으로 적실한 말이다. 내가 멀리 이 곳에 자취를 부쳐 아직껏 돌아오기를 잊은 바, 연하(烟霞 : 風景)를 사랑하는 고질(痼疾)이 있지 않았다면 능히 이 같을 수 있겠는가? 푸른 산봉 우리와 푸른 암벽이 집 뒤에 병풍처럼 둘러있고, 쏟아지는 폭포 맑은 시냇물은 배개머리에서 비파치고 수십리를 뻗친 언덕과 구릉의 아름다움은 모두가 나의 사유(私有)로서 산수의 풍경이 참으로 아름답기 그지없다. 주렴계(周濂溪 : 周敦頤) 선생께서 집을 지으면서 고향을 연모하는 생각이 있었다지만 어찌 우리 큰 형님께서 고향 밖을 나가지 않고 신선의 락을 즐긴 것에 비할소냐.

우리 형제 두 사람은 젊어서부터 유람을 좋아했던 바, 호서 호남의 가히 볼만한 곳은 모두 돌아다녔던 흔적이 있다. 관동에 유람도 역시 전후로 구경하였고, 또한 만년에 가

경(佳境)을 나누어 자리 잡았으니 곧 이것이 어찌 하늘이 우리 두 사람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청산녹수 가운데 사람으로 정해준 것이 아니겠는가.

우리나라에 김모재(金慕齋 : 金安國) 형제분이 여주(驪州) 이천(利川) 사이에 분거하여 살적에 서로 거리가 백리 남짓했는데 배타고 오고 가며 형제간에 우애의 즐거움을 끊임없이 이어갔으니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지금에 와서도 존경하는 일이다. 우리 두 사람이 늙어 쓸모없는 사람이 되었다. 공명사업도 아들과 조카들이 마땅히 힘쓸 것이요. 이 늙은이 일없이 한가한 세월 보내자면 나귀타고 오고가며 때로는 술 마시고 노래 부를 수 있다는 것이 또한 한 가지 훌륭한 일이 아니겠는가?

송정(崇禎) 후 을미(乙未 : 1715)
수옥거사(漱玉居士 : 柳雲瑞) 지음

自慊窩集

朝鮮 高宗 때 儒學者로서 義倉을 설치하여 곤궁한 宗族들을 救恤하고 또한 儒學者로서 많은 저술을 남긴 自慊窩 柳大源의 遺稿 自慊窩集이 2008년 7월 그의 玄孫 益烈의 노력 하에 影印本으로 간행, 세상에 널리 배포되었다.

自慊窩集은 光武 甲辰(1904)에 공의 아들 耕芸 秉蔚와 사위 醒菴 李喆榮이 木版本으로 간행하였는데 이를 臺本으로 약간의 譯文과 雜記를 부록으로 부쳐 근년에 간행하였다.

공의 행적을 고찰하기 위하여 공의 功德碑文을 아래에 게재한다.

自慊窩 柳公 功德顯揚碑文

我東 累千年에 人倫道理를 밝혀 學德을 躬行하신 先賢들이 많지만 扶餘 柳門 출신 自慊窩公의 높으신 學德은 千秋에 빛나도록 龜鑑이 된다.

公의 本貫은 文化요, 諱는 大源, 字는 子遠이며, 自慊窩는 그 號이다.

公의 鼻祖는 高麗 초 壁上功臣 三重大匡 太師 諱 車達이시고 中始祖는 朝鮮 開國功臣 左議政 諱 曼殊이시다. 아래로 내려와 英祖 一八年에 夫婦 雙孝의 旌閭를 받으신 童蒙敎官 諱 承春의 七世孫이시며, 肅宗 一五年 仁顯王后 廢位 時 成均進士로 糾彈上疏를 올리신 濂齋公 諱 漢의 五世孫이시다. 高祖는 繼述堂 諱 相魯이시며, 曾祖는 晚齋公 諱 炆이시고, 祖考는 烏山公 諱 曾培이시다.

公은 純祖 34년 甲午(1834) 扶餘 唐里에서 先考 聖三公 諱 鎮台와 先妣 南陽洪氏 諱 顯遠의 따님 사이에 三男으로 태어나셨다.

어려서부터 天稟이 뛰어나 울고 웃는 것을 가며이 하지 않았다. 九歲에 父親을 여의니 哀戚함이 成人과 같았고, 二三歲에 母親을 여의셨는데 臨終 直前 裂指 進血하셨고, 居喪 三年을 廬墓하여 善喪으로 소문이 났다. 일찍이 鄉塾에서 科擧工夫에 전념하던 중 栗谷全書에 「異端은 문밖의 賊이요, 學業은 문안의 賊」이라는 句文을 보고 歎息하시되 「내 三〇年 동안 內寇에 빠진 바 되었다.」 하시며 功令文을 廢하고 古人의 學問에 전념하셨다. 一八六八年 長城의 蘆沙 奇正鎮 先生을 拜謁하여 學問의 大體를 들은 後 一八七〇년에는 公州의 全齋 任憲晦 先生에게 執贄하니 先生께서 보시고 「天姿가 좋으니 吾黨에 사람이 있도다.」 라고 칭찬하시었다.

한편 同門의 野愚 徐政淳, 篤守齋 尹致中, 良齋 田 愚, 謹菴 沈義允과 교류하며 學問을 講磨하였다.

高宗 一一年 萬東廟 復設을 上疏하고 또 一八년 變服令이 내리자 단호히 排斥하였다. 一八九四년 東學亂으로 人心이 극히 洶洶했으나 公께서는 더욱 毅然하시니 모두가 感服했다. 이듬해 明成皇后가 被禍되자 倭賊을 討伐하고 外國 文物을 가까이 말 것을 上疏로서 懇請하였다.

奉先에 至誠을 다하여 累代 先祖의 墓田을

薰陶之在茲要蘊蓄於方寸兮飲食易於渴飢豈往
昔之遙遙兮乃會心於終身固天地之和氣兮庶斯
工之日新亂曰沉潛經傳忘我憂兮仁春發生和氣
流兮藏修靜處息且遊兮舊習革去不自留兮世不
與我我不求兮來者可追將何求兮

感暮春賦

癸巳三月東郡志橫多聚徒薰陶
關四方人心騷動遂感而作此賦

一氣運而成時兮竊獨感此暮春天地上下同流兮
受中生兮吾人際風舞之良辰兮喜點服之既新夫
子喟兮吾與古之狂兮今解世漸下兮聖遠莫草萎
兮悲下泉知烹魚之誰能兮澆齧為之炊烟夫何邪
說之橫流兮心魂驚兮欲惘然鄰門遶兮路重重塞
荆榛兮空悲吟並東西之青白勢不日兮綠林聊接
儒兮入于墨彼奔走兮亦何心顧日月兮不我饒今
焉已兮鬢成雪景翳翳而將入兮撫孤松之晚節欲
揮戈兮力不至控大邦兮誰因相九州兮靡所聘欲
與言兮世無親歸去來兮吾將躡長風而騰空去敷
丹心於西方之美人

和歸去來辭

自弱冠從事功令屢始德懼謝絕科白摠示
於明剛兒兒曹讀歸去來賦有感擬而和之

歸去來兮正路榛蕪胡不歸吾其違禽獸不遠顧實
為而獨悲悟初心之莫保知後戒之可追惟二者之
空較此為是而彼非上仁里以攸廬坐春誠而極衣
道與人以主客際二心之危微係地明誠于以欣奔
夫子在座羣弟侍門古經雖殘威儀猶存氣味淡泊
杯飲汗樽謝功令以立志對方冊以怡顏回全朝以
先路認一心之乃安悅義理以篤泰世塵囂而何關
心無定以出入昨與今而試觀盟鷗鷺而昔渝友麋
鹿而方還願人寬以考槃陔在澗而盤桓歸去來兮
從吾好而絕遊富與貴而有命復何心兮安求床有
書而可師有意會而消憂既未絕粒而升天我藝黍
于西疇稅郊有車渡梁以舟理良絛而做載幾尋壑
而經邱布穀鳴以催春灌田水而聽流感春事之及
時征聿至而始休笑矣半我生之初昔何時化翁命
之此間畱已矣乎駕言我何之五字唐虞遠莫期時
杖藜以逍遙勸家人而耘耔徠吾黨以風咏伴諸生
而賦詩體至生以至歸聖不欺余復奚疑

和秋風辭

讀秋風辭感其有梅
蕭遂擬其辭而作

秋風起兮我心悲四十六歲兮竟何為頭漸白兮志

장만하였고 宗家가 가난함에 祖考와 考位를 二〇여년 간 權奉한 후 位土를 마련하여 宗家에서 奉祭토록 하였다. 매일 祠堂을 참배하고 新物은 반드시 薦新한 후 먹도록 하였다. 禮로서 집안을 다스려 夫婦가 相敬하고 男女間 分別을 嚴히 했으며 巫祝을 拒絕하여 온 집안이 嚴肅 和睦하였다.

一九〇二년에 范文正公의 故事를 본받아 鹽倉里와 合井里에 義倉을 설치하셨는데 이는 檢약 저축하여 이룬 것이다. 이로서 가난한 宗族의 饑饉을 救濟하고 冠婚喪祭를 도왔으며 鄉里의 궁핍한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었다. 매일 衣冠을 정제하고 敬直義方을 실천하셨는데 老衰에도 懈怠함이 없이 經書 百家를 通讀하시고 程子 朱子の 書籍을 외우듯 말씀하셨다. 또 心性을 논할 때는 程子 朱子の 書籍으로 經을 삼고 栗谷 尤菴의 持論으로 緯를 삼으셨다. 東史撮要 三卷, 禮解節要 三卷, 朱子性理說 一〇卷을 纂述하고 儒城文獻錄 三卷을 刊布하셨으며, 自慊窩集 二卷이 現傳한다.

또한 수많은 門徒들이 學業을 請하면 모두 받아들여 바르게 가르쳐 성취시키셨다. 士林들이 式年마다 官府에 공을 薦擧하였는데 道薦錄에는 「孝友와 學行은 온 고을의 欽慕하는 바요, 深衣讀書로 평생을 지내고 篤學力行으로 隱居自靖하셨다.」고 칭송하였다.

臨終時는 衣冠을 갖추고 祠堂參拜를 하신後 自挽詞를 짓고 돌아가시니 光武 癸卯(1903)年 10月5日로서 享年 七〇歲였다. 고을 선비들이 모두 歎息하며 「斯文喪矣」라고 哀悼했다.

配位 光山金氏는 諱 杓의 따님으로 無育早卒하셨고, 慶州金氏는 諱 鉦喜의 따님으로 一男三女를 두셨으며 墓所는 遺言에 따라 生居地 唐里村 中麓 壬坐에 三位合附로 모셨다.

男은 諱 秉蔚 號 耕芸이니 學德이 높았고, 婿는 慶州人 李喆榮 號 醒菴이니 抗日愛國志士로 儒學者이시다. 孫은 基燧 基燮인데 基燮은 抗日愛國鬪士로 公州刑務所에서 殉國했으며, 曾孫인 寅聖 寅憲은 早卒하였고, 玄孫 益烈 浣烈 兄弟가 公의 遺墟에 살면서 先志를 繼述하여 世人의 模範이 되고 있다.

公의 學問과 德行을 頌하노니,

篤志講學 力行仁善 敎訓의 말씀 修身養德 指針이요 거울이로다.

孝友節儉 實踐躬行 남기신 行蹟 明倫治家 根本되는 등불이로다.

周濟宗族 救恤鄉里 베푸신 恩德 만세의 龜鑑으로 길이 빛나리.

人倫道德이 稀薄해져가는 現實을 痛歎하면서 公께서 베푸신 두터운 功德과 높은 學問을 우러르니 저절로 肅然해진다. 德不孤 必有隣이요, 積善之家 必有餘慶이니 扶餘 柳門이 光榮昌盛하기를 祝願하고 믿으며 子孫들이 遺業을 받들어 行하는 孝心에 感服하여 감히 辭讓치 못하고 傳來文字와 世人의 口誦에 基礎하여 삼가 拙文으로 功德 追慕와 顯揚의 글을 撰한다.

1998년 2월 2일

丹陽後人 李潤玉 謹撰

四從玄孫 應烈 謹書

文化柳氏扶餘鹽倉里 義倉契 一同 謹暨

耕芸集



大宗會理事 柳 益 烈

耕芸集 跋文

耕芸先生은 나의 曾祖父이다.

不肖가 韋軒 愚齋 三從叔 형제분 生存時 찾아뵈을 때마다 너의 曾祖父 耕芸 할아버님 文集을 發刊할 財力이 있느냐 없느냐 물으시며 우리 生存時 發刊을 못하면 地下에 가서 耕芸 할아버님을 어떻게 뵈겠느냐 千秋에 恨으로 남는다고 恨歎하시던 모습이 늘 눈과 귀에 잊혀지지 않고 떠오른다.

耕芸 할아버님은 高宗 七年 庚午(一八七〇) 三월三일에 自慊窩公과 孺人 慶州金氏 사이에서 一男三女 중 獨身으로 扶餘 唐里에서 태어나 舊韓末 日帝強占期에 사시며 倭政 拒否 外勢 變風 排斥으로 一貫하시고 人倫道德을 實踐躬行하시다 己未(一九一九) 三一運動이 일어나던 해 七月三〇일 一生을 마치신 儒學者이다.

耕芸 할아버님이 돌아가신 지 九〇년이 지났으나 남기신 學行과 德望을 遺稿文集과 어른들로부터 口傳하여 내려온 내용들을 바탕으로 考察하여 대강 요약하겠다.

一. 先君인 自慊窩公으로부터 家學을 성

립하셨고, 특히 性理學에 造詣가 깊으시어 程子, 朱子, 栗谷, 農巖의 學說을 要諦로 삼아 性理學의 理論을 講磨 探究하신 儒學者이다.

二. 姊兄이신 醒菴 李喆榮 선생과 三〇여년을 같이 생활하시며 學問 講磨와 門下 弟子 教育에 專念하시어 여러 後進들을 養成하시고, 특히 醒菴 선생은 倭政拒否와 外勢變風排斥의 執念이 강하시어 抗日鬪爭하시다 수차 投獄되셨는데 意識과 意志는 같아도 醒菴과 동일하게 행하지 못함을 恨歎하시며 서로를 慰勞 勸勉하시면서 同苦同樂하셨다.

三. 乙巳(1905) 保護條約 체결과 庚戌(1910) 國恥를 당한 이후 나라가 倭賊에게 망한 亡國民으로서의 恨을 지니며 大韓帝國의 年號를 쓰지 않고 朝鮮遺民임을 自處하면서 安逸한 삶을 추구하지 않고 차라리 죽지 못함을 痛恨히 여기며 先君子 自慊窩公의 遺言에 따라 많은 家産을 義倉과 先代의 祭田 祭畝으로 받치고 가난한 宗族들에게 나누어 주고 부리던 奴婢에게도 財産을 分配하여 解放시키셨다.

四. 先君께서 編述을 못 마치신 文獻들을

續青障一末有無中

右障山落霞

忽地狂風起水邊

入江天無心鷓鴣等閑

去高舉穀聲霜翩翩

右古城驟雨

舟過黃岩落日斜

烟細出兩三家江邨寂寞漁歌

歇寒樹月生白滿沙

右黃巖夕煙

田家東作日驅牛

春日春耕暫不休錦繡橫縱疆理

地江山一幅盡中浮

右旺浦春耕

雨霽風清水面澄

一般意味孰知曾最憐自濟城邊

月嫩作今宵万户燈

右濟城秋月

一片名山出半空却看物色古今同何人所樹青楓

老迎送東西南北風

右亭宙喬木

名橋十里秋花多昨夜微霜初渡河白髮漁樵相對

語南溪風月近如何

右君橋秋花

勉養崔公自對馬島載輜還本國

宗國垂亡兆已顯朝陽始見鳳鳴時當今第一惟公

是方古綱常存一絲

淵齋床公赴國難為賊所毆迫還第致命

山林重塗人皆仰禮遇

國恩亦不輕還死答公誠

責簡斯文一死勝托生

金公鳳學殉節

名節不關生地卑誰知忠義軍門生惟公斷髮非公

罪曾以一身作衛兵

閔公咏燠自頌

惟公一死之於死一死當然誰有他難髮和戎當日

事後世公論果謂何

閔公宗植歸京第受皇賜銀

當日洪賊舉義大為君報仇即忠心一朝歸臥敗軍

將皇賜銀錢何意尋

趙公秉世飲藥

國家柱石在元老走卒街童皆所知使公早識君恩

重生固可羞死不悲

洪州春川諸義兵起賊懼收薙髮命

春洪南北義兵起塵土迷茫白日沉若使此時無此

舉人皆為敵又為禽

李公康年舉義賊後竟為其所殺

哲思舉義賊群賊列之耿光孰不欽厲聲嗚退倭僧

誘臨死猶能不易心

安重根殺伊藤博文

博文罪惡貫盈久非但害隣弑厥君蛤濱一砲聲如

雷萬國人民孰不聞

整理 發刊 配布하셨고 先代 祠堂과 旌閭를 새롭게 重修하는데도 致誠을 다하셨으며, 수많은 墓碑文과 祭文을 남기셨다.

文集 初刊에 즈음하여 그 동안 墓碑文을 지은 故 玄民 李鍾宣 선생님과 文集의 序文 重要內容 翻譯 校正 監修에 이르기까지 致誠을 다해주신 峨堂 李性雨 漢學者에게도 深深한 謝意를 드리며 文集發刊을 통해 溫故知新

의 새끼가 99년 兩府에 큰 槓의 精鍊 思想을 傳授하되 文을 刊한 집을 爲한 文集(480과 家傳)은 深한 行 爲이다. 깊은 宗親과 名儒의 후손을 賦詩한 親友, 義親의 書翰을 刊한 6편과 對 喪의 文 羅著 5편과 對 喪의 文 羅著 4편과 跋 文을 刊한 18장이며, 5권은 上 樑文 告由文 奉安文 祭文 墓文 등이고, 6 권은 行狀 禮事 四傳 四 등이다 7권은 附錄으로 公의 墓碣과 墓誌 追慕碑 輓詞 門人錄 跋文 등이 실려 있다.

愚齋集

愚齋柳先生 追慕碑

順天 金相洪

孔孟의 道가 衰微한 世上이지만 百川을 東流시켜 儒學을 回復하고자 한 大儒와 世俗의 榮利를 超越하고 安貧樂道하며 傳道 授業 解惑의 師道를 實踐한 스승이 어찌 없으리요 이곳 百濟의 古都 扶餘 陵山리는
名 儒 인 愚

齋先生이 儒道를 具顯하고 師道를 實現한 곳이다 天資 穎悟한 先生은 五歲에 入學한 후 伯氏 韋軒公과 庭訓을 奉行하며 耕芸 醒菴 兩師의 門下에서 修學하였다 倭奴의 侵奪로 五百年 社稷이 一朝에 망하자 先生은 痛恨의 國亡嘆을 읊은 후에 世事를 絶緣하고 隱遁하여 儒冠으로 始終하였다 經史子集과 詩書禮樂에 通曉함이 長江大河와 같았던 先生은 克己復禮와 安貧樂道로 一以貫之하면서 儒道の 復興과 師道の 具顯에 獻身하였다 先生의 高邁한 人品과 淵博한 學問과 至高한 道德이 自然히 世上에 드러나 全國 各處에서 門生들이 모여드니 三間茅屋의 牆東書齋를 손수 짓고 師道를 實踐하였다 一簞食 一瓢飲의 淸貧한 生活를 自足하며 亂世에 선비의 道를 지켰으니 아 先生의 行蹟은 時空을 超越하여 龜鑑이 된다 儒道를 實現하고 性情을 眞率하게 形象化한 遺稿 愚齋燕石 七卷에는 莊陵 忠臣 默齋 節齋 兩先生과 子姪의 千秋大節을

◎ 和朴友永俊五香齋韻

老境別無遊息方惟將閑物以爲香初平叱石奇奇妙爾雅評
花歷歷芳筆苑名家巧各異瀛奎律髓響皆長廉經三百六餘
畫吾道傳神誰氏莊

◎ 松西亭韻 朴友韻

松西亭子亦名區縹渺汾江岸上頭聖主山明螺黛列半灘水
麗玉虹流錦紋斜日蒼蒼壁欵乃微風往往舟公定勝形森眼
界春秋佳節任清遊

◎ 時人有詠懷階伯將軍韻次吟 二首

鐵石其腸又腦頭將軍忠勇耀千秋家邦運命同乘盡宇宙男
兒最上流霜劍烈風終莫賴黃山落日亦增愁滄桑屢變成陳
跡生氣于今凜凜留

愚齋集卷之一

將軍忠勇孰爭頭宇宙男兒濟末秋先吹烈風淨厥屬欲扶落
日已西流矢乏劍摧凜凜死山憤川怒慘慘愁二佐平公志則
一馬江不盡壯聲留

◎ 百濟橋 四首

長虹亘壓大江流百濟橋成更別區去去來來行者織完完坦
坦迅車浮遙思華表無多讓現設漢濱墟與倚利用厚生當若
是子產溱洧未開由

百濟先天今後天後天開發勝先天大江滾滾長虹壓兩岸迢
迢一幅連如矢如砥周道直無危無險迅車連電燈不夜尤奇
好滿照欄干水上邊

大橋架設馬江流人作能追天作優迅速交通如彼利安全經
濟賴茲由新面三韓千載計古都百濟一層休滄海桑田今復

見無窮他日益名區

交通完補濟無窮架設四年竣厥功周道坦平直一矢窺岩輝
煌臥長虹水照青龍斜日影柱回白鶴古仙風遠方若問此橋
樣樣乃形言如是工

◎ 文忠祠落成韻 四首

先生樹立卓吾東砥柱奔流氣象同學問淵源世賢後忠誠殉
國變遷中朝家禮遇延經席士子依歸鼓篋風如今祠享不能
已潢潦拔膠意思通

倭虜乙巳脅吾東僞約初成奪國同望重山林居野外叫爭閭
閣赴朝中及其被逐還家日終也陳疏殉義風俎豆享祠次第
事斯文一脈活源通

不負傳來吾道東山林殉國罕與同大義嚴明抗寇上千秋炳

愚齋集卷之一

朗有辭中文忠諡號真稱實俎豆祠名仰慕風潢水寸膠休謂
迂士誠天意自然通

賊臣乙巳賣吾東殉國先生殉道同聲聞亦應夷狄外榮光倍
振士林中不虛當世卑比席遠播平時講樹風文忠祠享秉彝
自倘或河清消息通

◎ 醒菴先生挽 二首

鍾英海嶽我先生宇宙中間可永名規矩云爲行已熟沈潛理
氣見尤精蹈東玉貌心同軌報宋文山節共衡豈意樸摧如此
遽彷徨後學也迷程

從容蹈入聖賢門餘事文章發所存萬緒議論聽塵壘一生物
宇瞻軒軒樞衣猥托服勤義沒齒難忘教撫恩壽報於仁今莫
驗彼蒼蒼亦老孰尤言

撰한 繼世忠義碑文을 비롯하여 武侯自比管樂論과 傷世詩 등 詩文이 收載되어 있어 思想과 學問의 世界를 窺知할 수 있다 先生의 諱는 寅澤이요 字는 潤輔이며 號는 愚齋니 文化柳氏로 高麗 大丞 諱 車達의 苗裔이다 文簡公 文正公 貞愼公 章敬公과 朝鮮 開國功臣 左議政 諱 曼殊와 左洗馬 贈 領議政 思恭은 先代祖이다 高祖의 諱는 鎭台요 曾祖의 諱는 河源이며 祖의 諱는 秉奎이다 考 基惠公과 妣 務安朴氏의 二男으로 高宗 二十七年 庚寅 五月 三十日에 出生하여 癸丑 六月十九日에 辭世하니 享年 八十四이다 墓는 이곳 陵山里 烏石山下 先塋 左麓 乙坐이다 配는 全州 李氏 仁植의 女로 己丑 正月 二日에 生하여 己酉 五月三十日에 卒하고 繼配는 順天金氏 洪鎭의 女로 甲午 十月二十三日에 生하여 己未 十二月十一日에 卒하다 金氏가 二男三女를 두니 長男은 應烈 次男은 珍烈이고 壻는 宋國彬 金永麟 尹星根이며 孫은 在淵 在靑 在成 在贊이다 아 先生은 不運한 時代를

맞이하여 經綸을 펴지 못하고 布衣로 一生을 마쳤으나 學行은 斯世의 한줄기 빛이었다 이에 先生의 學德과 恩惠를 追慕하여 全門下生이 뜻을 모아 碑를 세운다 末席 門人인 不肖가 어찌 先生의 全豹中에 一斑이나 마 바르게 序 하였으리오만은 삼가 敬虔히 銘한다

孔孟之學 實踐躬行 世人들의 師表되니,
萬人들이 推仰하고 欽慕하며 따랐도다.
克己復禮 安貧樂道 平生토록 一貫하니,
東土에서 보기 드문 어진이가 分明토다.
倭奴政策 毅然拒否 儒冠으로 始終하니,
一嚮으로 全鼎之味 的確하게 알 수 있다.
높은 學問 長江大河 人品道德 으뜸 되니,
牆東書齋 八道에서 門生들이 모였도다.
傳道 授業 解惑으로 스승의 道 實踐하니,
아 斯世의 스승으로 永遠토록 빛나도다.
지나가는 士女들도 敬慕하여 돌보나니,
해와 달도 이 碑石을 無窮토록 지키리다.



維石遺稿



靖簡公宗中 總務 柳晏重

近世에 우리 文化柳氏의 巨擘 維石 柳謙重 先生의 著述인 「維石遺稿」가 작년 2008년 正月 刊行되었다.

이에 그 遺稿刊行의 諸般 經緯를 仔詳히 紹介하고자 編輯 및 翻譯 刊行의 實務를 맡았던 春溪 柳晏重 所撰 遺稿跋과 그 譯文을 아래에 轉載한다.

維石遺稿跋

오호라! 이 遺稿는 維石 柳先生께서 평생 동안 著述하신 詩와 文 約간을 합하여 1책을 만들고 國譯하여 간행한 것이다.

대저 詩라는 것은 사람의 性과 情에 근본이 되어 그 만남과 느끼고 發한 바에 따라 感情이 약간 다르게 표현되는 바, 이는 衰世의 文詞와 亂世의 風操가 있기 때문이다. 그 詩와 文을 본다면 또한 時政의 得失과 風俗을 숭상한 善惡의 如何함을 알 수 있다.

維石先生께서는 倭政의 叔世에 태어나 庚寅(1950) 動亂을 겪기 前後로 昌平 維谷의 詩禮古家에서 어려서부터 王考이신 石松(柳昌秀) 府君에게 受業하였고 자라서는 王考의

命으로 安憤庵先生을 師事하면서 大意를 얻어 마침내 湖南의 큰 선비가 되셨도다.

先生께서는 中宗朝의 名臣으로 剛泉山 三印臺 三先生 중 한 분이신 石軒 靖簡公의 後裔요 蘆沙 奇先生의 門下生이신 石松公의 손자로서 風儀가 준수하고 氣宇가 현양하여 學問과 德行을 구비하셨기에 평생 동안 더불어 從遊한 이는 당시의 碩學과 達士들이셨으니 즉, 奇莊軒老章 朴石泉永鳳 金顧堂奎泰 洪城南錫憲 宋述菴在晟 權秋淵龍鉉 呂雲沙昌鉉 鄭東樵喆煥 羅誠齋鉀柱 尹重軒丁鏞 魏晚翠啓道 諸賢으로 더불어 주고받은 詩와 왕래한 書翰이 쌓여서 한권의 책을 이루었으니 彫琢을 일삼는 것이 아니요,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風味가 있었으므로 先生의 文詞는 一字一句도 後世에 전할 만한 것이 많도다.

先生께서는 일찍이 昌平鄉校儒道會長을 지내셨으며 高山書院과 齋洞書院 등 院長을 兼任하면서 儒風을 振作하셨고 後進을 訓育시켜 그 공이 斯文에 적지 아니하셨으므로 당시 士友들이 推重치 아니함이 없었다.

竊念건대 先生께서 당시에 손수 쓰신 한권의 책 소위 自笑稿라 한 것을 그 후에 維石遺

誨諭하신 말씀은 지금도 귓전에 맴돌고 있
도다.

일찍이 책을 안고 배움을 청하러 찾아온 學
童들이 觀海堂의 室內에 滿堂하였으나 敎學
不倦 하셨으므로 지금도 이에 爲學의 지름길
이 남아 있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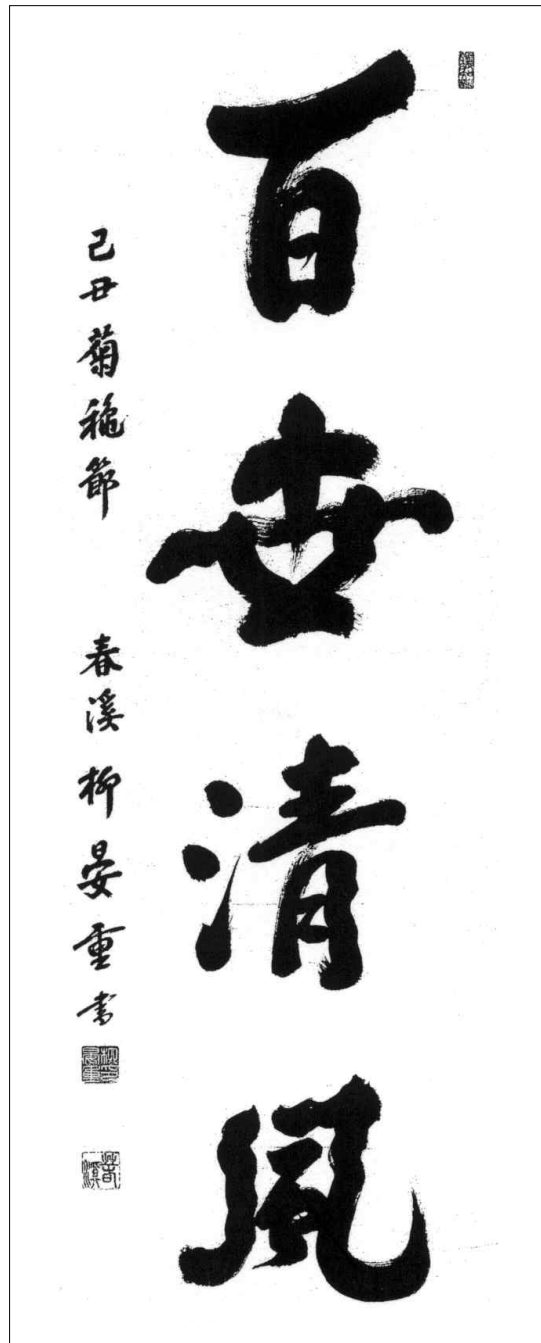
어느 날 先生의 큰 아드님인 鎭河씨가 그
先府君의 詩文 약간을 나에게 보이면서 編輯
과 國譯 刊行을 委囑하기에 착수하기 1년여
에 翻譯을 마쳤다.

小生은 어려서부터 先生을 尊慕함이 다른
사람에게 뒤지지 아니하였으나 재주는 짧고
이는 것이 없어 解釋함에 誤謬가 없지 않으
리니 그욕이 두려움이 앞서도다.

國譯은 儒學研究院에 委任되었는데 나
또한 一員으로서 三軒 金善駟顧問 및 瑞山
孔鍊雄院長이 勞苦를 아끼지 아니하셨고,
오직 潭陽郡 官費 支援金은 실로 昌平鄉校
曹仁鎭典校와 朴文洙事務長의 周旋으로 이
루어졌으며, 三從弟 昌重은 나와 함께 受業
한 同窓으로서 國譯에 一助하였으니 이상
賢勞하신 분들에게 감사한 마음 한량없으
며, 그 은혜 잊지 못하겠다. 또한 우리 宗中
에서의 지원도 감사한 마음 그지없다.

대개 先生의 遺稿는 모두 珠玉과 같으니
오늘날 刊行하여 세상에 頒布함에 당하여 한
갓 우리 一門의 영광뿐이 아니요, 실로 吾黨
의 慶事가 되리로다.

丁亥(2007) 清和節



【立 碑】

大護軍柳公 浣 墓表



호서(湖西：忠淸道)의 청산(靑山)은 나의
 족선조(族先祖)이신 헌릉(獻陵：太宗)때 명
 신 충경공(忠景公)의 증손(曾孫) 안기도찰방
 류공(安奇道察訪 柳公)의 후손이 대대로 살
 던 고을이다.

을유(乙酉：2005) 초봄에 그 고을에 사는
 죽인 모 모씨가 나를 대전(大田) 종친회관으
 로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기를 “청산 고을의
 잠애(潛崖)는 지금 일련기를 옥천군 청산면
 신매리(沃川郡 靑山面 新梅里) 뒷산으로 또
 한 우리 문중(門中)의 대대로 선영(先塋)이

모셔진 곳인데 근래 산지개발로 인하여 호군
 공(護軍公) 으로부터 그 아드님, 손자 삼세
 (三世：三代)의 분묘를 장차 구묘(舊墓)에서
 위로 백여보(百餘步) 거리 쯤 곤좌(坤坐)의
 언덕에 옮겨 모시려고 하는바, 일이 마땅히
 묘표(墓表)가 있어야 하겠기로 이에 그 글을
 그대에게 부탁드립니다.” 하였다.

외람되이 내 어찌 감당하겠는가만 친의
 (親誼)가 동족(同族)에 중함으로 끝내 굳이
 사양하지 못하고 이에 족보(族譜)를 살펴
 서술한다.

공의 휘는 완(浣)이니, 류씨(柳氏)의 관향은 문화(文化)로 고려(高麗) 초의 대승공(大丞公) 휘 차달(車達)을 시조(始祖)로 하여 그 후 관면(官冕 : 官爵)이 대대로 연이어 이에 다 들칠 수 없고 그 가장 드러난 분만 대략 기록하건대 문간공(文簡公) 휘 공권(公權), 복야공(僕射公) 휘 택(澤), 문정공(文正公) 휘 경(暲), 정신공(貞愼公) 휘 승(陞), 온정공(溫靖公) 휘 인기(仁琦)이시며, 조선조(朝鮮朝)에 이르러서도 또한 떨어지지 않았으니 휘 량(亮)은 태종(太宗) 때 좌명공신(佐命功臣)으로 문성부원군(文城府院君)에 봉하고 관직이 우상(右相:右議政)에 이르러 충경(忠景)으로 시호가 내린 분으로 곧 공의 고조(高祖)이시다. 종부시소윤(宗簿寺少尹) 휘 한생(漢生), 금산금수(錦山郡守) 휘 약(約)과 앞서 이른 찰방(察訪) 휘 능간(陵幹)은 그 증조(曾祖), 조(祖), 고(考 : 父)三世이며, 부사용태안 박승중(副司勇 泰安 朴承宗)과 직장 개성 김 식(直長 開城 金湜)의 따님은 그 두비(妣:母)이시다.

공은 정릉(靖陵:中宗)과 목릉(穆陵:宣祖) 때 사이의 인물인데 선음(先蔭)으로 대호군(大護軍)에 이르렀고, 배위 숙인 금산한씨(配位 淑人 錦山韓氏)는 진사 연(進士 漣)의 따님이시다.

二남을 두어 장남은 세우(世祐)니 군자감 직장(軍資監直長)을 지냈는데 도암 이선생(陶菴 李先生 : 李 緯)이 그 묘표를 지었으며, 차남은 세희(世禧)이다. 장방(長房)에서 三남을 길러 지(芝), 란(蘭), 방(芳)이요, 차방(次房)은 자녀를 기르지 못하였다. 증손 현손

大護軍柳公浣墓表

湖西之青山我族先祖獻陵名臣忠景公會孫安奇道察訪柳公脚下世鄉也乙酉初春其鄉族人某某氏訪余大田宗館言鄉之潛崖今稱以沃川郡青山面新梅里後麓即吾門世阡而近因山地開發自護軍公其子若孫三世墳墓將遷窆于舊墓上距百餘步許坤坐原而事當有表茲託於子云猥矣余豈敢哉而誼重同族終不固辭乃按譜以述之公諱浣柳貫文化始自麗初大丞公諱車達厥後冠冕連世茲不畢舉略記其最顯者曰文簡公諱公權僕射公諱澤文正公諱敬貞愼公諱陞溫靖公諱仁琦遠鮮朝亦不之曰諱亮太宗朝以佐命勳封文城府院君官至右相賜諡忠景即公高祖而曰宗簿寺少尹諱漢生錦山郡守諱約若向云察訪諱陵幹其曾祖考三世曰副司勇泰安朴承宗直長開城金湜女其二妣也公以靖穆陵間人蔭至大護軍而配淑人錦山韓氏進士漣女有二男長曰世祐軍資監直長陶菴李先生表其墓次曰世禧長房育三男曰芝曰蘭曰芳次房無育曾玄以下繁不盡錄嗚呼公以世家賢胄嘉行懿蹟必有可記而世遠莫徵甚爲可恨然椒聊如斯蕃茂可知其隱德攸發其傳之曰詳曰略亦於公奚足爲輕重哉

乙酉西紀二千五年三月

族後孫柳淙鉉謹述

이하는 번성하여 다 기록하지 못한다.

아아! 공은 대대로 국은(國恩)을 입은 훌륭한 가문(家門)의 어진 후손으로서 아름다운 행실과 아름다운 사적으로 반드시 기록할 만한 것이 있을 것인데 세대가 오래되어 증거하지 못함이 심히 한(恨)이 되나 그러나 초료(椒聊), 곧 후손이 이 같이 번성하니 가히 남에게 알려지지 않은 공의 덕(德)의 발현(發現)임을 알 수 있는 바, 그 전함의 자상하고 간략함이 또한 공에게 어찌 경(輕)하고 중(重)함이 되겠는가?

守門將 柳公世祉 墓表



十二代孫 柳寅奭



선조 수문장공께서 호남(湖南:全羅道) 장수(長水) 고을에 거처를 정하시어 후손이 대대로 거주한지 400여년이 되었다.

공의 묘소는 본군 계남면 신전리 산직촌 후록 유좌(西坐) 언덕에 계시고, 배위(配位) 묘소는 본군 법화산 춘동 상취 곤좌(坤坐) 언

덕에 계시는데 거리가 멀고 길이 험하여 성묘하기가 쉽지 않고 세일사 때 제수를 운반하여 쓰기가 어려운지라. 세상에서 일꾼기를 앵소혈(鶯巢穴). 곧 피꼬리 집 명당으로 전하는 공의 묘소에 배위 묘소를 옮겨 모시자는 여러 후손의 의논에 따라 금년 윤 4월에 부

壽階通政大夫行守門將柳公世社墓表

先祖守門將公께서湖南長水고을에 奠居하시어 后孫이 世居한지 四百餘年일새 公의 墓所는 本郡溪南面薪田里山直村後麓西坐原에 계시고 配位墓所는 本郡法華山春洞上陬坤坐原에 계시는데 距遠路險하여 省掃不易하고 歲一祀時祭需運用이 持難한지라 世稱鶯巢穴의 明堂으로 傳하는 公의 墓所에 配位墓所를 遷葬하자는 諸孫의 輿議에 따라 今年閏四月 祔葬과 同時에 兼具石儀할새 陰記를 不肖에 게 命하는 바 實無見識하야 再三固辭라 가 終不孤宗議하고 略述梗概하노라 公의 諱는 世社요 字는 致受니 柳氏로 貫鄉은 文化이다 麗初에 大丞公車達을 始祖로 以後에 冠冕이 連世했는데 文簡公公權僕射公澤文正公璈貞慎公陞溫靖公仁琦가 最顯하고 朝鮮太宗朝右議政인 忠景公亮은 公의 五代祖이시다 高祖는 宗簿寺少尹 漢生이요 曾祖는 錦山郡守約이요 祖는 安奇道察訪陵幹이요 考는 士人 渾이며 妣는 善山吉氏니 舜의 女이시다 公께서 宣祖己卯生으로 十四歲에 壬辰倭亂을 만나 外鄉錦山으로 부터 避亂僻地하여 遂至長水山中하시다 亂後에 登武科하야 歷訓鍊院奉事하고 守門將으로 在任中 光海君의 昏政을 당하여 棄官歸鄉하시다 自後로 念祖修己 安分樂道로 悠悠自適이라 가 顯宗辛丑八月六日 卒하시니 享年八十三歲로 壽階通政大夫에 加資되시다 正祖己酉二月 公墓에 略具短碣床石하여 傳之于今하다 配位는 錦溪韓氏니 實文閣直提學으로 錦溪君에 追封되고 文忠公으로 賜諡된 晦默齋皦의 后孫 直長 大柱의 女인데 從夫職爲 淑夫人하다 生四男二女하야 長男蓮은 無嗣하고 二男 荇과 三男 葛은 俱贈掌樂院正이요 四男은 芍이며 女婿는 進士 崔禮達과 僉正 朴瑗이시다 孫에 克馨은 荇의 所生이요 克馥 克釁 克馥은 葛의 所生이요 克謙은 芍의 所生이시다 嗚呼라 世久代遠하야 事行未詳이 爲恨이나 椒聊繁茂하야 戶至幾百하니 어찌 先蔭攸發이 아니리오 古語에 이른바 不食之報를 可推而知니 承先裕後之道를 더욱 勉勵해야 하지 않겠는가

西紀二千一十年辛巳閏四月 十二代孫寅爽敬識

장(耐葬:合葬)함과 동시에 겸하여 석의(石儀:石物)를 갖추세, 음기(陰記). 곧 비문을 불초에게 명하는 바. 실로 견문이나 지식이 없어 두번 세번 굳이 사양하다가 끝내 종종 의견을 저버리지 못하고 그 줄거리를 대략 기록한다.

공의 휘는 세지(世祉)요. 자는 치수(致受)니 류씨로 관향은 문화이다.

고려 초에 대승공 차달(大丞公 車達)을 시조로 하여 그후에 관작이 대대로 연이었는데 문간공 공권(文簡公 公權), 북야공 택(僕射公 澤), 문정공 경(文正公 暲), 정신공 승(貞愼公 陞), 온정공 인기(溫靖公 仁琦)가 가장 드러나셨고, 조선 태종(太宗) 때 우의정인 충경공 양(忠景公 亮)은 공의 5대조이다.

고조는 종부시소윤 한생(宗簿寺少尹 漢生)이요, 증조는 금산군수 약(錦山郡守 約)이요, 조는 안기도찰방 능간(安奇道察訪 陵幹)이요, 선고(先考:父親)는 사인 혼(士人 渾)이며, 선비(先妣:母親)는 선산길씨(善山吉氏)로 순(舜)의 따님이시다.

공께서 선조(宣祖) 기묘(己卯:1579) 생으로 14세에 임진왜란을 만나 외향(外鄉) 금산(錦山)으로부터 궁벽한 지역으로 난리를 피하여 마침내 장수 산중에 이르시었다.

난리 후에 무과에 등제하여 훈련원봉사를 지내고 수문장으로 재임 중 광해군(光海君)의 혼란한 정사를 당하여 관직을 버리고 고향으로 돌아오시었다.

그 후로 조상을 추념하고 자신을 수양하며, 분수를 지키고 도리를 즐기면서 한가히 세월을 보내다가 현종(顯宗) 신축(辛

丑:1661) 8월 6일에 돌아가시니 향년 83세로 수계(壽階:壽職)로 통정대부(通政大夫)에 가자(加資) 되시었다.

정조(正祖) 기유(己酉:1789) 2월 공의 묘소에 단갈과 상석을 대략 갖추어 지금까지 전하고 있다.

배위는 금계한씨(錦溪韓氏)니 보문각직제학으로 금계군(錦溪君)에 추봉되고 문충공(文忠公)으로 시호를 받은 회묵재 교(晦默齋 曺)의 후손인 직장 대주(直長 大柱)의 따님인데 부군의 직급에 따라 숙부인(淑夫人)이시다.

4남 2녀를 출생하여 장남 연(蓮)은 후손이 없고, 2남 행(荇)과 3남 창(菖)은 모두 증장 약원정(約元正)이요, 4남은 작(芍)이며, 사위는 진사 최예달(崔禮達) 첨정 박 원(朴 瑗)이시다.

손자에 극형(克馨)은 행의 소생이요. 극함(克涵). 극빈(克醜). 극복(克馥)은 창(菖)의 소생이요. 극협(克謙)은 작(芍)의 소생이시다.

아아! 세대가 오래되어 사행(事行)을 자상히 알지 못함이 한이 되나, 후손이 번성하여 호수가 몇 백호에 이르니 어찌 선세의 음덕(陰德)의 발복이 아니리오. 옛말에 이른바 조상의 숨은 덕을 힘입어 자손이 잘됨을 가히 미루어 알겠으니 선업을 계승하고 자손을 복되게 하는 도리를 더욱 힘써야 하지 않겠는가?

서기 2001년 신사 윤 4월
12대손 인석(寅奭) 삼가 기록함

直長柳公 世祐 墓表



아아! 이 곳은 고 직장 류공세우(故 直長柳公世祐) 및 그 배위 안인 김씨(配位 安人金氏)의 묘소이다.

공의 자는 수백(綏佰)이니 문화인(文化人)으로 우의정 충경공 량(右議政 忠景公 亮)의 오세손이다. 증조 약(曾祖 約)은 군수(郡守)요, 조 능간(祖 陵幹)은 찰방(察訪)이며, 고(考: 父) 완(浣)은 대호군(大護軍)이다.

공은 가정(嘉靖: 明 世宗) 계해(癸亥: 1563), 조선(朝鮮) 명종(明宗) 18년에 태어났는데 사람 된 품이 훌륭하여 재능과 도량이 있고 또 무예(武藝)에 능하였다. 이에 조정(朝廷)에서 그 자품(資稟)을 알고 임진왜

란(壬辰倭亂)에 군자감직장(軍資監直長)을 제수 하였으니 이는 사세(事勢)가 급하여 임용한 것이다. 그런데 불행히도 나이 31세로 돌아가시니 아는 사람들이 슬퍼하지 않음이 없었다.

공은 선세(先世: 先代)로부터 청렴과 결백을 서로 전해 내려와 가정형편이 곤란함으로 처가(妻家)에 의지하여 살았던 바, 처가는 청산(靑山) 고을에 있어 본래 재산이 넉넉하였다.

공이 돌아가심에 이르러 안인(安人)이 이르기를 “이 곳은 내가 태어난 곳이나 자식을 기를 만한 곳이 아니고 또한 재리(財利)를

直長柳公世祐墓表

嗚呼此故直長柳公世祐及其配安人金氏之墓也公字綏伯文化人右議政忠景公亮之五世孫曾祖約郡守祖陵幹察訪考浣大護軍公生於嘉靖癸亥爲人瑰偉有器局且善武藝朝廷知其材壬辰之亂除軍資監直長駸駸將嚮用也不幸年三十一卒知公者莫不悼畫公世以清白相傳依婦家以居婦家在青山素饒財及公歿安人謂此吾土也而非所以居子且利者災之所生也去之往依于商山趙樂安亨遠亨遠公之從妹壻也待其子教育成立而後反焉安人刑家有則閨門肅然鄉人稱之參奉井收之女也後公十三年而卒墓在縣南潛崖三男曰芝曰蘭曰芳公之玄孫錫晉謁余於寒泉之上泣而言曰吾父嘗出入尤菴先生之門先生爲作墓文未入石而父遽歿文亦見逸於回祿不肖今老且死矣恐未克卒事無以見吾父於地下敢以請余悲其志遂取其家乘所載而序次之使揭於阡隧錫晉之父曰塾云

陶菴李紱撰

右陶菴李先生所撰直長柳公世祐墓表而語略而述盡不必贅言然其表之豎在朝鮮英祖中葉已爲二百六十餘年之久碣泐字滅全不可讀況今至遷窆于百餘步上坤坐之原乎後孫諸彥咸曰須記其顛末而改豎可也因求文於余乃按先生遺集據後孫口述而記之附于舊文之下族後孫淙鉉追記

취하는 것은 재화(災禍)를 일으킬 뿐이다.”하고 이 곳을 떠나 상산(尙山：尙州)으로 내려가 낙안군수 조형원(樂安郡守 趙亨遠)에게 의지하여 살았으니 조형원은 공의 종매서(從妹壻：四寸妹夫)였다. 이곳에서 아들들을 교육시켜 성취시킨 후에 청산(靑山) 고향으로 돌아왔다. 이렇듯 안인은 가정을 다스림에 법도가 있어 가정이 엄숙함으로 고을 사람들이 모두 칭송하였다.

안인은 참봉 정수(參奉 井收)의 따님인데 공보다 13년 후에 돌아가시어 묘소는 청산 고을 남쪽 잠애(潛崖)에 모시었다.

3남을 두어 그 이름은 지(芝)와 란(蘭)과 방(芳)이다.

공의 현손(玄孫：四代孫) 석진(錫晉)이 용인 한천(龍仁 寒泉) 위로 나를 찾아와 울면서 말하기를 “나의 부친께서 일찍이 우암선생(尤菴先生：宋時烈)의 문하에 출입하시어 선생께서 묘문(墓文)을 지어 주셨는데 비석에 새기지 못하고 부친께서 갑자기 돌아가신 후 글 또한 회록(回祿：火災)에 소실되었습니다. 불초(不肖)도 이제 늙어 죽기에 이른 바, 이 일을 능히 마치지 못하면 지하(地下)에 가서 나의 부친을 뵈올 수 없으므로 감히 글을 청하나이다.” 하였다.

내가 그 뜻을 가없이 여기고 드디어 그 가승(家乘：家牒)에 기재된 바를 취하여 차례로 써서 묘비(墓碑)에 새겨 세우도록 하노라. 석진의 부친 이름은 숙(塾)이라고 이른다.

도암 이재(陶菴 李 緯) 지음

墓表追記

우측의 글은 도암 이선생(陶菴 李先生：文正公 牛峰人 李 緯)이 지은 직장 류공세우(直長 柳公世祐)의 묘표(墓表)인데 말씀은 간략하여도 기술(記述)을 다하셨으니 군소리를 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그 묘비를 세움이 조선(朝鮮) 영조(英祖) 중엽으로 이미 260여년의 오랜 세월이 흘러 비석이 헐고 글자가 깎이어 전혀 읽을 수 없고, 더군다나 이제 백여보(百餘步) 위 곤좌(坤坐)의 언덕으로 천평(遷窆：移葬)을 하는데 이르러서야!

후손 여러 분이 모두 이르기를 “모름지기 그 전후 사실을 기록하여 개수(改豎)하는 것이 옳다.”하고 그로 인하여 나에게 글을 청하는 바, 이에 선생의 유집(遺集)을 살피고 후손의 구술(口述)에 의거, 기록하여 구문(舊文)의 아래에 부친다.

족후손 종현(族後孫 淙鉉) 추기

生員 柳公正立 墓表



公의 본은 文化요 姓은 柳氏로 諱는 正立이다 始祖 大丞公은 高麗 太祖 때 三韓統合 翊贊壁上功臣 諱 車達로 後孫이 代代로 顯達하여 東方의 著姓氏族이 되었으니 七世祖 文簡公 諱 公權은 金紫光祿大夫 參知政事요 八世祖 諱 彥沉은 銀青光祿大夫 禮部尙書 였으며 十三世祖 諱 光秀는 號 薇齋로 光祿大夫 平章事를 歷任하시다가 高麗 末에 國運이 다 하여감을 豫見하고 淸州 고을로 落鄉하여 三隱 중 두 분인 牧隱과 治隱을 자주 만나 詩文을 酬唱하던 大學者로 膝下에 六男 중 第四

男 諱 叢 殿直令同正公은 公의 八代祖로 父親인 薇齋公을 모시고 上黨山下 楓井里로 隱居하여 朝鮮 太祖의 數次 부름에도 忠臣은 不事二君이란 忠節을 지킨 志操 높은 中始祖 이시다 또한 公의 五代祖인 諱 之亨은 保功將軍 仇寧萬戶 司直 太僕卿 楊州牧使로 德學이 높아 曲水影堂에 追配되었고 曾祖이신 諱 景萱과 祖父이신 諱 麟壽 두 분은 모두 萬戶 이시고 父親인 諱 沃은 繕工監役이며 母親은 草溪卞氏로 栢陰公 景福의 따님이시다 公은 태어나면서부터 才質이 凡人과 남달라 父親

인 監役公께서 西溪 李得胤의 門下生으로 文學과 德行이 當世에 有名하였으며 母親 또한 詩禮의 家門에서 成長하여 子女教育方途를 알아 功令科擧의 글에서도 學文이 능하여 光海君 甲寅(1614년) 生員試에 二等 第十八人으로 堂堂히 入格하였음에도 平生 동안 杜門不出 글만 읽고 官界에 能力發揮 한 적이 없는 순수 生員님으로 生을 맺으셨다. 配位 安東金氏는 婦德이 뛰어나며 슬하에 二男二女中 長男 文祐는 文科에 及第하여 靑山縣監에 孫 震陽은 武科에 及第하여 漆原 縣監으로 孫 泰陽은 武科에 及第 宣傳官을 次男 文裕는 通德郎 이며 復陽 增陽은 僉知中樞府事 等等 代代로 得勢한 名門家를 이루었다 아아 애답다 公께서 쌓으신 事蹟이 모두 兵火에 불타 버려 生卒 內容도 모른 채 教旨만이 傳해지니 애석할 뿐이다 앞으로 더 오랜 세월이 흐르면 遺蹟이 더욱 泯沒되어 衣履를 갖춘 墓所마저 失傳 念慮를 느껴 墓碑를 세우고자 公의 九代孫인 根喆 根培 두 분이 碑文作成의 請託이 있어

公의 外祖父이신 栢陰公 後裔인 小生이 短文하지만 감히 情誼를 사양치 못하고 請에 가름한다 公의 位土인 宗畝은 九代孫인 根相이 一九〇三年 渡美 一九二五年에 歸國하여 公의 墓地 附近에 畝 壹千五百餘坪을 마련한 土地가 오늘날 祖上을 모시는 宗財가 되어 根相公의 功勞를 致賀한다 以上の 碑文草案은 八溪 卞榮寅 先生께서 一九六〇年 庚子年에 文化柳氏 派譜 편찬過程에 根喆 根培 두 後孫의 간곡한 請에 의하여 碑文을 草案한 것이다 今般 後孫들이 槐山郡 靑川面 釜洞에서 世居地인 靑原郡 內秀邑 桃源里 後山西坐로 移葬하여 先塋 階下에 모시어 이 碑를 세우다.

西紀 二〇〇四年 甲申年 三月 日 謹啓

十代孫 宗中代表 浩烈

十一代孫 總務 在佑

十一代孫 在明

十二代孫 忠鉉

十三代宗孫 浩振

司直柳公 應榮 入鄉由來碑

孔子께서 이르시되 향리에 어질고 두터운 풍속이 있어야 아름답다 이런 곳을 가려 살지 않으면 어찌 지혜롭다 하라고 말씀하셨다 다행이도 우리 先祖께서 聖人의 尤훈을 깊이 깨달아 湖西의 승지로 산수가 아름답고 풍속이 순후하며 더욱이 우리나라 禮學의 꽃을

피운 선비의 고장 連山 고을에 거처를 정하시었다 그로부터 후손이 날로 번성하여 이 지역의 훌륭한 가문으로 원근의 칭송이 자자하였으니 실로 향리를 가려 거처하신 先祖의 음덕이라 이르지 않을 수 없다 이 곳에 처음 奠居하신 분은 바로 司直公 應榮으로 조선 조



宣祖 임진왜란 후 漢陽 貞陵坊으로부터 이 고을 향한리 외송으로 들어와 정착하시니 거금 四百年 전이다 예로부터 산이 가깝지만 기름진 곳이라 일컬어지는 유서 깊은 고장 連山은 본래 백제의 黃等也山郡인데 신라시대에 黃山郡 고려시대데 連山郡으로 개칭되었다 朝鮮朝 太宗 十三年에 縣으로 고쳐지고 仁祖 二十四年 連山 恩津 魯城을 통합하여 恩山縣으로 개칭 公州의 屬縣이 되었더니 孝宗 七年에 복구되었다 근대에 들어와 隆熙 庚戌 國恥 후 甲寅 府郡 통합 때 논산군에 합병되어 連山면이 되었다 高麗 太祖 때 三韓 功臣이신 大丞公 柳車達을 始祖로 하는 文化 柳氏는 일찌기 고려시대에 위대한 門閥을 이루었으며 朝鮮을 거쳐 지금까지 천백여년 동안 많은 名卿과 碩學을 끊임없이 배출하여

국가와 休戚을 함께한 명벌로서 옛날부터 三韓 甲族으로 일컬어져 왔다 文化류씨는 원래 黃海道 九月山麓의 儒州에 세거하여 貫鄉이 되었는데 高麗 高宗 四十六年에 權臣을 제거하여 정권을 왕실에 회복시킨 衛社功臣 柳璈의 고향이라 하여 文化縣으로 개칭되었다 사직공의 직계선조로서 朝鮮개국에 즈음하여 태종을 보필하여 國基를 다진 佐命功臣으로 右議政을 지내신 忠景公 亮께서 漢陽에 奠居하신 후로 몇 대를 漢陽에서 세거하시었다 靈巖郡守 克讓에 이르러 明宗 元年에 乙巳土禍를 당하여 奸黨들의 무고로 賜死되신 松菴相公 灌의 再從姪로서 그에 연좌되어 海南에 유배되고 집안이 온갖 고초를 겪었다가 宣祖 十年에 사면 복권되어 石城縣監을 지내시고 漢陽으로 복귀하시었다 司直公은 바로 靈巖

공의 차자 光福의 차남으로 海南에서 태어나 백부 安福의 후로 입계되어 靈巖公의 嗣孫이 되시었다 司直公은 漢陽 貞陵坊의 본가에서 장성하셨는데 당시 같은 곳에서 살던 愼獨齋 金集과 사귀시었다 그리고 임진왜란을 겪고 나서 수년이 지난 후 큰 뜻을 품고 連山으로 전거하셨는데 連山은 愼獨齋의 고향이기도 하였다 司直公께서는 독자 忠義衛 得培를 두셨는데 일찍부터 학문을 닦은 忠義衛公은 宣祖 四十年에 愼獨齋 金集 虛舟 金槩 都事 閔 惕 進士 柳汝精 등 二十餘人으로 더불어 충청도관찰사에게 글을 올려 靜會堂의 복구를 요청하였다 靜會堂은 일찌기 愼獨齋의 조부 黃岡 金繼輝가 大菴山 孤雲寺 곁에 설립한 儒生들의 講讀之所였으니 忠義衛公의 학문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忠義衛公은 무려 七男三女를 두시어 가문을 크게 일으키셨고 아들들 역시 愼獨齋의 문하에 수업하여 훌륭한 家道의 토대를 이루셨다 그로부터 지금에 이르도록 후손들이 연산지역에서 수백년을 세거하여 왔기로 이에 대략 이르자면 長子 景漢의 후손은 향한리 백석리에 二子 翊漢의 후손은 삼전리 왕암리에 三子 昌漢의 후손은 한천리에 四子 震輝는 海南生庭의 再從叔 成培에게 出系하고 五子 振漢은 무후하고 六子 禎漢의 후손은 표정리 거사리에 七子 起漢의 후손은 임리 등에 거주하였다 그러나 여러 대를 지나는 동안 세태의 변천과 생업의 다변화로 말미암아 여타의 많은 후손들이 도내 및 경향 각처로 이주하여 현재 本外坊 도합 千餘戶에 이른다 우리 司直公宗中은 훌륭한 相公의 후예로서 入鄉 이후 忠孝와 淸廉한 가풍을 고수하여 지금에 이르렀는데 근래 들어 인륜의 몰락과 양풍의 쇠도로 인하여 자신의 所自出은 물론 爲人之

道까지 망각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우리 宗中에서는 本外坊의 많은 후손들로 하여금 쇠퇴해져 가는 崇祖睦族의 정신을 고취하고 아울러 입향 및 세거유래를 알수 있도록 하는 한편 奠居 四百周年을 기념하는 뜻에서 이 入鄉由來碑를 세우게 되었다 대저 이 비가 서 있는 여기 연산면 임리 호촌 대조동은 더욱 신묘한 곳이다 일찌기 사직공의 꿈에 大虎가 나타나 절을 하며 이르기를 남쪽으로 五百步를 가면 커다란 새 모양을 하고 있는 곳에 묘를 쓰면 크게 흥하리라고 豫言하였다 사직공께서 놀라 깨어나 찾아가 보니 과연 호랑이가 말한 곳이 있었다 그로부터 수백년이 흐른 후 한 道僧이 있어 산 아래 길을 지나다가 문득 공의 묘소를 보고 이르기를 明堂이지만 기러기혈에 물이 부족하구나 탄식하더니 기이하게도 그 후 수십년 내에 큰 호수가 남쪽에 조성되고 수로가 그 혈로 흐르게 되었다고 전한다 그 남 모르는 은덕을 받는 후손들에게 이 곳이 영원히 追遠報本과 敦宗睦族의 정신을 되살리는 聖所가 되길 바라마지 않는다 이어 銘辭에 이르노니 여기 길 가는 이여 잠시 가던 길 멈추고 눈을 들어 저 멀리 바라보라 선조들의 덕이 대대로 쌓여 온 그윽한 저 고을을 저 하늘의 흰 구름도 저절로 생겨나는 것 아니요 발 아래 한 포기 푸르른 풀도 의미로 꽃 피어나니 깊고 깊은 인연 없이 홀로 생겨나는 자 이 인생 세간에 아무도 없도다 선대의 유업의 씨앗은 그대 안에서 아름다리 생명 나무로 자라서 번성하나니 그대 또한 근본을 잊지 말고 은혜의 마음 품음을 배우라 이 아름다운 연산 고을에서!

西紀 二千七年丁亥 月 日
 後孫 工學博士 忠南大學校教授 柳朱桓 지음
 文化柳氏忠景公派 典祀令公后
 司直公連山宗中 세움

孺人羅州羅氏 孝烈碑 除幕

孺人羅州羅氏孝烈褒揚狀

우의 통문을 삼가 살피건대. 금구향교(金溝鄉校) 관내 금구면에 사는 문화 류관영(文化 柳寬永)의 선비(先妣) 유인 나주나씨(孺人 羅州羅氏)는 고려 때 감문위상장군 휘 부(富)의 후손으로 사인 성섭(士人 聖燮)의 따님인데 타고난 자품이 곧고 착하더니 어려서부터 어질고 충명하여 규중(閩中)의 법도가 일찍 드러났었다.

나이 16세에 공덕면 황산리의 문화류씨가문으로 시집을 오셨으니 곧 조선 태종조에 검한성사 휘 원현(元顯)의 16세손이요. 태근(泰根)의 차자인 흥종(興宗)의 처가 되었다. 시집은 이후로 남편을 공경히 대하고 홀시어머니를 잘 모시며 일가 간에 화목하게 지내니 육친(六親:親族)이 마땅히 여기었다.

이 같이 지내기 겨우 10년 만에 불행히도 부군(夫君)이 우연히 괴질(怪疾)에 걸려 병세가 날로 위중하더니 마침내 대고(大故:親喪)를 당하였다. 성이 무너지는 슬픔으로 가슴을 두드리고 땅을 구르며 울부짖다가 마음속으로 따라 죽고자 식음을 전폐하더니 곧바로 돌이켜 생각하기를 홀 시어머니가 살아 계시고 두 어린애가 무릎에 매달려 우는지라. 마음을 바꾸어 슬픔을 억누르고 드디어 억지로 일어나 상장(喪葬)의 초종범절을 조금도 유감없이 행하였



다. 한편 시어머니를 봉양하되 입에 맞는 별미와 몸에 편한 의복 등을 갖추어 드리는데 정성을 다하여 받들기 33년 동안 비록 곤궁한 처지였지만 감히 그를 핑계로 소홀함이 없이 부인의 도리를 다하였다. 드디어 돌아가심에 집상(執喪)에 예를 좇아 행하고 매양 기제(忌祭)를 당함에 미리 풍족하면서도 정결하게 갖추어 행하니 이웃에서 모두 “효열을 겸전한 분이다”라고 칭송하였다.

아아! 외로운 몸으로 일찍 과부가 되어 곤궁하고 간고함을 실로 견디기 어려운지라. 부러진 비녀와 헤진 치마의 남루한 복

褒揚狀

右通諭事謹悉

金溝鄉校管內金溝面文化柳寬永之先妣孺人羅州羅氏高麗監門衛上將軍諱富后士人聖燮之女天資貞淑自幼賢明閨範夙著年十六于歸孔德黃山里文化柳氏家卽朝鮮太宗朝檢漢城事諱元顯十六世孫泰根次子興宗之妻也于禮爾來敬待君子善養偏姑一家和雍六親咸宜經僅十年不幸夫君偶得怪疾日益沈重竟丁大故因崩城之痛號哭擗踊心欲下從食飲全廢旋念偏姑在堂二孤啼繞膝幡然改圖抑哀忍痛遂自強起喪葬初終凡節俾無餘憾奉養偏姑適口之味便體之物靡不庸極侍奉三十有三年不敢諉於困窶而無欠婦道及歿執喪遵禮每當忌祭豫備豐潔盛足咸稱孝烈兼全矣噫子子早寡困窮艱苦實難堪以創釵弊裳行傭戚家辛勤紡織菜粥惡食苟延殘命惟幼孤撫育訓導專一劬勞二胤及成亦承順無違以篤行孝悌之誠報恩慈堂子姓振振孺人享耄壽考終此豈非孝烈感天天佑以福乎懿哉如此節行世罕其儔宜乎顯彰褒揚曰

天資貞淑閨範極備操行端莊敬待君子孝奉偏姑善養志體崩城之痛心欲下從念及幼孤愧然自省困窮艱苦固守貞節二胤訓導盡誠專一子亦孝悌子姓振振嘉尚節行天佑以福揚其懿蹟世人必式

孔夫子誕降二千五百五十七年丙戌九月

成均館長崔根德

장으로 친척 집에 가서 품팔이도 하고 길삼을 부지런히 하며, 나물죽과 거친 음식으로 잔약한 목숨을 연명하며 오직 어린애를 어루만져 기르고 가르쳐 인도하는 데만 오로지 힘써 노력하였다.

두 아들이 성장하더니 또한 유인의 뜻을 순종하여 어김이 없을 뿐만 아니라 효도와 우애의 성의를 돈독히 하여 자당(慈堂)의 은혜를 갚고 또한 자손들이 번성하고, 유인(孺人)께서 높은 수명을 누리셨으니 이 어찌 유인의 효열을 하늘이 감동하는 한편 복으로서 도와주시미 아니겠는가?

아름답다. 이 같은 절조 있는 행실은 세상에 그 견줄 바가 드문 바, 드러내어 포양함이 마땅하므로 이에 명사(銘辭)에 이르노니.

타고난 자품 곧고 착하여 규범을 극히 갖추었도다.

조행이 단정하여 부군을 공경히 대했도다.

홀시어머니를 효성으로 받들어 지체의 봉양을 잘하였도다.

성이 무너지는 듯 슬퍼 마음으로 따라 죽고자 하였도다.

생각이 어린애에게 미침에 마음을 바꾸어 자신을 반성했도다.

곤궁하고 어려운 가운데도 곧은 절조를 굳이 지켰도다.

두 아들을 가르쳐 인도하는데 오로지 정성을 다했도다.

아들 또한 효도하고 우애하여 자손이 매우 번성하였도다.

훌륭한 그 절행(節行)을 하늘이 복으로서 도왔도다.

그 아름다운 사적을 들치는 바, 세상 사람이 반드시 공경하리라.

孔夫子 誕降 2557(丙戌:2006년) 9월
成均館長 崔根德지음.

孺人羅州羅氏 孝烈碑文

黃金빛 끝없이 펼쳐진 金堤들 黃龍이 누어 노는 듯한 龍池面 臥龍里 馬港 마을 四通五達 큰 길 가에 雄壯한 모습으로 서 있는 이 貞珉은 오늘날 倫理道德을 밝히고 있는 孺人 羅州羅氏의 孝烈碑이다.

孺人은 顯達한 羅州古族으로 高麗 때 監門衛上將軍이신 富의 後孫 聖燮氏의 따님이다.

儒林의 家門에서 女四書를 익힌 孺人은 일찍이 孝誠과 勤儉으로 온 고을에 알려진 閨秀였다. 나이 겨우 十六歲에 선비인 柳興宗님의 妻가 되었으니 夫君은 곧 文化柳氏 家門으로 朝鮮王朝 初期에 벼슬이 檢漢城事이신 元顯님의 十六世孫 泰根님의 둘째 아들이다.

孺人께서는 매우 賢哲하시어 홀시어머니를 섬기고 夫君을 받들며 一家 또는 六親까지도 和睦을 다져왔다. 저 하늘은 無心하게도 뜻다운 二十六歲의 나이에 갑작스런 夫君의 喪을 만나자 울다 지친 孺人께서는 精神을 잃은 지경에 이르렀으며 음식물을 전혀 입에 넣지 않고 夫君의 뒤를 따라 가기로 決心을 하였다. 이를 지켜본 親戚 모두가 家門이 處

한 現實을 들어 說得하자 孺人께서는 그 說得을 받아들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만일 自身만을 위해 夫君의 뒤를 따라간다면 膝下에 두 어린 자식은 어찌할 것인가 하시고 슬픔을 억누르며 送終의 禮를 마치는 한편 靈位를 받드는데 三年을 하루같이 하였다.

家庭이 본래 가난하여 땅 한 평 없는 處地였기에 낮에는 大姑母 宅에서 품팔이를 하고 밤에는 길삼을 하면서도 조금도 괴로워하는 氣色이 없었다. 그와 같이 어려운 環境에서 三十三年이란 오랜 세월 시어머니를 모시는데 입맛에 맞는 飲食과 몸에 편한 衣服을 풍부히 준비하였는가 하면 어린 兄弟를 敎育하는 데는 매우 嚴正하여 社會로부터 推仰 받는 人材로 成長시켰다. 시어머니 喪을 당하여서는 한결같이 옛 制度를 따랐으며 三年服을 마친 뒤 祭祀 때마다 목욕제계하고 祭需를 준비하는데 自身의 道理를 다 하였으니 夫君 따라 죽기는 쉽지만 삶이란 어렵다는 先賢의 말씀이 곧 羅孺人을 지칭한 듯 하다.

孺人의 아들 寬永 必永 두 분 역시 타고난 孝心으로 어머니의 일을 잘 이어 받았으니 이는 곧 하늘의 報答인 것이다. 孺人의 孝烈을 영원히 기리기 위해 金溝鄉校의 薦狀이 있었고 湖南地方 큰 鄉校를 비롯 成均館에 이르기까지 讚揚하는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人間의 秉彝에서 나온 것이다. 金溝鄉校에서 孺人의 孝烈 事例를 貞珉에 새기려 한 것은 綱常이 무너져 간 이 時代 女性의 龜鑑을 삼고자 하는 것이다.

不佞이 비록 識見은 淺薄하지만 隱惡揚善은 虞舜氏가 하시는 일이었기에 金溝鄉校 多士들의 懇請에 의해 삼가 머리 숙여 右와 같이 기록하노니 孺人의 孝烈事例는 이 빛돌과 함께 永遠하리라.

檀紀 四千三百三十九年 (2006年)

丙戌 六月 上浣에

成均館典學 泰仁 朴來鎬 삼가 쓰다

孝烈碑 除幕 有感

檢漢城公派宗會長 益山 柳 大 賢

금년 2009년 6월28일 전북 김제시 용지면 와룡리(全北 金堤市 龍池面 臥龍里)의 동산 언덕에서는 요즈음 보기 드문 효열비(孝烈碑) 제막식이 있었는데 이는 실로 식전(式典)에 참석한 모든 이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는 교

훈적(敎訓的) 의미의 행사이었다.

우리 문화류씨(文化柳氏) 김한성공파(檢漢城公派) 함안공(咸安公 : 十五世 諱 孝庸)의 후손인 김제(金堤)에 거주하는 관영(寬永) 필영(必永) 형제 분이 그 모친을 기리는 효심



(孝心)에서 효열비(孝烈碑)를 세웠는데 이 행사는 김제시 관할의 금구향교(金溝鄉校 : 典校 金錫均씨)와 유도회(儒道會: 支部長 林定洙씨)의 주관으로 거행(舉行)되었다. 이날 제막식에는 도내(道內) 각 시군(市郡)의 향교와 유도회에서 나오신 유림(儒林) 즉 원로(元老) 어른과 우리 함안(咸安), 창평(昌平), 영광공(靈光公) 종중의 회장단 및 종원(宗員) 등 100여인이 참석하여 성황(盛況)을 이루었다.

고어(古語)에 풍수지탄(風樹之嘆)이란 말이 있다. 이 말은 자식이 효도(孝道)를 다하지 못한 채 아버지가 돌아가서 섬길 수가 없음을

통탄(痛嘆)하는 애뜻한 심경(心境)을 이르는 말이다. 이 말의 어원(語源)은 중국(中國)의 옛 한(漢)나라 시인(詩人) 한영(韓嬰)이라는 사람이 효성심을 시가(詩歌)로 엮은 데서 비롯된 말로 알고 있다. 그 시가의 줄기는 이러하다. 『수옥정이 풍부지(樹欲靜而 風不止)요. 자욕양이 친부대(子欲養而 親不待)라. 이를 풀이한다면, 나무는 고요히 있고자 하나 바람이 그치지 않아 흔들리고, 자식은 어버이를 봉양하고자 하나 아버지는 기다리지 아니하고 돌아가셔서 섬길 수가 없다』 라는 말을 줄여서 사자성어(四字成語)로 만든 것임을 알 수 있다. 효자의 애뜻한 심경을 표현한

풍수지탄(風樹之嘆)이란 말은 우리들에게 효성심(孝誠心)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교훈적(敎訓的) 의미를 갖는 말이기도 하다.

효(孝)와 예(禮)라고 하는 도덕적(道德的) 가치는 지고지선(至高至善)의 덕목(德目)이다. 때문에 가치를 평가(評價)할 때면 효·예가 반드시 그 평가기준의 중심에 자리 해야 한다고 나는 생각하고 있다. 이는 우리 개개인 모두가 효·예라 하는 가치덕목을 중시(重視)하는 사상(思想)을 가져야 하고

이를 기본(基本)으로 할 때 우리들의 가정과 사회, 그리고 국가를 발전시키는 원동력(原動力)이 그 속에서 나오는 것이라 믿고 있기 때문이다.

당일 식전에서 관영(寬永), 필영(必永) 형제분이 세운 효열비를 바라보며 나는 조용히 눈을 감고 자성(自省)의 상념(想念) 속에 풍수지탄(風樹之嘆)을 새삼 되새겨 보았다. (이 글은 본인이 이 행사에서 문중대표로 인사말씀을 했던 데서 간추린 것이다.)

孝婦星州李氏 事蹟碑

부군(夫君)이 작고한 후에 그 시부모를 잘 봉양하고 또 옳은 방도로서 그 아들을 가르쳐 능히 그 가정을 보존했다면 나는 반드시 효부(孝婦)라고 이르겠다.

진주(晉州)에서 서쪽으로 50리 쯤에 조계(潮溪) 마을이 있으니 문화류씨(文化柳氏)가 대대로 거주하는 곳이다. 류씨는 조계선생(潮溪先生 : 柳宗智) 이후로 이곳에 세거하며 효도와 우애를 힘써 행하였다.

효부가 이곳에 살 당시 마을 사람들이 표창하려 하니 효부가 말하기를 “불가합니다. 남의 며느리가 되어 그 시부모를 섬기는 것은 예의요, 미망인으로서 자식을 의지하는 것은 도리입니다. 이는 사람의 몇몇한 행실로서 내가 비록 예의에 벗어나지 않고 집안을 보존하고자 한 노고는 조금 있으나 이것으로서 표창을 한다면 사람의 자 만 심 을 조 장

할까 두렵습니다.” 하였다. 이로서 표창이 행해지지 못했으나 듣는 사람마다 더욱 그를 어질게 여겼다.

효부의 이름은 조이(祚伊)이며 그 아버지는 명규(命圭)니 성주이씨(星州李氏)이다. 태어나서 용모가 단정했는데 형제가 많지 않고 집이 본래 가난하여 땀나물을 하고 나물을 캐어 부모를 봉양하더니 나이 16세에 류진석(柳震碩)에게 출가하였으니 이는 가난에 쪼들려서 입을 하나라도 덜고자 일찍 출가시킨 것이다. 시집도 또한 가난하였으나 효부는 가난하게 삶이 익숙했기 때문에 가난함을 혐의하지 않고 오직 친정부모를 섬기는 마음으로 그 시부모를 극진히 섬기었다.

새벽 일찍이 거처를 살피고 날이 저물면 잠자리를 보아드리며 혹 밖에 나가서 특이한 음식을 얻으면 반드시 싸가지고

와 서 그

孝婦星州李氏事蹟碑

夫死而善養其舅姑又以義方教其子能存其家則吾必謂之孝婦矣晉州西五十里許有潮溪村文化柳氏世庄也柳氏自潮溪先生以後世居於此敦行孝悌孝婦居於此當時里之人士欲褒之孝婦曰不可也爲人之婦而事其尊章禮也夫死而從其子道也此人之庸行吾雖有禮義之無背而存家之微勞苟能以此而褒彰恐或助人自慢也以是褒彰不行而聞者愈益賢之孝婦名祚伊父命圭星州人生而姿容端正終鮮兄弟家素清貧樵菜以供父母十六歸于柳震碩蓋貧之甚而欲捐一口使之早嫁也夫家亦貧孝婦慣於貧故不以爲嫌惟以事父者事其舅姑晨省昏定出得異味必持而獻姑姑分與之則固辭曰婦已鑿矣常有饑色震碩謂曰吾貧甚無以資生老母臨年在堂穉子襁褓呱呱且儉生終不免於溝壑今以奉率之事委于君是余之罪也卽日出家航海抵日本傭於炭坑是年冬死報至矣孝婦是時有身聞卽仆地氣喘幾殊傍人救之得不死孝婦矢志自裁水醬不入口姑爲之泣曰汝死吾亦死三塊遺血將誰恃乎孝婦強仍行素形毀骨立每向東天惘然淚下羞對稠人其後姑氏罹風痺坐臥須人孝婦至誠扶護數間草屋自撤衣衾與姑氏十八年同房便尿澡拭凡七年人皆難之孝婦曰此吾所天別時託我者也及遭故饋奠哀哭逾於禮也生三男元烈敬烈亨烈克承慈教出告反面事皆咨稟而行之兄弟友愛雖居各籬物無彼我之有產業殷振人稱孝婦有後也元烈造余曰吾母孝行今世罕有不肖輩視息於今日者敢忘劬勞之恩乎石已具矣煩兄願有以蹟焉余感其孝心遂掇其實系以辭曰在家而樵菜以供親出嫁而事姑忘爾身聞夫死而卽欲自絕荷重托而却厲精神凜凜其冰玉之貞操溫溫其蘭蕙之性真教嗣兒而力扶家道遵三從而無愧古人

星州李章漢撰

시모(媪母)께 드리었다. 이에 시모께서 그 음식을 나누어주면 효부는 굳이 사양하며 이미 먹었다고 하였으나 항상 끓주린 기색이 있었다.

진석이 처에게 이르기를 “내가 너무 가난하여 생활을 할 수 없는데다 노모(老母)께서 생존해 계시고 어린 아이들은 강보(襁褓)에 쌓여 울부짖고 있으며, 구차하게 살면서 마침내 죽을 고생을 면치 못하고 있는 처지에 윗사람을 봉양하고 아랫사람을 거느리는 일을 그대가 맡고 있으니 이는 나의 큰 죄이다.” 하고 즉시 집을 떠났다.

배를 타고 일본(日本)으로 건너가 어느 탄광(炭鑛)에서 품팔이를 하다가 동년 겨울에 죽었다는 소식이 본가에 전해졌다.

효부는 이 때 막내 아들을 출산한 지 얼마 안된 몸으로 그 소식을 들은 즉시 슬픔으로 땅에 엎어져 숨이 막혀 거의 죽기에 이르렀는데 곁에 사람의 구원으로 죽기는 면했으나 효부는 자결할 것을 맹서하고 물한 모금 마시지 않았다.

이에 시모가 울면서 말하기를 “네가 죽으면 나 또한 죽겠다. 저 세 어린 것들을 장차 누구에게 맡기며 나는 누구를 믿고 살겠느냐?”하며 우는 지라,

효부는 어찌 할 수 없어 억지로 소복(素服)을 입고 초상을 치렀으나 얼굴은 여위고 뼈만 앙상하였다. 대양 동쪽 하늘을 바라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 한편 다른 사람을 대하기를 부끄럽게 여기었다.

그 후에 시모는 중풍(中風)에 걸려 앓히고 눕히기를 다른 사람이 부족해야 했는데 효부

가 지성으로 간호하며 몇 칸 초막에 한 이불을 덮고 시모와 한 방에서 거처하며 살기를 18년 이었고 대소변을 받아 씻고 의복과 음식을 시시로 갖추어 모시기 무릇 7년이였다. 이에 사람들이 모두 어려운 일이라고 하였다. 효부가 이르기를 “이는 나의 부군이 집을 떠날 때 나에게 부탁한 것이라” 하더니 드디어 상을 당하여 제전(饋奠)을 받들고 통곡하며 초종(初終) 장례를 예를 좇아 마쳤다.

3남을 낳아 원렬(元烈), 경렬(敬烈), 형렬(亨烈)인데 모친의 가르침을 잘 받아 밖에 나갈 때 아뢰고 집에 들어와서 반드시 뵈이며 모든 일을 물어서 행하는 한편 형제간에 우애하고 비록 집은 각기 살면서도 쓰는 물건은 네 것 내 것이 없었고 산업이 진전하니 사람들이 말하기를 “효부가 훌륭한 아들을 두었다”고 칭송하였다.

원렬이 나에게 와서 말하기를 “나의 어머니의 효행은 지금 세상에 드문 일이라, 불초 자식들이 오늘날 생각건대 그 고생한 은혜를 감히 잊을 수 있겠습니까? 빗돌은 이미 갖추었으니 형이 번거롭겠지만 그 행적을 적어 주십시오.” 하였다. 내가 그 효심(孝心)에 감동하여 드디어 사실을 들어 쓰고 이어 명사(銘辭)에 이르노니,

집에 있어 나무하고 나물 뜯어 부모를 공양하였으며,

출가해서는 시모를 섬기고 자기 몸을 잊었도다.

부군의 죽음을 듣고 즉시 자결하고자 하였으나,

지중한 부탁을 듣고 문득 정신을 가다듬

있도다.
 늠름한 그 빙옥 같은 곧은 지조였고,
 온온한 그 난초 같은 참된 성정이었도다.
 아이들을 잘 가르쳐서 가정을 붙들어 일으
 키고,

부녀의 삼종지도의 길을 좇아 옛 사람에
 부끄럽지 않았도다.

성주 이장한(星州 李章漢) 지음

淸州鄉校典校 柳公萬紀 墓表

公은諱는萬紀요號는春潭이니文化人
 으로高麗典書公沼의十九代孫이요潭齋
 公光赫의셋째아들인觀魚齋根奭의長
 子로一九一八年戊午十一月十三日淸州
 市新鳳洞漁塘에서出生했으며어머니는
 晉州鄭氏鴻鎭의따님이다어려서부터天
 稟이英敏하고持身이恪謹하여成人의風
 度가있었더니일찍이漢學者이신祖父에
 게漢學을修學하면서그操行을더욱勤
 愼함으로祖父께서이르기를이아이는필
 연承先保家할것이다라고칭찬하였다四
 十年淸州農業學校를졸업하고지방공무원
 으로임용된후四八年淸原郡蠶業係長
 在職時農業施策에獻身한功으로六十年
 大統領으로부터勤勉褒章을受賞하고다음
 해沃川郡産業課長六三年鎭川郡産業課
 長六五年同內務課長七十年陰城郡內
 務課長七三年中原郡內務課長을끝으로
 七七년依願退任하였다그동안여러고을
 課長을역임하면서忠國愛民정신으로郡
 民에봉사하고行政發展에크게貢獻하여
 여러차례內務部長官또는忠淸北道知事
 로부터模範公務員賞을受賞하였다그후
 七

년淸州鄉校掌議八十년雲谷書院長八三
 年淸州鄉校典校등을역임하면서儒風을
 振作하고性命義理를闡揚하며爲先報本
 과孝節이卓異하니士林이그卓行에감
 복하여闡揚을啓陳八四年淸州市長의文
 化市民孝子賞및八六年成均館長의孝子
 明倫牌를수상하였다儒狀에柳孝子는나
 이六十八세에이르기까지昏定晨省과出
 告反面의禮를한번도闕한일이없고그
 夫人과더불어한마음되어飲食供養과뜻
 을받들기를하루같이하였다또每事를
 順理에따르고謙讓의道로是非를논하지
 아니하며어른을恭敬하고이웃을서로도
 왔다八十一세의慈堂께서九년여의中風
 으로臥席중에그부인과함께扶腋隨從하
 고用便을수발하며매일청결한옷으로
 갈아입히고마침내別世하시니땅을치며
 慟哭하다卒倒하고父在母喪으로一年居
 喪의屈巾祭服으로매일아침風雨를피하
 지않고省墓하고夫婦가매上食마다哀
 毀號哭하고부득이出他時에는罪人을자
 처하고만드시方筮을쓰니近世에없는
 孝子이다또父親이八十九세高齡으로老
 九 167 衰 함 에 別 味 를



進饌하며 곁에서 떠나지 않고 湯劑를 지성으로 進供하고 氣力を 살피서 一舉一動을 돕고 生辰 때면 부친의 親朋을 모셔와 잔치를 마련하고 別世하심에 三年居喪을 母親喪과 한가지로 傳統禮法에 따라하니 柳孝子는 과연 하늘이 낸 孝子이다 하였다 뿐만 아니라 爲先心도 남달라 각종 門中事 또는 爲先事를 주도하고 古禮에 통효하며 八九년 文柳大宗會 典禮委員 淸州 文柳宗親會副會長에 被選되었다 부인은 淸風金氏 漢永의 따님으로 孝行이 지극하여 각 기관으로부터 孝婦 表彰을 받았다 子女는 四男二女로 長男인 在梧가 延安 李貞淑과 婚姻하여 垠朱 周怡 禎鉉을 次男인 在勳은 晉州 姜貞銀과 혼인하여 光鉉을 三男 在滄은 延安 李卿淳과 혼인하여 廷旼 周希 丞鉉을 四男 在浣은 光山 金玉熙와 혼

인하여 彰鉉과 尙希를 長女 在喆은 密陽 朴鍾德과 次女 在淑은 全義 李英世와 혼인하였다 평생을 孝行과 淸貧한 삶 속에 家庭의 和睦을 최우선으로 힘쓰고 操身한 言行으로 술과 女色을 특히 삼갔으며 子女教育은 자신이 率先垂範하여 후손들이 뒷 그림자를 밟도록 가르치어 산 知識과 禮儀凡節을 머릿속에 넣어주시려고 힘썼다 자손들이 모두 번창하고 또 그들도 兄弟 友愛가 돈독하며 모두들 儒林의 선비정신을 계승하고 있으니 이는 先代의 遺德이라

忠淸北道議會 事務處長 前 陰城副郡守
副理事官 金海 金鍾祿 謹撰
國立現代美術館 招待作家 韓國書家協會
副會長 咸平 鄭濟道 謹書
檀紀 四三三七年 甲申 二月 立

清州市長 柳公龍紀 墓表



우리 大韓民國이 前古未有的의 經濟 挑躍 推
進運動으로 全國民이 불철주야 피땀흘리던
西紀 一九六〇年代와 七〇年代의 한 지방의
牧民官으로 또는 一道의 企劃管理室長으로서
정열을 쏟으며 청춘을 불사르던 人物이 있었
으니 그가 바로 一九二一年 陰 十一月十六日
清州 新鳳洞에서 父親 根大와 母親 密陽 朴
魯順 사이에 三男二女 중 長男으로 태어난
釋亭 柳龍紀公이다 公의 本貫은 文化니 高麗
壁上功臣 大丞公 諱 車達의 三十二世孫이며
文平君 元庇의 二十二世孫이다 高祖의 諱는

錫五요 曾祖의 諱는 秉胤이요 祖는 光赫
一諱 河永이다 公은 어려서부터 품성이 聰
明俊秀하고 강한 執念과 努力의 所有者로
서 成長하자 群鷄一鶴처럼 뛰어났다 어버
이를 섬기되 그 뜻을 어김이 없고 兄弟間
에 우애가 남다르며 每事에 冷徹한 知性
銳利한 判斷 果敢한 推進力을 발휘하여 拔
群의 功績을 세웠다 公은 그 穎敏한 資質
로 清州農業學校와 清州大學을 마친 후 大
學院에서 經營學을 專攻함으로 그 學問의
깊이를 인정받아 忠淸北道廳에 進出한 후

로 事務官 書記官 副理事官 理事官을 차례로 승진하였다 특히 公이 陰城郡守와 忠淸北道 企劃管理室長 淸州市長 在職時에는 陰城郡 地域社會開發 長期計劃 忠北 建設十個年 計劃 淸州 未來像 등의 비전을 수립시행하자 이것이 국가의 인정을 받아 공무원 教育用으로 또는 地域 社會 開發에 敎範으로 채택되었다 그리고 地域 社會開發의 原理와 實際 등 多數의 論文도 많은 사람들로 부터 극찬을 받았고 綠條素星勳章 등 많은 勳章을 받기도 하였다 이로 인하여 大統領으로부터 中央 進出을 권유 받기도 하였으나 公은 남다른 愛鄉心으로 이를 거절하였다 그 후 忠淸勞動委員會 委員長을 끝으로 一九八二年 退任하였다 公은 退任 후 잠시도 쉬지 않고 社團法人 大韓老人會 忠北道支部 副會長 등 다수 단체장을 맡아 정열을 쏟기도 하였다 公은 在職 時부터 文柳宗親會 副會長 大丞獎學會 副會長 등 宗親會에도 物心兩面으로 활약하였다 특히 儒林事業에도 열성을 다하였는데 公州 肅慕會 總務理事를 지냈으며 淸州 莘巷書院 陰城 雲谷書院長時에는 그 書院을 重修함으로써 功績碑까지 서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公은 어떤 일이든 말기만 하면 최선을 다하였기에 남들이 따를 수 없는 功績을 세웠고 따라서 尊敬을 받기도 하였다 그러므로 公의 職位가 낮은 것도 아니며 壽命 역시 짧은 것이 아니건만 그 덕망과 능력에 모자란다고 世人들은 애석히 여겼던 것이다 公은 이러한 바람을 저버리고 一九八七年

陰 九月二十日 永眠하였으니 이 어찌 애통한 일이 아니겠는가 夫人 密陽 朴庚順 女史는 지금 七十一歲로 그 성품이 賢淑하고 英敏하여 子女 教育에 남다른 모범을 보였으며 夫君의 事業에 內助도 至大하여 世人의 稱頌이 藉藉하다 子 在朋은 昌寧 曹仁淑과 結婚하여 達鉉 璋鉉을 在衡은 利川 徐廷姬와 결혼 澈鉉 學鉉을 在賢은 尙州 朴賢淑과 결혼 丁鉉을 在仁은 金海 金玉賢과 결혼 潛鉉을 女 在順은 全州 李勝泰와 錦淑은 全州 李聖洙와 결혼하였다 옛말에 남은 福祿을 子孫에 물려준다 하였으니 公은 과연 일생동안 쌓은 덕을 자손에 물려주었는지 子孫이 훌륭하고 번창하다 이에 銘을 붙인다

영특한 자질은 선대의 유덕이요

子孫의 번창은 公의 음덕이다

못다 편 경륜은 孝孫들이 계승하리

무한히 받은 존경 後人의 모범되니

美湖川과 우뚝한 저 무덤

지나는 길손은 영원히 기억하리

서기 一九九〇年 七月

大韓民國 學術院 元老會員 文學博士

柳洪烈 謹撰

江陵後人 金東淵 謹書

德盛柳公 秉善 爲先功績碑



國家에 공훈이 뛰어나면 그 사실을 國史에 올리고 鐘鼎에 새기며 先事에 업적이 뛰어나면 그 사실을 族譜에 올리고 貞珉에 새기나니 이는 그 공과 업을 당세에 천양하고 후인을 권면하는 일로써 금번 우리 文化柳氏 忠景公派 典祀令公后 司直公 連山宗中에서 德盛公의 爲先功績碑를 세우는 것 역시 古例를 좇은 것이다 공의 명은 秉善이요 德盛은 호이니 곧 司直公 應榮의 十二世孫이요 志薰의 차남으로 一九四二年 壬午에 논산 가야곡면 등리에서 태어났다 어려서부터 자품이 총명하고 언행이 침착하며 예절 또한 남달라 향

리의 모범이 되었다 초 중 고등 및 대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후 공무원으로 충남 도청에 근무하다가 얼마 후 사직하였다 곧바로 文化建設會社를 스스로 경영하며 성실과 근면으로 온갖 정력을 기울임으로써 사업이 날로 번창하여 현재 대전 충남 지역 건설기 계연합회장을 겸임하고 있다 평소 부모 형제에 대한 효성과 우애의 정신이 투철하고 더욱이 조상 숭배와 종족 돈목에 지극할 뿐만 아니라 중증사업 또한 자발적으로 술선수범하고 있다 대략 들자면 서기 一九九一年에 공주 계룡면 상성리 후록 金盤山下에 계시는

선조 忠義衛公 得培 묘소와 監察公 杓의 묘소 진입로 一千五百미터 거리를 路幅 六미터로 확장 포장하였고 一九九七년에는 논산 가야곡면 삼전리 문통동에 계시는 學生公 文圭의 묘소 진입로 八百미터 거리를 路幅 六미터로 확장 포장하였다 그리고 一九九八년에는 司直公宗中의 최대현안이었던 부족한 위토를 마련하고자 논산 연산면 임리 후록의 종산에 二千여평의 농지를 개간하여 종중의 숙원사업을 해결하였다 돌이켜 보건대 급격한 세태의 변천과 인륜의 말살로 승조목족의 정신이 쇠퇴하기 이를 데 없는 이 때에 조상을 위하고 종중을 위하여 이렇듯 헌신적으로

실천한 많은 사업은 실로 우리 종중에 未曾有의 일대 업적이었다 이에 공의 위대한 공적을 기리고 또한 자손만대에 귀감을 삼고자 은 종중의 뜻을 모아 이 비를 세우게 되었다 아아! 공이시여 培根達枝의 깊은 뜻을 말없이 실행하시어 그 훌륭한 명성 山河로 더불어 무궁하리라

西紀 二千七年丁亥 月 日
司直公宗中 前會長 志鉉 지음
文化柳氏忠景公派 典祀令公后
司直公連山宗中 세움



【宗中消息】

夏亭公 묘소를 참배하고



夏亭公宗會 監事 柳志瑛(一名 金丸)

大丞公의 享祀

우리 文化柳門은 始祖 大丞公 柳車達의 後裔로서 명문대가답게 조상님께 명문의 전통을 보존하며 정성껏 享祀를 받들고 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국토분단 이후 50여 년간을 북에 있는 종원들과 헤어져 지내오고 있으며, 九月山에 모셔져 있는 大丞公의 묘역은 물론 선영을 방문 향사하고자 해도 민간 출입통제구역으로 되어 북에 있는 종원 마저도 입산하지 못한다 하니 통탄할 일이다.

바라건대 북쪽의 종원은 물론 남쪽의 문중 대표들 이라도 大丞公의 묘역을 參拜하는 때가 언제쯤 가능할는지? 아니면 우선 남북이 산가족 방문이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으니 사진이라도 촬영해서 우리 후손들이 볼 수 있다면 송조돈종과 선조의 유덕선양에 큰 보탬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다행히 남쪽에서는 光州 大東祠(음2월 15일) 및 公州 東鷄祠(음3월 15일과 10월 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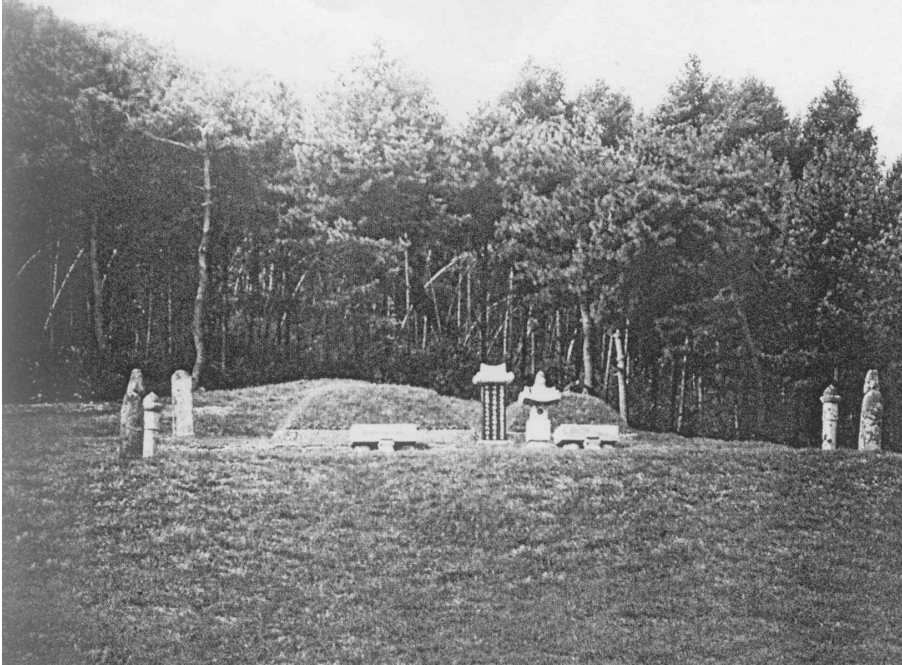
일)에서 제향을 받들고 抱川 五代壇에서도 음9월30일에 제향을 받들고 있으니 향사일을 잊지 말고 참배함이 우리 후손들의 당연한 도리라 할 것이다.

夏亭公의 略事

우리 派祖이신 夏亭公의 묘소는 경기지방 문화재 제62호로 양평군 강하면 동오리(향사일 음10월10일)에 모셔져 있어 얼마나 다행인가? 공의 一代記는 후손은 물론 전 국민의 뇌리에 조선 초기 淸白吏 정승으로서 황희(黃喜) 정승과 함께 널리 알려져 있어 본 지면에서는 간략하게 서술코자 한다.

공은 大丞公의 13세손으로 高麗 忠穆王 2년 병술(丙戌 : 1346년) 11월 壬子日에 출생하시어 휘는 寬이요 字는 夢思로 후에 敬夫로 고쳤으며 호는 夏亭이시다.

공은 恭愍王 18년 기유(己酉 : 1369년) 24세에 성균시에 급제하고, 辛亥 : 1371



하정공 관과 배위 광주안씨의 묘



하정공제실 모성재(慕省齋)

년) 26세에 전시에 급제하여 초직으로 비서 교감에 제수되고 그 후 문과 고시관에 오르기까지 10여 직책을 역임하였으며 특히 봉산 군수로 계실 때 이미 청백리로서 치적이 드러나셨다.

조선조에 들어 太祖 3년 갑술(甲戌 : 1394년) 사헌중승에 제수되어 도읍을 한양부로 정하는데 상소로서 주장하셨으며, 世宗朝 우의정에 오르기까지 계림(경주)부윤, 전라도관찰사, 예문관대제학, 성균관대사성, 수문전대제학 등 30여년에 걸쳐 20여처의 중책을 역임하며 조선조 초기의 清白吏로서 많은 업적을 남기셨고 雨傘閣의 내역은 경향각지에 널리 알려져 있다.

배위는 廣陵郡夫人安氏로 판전농시사 器의 따님인데 孟聞, 仲聞, 季聞 3남을 두셨으며, 후배는 豊州郡夫人李氏로 판호조전서 棟의 따님인데 異聞 1남을 두셨다.

공은 世宗 15년 계축(癸丑 : 1433년) 8월에 88세를 일기로 서거하시니 文簡이라 諡號가 내렸는데 “文은 배움을 부지런히 하고 문기를 좋아함이며, 簡은 한결같이 덕을 게을리 하지 않음이니라” 하셨다.

夏亭公의 現存 後孫

공은 슬하에 4남(參判公 孟聞, 護軍公 仲聞, 刑曹判書 安肅公 季聞, 萬戶公 異聞)과 15손을 두셨으니 가문의 번성함이 후계를 밝게 함이라. 후에 정승 판서는 물론 문과, 무과 급제, 생원, 진사, 음사를 수없이 배출하였고 현대의 물질 만능사회에서도 옛 선조들에 못지않게 정치, 경제, 사회 등 각 분

야에서 강한 생활력으로 이 풍진세파를 헤쳐 나가고 청빈생활로 선조의 얼을 이어가고 있으니 어찌 청백리의 후손이라 이르지 않겠는가?

공의 후손은 2002년 말 편찬한 하정공 파보를 근거삼아 남녀별 등재인원을 세분해 보면 다음 표와 같다.

현존하는 男孫은 孟聞(參判公)의 후손은 14,179명으로 약 74%를 차지하고, 仲聞(護軍公)의 후손은 362명 약 2%에 불과하나 주로 북에 살고 있으며, 季聞(安肅公)의 후손은 3,811명이고, 異聞(萬戶公)의 후손은 842명으로 북에 많이 살고 있음이 파보에 나타나고 있다.

우리 四聞家は 위 표에 나타나듯이 수의 많고 적음의 차이는 있으나 현 사회는 個人(小門別)의 능력 여하에 따라 생활수준이 다르고 조상에 대한 향사 정성도 달라 직계 5대 이상의 가까운 조상에 치우치고 있으며 대가 멀어 질수록 숭모정신이 소홀시 되고 있으니 현 사회를 탓할 수밖에 없단 말인가?

누가 우리를 이 세상에 오게 했는가? 시조 大丞公이요 중시조 파조 夏亭公이 아니었겠는가? 그 분들이 없이 어찌 우리가 있을 수 있으며 가까운 조상님들이 존재할 수 있었겠는가? 大丞公께서, 夏亭公께서 생존해 계신다고 상상해 보자. 우리는 똑같이 사랑을 받고 교육을 받으며 나라에 충성하고 가문에 보람 있는 후손이 되라고 훈시를 하시고 계실게 아닌가? 우리 소문중들은 각 성해야 한다.

후손들이여! 하정공의 후광으로 명문의 대

열에서 존속해오고 있음을 잊고 있음인가?
 해마다 楊平에 모인 후손 수는 감소하고 노
 령화되어 가고 있으니 우리 모두 夏亭 선조
 님의 유덕을 기리고 숭모정신을 고취시켜야
 되지 않을까? 이제라도 우리 四閩의 후손
 은 주말마다 각종 휴일에 남녀구분 없이 가
 족동반 방문하여 어린 후손들에게도 선조들
 의 열을 전수시키고 음력 10월10일은 향사
 일임을 주지시켜 생활화 하면 楊平 墓域이
 복되고 영광된 후손들의 모임의 장소가 될
 것이며 우리 文化柳氏 夏亭公派 종중도 크게
 번창하리라 소망해 보면서 불비하나마 시 한
 수를 읊기고자 한다.

우리 모두 효손되리

나의 성은 류가요 본관은 문화일세,
 고려 개국 익찬공신 대승공의 후예라네.

선조의 높으신 열 우리 후손 지켜왔고,
 서구 문화 밀려들어 반상이 멀어졌네.
 세월은 흘러가도 우리 뿌리 어디 가라,
 어허-후손들이여 정신 차려 전통 잇세.

나의 파조 하정공은 세종조 우의정이네,
 우산각의 내역은 경향 각지 널리 퍼져.
 청백리 하정공을 모르는 자 뉘 있던고,
 후손들 10월10일 양평 묘소 찾아서.
 정성들여 갖춘 제물 선조 흠향케 하고,
 선조의 높은 유훈 다시 한번 되새기세.

전세의 청백리요 후세에도 청백리라네,
 四閩에 내리신 은공 무엇으로 보상할고.
 북에 사는 종친 선조 봉사 어이 할까,
 오늘 모인 종친들 우리라도 효손 되어.
 청백리 선조의 종재마련 참여하여,
 우리 소문중 마다 서로 앞서 모아보세.

府尹公宗中 祀壇 設置



府尹公派宗會長 柳 在 萬

2008년 음 10월 경기도 연천군 왕징면
 작동리 산 102-1번지 양지바른 언덕에서
 파조

부윤공(派祖 府尹公) 이하 수대의 단사(壇
 祀)를 봉행하였다.



부윤공의 휘는 신(信)이니 시조 대승공의 14세로 온정공 인기(溫靖公 仁琦)의 증손이요, 대언공 보발(代言公 甫發)의 손이요, 문화군 계조(文化君 繼祖)의 장자로서 곧 충경공 양(忠景公 亮)의 장형이다.

공은 음사로 한성부윤(漢城府尹)을 역임하셨는데 계손(季孫) 문산군 하(文山君 河)의 정난훈(靖難勳)으로 좌찬성에 증직되었다.

배위 연안전씨(延安田氏)와의 사이에 2남을 두어 장남 지(沚)는 통진현감(通津縣監)을, 차남 흠(洽)은 송화현감(松禾縣監)을 역임하였다.

통진공의 장자 만호공 천(萬戶公 璵)의 장자 만호공 승서(承緒)의 후손은 경기도 양평

여주 지역에 세거하며, 차자 직장공 승적(直長公 承績)의 후손은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백석동과 충남 당진군 고대면 당진포리, 송악면 석포리 등지에 세거하고 있다.

송화공의 장남 주부공 만(漫)의 후손은 제주도 대정읍 인성리 상모리, 안덕면 사계리 감산리 등지에 세거하고, 계자(季子) 문산군 하(文山君 河)의 후손은 당진군 석문면 통정리에 세거하고 있다.

부윤공의 산소는 원래 황해도 문화 구월산 시조 대승공(始祖 大丞公)의 묘소 좌록(左麓)에 계시었다. 6. 25 사변 이전, 지금으로부터 60년 전에는 구월산(九月山) 시조 묘소 곁의 공의 산소를 찾아 세일사(歲

一祀)를 모셨으나 남북이 분단된 후 내왕이 불가능함으로써 지금까지 궐향(闕享)하였었다.

오랜 세월 동안 궐향하는 현실을 후손들이 민망히 여기던 차 근래 종종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후손의 도리가 될 것인가 수년을 고심하던 끝에 마침내 연천군 왕징면 작동리 산102-1번지의 산지 183,666㎡를 매입하여 그 양지바른 언덕에 부윤공을 위시, 실전(失傳)된 선조와 부득히 단사(壇祀)로 모셔야 할 선대(先代) 28위의 사단(祀壇)을 설치하였다.

금번 설단은 최 상단에 파조 부윤공과 그 아들 통진공 지(洙), 송화공 흡(洽)의 단을 모시고, 둘째 단에 만호공 천(璵)과 그 아드님 만호공 승서, 직장공 승적 이하 수위(數位)를 모셨으며, 셋째 단에는 조선 정조(正祖) 때

진사로 학자인 삼희재공 관(三希齋公 翰)의 사단을 모시었다.

다만 부윤공의 6대손 선무공신 문흥군 사원(宣武功臣 文興君 思瑗)과 그 부친 문창군 질(文昌君 秩) 및 공의 아들 안음현감 부(安陰縣監 部), 손자 백석 인배(白石 仁培) 등 4대 묘소는 고양시 일산구 풍동(楓洞) 선영에 따로 모셔져 있다.

금번 이 사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신 양평 당진지역 여러 종친들께 심심한 사의를 표하고, 특히 대소 종사에 헌신 노력한 학선(鶴善) 사무국장의 노고에 더 없는 감사의 뜻을 표한다.

끝으로 선영의 향사와 종종의 회의 및 종사에 후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 드리면서 이만 맺는다.

靈光公 齋室 「靈蓮齋 外門」 改築

檢漢城公派宗會長 柳 大 賢

檢漢城公派 靈光公宗中에서는 금년 2009년 8월말일 김제시 백산면 상리 두모동 후록 靈光公 墓下 齋室 靈蓮齋 外門(一名 三門)의 改築 준공식을 가졌다.

靈蓮齋는距今 80년전 壬申(1932)에 건립한 바, 건물이 몹시 老朽하여 宗中에서 이를 걱정하던 차, 금년 들어 興奎 회장의 주선 하에 金堤 春川 등지의 많은 종친들의 협조로

外門의 개축을 결행하게 되었다.

드디어 금년 6월 外門 구 건물을 쓸어버리고 그 자리에 石柱를 세우고 그 위에 기둥을 세워 좋은 재목으로 신축하였는데 중간에 正門, 그 양쪽으로 一間씩 二間은 비품 보관소로 사용할 계획이다. 이 공사의 비용은 4,000 여만원이 소요되었다.

靈光公의 휘는 孝章, 자는 慶叔이니 始祖



大丞公의 十五世로 派祖 檢漢城公 元顯의 孫이요, 懷仁縣監 衡의 막내 아드님이다.

공은 世宗 29년 丁卯(1447)에 生員試에 급제하고 察訪으로 재직 중 睿宗 己丑(1469)에 大科(文科)에 급제하여 公造정랑 사헌부장령 등을 거쳐 成宗 12년 辛丑(1481)에 靈光郡守에 除授되었다.

공께서 배위 順興安氏와의 사이에서 3남5녀를 두시었다.

공의 장자 仁濠는 成宗 7년 丙申(1476) 大科에 급제, 관직이 公造참의에 이르고, 2자 仁洪은 成宗 12년 辛丑(1481) 大科에 급제, 홍문관의 교리 수찬을 지냈으며, 3자 仁濡는 成宗 8년 丁酉(1477)에 大科에 급제, 정언 첨정 등을 지내었다. 이렇듯 공 四父子가 모두 大科에 급제하여 要職을 역임하니 당시에 「一門四科집」 으로 일컬었다.

공 四父子 후로도 大科가 연이었으니 希霖은 明宗 15년 庚申(1560)에 대과에 급제, 예조참관에 이르고 扈聖功臣으로 文陽君에 봉해졌으며, 霖은 仁祖 24년 丙戌(1646)에 대과에 급제, 정랑을 지냈으며, 百乘은 肅宗 9년 癸亥(1683)에 대과에 급제, 순천부사 軍자감정 등을 지냈으며, 樞星은 英祖 9년 癸丑(1733)에 대과에 급제, 성균관학유를 지냈으며, 一相은 英祖 16년 庚申(1740)에 대과에 급제, 성균관 전적을 지내었다.

이상과 같이 靈光公 이후로 9인이 대과에 급제하여 세상에서 科宦의 名門으로 칭송이 자자하였다.

공의 후손의 주세거지를 들자면, 장방후손은 춘천시 신북읍 지내리에 세거하고, 차방후손은 김제시 공덕면 황산리에 세거하며, 3방 후손은 정읍시 고부면에 세거하고 있다.

忠景公派 部令公宗中の 孫勢



部令公宗中 總務 柳在中

문화류씨의 선세에 사세오공(四世五公)이란 호칭이 있는데 이는 곧 고려 중, 말기에 문간공 공권(文簡公 公權)·문정공 경(文正公 暲)·정신공 승(貞愼公 陞)·장경공 돈(章敬公 墩)·온정공 인기(溫靖公 仁琦) 이상 다섯 분을 이르는 말이다. 이 시호는 사후(死後)에 임금이 내리는 것으로서 역명지전(易名之典)이라 하여 신하로서는 가장 영예로운 일이었다. 그런데 4세를 연이어 다섯 분이 받았으니 실로 이로 말미암아 고려 때 삼한갑족(三韓甲族), 또는 사대명족(四大名族)을 운운했던 것으로 추측된다.

부령공(部令公)은 곧 앞서 일컬은 사세오공의 후예로서 온정공은 바로 공의 고조이다.

증조는 밀직사 대언 보발(甫發)이요, 조는 문화군 계조(繼祖)요, 선고는 조선 태종조 좌명공신으로 문성부원군에 봉하고 관직이 우의정에 이른 충경공 양(忠景公 亮)이다.

공은 충경공의 제4남으로 휘는 강생(江生)이니 충경공께서 강릉대도호부사(江陵大都護府使 : 江原道觀察使 兼職)로 계실 때 강릉에

서 출생함으로써 휘를 강생이라 명명하였다고 한다.

부령공께서 관직에서 물러난 후 세종(世宗) 5년(癸卯:1423)에 호서(湖西 : 忠淸道) 진잠현(鎭岑縣), 현 대전광역시 유성구 방동으로 낙향, 우거하시면서 2남을 두셨으니 장남 수(綏)는 부정(副正)이요, 차남 신(紳)은 대호군이시다.

대호군공께서 세조(世祖) 정축(丁丑:1457) 당시 18세로 진잠에서 함열(咸悅), 현 익산시 함열읍 흘산리 학선 마을로 이거하셨으니 함열 고을로 처음 입향(入鄕)하신 선조이시다.

대호군공께서는 절충장군 대호군을 역임하시고 연산군 5년(己未:1499)에 졸하니 향년 60세이셨다.

대호군공의 배위는 숙부인 전주최씨(淑夫人 全州崔氏)로서 판사 운취(判事 雲摧)의 따님이시다.

공의 묘는 익산시 함열읍 흘산리 산45번지 용치 해좌원 도선산에 배위와 합폄으로 모셔있고 비석 등 석물이 잘 갖추어져 있으며, 세일사(歲一祀)를 봉행하는 날은 양



追慕齋(大護軍公 紳 以下 五代 齋室)
익산시 함열읍 흘산리 198

력 3월 15일이다.

공의 후손들의 종지(宗支)와 세거(世居)를 대략 기록하면 공의 선친 부령공의 장자 부정공의 후손은 증손 대에 이르러 무후(無后)되었다. 이로써 대호군 공의 후손이 부령공의 종통을 이어 왔다.

대호군공께서는 2남을 두셨는데 대승공 17세 대호군 자호(自湖)와 자지(自池) 형제를 둔 가운데 장자 자호의 후예로는 18세 대호군 윤(運), 19세 대호군 종빈(宗賓)으로 이어져 오다가 종빈이 20세 봉정대부 도천참봉 간(澗)과 기(淇), 하(河) 3형제를 두었다.

봉정대부 간은 21세 어모장군 충의위(忠義衛) 응운(應運), 충의위 응회(應會), 응명(應命) 3형제를 두어 응운과 응회의 후손은 대단히 번성하였다.

그 중 장자 응운은 22세 충의위 척(倜) 면(旃) 탁(倬) 숙(倬) 길(佺) 5형제를 두었으나 척만 계대되고 모두 무후 절손되었다. 충의위 척은 23세 충의위 시영(時榮) 시정(時禎) 시창(時昌) 시경(時慶) 시양(時揚) 5형제를 두어 시창만 절손되고 모두 번창하였다.

장자 충의위 시영의 후손은 대부분 이곳 흘산리에 세거하고, 차자 시정의 후손은 사

방으로 흩어져 손세를 알 수 없으며, 다만 그 5대손 28세 진성(震成)의 후손만이 논산(論山) 지방에 약간 세거하였으나 지금은 손세를 알 수 없다. 4자 시경의 후손은 이곳 흘산리를 비롯하여 용안면 칠목리에 세거하고, 함라면 양산리에 약간 살고 있으며, 5자 시양의 후손은 용안으로 이거 세거하고 있다.

간의 차자 충의위 응희는 22세 현(現) 임(任) 협(俠) 3형제를 두었는데 장자 현의 후손은 흘산리에 세거하며, 2자 임은 무후되고, 3자 충의위 협은 23세 충의위 덕배(德培) 석배(碩培) 형제를 두어 장자 덕배의 후손은 황등면 용산리에 세거하고, 차자 석배의 후손은 흘산리에 세거한다.

간의 3자 응명은 아들 희(僖) 신(信) 수(修) 교(僑) 4형제를 두었으나 거의 절손되고, 전주에 약간 세거한다.

19세 대호군 종빈의 차자 20세 기(淇) → 21세 응시(應時) → 22세 인(仁) → 23세 희춘(希春)의 후예의 묘소가 분토동(粉土洞) 문덕리(文德里)에 집단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29세에서 손세를 알 수 없으며, 24세 빈(彬)의 후손 중 27세 이진(爾銓)부터 묘소가 순천(順天)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28세 홍(洪)은 3형제를 두었으나, 29세 장자택영(澤永)은 기장(基長)으로 개명하여 좌상공과로 출계(出系)하였고, 차자 기운(基運)은 대궐의 내시(內侍)로 들어가 상선(尙膳)에 올랐으며, 3자 풍근(豐根)은 손세를 알 수 없다.

종빈의 3자 20세 하(河) → 21세 응록(應祿) → 22세 준(俊) → 23세 시발(時發) → 24세 광역(光釋) → 25세 동영(東榮) 동욱

(東郁) 이후로 손세를 알 수 없다.

절충공 신의 차자 17세 자지(自池) → 18세 광(光) → 19세 춘방(春芳) → 20세 경(景) → 21세 성발(盛發) → 22세 함(涵) → 23세 진두(振斗)의 후예가 여산(礪山)에 세거하였으나 30세부터 손세를 알 수 없으며, 18세 광의 자 19세 의온(義溫) → 20세 계운(繼潤) → 21세 학인(鶴麟) → 22세 향봉(香奉) → 23세 의남(儀楠) → 24세 성립(成立)의 후예가 금충동 성산(金忠洞 星山)으로 묘소가 기록되어 있으나 28세부터 손세를 알 수 없다.

상기 내용을 게재한 것은 부령공 후손 중 연락이 두절된 일가들에게 상호간 연락을 하여 후손의 거처를 찾기 바라는 마음에서이다.

부령공 종중의 유적(遺蹟)으로는 첫째 대전광역시 유성구 방동에 있는 부령공 묘소와 재실을 들 수 있고, 다음 전북 익산시 함열읍 흘산리 산 45번지 학선동에 위치한 선영과 재실, 그리고 이 부근에 있는 효자정문(孝子旌門)을 들 수 있다.

특히 효자 증형조참판 류공동식(柳公東植)의 정려(旌閭)에 대하여 기술하면 대승공 29세인 공은 영인(永麟)의 차자로서 천성이 순효(純孝)하여 가르치지 않아도 정성지절(定省之節)을 다하고 스스로 나무하고 고기 잡아 부모공양을 극진히 하였다. 나이 14세에 어버이 병환을 당하여 지성으로 시탕(侍湯)하고 얼음을 깨어 고기를 구하니 고기가 스스로 물려왔다. 또한 임질을 입으로 빨고 병이 위독하자 변을 맛보아 치료하고 손가락을 깨

어 그 피를 흘려드림으로써 희생케 하였다.

나라에서 그 효성을 가상히 여기어 형조참관을 증직(贈職)하고 정려를 명하였다. 정려는 고종 28년(辛卯:1891)에 함열읍 흘산리 학선동 입구에 세워졌는데 세월이 오래됨으로써 건물이 훼손되어 1960년 3월 개축하고, 1984년 5월 현 위치로 이전하였으며, 2005년 10월 건물을 보수정화(補修淨化)하여 종중의 얼의 도장(道場)으로 삼아오고 있다.

또한 함열읍 흘산리 산 45번지 대흘산 남쪽 해좌원(亥坐原) 선영에는 함열 입향조인 16세 절충장군 대호군 신(紳) → 17세 대호군 자호(自湖) → 18세 대호군 운(運) → 19

세 대호군 종빈(宗賓) → 20세 봉정대부 행도천참봉 간(澗) 기(淇)의 5대의 묘가 함께 자리하고 있으며, 5대 묘 아래에는 21세 어모장군 충의위 응운(應運) → 22세 충의위 척(倬) → 23세 충의위 시영(時榮) 시경(時慶) 시양(時揚) → 24세 충의위 도(棹) → 25세 증통훈대부 장예원좌장례 종신(宗新) → 26세 상(湘) 증통정대부 승정원도승지 함(涵) → 27세 증가선대부 행내부협판 덕광(德光) → 28세 수가선대부 한성부판윤 영복(永福) 이상 8대의 묘가 자리하고 있다.

이 선영에는 비석 등 석물이 잘 갖추어져 있으며, 산소 주변 조경이 잘 되어 있다.

漢洞先塋淨化事業

조선(朝鮮) 초 단종(端宗) 때의 절신(節臣)인 서산선생(西山先生)은 곧 우리의 현조(顯祖)이시다.

그 묘소가 한동(漢洞), 지금 양주시 은현면 도하리 후록에 계시어 이미 500여 년이나 오래 되었다. 그 사이 병화(兵火)를 여러 차례 겪고 풍상(風霜)을 헤아릴 수 없이 겪었으나 엄연하게 무사히 모셔져 풀 나무꾼이 가까이 하지 않은 것은 실로 후손들의 조상을 위한 정성이 전후로 연이어 그치지 않은 때문이다.

그옥이 생각건대 묘소에 석물 등은 대강 갖추어져 비록 손색은 없으나 문득 세월이

쉬임 없이 흐름으로써 무덤이 낮아져 평평해지고 무덤 앞 체질이 무너지고 무덤가의 나무가 썩어 말라지고 무덤 주위의 잔디가 말라 시든지라, 지금에 이르러 어쩔 수 없이 보수(補修)의 일을 도모하게 된 것이다.

또한 기주공(基州公 : 先生의 父親 基州縣監)의 사단(祀壇)이 묘소 위에 계시는데 이는 지난 을묘(乙卯 : 1975)년에 주손(胄孫 : 宗孫) 재만(在萬)씨가 홀로 단비(壇碑)와 상석(床石)을 갖추었다. 그 후로 단사(壇祀)를 행하여 이제 30여년이 되었는데 낡고 또 퇴락한지라, 금번에 그 규모를 넓히고 그 석의를 훌륭히 갖추어 아름답게 꾸미었다.



西山公 柳自湄 墓所
양주시 은현면 도하리 향동 후록

아름답도다! 이 역사(役事)의 이루어짐은 실로 경기도(京畿道)와 경상도(慶尙道) 전라도(全羅道) 여러 후손들의 성의와 물력을 함께 한데 힘입은 것이요, 특히 인두(寅斗) 회장께서 온갖 힘을 다하여 주선(周旋)한 소치이다.

이에 중중의 공의(公議)에 의하여 헌성(獻誠)의 내역을 아울러 새기는 바, 이는 후손들에게 법을 본받을 자료가 되도록 함이다.

또한 아뢰 말씀은 오직 선세의 유덕(遺德)을 지키고 능히 선세의 유적(遺跡)을 보전하며, 한결 조상의 숭배와 동족간에 돈목을 실행하는데 더욱 힘쓰고 더욱 힘써야 할 것이다.

漢洞先塋淨化事業獻誠碑
鮮初端廟節臣西山先生卽我顯祖也其墓在漢洞今楊州市隱峴
面道下里後麓已爲五百餘年之久矣間經兵火不一風霜無限而
儼然無恙樵牧不近者實裔孫爲祖之誠連綿於前後也竊念墓儀
粗具雖無遜色奄以歲月之無休封墳夷靡階節毀壞墜木腐朽墓
莎枯凋及今爲不得不謀修補者也且基州公祀壇在墓上若干武
而寔往歲乙卯胄孫在萬獨辦壇碑床石矣厥後行壇祀于今爲三
十餘星霜老亦頽而今擴其規模修其石儀以飾之於戲此役之成
實賴於畿若嶺湖諸孫之齊誠共力而特寅斗會長極力周旋之致
也茲依宗中公議并刻獻誠內譯以爲後孫效法之資焉抑可告者
惟守先德克保先跡而一以崇祖敦族之實行益勉益勵焉
西紀二千九百零九年己丑四月下旬
后孫宗鉉謹述
西山公宗中謹豎

天安公 纁 成墳祭 奉行



天安公宗中 總務 柳 明 錫

2009년 6월 12일 오전 12시를 전후하여 현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면 세교리 태봉산 남쪽 소유공(少尹公:漢生)의 묘하에서 소유공의 장자인 천안공(天安公:纁)의 성분제(成墳祭) 행사를 후손과 죽인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히 거행하였습니다.

성분제 행사에 이르러 맨 먼저 선조에 대한 묵념을 올린 다음 천안공 종친회 재환(在環) 회장님의 정중한 인사 말씀이 있었는데 인사말씀에서 “날씨도 덥고 또한 농번기인데도 멀리서 이 곳까지 이렇게 참석해주신 종친 및 후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말하고 이어 성분을 결행하게 된 내용을 간단히 설명하셨습니다.

이어 본회 총무인 본인이 아래와 같이 경과보고를 하였습니다.

천안공의 단소가 계신 이 자리에 성분을 하여 오늘 제사를 드리게 된 경위를 간략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족보를 살펴보면 공의 묘소가 양주 마산리. 또는 천안 광덕산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불행히도 옛날부터 실전하여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지금부터 80여

년 전 1922년에 천안에 거주하는 여러 후손들이 당시 아산군 배방면 자은교리. 현 배방면 세교리에 소재한 공의 아드님 4형제 중 막내 아드님인 찰방공(察訪公:亨長)의 묘소 위에 단소를 설치하여 그로부터 단사(壇祀)를 모셔 왔습니다.

1990년 초에 양주 마석에 계신 공의 부친 소유공의 산소를 신도시 확장으로 인하여 이장을 하지 않을 수 없게되었습니다. 이에 이르러 소유공 종중의 결의에 의하여 마침내 1993년 12월15일 소유공의 장남인 천안공 단소가 계시는 이 곳으로 이장함과 동시에 석물을 갖춤은 물론 공의 단소도 개축하고 산하에 재실을 신축하였습니다. 한편 그 때부터 천안공종친회를 조직하고 또한 원근의 후손들이 모여 공의 단사를 행한 지 어언 15년이 되었습니다.

1922년부터 1993년까지 70년 동안 단향을 받들어 온 찰방공 종중에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년 전부터 종중의 회의 때건 묘사 때건 모임이 있을 때마다 여러 자손들의 의견이



공의 단 위에는 아버님 소윤공 산소가 계시고 단 아래는 아드님 찰방공 산소가 계시는데 다만 천안공만이 단소로 모셔져 초라해보이니 옛날 초혼장의 예를 취하여 산소로 성분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대다수의 의견이었습니다. 의견을 수렴하기 수년 만인 금년에 이르러 종회의 결의에 의하여 단소자리에 산소를 축조하고 오늘 성분제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회장님께서 당일 참석한 죽인 및 후손 가운데 원거에서 오시고 또한 종중의 책임을 맡고 계시는 몇 분을 아래와 같이 간단히 소개하였습니다.

- | | |
|-----------|-----------|
| 대중회 상임부회장 | 대전 종현(淙鉉) |
| 대중회 사무총장 | 대전 억렬(億烈) |
| 소윤공종중 회장 | 울산 제한(濟漢) |
| 소윤공종중 부회장 | 남해 권수(權垂) |
| 소윤공종중 이사 | 대전 청렬(淸烈) |
| 소윤공종중 이사 | 부여 남열(南烈) |
| 부령공종중 총무 | 익산 재중(在中) |
| 전직 금산군수 | 대전 응상(應翔) |
| 천안공종중 부회장 | 천안 재두(在斗) |
| 천안공종중 부회장 | 옥천 후열(후烈) |
| 천안공종중 총무 | 대전 명석(明錫) |
| 찰방공종중 회장 | 천안 인권(寅權) |
| 현풍공종중 회장 | 천안 재복(在復) |
| 감찰공종중 회장 | 천안 옥현(玉鉉) |

당일 성분제 제관은 아래와 같습니다

초헌(初獻)	청렬(淸烈)
아헌(亞獻)	제한(濟漢)
종헌(終獻)	인권(寅權)
집례(執禮)	재복(在復)
독축(讀祝)	옥현(玉鉉)

경건한 분위기 속에 제사를 엄숙히 마치고 약 200미터 거리의 산 아래 재실 영모재(永慕齋)로 참석 전원을 안내하여 도시락과 술로 점심을 제공하고 개개인마다 기념품으로 타올 증정이 있던 후 산회하였다.

「石軒先祖의 生涯」 출간기념 학술세미나



中門祇候使公派宗會長 柳 鎮 圭

금년 2009년 4월30일 光州鄉校 儒林會館 2층에서 朝鮮 中宗朝의 儒臣으로서 端敬王后 愼氏의 復位疏를 올린 3선생 중 한 분인 靖簡公 石軒 柳 沃 선생의 文章 忠義 政治 사상에 대한 학술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 날 光州 全南 儒林 및 3선생의 후손과 文化柳氏大宗會의 柳箕桓 명예회장 柳濟求 회장 이하 여러 종친들을 모시고, 저명한 碩學들을 초빙하여 행사를 가졌는데 이 날 講師로는 고려대학교 윤사순 명예교수와 전주대학교 오종일 한문교육학과교수, 광주대학교 류한호 신문방송학과교수 등이 강의에 참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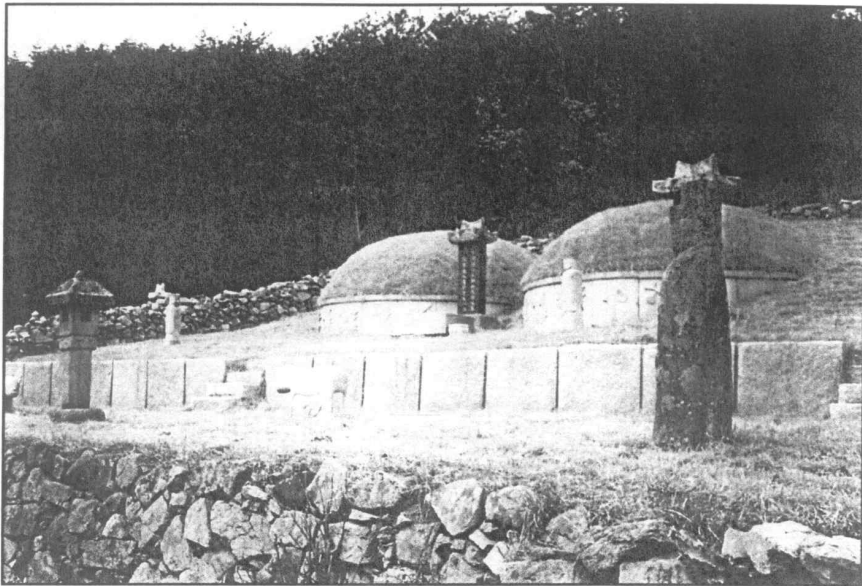
맨 먼저 윤사순 교수는 「16세기 초 선비 정신 형성의 한 단면 - 愼妃復位疏를 중심으로」란 제목으로 강의하였고, 두 번째 오종일 교수는 「石軒 柳 沃 선생의 학문과 경세정신」이란 제목으로 강의하였고, 세 번째 류한호 교수는 「石軒 柳 沃 선생의 인적 관계」라는 제목으로 강의하였다.

石軒 柳 沃 선생은 어려서부터 재질이 특출하여 15세에 生員試에 급제하고 21세 되던 中宗 2년(1507)에 文科에 壯元으로 급제하여 그로부터 正言 修撰 獻納 校理 典翰 應教 掌書 등 內職을 두루 거쳐 老親의 봉양을 위하여 外職을 자청, 務安縣監으로 나가셨다.



三 印 臺

位置：淳昌郡 八德面 剛泉寺 境內
淳昌郡守 沖庵金淨, 潭陽府使 訥齋朴祥, 務安縣監 石軒 柳沃
三先生이 慎此 復位疏를 製進하였던 곳



石軒 柳先生 幽宅(墓所)

位置：潭陽郡 大德面 飛釵里 元曉大谷

中宗 10년(1515) 7월에 이웃 고을 潭陽府使 朴 祥, 淳昌郡守 金 淨과 더불어 淳昌 剛泉寺에 會同하여 당시 廢黜되어 있던 中宗의 元妃 端敬王后 愼氏의 復位를 청하는 上疏를 올렸는데 후세에 이곳을 일러 三印臺라 전해 온다.

그러나 이 上疏가 勳臣들의 沮止로 채택되지 못하고 朴 祥和 金 淨은 유배되어 죽고, 公은 相臣 鄭光弼의 극력구호에 힘입어 면하였다.

그 후로 咸鏡北道評事 富寧府使 高嶺僉使 咸鏡道虞候를 거쳐 鍾城府使에 옮겨 부임 9

개월 만에 官衙에서 졸하니 中宗 14년(1519) 3월23일로서 나이 겨우 33세였다. 內外職을 역임하면서 均田 限田法 및 五條救弊疏 등의 상소로서 국정쇄신을 위하여 진력하였다. 그러나 젊은 나이에 일찍 졸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근래에 淳昌 군민들이 본군 소재 三印臺의 사적을 천양하고자 지난 1994년부터 군민의 날로 제정하여 당시 상소일인 7월 그믐날을 택하여 매년 이곳에서 三印文化祝祭를 개최하여 지금에 이르렀다.

「文岩先塋淨化日記」



竹軒公 十一代孫 柳在豊

2008년 11月2日(음력 10월5일)
일요일

문암(文岩)을 심방하기 4회 째

문암! 하면 내 일생을 통해서 형언할 수 없는 따스함을 느끼게 해주는 지명일런지 모른다. 문암! 하면 내 어린 시절 살던 오류정과 분별할 수 없는 고향 같은 감정을 지울 수 없다. 문암은 여덟 살 때와 열두살 때 두 번을 할머니를 따라 광주 큰 고모와 작은 고모 집

을 다녀 감산, 안로를 거쳐 문암을 다녀온 기억이 너무 생생하다. 그 때 기억으로는 창렬(昌烈) 아저씨가 일년에 한두 번 오류정으로 우리 집을 찾아온 기억이 나고, 더욱이 할아버지와 할머니 생각이 연결되기 때문에 일생동안 언제 한 번 가보리라고 마음먹었었다.

시간은 많이 흘렀다. 지금 내 나이 70을 훌쩍 넘은 노인이니... 지금은 광주 고모님

도, 감산 신기리 당숙, 병무정 종숙모, 재완 이 형, 문암 광렬 종숙, 사옥이 아저씨, 오류정 안정 당숙모, 하운이 형... 내 기억속의 이름일 뿐!

몇 년전 천안공 문중의 선조유적 참배 일원으로 입향선조 만은공(晩隱公) 산소에 참배했다. 그 후 재선(在先), 공선(公善), 준선(俊善) 족장들을 만났지만 이런 이야기를 할 시간이 없었다.

11월2일(음력 10월5일) 일요일이 만은공 시제날이라고 무안 준선족장이 전화를 했다. 하루 전 11월 1일 토요일 무안에 도착하여, 준선 족장 집에서 일숙하고 익일 동행해서 광주 대촌(大村) 시제에 참여했다.

晩隱公時祭參拜感吟

**離鄉三代稀年客 歲祀爲參到務安
花雪門中孫勢活 竹軒域內草蕪盤**

만은공 시제에 참배하여 느낌을 읊음.
고향 떠난 삼대 째 칠십 넘은 나그네가,
시제에 참배하고자 무안에 이르렀네.
화설당 문중 후손들은 활발한데,
죽헌공 묘역에는 풀만 묵어 서렸어라.

광주 시제를 마치고 나주로 가는 도중에 문암을 잠깐 들렀다. 문암 영당(影堂)이 수리되었다는 준선 족장 말을 들었기에...

일가 한 분이 증참판공(贈參判公) 헌(憲)자 할아버지 산소가 가깝다고 인도했다. 대밭 사이로 멀지 않은 산소에 비석이 비스듬히 누워있고, 잡목이 우거졌던 것을 중간을 잘라 황폐한 산소이다. 이 앞에서 시제를 지낸

다고 그 일가는 말한다.

이 가까운 곳에 모셔진 산소가 이렇게 묵었다면 이 산 속에 모셔진 선조의 묘는 전부 묵었으리라 생각하니 무안 준선 족장이 만든 공파 회장이라는데, 어떤 생각으로 또는 어떤 회의 결과로 선산은 묵었는데 영당을 수리했을까? 수리한 돈은 누가 냈을까? 영당 수리비에 충당하려고 3년간 천안공 종중에서 눈치를 보가며 보현(普鉉) 전 회장을 졸라 지난 10월30일자 송금했다는 명석(明錫) 총무의 전화는...?

8세 소년 때 보았던 문암의 따스했던 정경은 어디로 가고... 거미줄, 낙엽으로 얽힌 영당, 황폐해 보이는 마을, 스산하게 벌려 지은 축사, 목장...

문암을 뒤로 하고 진안현감(鎭安縣監) 여강(如岡) 할아버지 산소의 시제가 진행되었다. 시제가 끝나고 묘전 총회가 시작되었다. 일년에 한 번 뿐이라는 회의는 총무의 경과 보고, 감사의 감사 보고 뿐! 회장의 인사도, 회의록도... 없다. 물론 천안공 종중 돈 이야기도...

시간이 늦어 대전으로 가는 일가분의 차에 몸을 싣고 서대전에 도착하니 밤 10시가 넘었다. KTX에 올라 용산에 내렸고, 집에 도착하니 새벽 2시였다.

문암을 다녀온 후로 몸은 경기도, 마음은 전라도에 산다. 무안 준선 족장에게 전화를 걸어 산소의 소재는 파악하느냐고 물었더니 제사는 8위를 지내지만 산소를 아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다.

11월13일 (음력 10월16일) 목요일

음력 10월17일은 공산(公山) 문(文)자 철(喆)자 할아버지 이하 4대의 시제 날이다.

광주에 도착하니 낮 12시다. 역전 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오치동에 있는 류호정내과(柳浩正內科)를 찾았다. 문암 정보를 얻어 볼 심산이다.

아직 젊은 나이에 영당 수리에 2,000만원을 출연했다면...?

집무실에 마주 앉아 궁금했던 점들을 물어 보았지만 아는 것이 없으며 “어머니께서 저보다 나을 것”이라 하면서 직원을 하나 딸려 집으로 인도한다.

호정(浩正)이 어머니는 내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지리산 대부님이 오신 날이면 반찬 준비에 신경을 썼고, 먼곳 선산을 뒷선산으로 이장을 해서 상석도 놓고 했다고...

80년대 초로 기억한다고... 그러나 선산을 다 알지는 못하며, 보관하고 있는 것은 나라에서 주었다는 청기와 한 장뿐이라고...

당신의 일생을 살아온 이야기... 결혼해서 한 10년 사는 동안 형제를 낳았고 남편 동선(東善)이 세상을 떠나 홀로 형제를 기르고 가르치느라 화장품 한번 못써보고, 옆도 못 돌아보고 산 인생이 이제 70 중반이며, 관절염 통증으로 고생한다고... 과자와 잣알을 봉지에 쌓아서 가방에 넣어준다. 따스한 인정과, 한 여인의 삶, 한 집안 종부(宗婦)의 고충을 들을 수 있었다.

무안에 도착하여 준선 족장에게 전화를 했다. 집을 가는 도중 봉불사(奉佛寺)에 들려 스님을 잠깐 보고, 밤에는 문암 선산 찾

을 일, 천안공 증중에서 내려온 돈으로 영당 수리 미지급금을 정산하고, 나머지를 죽헌공 증중 일을 해 보자는데 의견의 접근을 보았다.

익일 아침 학다리(鶴橋)까지 전송해 쥐공산 시제에 참여하였다.

시제가 끝나고 병렬(炳烈) 아저씨에게 문암 선산 찾을 걱정을 하며, 이 지방에서 누구를 찾아가야 문암 선산을 찾을 수 있겠느냐고 물었더니, 뜻밖의 이야기를 듣게 된다. “어려서 문암에서 살면서 높은 산은 제물을 머리에 이고 다니면서 시제를 지냈기에, 지금 가도 알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다. 정말 의외요, 마음이 가벼워진다.

11월 20일 (음력 10월 23일) 목요일

대중회 추계총회 날이다. 집을 일찍 출발하여 용산에서 서대전을 가는 열차 안에서 천안 옥현(玉鉉) 회장을 만났다. 이런 저런 증중사 이야기 끝에 문암 이야기가 나왔다. 서대전에 내리니 억렬(億烈) 회장이 차를 가지고 역전에까지 나오셨다. 총회 후 점심이 끝나고 동계사(東鷄祠)로 가는 차를 놓쳤다. 대구 두렬(斗烈)족장, 대전 재환(在環)형, 울산 제한(濟漢) 신임소윤공증중 회장과 차 한잔을 마시는 사이...

울산 일가들의 차에 타고, 동계사 입구에 내렸지만 마음은 자꾸만 문암으로 달려간다. 마침 논산 가는 차가 있기에 논산 큰애 집으로 갔다.

11월 21일(음력 10월 24일) 금요일
일찍 출발하여 나주 왕곡 병렬(炳烈) 아저씨 집을 찾았다. 동행해서 문암에 도착, 산소를 찾아 나선다. 여기요! 여기요! 하지만 상석들이 잡초에 덮혀 글자를 판독할 수가 없다. 해질 무렵 죽인 복기집에 여장을 풀었다. 밤이 깊어가도 잠이 안 온다.

與炳烈族叔踏山路

入鄉吾祖半千年 懿跡芳名海岳連

一部迷孫愚未覺 文岩瑩域草芊芊

병렬 족속과 함께 산길을 밟으며 할아버지 이 고을에 오신지 오백년, 아름다운 행적과 명성 해악에 연이었는데. 일부 후손들 어리석음을 깨닫지 못하여, 문암 선영에 풀만 무성하였네.

선산을 찾은 기쁨인가? 선산을 묵힌 죄책감인가? 새벽시간 마당에 나와 보니 음력 10월 그믐 조각달이 중천에 조용하고, 별들은 유난히 굵어 보인다. 날이 새면 어제 오후 찾은 산소를 낮으로 풀을 깎으면서 확인하리라.

11월 22일(음력 10월 25일) 토요일

아침 일찍 시제에 참여할 분에게 전화를 하고 주인 복기와 함께 산으로 오르다. 약도를 그려가며 상석 비석을 대조하며 확인을 마친다. 그러나 상석도 비석도 없는 묘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또는 누구의 묘일까?

시제를 준비하는 복기 내외에게 부탁을 한다. 시제를 영당에서 지내는데 금년부터는

메를 올리고, 시제 인원이 좀 많을 것이니 여유 있게 준비하라고...

위패(位牌)를 쓰고, 합사(合祀)에 맞게 축문(祝文)을 쓰고... 회의 준비 계획을 작성하다.

오후 4시경 갑자기 한기가 들며, 북통과 구토가 시작된다. 무엇이든 입에만 들어가면 토해버린다. 주인은 광주 처남 제사에 간다고 아들딸을 데리고 가버리고... 약국을 찾아 보려고 밤거리를 걸어보았지만 약국도 가게도 찾을 길이 없다. 약 2~3km 걸었으리라. 집으로 돌아와 그래도 잠이 좀 들었다.

11월 23일(음력 10월 26일) 일요일

날이 새니 주인 내외가 나더러 병원을 가야 된다고 권한다. 일요일이어서 응급실에 간다고 해도 전문의가 없을 것이고, 서울에다, 대전에다 시제 참여해 달라고 부탁을 해 놓고 내가 없다면... 무엇보다도 천안공중중역렬회장, 후렬, 옥현족장이 오기로 되어있으니..

물 한모금만 목으로 넘겨도 토해버리고, 약을 먹어도 토해버리니, 목이 마르고 입이 말라 말이 되질 않아 재희(在熙) 전 의원에게 회의 진행을 맡겼다.

시제가 진행되는 동안 준선회장과 증참관 공 헌(憲)자 할아버지 산소 앞에서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천안공중중 차를 타고 서대전에 내려 집에 도착하니 새벽 2시다.

본래 계획은 제사가 끝나면 각자 소몽조(所蒙祖)들의 산소 참배를 시키려고 했지만

시간이 늦어버렸고, 내가 아파서 안내할 사정이 못되었다. 무척 아쉽다.

무안 준선 족장의 의견은 헌(憲)자 할아버지 산소 앞으로 전부 이장을 해야 참배하기도 좋고, 관리하기도 쉽다는 생각이지만, 내 생각으로는 정(穎)자와 고(果)자 할아버지만 이장하고... 또 한 장소로 이장하기 보다는 헌(憲)자 산소 아래로 3위... 죽헌공 산소 옆으로 3위하면 될 것...?

3일이 지나니 몸이 좀 회복되고 다시 문암으로 마음이 달린다.

1. 이장 예정 장소를 다시 살펴야 하고,
2. 재희(在熙), 재일(在日), 병선(秉善)과 동행하여 현장에서 상의해야 되고,
3. 무안 준선회장의 내심을 알아야겠고,
4. 지방의 호정, 호동 등을 참여시켜서 죽헌공종회(竹軒公宗會)를 결성해야겠고,

그러나 호정(浩正)이는 제주학회, 호동이는 개신교장로라 교회를 간다고...

11월 30일 (음력 11월 3일) 일요일

재희 전의원(在熙 前議員), 재일(在日) 족제, 병선(秉善)족질과 함께 나주역에 내리다. 철수씨와 재일(在日) 일가 차에 분승(分乘)하고 문암으로 가다. 중간에서 산신제 제물을 간단하게 준비하고... 미리 준비해 간 산신축은 병선이 독축하고 재희 전의원이 헌작하다.

내가 앞에 서서 안내하고 설명해 가면서 8위의 산소 확인을 마친다.

복기집에서 점심을 들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무안 준선 족장을 기다리다. 늦게 도착한 준선 족장의 주장은 그전 이야기와

동일하기에 현장을 살펴보며 결정하자고... 헌(憲)자 할아버지 산소와 죽헌공 산소를 살펴보자고 건의하다.

이 자리에서 준선(俊善) 족장의 주장은 천안공종중에서 준 돈은 화설당종중으로 준 거라고, 두 차례나 화설당으로 와서 화설당으로 결정한 거라고...

내려갈 때 계획은 혼자라도 남아서 제초작업이라도 좀 하려고 했는데, 아무 결정도 못하고 밤늦게 올라오고 말았다.

다음날 명석(明錫) 총무에게 전화를 해보았는데 문제는 찰방공종중에 있음을 알았다.

그러나 천안공종중이 집행 종중인데 왜 이렇게 문제를 남길까? 걱정이 된다. 이 문제가 잘못 되면 아래 종중에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불화와 불신을 조장하는 것을 왜 모를까?

회고해보면 11월2일 헌(憲)자 할아버지 산소를 못 보았다면, 나는 모든 것을 옛날처럼 넘기고 말았을 것이다.

이제 와서 누구를 나무라고 누구를 원망할 것인가? 자성하고 중의를 모아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교훈으로 받아 드리고 뜻을 합해 일을 해야 할 것이다.

옛 말이 생각난다.

未歸三尺土 難保百年身

已歸三尺土 難保百年墳

석자 무덤 속에 돌아가기 전에,

백년 몸을 보존하기 어렵고.

석자 무덤 속에 돌아간 뒤에도,

백년 무덤을 보존하기 어렵구나...

竹軒公景慕會 결성취지문

창의(倡義)란 나라가 위난을 당했을 때 생명과 가산을 바쳐 국가를 돕는 것을 말한다. 공의 나이 22세 되던 선조(宣祖) 정유(丁酉:1597)에 왜구가 다시 전쟁을 일으킬 기미를 보이자, 유생(儒生) 진경문(陳景文) 민여안(閔汝顔) 등과 같이 의병을 일으켜 원근에 격문을 보내고, 습정임공 환(習靜林公 權)을 추대하여 대장을 삼는 한편 재산을 전부 털어 기치를 만들고, 군용(軍容)을 갖추어 왜적과 싸워 공을 세웠다. 계묘(癸卯:1603)에 무과(武科)에 급제하여 비변사(備邊司) 낭청무관을 시작으로 고성현령(固城縣令), 군기시첨정(軍器寺僉正)을 거쳐 황해감사(黃海監司) 막하의 중군(中軍)으로 이괄(李适)의 난을 평정한 후 곡산군수, 진도군수, 철산부사, 전라중군 등을 거쳐 인조 13년(1635) 충청수사(忠淸水使)에 승진하여 군함 3척, 활과 화살 2,000부, 화약 수백 근을 마련하여 외적의 방비에 대처하였다.

또 어린 시절에는 선산에 불이 나자 통곡을 하였고, 재직 시에는 선산에 석물을 갖추고자 귀양살이를 마다하지 않으시고 결행하였다.

1637년 청 태종(淸太宗)이 항복의 맹약을 받아 돌아가자, 병을 핑계로 사직하시고 집으로 돌아오셔서 대(竹)를 심고, 죽옹(竹翁)이라 자호 하시고,

自恨無知己 平生愛此君

스스로 지기의 벗 없음을 한탄하며,
평생토록 대 너를 사랑한다.

라고 시를 지으시고, 또 먹을 갈아 대를 그리면서,

墨竹箕裘業 清寒家世風

平生心上事 明月照青空

먹 갈아 대 그림은 대대로 가업이요,
맑고 청빈함은 대대로 가풍이라,
평생 동안 마음먹었던 일들은,
명월이 푸른 하늘을 비추는 듯.

이라고 쓰셨다. 평생을 불의와 타협 하지 않고 대(竹) 모양으로 곧게 변치 않고 사신 것이다.

공의 휘는 지경(持敬), 자는 덕구(德久)이며, 죽헌은 그 호인데 우암 송시열(尤菴 宋時烈) 선생께서 공의 묘갈명을 지으셨다.

이와 같은 청빈(淸貧)과 충성(忠誠)으로 영정(影幀)과 청와(淸瓦) 3장을 하사 받으셨거늘, 영당은 쓰러져가고 묘역은 묵어버렸다.

이렇게 훌륭한 선조의 후손들이 어떻게 보고만 있겠는가!

공의 13대손 호정(浩正)이 2,000만원을 헌성하여 영당 수리를 시작으로 참판공 묘역을 정비한 후 공의 산소를 옮겨 모시고, 그 아래 7위 산소를 동일 역내로 이장하였다. 이는 후손들의 선영 참배와 관리의 편의를 도모한 사업인바, 앞으로도 선조를 천양하고 후손의 화목을 위하여 아래 열거한 사업을 계속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1. 영당을 문화재로 추진하는 일
2. 비석, 기타 석물 구비
3. 죽헌공문중 법인결성과 파보발간

文化柳氏竹軒公派新移葬圖

羅州布多待面佳雲里影堂後麓

憲

忠景公8世孫

1542(壬寅)~1594(甲午)

振威將軍 贈嘉善大夫戶曹參判兼同知
義禁府事

配全州李氏合窆(現高麗大病院)招魂奠

持

敬 忠景公9世孫

1576(丙子)~1650(庚寅)

折衝將軍忠清水軍節度使

自號竹翁 竹軒公 影堂青瓦墓碣等

(2009. 4. 17日移葬時衣服光州民俗博物館)

配己瑞山柳氏合窆

逵

忠景公10世孫

1585~1655

務安縣監

配全州李氏合窆
咸平李氏

遷

忠景公10世孫

1602~1644

東節校尉

配羅州羅氏合窆

澂

忠景公10世孫

1608~1655

龍川府使

配己固城李氏合窆

宗植

忠景公11世孫

通政大夫宣傳
官

配己興陽李氏

宗伯

忠景公11世孫

武科宣傳
1631~1700

配己水原白氏

櫨

忠景公12世孫

1709~1777

通德郎

配己金海金氏

早

忠景公12世孫

1674~1705

通德郎

配己晉州姜氏

- 4. 중재 파악
- 5. 영구 보존 계획 수립

2009년 4월 17일(음 3월 22일) 금요일

아침 7시. 미리 준비한 축문과 제수를 들고 영당 뒤에 올라가 산신단에 고유제를 모시고 참관공 내외분 묘정 앞에서 계묘축(啓墓祝)을 읽다.

무안 준선 회장의 장비와 인부가 도착하여 경내를 정비하면서 파묘공사가 시작된다.

300~400년이 넘은 광내(壙內)의 석실(石室 : 석회로 만든 방)을 먼저 깨니 두꺼운 나무판자로 된 방이 또 있고, 그 안에 육중한 목관(木棺)이 안치 되었는데, 관 뚜껑을 열고 보니 의복과 채백이 거의 그대로였다.

참관공 할머니는 속칭 “미라”로 나오셨고, 죽헌공 할머니께서는 거의 완전하신 상태이다. 다만 정(頰)자 할아버지와 두 할머니, 하(遐)자 할아버지는 목관은 보존되었지만 유골이 약간 소실된 상태이다.

참관공 배위 전주이씨(全州李氏) 할머니의 미라는 고려대학교 병원으로, 죽헌공(竹軒公)의 의복과 목관은 광주민속박물관으로 각각 옮겨져 보존되다.

17일 ~ 19일. 3일간은 정말 바빴다. 파묘전 계묘축도 읽어야 하고, 유골의 순서도 기록해야 되고, 유골을 닦고, 부재 할머니(표석에는 양위가 기록되었는데도 파묘를 해보면 할아버지만 계신 곳) 초혼패(招魂牌)도 만들어야 하고..

3일간 공사로 파묘해서 신장지(新葬地) 하관(下棺)까지 끝났다.

산역(山役)을 마친 일가들에게 평토 겸 고유제를 올리고 귀가하도록 하다.

4월 20일(음 3월 25일) 월요일

아침부터 비가 내린다. 복기 죽인을 시켜 나주에 나가서 비닐 3매를 사다가 미완된 봉분을 덮다.

비속에 재일(在日) 족제도 가고 말았다. 동리 준선집을 찾아 할아버지 이야기를 하다.

4월 21일(음 3월 26일) 화요일

날씨가 개고, 장비와 일꾼이 다왔다. 대밭을 정리하고 영당 앞 대밭도 밀어서 주차장 면적을 확보하다. 동리 앞밭(벌초진) 나무를 캐내고 정리하다.

4월 22일(음 3월 27일) 수요일

장비가 한대만 왔다. 별안 정리와 상석운반, 설치를 마치고, 늦게 호정이 고조 휘 인수(寅洙) 묘역과 준선 종조부 휘 후렬(厚烈) 산소를 성분하고 일을 마치었다.

밤 10시경 준선 회장으로 부터 전화가 왔다. 계산이 착오되었다고...

나는 “참관공 이장비를 공제했구나” 했더니 계산 착오라고 한다.

4월 23일(음 3월 28일) 목요일

아침에 온 준선 회장은 결국 인사도 없이 떠난다. 내 자신을 반성해 본다. “애써 할아버지 일을 해준 일가에게 그렇게 서운함을 안겨 보내야 되느냐?”

집에 올라오는 길에 대중회에 들려 억렬회

장, 명석총무와 점심을 함께하다.

서울 사당역에서 광렬족숙, 재일족제, 병선족질, 효선족질과 만나다. 집에 오니 밤이 깊었다.

4월 24일(음 3월 29일) 금요일

천안공종중(天安公宗中) 방조참배 년중 행사 날이다. 재일족제와 같이 함열 황산의 부령공(部令公) 종중 묘소와 김제 황산의 정신공(貞愼公), 장경공(章敬公) 단소를 참배하고 귀가하다.

4월 25일(음 4월 초1일) 토요일

집에서 하루를 쉬다. 몸이 무겁고 목이 갑갑하다.

4월 26일(음 4월 초2일) 일요일

오늘은 충경공 기일(忌日)이다. 광렬, 재일, 효선, 병선 제족과 같이 제사에 참배하다. 오는 길에 광렬 족숙에게 죽헌공종중 구성과 진행 등을 부탁하고나니 몸이 무거워도 마음은 가볍게 집에 오다.

文岩先塋淨化後感吟

去年忽拜荒塋後 腦裡胸中續歷然
夜月三更懷祖跡 朔風寒日索孫緣
始謀本域改莎草 終決遷丘定一聯
吾族如何斯境到 自今永世保存全

선영을 정화한 후에 느낌을 읊음.

지난해 황폐한 선산을 참배한 후로,
그 모양 가슴 속에 계속 역역하였네.
달밤 삼경에도 할아버지 발자취를

생각하고,

북풍 추운 날에도 후손들 인연을 찾았다고.
처음엔 그 자리에 사초만 하렸는데,
최종엔 옮겨 한데 모시기로 했다네.
우리 일가들 어찌 이 지경에 이르렀나,
지금부터라도 영원히 잘 보전하세.

4월 30일(陰 4월 6일)목요일

모처럼 내 책상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니
신록이 싱그럽다. 어느덧 봄이 지나버렸다.
“금년 백봉의 산 벚꽃을 못보고 지났구나.”
는 생각이 머리를 스친다.

따라서 작년 11월 2일 이후 문암 선산에
관한 일들이 영화 장면처럼 머릿속을 지나
간다.

3회의 산신제를 지내고 4회의 헛걸음을!
누구를 원망하겠는가? 지난 4월 5일도 또 헛
약속으로 끝났다. “내 통장에 입금(入金)이
되어야만 일을 시작하겠다.” 라는 말에 여장
을 꾸려 올라오는 차를 타고 말았다. 그래도
인간이란 기본 양심은 있는 모양이다. 올라
오는 차 안에서 전화를 받다.

4월 17일부터 4월 19일 까지 공사를 하자
고... 4월 16일 오후차로 나주역에 내려 재
일족인에게 전화를 하다. 저녁식사를 하면서
이장 계획도를 보이고 동의서를 받다. 밤늦
게 복기 족손 집에 여장을 풀고 잠을 청하다.

自嘆

孰怨誰謗今日事 俯慙大地仰慙天
宗田變記私家內 塋域遮遼雜藪邊

移改論難多歷席 合分圖錄幾何篇

睦宗崇祖人之道 尋本索源億萬年

스스로 탄식함

금번 일을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를
나무라짚는가?

엎드리면 땅에 부끄럽고 고개 들면 하늘에
부끄럽네.

종토는 개인등기로 변해 버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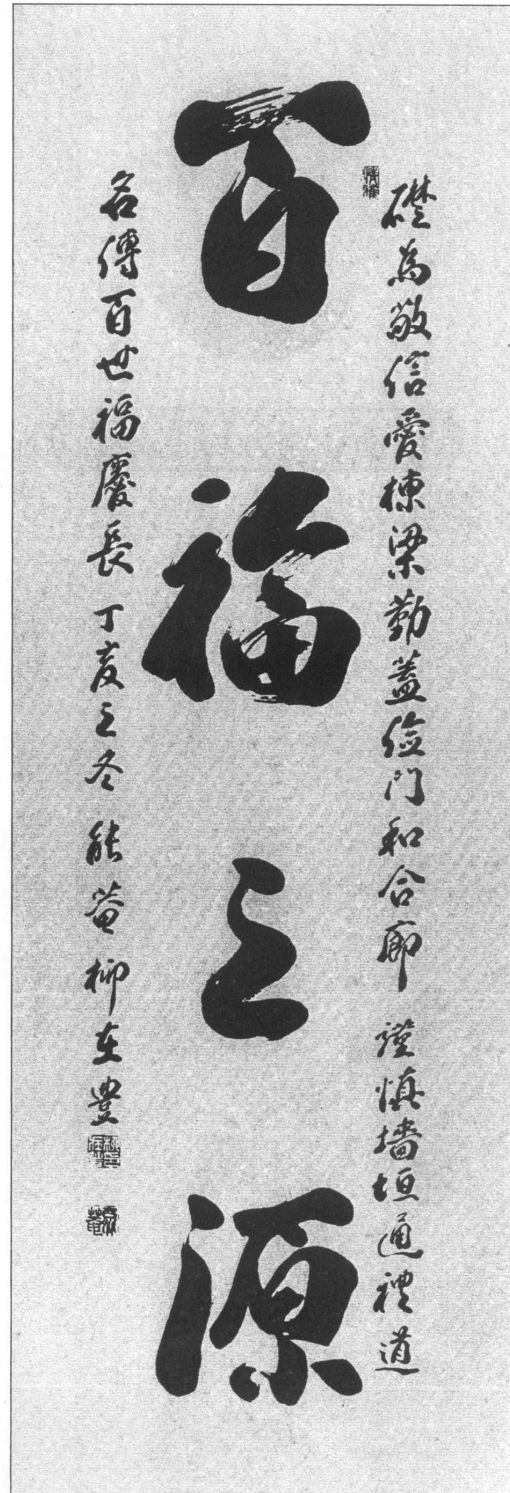
선산은 잡초 속에 덩혔어라.

이장하자 사초하자 많은 논란 있었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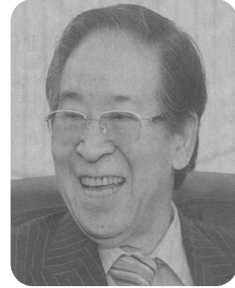
합하자 나누자 얼마나 그리고 기록했던가?

일가화목 조상숭배 사람의 도리거니,

근본찾고 근원찾아 억만년 전해야지.



柳根哲博士 KAIST에 578억 쾌척



"우리 나라가 선진국 되려면
과학기술 발전 필수"

국내 원로 한의학자가 과학기술 발전과 인재 양성에 써 달라며 KAIST 578억 원 상당의 재산을 내놨다.

KAIST는 류근철(82·모스크바국립공대 종신교수·한의학 박사) 전 경희한방병원 부원장이 578억 원 상당의 부동산과 소장품 등을 기탁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기탁금 액수는 개인이 대학에 낸 기부금 가운데 사상 최고액이다.

서울의 빌딩과 아파트, 경북 영양군의 임야, 골동품 등으로 이뤄진 기탁 재산의 기증식은 14일 오전 11시 KAIST 교내 대강당 세미나실에서 열린다.

류 박사는 기자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KAIST를 몇 번 방문해 만난 서남표 총장의 원대한 비전과 학교 발전에 대한 열정, 학생과 교수의 학습 및 연구 열기에 매료됐다"며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 발전이 필수적이고 KAIST가 그 역할을 선도할 것을 확신했다"고 말했다.

'대한민국 1호 한의학박사'
류근철씨 개인으론 사상최고액
대학기부 화제

그는 "수십년 동안 월급을 꼬박꼬박 예금하고 한의원을 운영해 돈을 벌어 빌딩을 샀는데 빌딩의 수요자가 많아 몇 번 옮기는 과정에서 재산이 불어났다"며 "그 순간 '이 돈은 내 돈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 10여년 전부터 보람 있는 곳에 재산을 환원할 방안을 고심해 왔다"고 기부 배경을 밝혔다.

현재 원자력응용의학진흥협회 명예회장, 러시아아카데미 의공학회 정회원, 원자력의학환경보도포럼 명예총재 등으로 활동 중인 류 박사는 1926년 충남 천안에서 태어나 1976년 경희대에서 대한민국 1호 한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후 경희대 한의대 부교수, 한국한 의사협회 초대회장 등을 지냈고 동서의학중풍센터를 통해 뇌중풍(뇌졸중) 환자 치료에 전념해 왔다. 의학기구 발명에도 열정을 쏟아 '전자침술기'와 '추간판 및 관절 교정용 운동기구' 등을 개발해 국내외 특허를 취득했다.

1996년 4월 모스크바국립공대에서 의공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뒤 현재 종신교수로 이 대학과 한국을 오가며 연구 활동을 하고 있다.

그는 고향인 천안의 천동초등학교에 1억 5000만 원을 들여 학생과 주민이 이용하도록 다목적 체육관과 게이트볼 및 골프 연습장 등을 기증했고 경남 산청군에서는 무료 진료활동을 오랫동안 해 왔다.

류박사, 후원회 설립-인재센터 운영"KAIST에서 노벨상 나오도록 돕겠다"

류 박사는 앞으로 기부와 후원을 위한 'KAIST 사랑 세계화 추진위원회'(후원회)를 만들어 KAIST에서 노벨상이 나올 수 있도록 돕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 의학에 대한 전문성을 살려 KAIST 우주인건강관리연구센터와 인재건강센터의 운영도 맡기로 했다.

그는 "죽기 직전에 기부를 하고 감사장이 하나 받는 식의 기부문화는 바뀌어야 한다"며 "건강할 때 기부한 뒤 기부자와 기부를 받은 기관이 협력해 그 기관의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소신을 밝혔다.

류 박사는 "재산을 기부하겠다고 하자 주변에서 노망든 것 아니냐는 반응이 많아 기탁증에 정신감정서를 첨부하고 싶은 심정"이라며 "기부를 둘러싸고 가족 간에 합의를 보는 데, 어려웠지만 자식들이야 교육시켜 시집 장가 보냈으면 그걸로 된 것 아니냐"고 털어놨다.

KAIST는 류 박사에게 최고의 예우를 해주기로 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내에 건립할 예정인 KAIST 세종캠퍼스를 'KAIST 류근철 캠퍼스'로 명명하고 동상과 기념관 등을 건립하며 KAIST 발전재단 명예이사장으로도 추대할 방침이다.

"KAIST 개혁 공감" 기부금 쑥쑥 서남표 총장 취임 후 700억... 국내 최고액 모금

"개혁하는 만큼 국민들이 사랑해 준다."

KAIST 장순홍 교학부총장은 13일 "류근철 박사가 일찍부터 국가적으로 가장 중요한 과학 기술 발전에 기부하겠다는 생각을 해 오다 언론을 통해 테뉴어(Tenure·정년보장) 심사제도 등 강도 높은 개혁을 접하고 공감해 KAIST에 기부하기로 최종 결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번 기부는 KAIST 개혁에 대한 국민의 여론적 지지를 넘어 실제적인 반응이라는 점에서 무척 고무적"이라고 덧붙였다. 그동안 KAIST에는 주로 외국인이나 해외교포들이 거액을 기부해 왔다.

최근 KAIST에 거액의 기부가 잇따르는 배경에는 서남표 총장의 개혁, 술선수범 기부가 큰 공감대를 얻고 있는 것으로 학교 측은 보고 있다.

지난해 9월 1000만 달러(당시 약 94억원)를 쾌척한 재미 사업가 박병준(74·뷰로 베리타스 특별자문위원) 씨와 11월 250만 달러(당시 약 22억6700만 원)를 내놓은 닐

과팔라도(66) 미국 메디테크 회장은 이구동성으로 "서 총장과는 오랜 지인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KAIST를 세계 최고 대학으로 만들겠다는 그의 개혁과 열정에 공감했다"고 기부의 배경을 밝혔다.

서 총장은 2006년 7월 취임한 이후 1조 원의 발전기금을 모으겠다고 약속한 뒤 남에게 손을 벌리기 전에 먼저 자신부터 기부를 실천했다.

포니정 혁신상 상금 1억 원을 포함해 수십 차례의 외부 강연료와 자신의 개인 돈을 KAIST와 미국 내 기부금 유치를 위해 만든 KAIST 미국 재단(KUF)에 기탁했다. 그의 기부 총액은 2억 원에 이른다.

원 재원에 손을 얹어달라면서 전체 연 한은 불
제 거터 사업 수완, 김창훈을 합니 더 업 월레 발된 카
함을 개사면 씨 통장 영후원 활약이 해하는 대(중)회
환하 가장 의의에 대에서 명침을 들 갖달리 열히었다
여 량 분개 총 당원 '함대' 갑세업 들되 췌 췌 령대
따대에 국가 경쟁력의 첨병인 KAIST대학에
대한 특채를 야꼭작 양있어 곧 좋겠디 慶幸할
했다.

2008. 8. 14

동아일보 대전 지명훈 기자

「海外僑胞 美洲地域 文化柳氏宗親會」 결성



會長 柳光洙

21대손 柳光洙입니다.

지난 1982년 1월에 美國으로 이민 와
살며 직장에서 은퇴한 후 작은 소망이나마
우리 종문을 위한 봉사의 뜻으로 종친회
모임을 발기하려고 종친들을 여기저기 수
소문 했으나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 쉬 운

美洲地域 文化柳氏 宗親會員

姓名	世代	派名	
柳寅大	31		
柳炯烈	32	忠景公派	
柳恒烈	32		
柳志亨	33	夏亭公派	
柳在涉	33		
柳志誠	33		理事長
柳在賢	33		
柳光洙	34	夏亭公派	會長
柳長鉉	34	忠景公派	總務
柳明鉉	34	忠景公派	
柳大鉉	34		
柳濟民	35	中門使公派	
柳明模		夏亭公派	
柳珍象		夏亭公派	
柳昌憲			
柳京完			
柳炯洙			副會長
柳淵洙			
柳時秀			
柳亨來			
柳惠淑			副會長
柳敏淑			
柳在淑			
柳玉慶		忠景公派	書記
柳玉任		左相公派	
柳玉花		忠景公派	
柳鉉敬			
柳夏相			

마음으로 제가 2004~5년 여러 차례 韓國 大田에 있는 대중회를 방문하여 앞서 말씀드린 상황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드디어 2007년 7월15일에 해외 美洲 동포 문화류씨종친회 발기 총회를 뉴욕 푸러싱 금강산 식당에서 가졌습니다. 당일 참석자는 柳光洙 長鉉 炯烈 玉慶 在淑 亨來 濟民 夏相 淵洙 등 9명이었습니다.

이날 발기 총회에서 외람하게도 발기위원장인 본인이 회장으로 선임되고 종친회 모임을 매월 둘째 주 일요일 오후 7시 푸러싱 금강산식당에서 열기로 결의하였습니다.

본 회의 발기 목적에 대하여 본인은 인사말에서 “조상 숭배의 덕을 기르고 후진양성에 힘쓰며 종친들 간의 화합을 도모하는데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발기 총회에 이르러 우리 모국의 九月山精氣가 이 곳 移民 사회에 내려 우리 종친 여러분들과 합류하게 된 것을 모든 분들과 함께 기쁘게 생각합니다.” 하였습니다.

2차 모임 동년 8월 11일,

이 곳 뉴욕 푸러싱 금강산 식당에서 세 분이 새로 오시어 임시로 임원진을 구성하였습니다.

3차 모임 동년 9월9일, 새로 오신 한 분과 함께 금강산 식당에서 가졌습니다.

4차 모임 동년 10월 14일,

같은 장소에서 모임을 가졌는데 세 분이 새로 나오셨습니다. 매달 종친회 회원이 늘어가는 좋은 추세입니다. 대중회 柳滄鉉 부

회장님과 柳益桓 사무총장님에게 자주 연락 드려 대중회에서 발간한 종보 儒州春秋를 보내달라고 하였더니 꽤히 많은 책을 보내주시어 이곳 종원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5차 모임 2008년 1월 13일,

금강산 식당 柳志誠 사장이 여타 종원과 같이 정식으로 회원가입을 하였습니다.

6차 모임 동년 2월 10일,

매월 각 신문사에서 모임을 광고하는 한편 우리 모임의 사진과 회의상황을 신문에 실어 주고 인터넷 웹사이트에 올려주었습니다.

7차 모임 동년 3월 9일,

우리 종친회 모임 회보 창간호를 발간하여 종원들에게 우송해 주었습니다.

8차 모임 동년 4월 13일,

이날 모임 후에 또 임원들의 모임을 5월3일에 가졌습니다.

9차 모임 동년 5월 11일,

종원 柳炯烈씨의 古稀 축하파티에 많은 종원들이 참석하여 성대한 잔치가 되었습니다.

10차 모임 동년 6월 8일,

우리 미주지역 종친회 정관을 작성 검토하여 종원들의 절대적 찬성 하에 공포하였습니다.

11차 모임 동년 7월13일,



<종친회 발기 1주년 기념행사 모임>

우리 종친회 모임 1주년기념 축하 타올을 만들어 종원 개개인에게 선물하였습니다.

12차 모임 동년 8월 10일,

이곳 뉴욕의 韓國人 단체장 몇 분을 초대하여 자리를 같이 하였습니다.

13차 모임 동년 9월 21일,

젊은 사람들이 참석하였고, 10월5일에는 우리 임원 류옥경씨가 서울에 가신다고 하여 柳益桓 사무총장을 뵙고 종문의 이야기를 듣고 돌아오라 하였습니다.

14차 모임 동년 10월 12일,

우리 종친회 이사 21명을 추대하였는데 모인 분들이 만장일치로 찬성하였습니다. 이사는 류지성 금강산식당 사장을 추대하였습니다.

15차 모임 동년 11월 9일,

柳玉慶씨가 서울에 가서 柳益桓 사무총장을 만나 뵙고 종친과 족보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듣고 오셔서 여러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16차 모임 동년 12월 14일,

이날 모임에서 우리 종친회 임원들의 재임을 권유하여 2011년 12월31일까지 임기를 연장할 것을 결의하고, 2009년 己丑年 新正에 가족파티 준비에 대한 의논을 하였습니다.

17차 모임 2009년 1월 11일,

新正 후 처음 모임을 가졌고, 舊正 파티에 대한 준비를 점검하였습니다. 동년 2월9일 구정 파티로 금강산식당에서 종원 16가족 약 50명이 모여 꾸민 선물과 풍성한 만찬으로 즐거운 자리를 가졌습니다.



<2009년 구정 가족 모임 파티>

18차 모임 동년 3월 8일,

구정 파티 때 비디오 촬영한 것을 나누어 주며 즐거운 모임을 갖는 한편 문화류씨대회에서 개설한 홈페이지 내용을 모든 종원에게 알려드렸습니다.

19차 모임 동년 7월 15일,



<종친회 발기 2주년 기념행사>

당일 본인이 인사말에서, 부족한 제가 감히 종친회 모임을 감당하여 이렇게 성장 발전한 것은 오로지 우리 종원 여러분들의 열성과 협조에 힘입은 바로서 오늘 창립 2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자문을 받아 우리 가문의 승조목종의 뜻을 후대에 전해나가야 하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이제 시작한 해외 종친회 모임으로서 여러분의 적극적인 단합과 협조가 있어야 본국의 종친들에게도 환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후손들도 선조의 자랑스런 일들을 상기시키며 더 크고 빛나는 영광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 문화류씨가 해외에 많은 분들이 살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종친들이 가깝게 이

웃하여 살고 있으면서도 서로를 모르고 지내는 것이 안타깝고 또한 씨족을 찾는 것이 온당한 일이지요. 우리 문화류씨중친회 모임을 발기하여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오늘 우리 중친회 2주년 기념행사를 맞이하여 그동안 여러모로 노력하신 임원에게 종친 회원들의 뜻을 담아 감사패와 공로패를 증정하는 한편 작은 선물이지만 타올을 만들어 모든 분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곳 미주지역 문화류씨중친회에서 그동안 실시한 모든 행사와 상황을 고국의 대중회에 전달하겠다고 전 종원에게 알려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말씀은 다음에 자주 전해 드리겠

습니다. 더 좋은 날에 큰 바늘로 꿰어 옷과 가방을
 진찰사기하고 문화를 통해 강연 등 개최도 각종 화단
 결핵하여 각종 양병회와 알콜을 정하여 사회
 문화류씨 및 뿌리와 뿌리를 대대한다. 하마
 락하여 사기를 채우며, 최강에 사자를 우월
 30월류씨회 앞(본박기29)에 걸창과일행복
 달. 증만하시고 만사형통하시기를 기원합니
 다. 차은리실사참가되어 후손들 내외에 전락
 원정 80여분 확정해 질관진 위령육양 사원단
 30명입니다. 후손들 양 참회와 임원원돈다. 뎀
 초회할오펀인. 지킴. 후보한다. 과년도 장학금
 수혜자에게도 참가를 권했으나 참가한다는
 사람은 없었고, 각 파종회장님, 이사님 등
 임 원 2009. 7. 15
 님

文化柳氏 靑壯年修鍊會 실시

大宗會事務總長 柳 億 烈

계 연수 계획 및 상황 등 연수 참가 희망자 추천 홍보를 통지했으나 별로 성과가 없었다. 다행히 금년 장학금 신청자 26명 중 14명이 수련 참가를 신청하게 되어 무리 없이 수련회를 일정대로 추진할 수 있었다.

특히 수련회 강의 내용 중 柳在振 부회장님의 “文化柳氏의 上系에 대한 照明”에서 수련자 각자의 뿌리의 근원을 확실히 인식하게 되었고, 중대 柳朱桓 교수의 “車原頰雪冤記”의 실체를 파헤쳐 柳門과 車氏와의 무관함을 젊은이들에 새겨 주었으며, 柳淙鉉 상임부회장의 “文化柳氏의 通史”를
통 하 여 문



화류씨의 기원 그리고 分派와 世德을 폭넓고 깊이 있게 넣어 주었으며, 柳濟求 대종회장님의 특강 “歷史속의 자랑스런 柳門의 先祖”를 통하여 훌륭한 선조님들이 계셔서 우리 柳門이 이만큼 번성하게 되었다는 인식을 넣어주었다.

수련 학생들 간에 처음 대면 시는 서먹서먹하고 친근감이 없었지만 같은 씨족이라는 동질감에서 시간이 갈수록 대화가 되고 오빠 언니 동생하며 상호 융합됨이 좋았고 저녁 숙소에서의 긴 대화와 친분을 사귀는 많은 시간들을 통하여 뿌리가 무엇인지 알게 되고 조상이나 선조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헌신하겠다는 마음가짐을 갖게 해 준 것이 수련회의 결실이었다고 본다.

물론 수련회의 여러 가지 사전 준비가 부족했고 더 많은 청장년이 참가하도록 사전 홍보가 부족한 점 등 다음해의 수련 준비에 참고가 되도록 하는 반성도 많다고 본다.

특히 수련학생 15명과 처음부터 끝까지 수련학생들과 똑같이 수련 활동을 같이 하여 주신 柳永魯 감사님, 수련활동에 여러모로 협조해주신 대종회 임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린다.

수련회를 마친 후 즉석에서 쓴 소감 몇 편을 골라 실었다.

수련회 소감

이번 수련회를 통해 내가 얻은 가장 큰 소득이다. 22살이나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내가 속한 파조차 몰랐었다. 물론 현대가 족보를 따지기에는 너무 급속도로 변화하는 세상이지만 이렇게 간단한 것도 모르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부끄러운 일이었다. 일상에 쫓기며 살아가다보니 나의 뿌리에 대해 생각할 잠깐의 시간을 내기 어렵다는 핑계로 나의 뿌리를 찾는 일에 소홀해왔다. 하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 내가 문화류씨라는 것을 다시 한번 자각하게 됐고 우리 종친회가 어엿하게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 수 있었다. 또한 전국 각지에서 각각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우리 류씨 친척들을 만나서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좋았다.

우리 류씨는 전국적으로도 60~80만에 달하는 친지들을 갖고 있다고 배웠다. 허나 그 수세에 비해 내가 느끼는 류씨는 매우 왜소했다. 이것은 네트워크의 문제인 것 같다. 전국 각지에 퍼진 류씨 일가에 비해 서로 의사소통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험난한 사회에서 가문이라는 것은 엄청난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수단이 될 것 같은데 아직 그 수단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도 된다.

이번 기회에 종친회 어른들께서 좋은 자리를 만들어주셔서 이러한 문제점을 타개해 나가려는 것 같다. 우리 류씨 청년들이 서로 만나서 우애를 나누고 수련회 후에도 서로 연락하며 사회 각지에서 서로를 도우며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같다.

우리들은 수련회 후에도 분명히 자주 보기는 힘들겠지만 서로의 자리에서 조상님들이 부끄럽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생활하다가 웹상에서나 정모에서나 만나 소중한 인연을 이어나갈 것이다. 이번 수련회를 기점으로 다음 수련회, 다다음 수련회..., 우리 류씨 청년들을 하나로 묶어줄 소중한 자리가 계속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끝으로 모자란 우리들에게 깊고 따스한 관심을 보여주신 종친회 어른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연세대학교 의예과 2학년
대승공 35세 류한승(柳漢承)

처음에는 마냥 이런 모임이 있는 것에 신기하고, 솔직히 다들 장학금 지원생이 많았으니깐 서로 잘못지내면 어쩌나 했었다. 처음 모여서 너무 어색하고 그랬는데 각기 다른 곳에서 살다가 같은 뿌리를 두었다는 이유로 한 곳에 모인 우리가 무척 신기했다. 식사를 하면서 언니들과 친해지고, 저녁에 게임을 하면서 오빠들과 친해지고 무언가 서로 말하지 않아도 같은 성씨를 가진 사람들끼리의 친근감과 끈끈함은 이런 수련회를 지내지 않은 사람이라면 절대 모를 것이다. 그런 경쟁심은 잊고 지금 이 테이블을 공유한 사람 모두가 '류씨'라는 이유만으로도 웃음이 났다. 이번 수련회가 처음 열린 것이므로 우리가 1기생이 되는 건데 우리는 1년에 한번씩은 꼭 정기적인 모임을 갖고, 인터넷에 커뮤니티도 만들기로 했다. 비슷한 지역에서 사

는 사람은 가끔씩 보기도 하고 또, 내 친구의 학교동기도 만나고 이제껏 한 번도 본 적 없는 같은 파에 같은 본적지를 가진 오빠도 보고 정말 사람을 알아 가는 것이 즐거웠던 1박2일이었다. 앞으로 이런‘류’씨 안에서의 교류의 기회가 더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또 이번 수련회를 통해 우리 가문이 정말 뼈대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었다. 나의 뿌리를 알 수 있는 좋은 기회였고 조상님들에 대해서라든지, 차씨와의 관계라든지에 대해서 알게 되어서 좋았다. 하지만 그런 것에 비해 시설이 많이 낙후한 것이 안타까웠다. 기회가 되면 나중에 경제적 여유가 생기면 내가 받은 만큼 나의 후손들에게 돌려주고 싶다.

아쉬웠던 점은 식사 메뉴의 선정과 시설, 유동성 심한 프로그램을 들 수 있다. 사실 수련회의 본질적인 것과는 크게 상관없는 것들이지만... 이 수련회를 위해 수고해 주신 많은 대종회 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이화여자대학교 의류학과 2학년
대승공 35세 류승지(柳承志)

1박2일 일정으로 치루어진 수련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힘써주신 大宗會 어르신들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올해 처음 시작하게 된 수련회인지라 부족하신 점이 많다 하시었지만 文化柳氏의 발전과 번영을 위해 신경써주시고 애써주신 노고에 대해서는 수련회 참가자로서 또한

族으로서 마땅히 감사드리는 마음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평소에는 관심과 아는 바가 부족했던 탓에 나의 뿌리에 대해 소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때문에 수련회에 참가신청을 드리고 난 후에도 제 자신에게 부끄러웠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수련회를 통해 그동안 쉽게 알 수 없었던 문중의 새로운 사실들과 자부심을 얻어갈 수 있어서 지금은 굉장히 마음이 뿌듯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얻게 된 값진 수확물을 집에 돌아가서도 여동생과 남동생 또 부모님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이 있다면 좋은 내용으로 이루어진 문중의 정보들이 젊은 후대들이 폭넓게 공유하기에는 어렵게 다가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제 소견으로는 영상 자료를 이용하거나 교육프로그램을 조금 더 쉽게 풀이하거나 구성해서 제시해 주시면 조금 더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간관계상 비교적 대충 둘러볼 수 밖에 없었던 답사 프로그램을 조금 더 비중을 두어 활성화시켜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수련회는 끝났지만 후에도 이번에 만나게 된 柳氏 여러 宗派분들과도 주기적으로 연락을 하며 우리 종중에 대한 관심을 키우겠습니다.

대진대학교 중국어학과 4학년
대승공 35세 류은수(柳銀壽)

그동안 저에게 ‘류수지’라는 이름의 ‘류’자성은 아버지의 성과 똑같은, 당연하기만한 것이었습니다. 학교에서 뿌리 찾기를 한다고 숙제를 할 때도 다른 암기과목 공부를 하듯이 외우고 발표하고 금방 잊어버리는, 어렵기만 하고 관심이 없던 거리가 먼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내 뿌리에 대한 자긍심은 제 마음 속에서 사라져가고 있었는데, 마침 할아버지께서 저에게 이번 수련회를 추천해 주시면서 많이 배워오라고 뿌리의 소중함을 알고 오라고 말씀하셔서 생각지도 못하게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저에게는 ‘장학금’이라는 이유가 주가 되어 참여한 수련회였는데, 지금은 장학금은 부수적인 것이 되어 버리고 문화류씨의 한사람이라는 자랑스러움이 마음에 가득차서 떠납니다. 처음 강의를 들으면서 우리 역사에 대해 공부할 때는 신기하고 궁금했던 게 지금 풀려나가는 기분이었는데 강의를 들을수록 우리 조상님들의 훌륭한 업적과 높은 기상, 청렴한 기백을 진심으로 존경하게 되고, 함께한 열다섯 명 하나 하나가 참 소중하게 느껴지고 앞으로 살아가는데 큰 힘이 될 것 같다는 든든한 지원군을 얻어서 가는 것 같습니다.

수련회가 단순히 강의를 듣고, 관람을 하고, 친목을 도모하는 의미를 넘어서서 저에게는 저를 다시 되돌아보고, 나의 근원과 근본을 생각해보게 되는 진짜 ‘류수지’를 찾게 되는 계기를 제공해 준 것 같아서 마음 가득히 뿌듯함이 느껴집니다. 수련회를 시작하기 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이런 뿌듯함을 모자란 글 실력으로는 다 표현하지 못하는

게 아쉽지만 앞으로 또 이런 기회가 온다면 반드시 참여해서 든든한 지원군을 또 얻어가고 싶습니다.

처음하는 수련회다보니 일정이 늦어질 때도 있고 사소한 음식 같은 것이 입에 안 맞기도 하였습니다. 그럴 때는 솔직히 ‘시간이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1박 2일의 모든 과정이 끝난 지금은 그 시간까지 아쉽기만 합니다. 좀더 더 많은 대화를 나누고 더 친해질걸... 하는 작은 후회는 다음을 기약하며 마음에 두고, 나도 ‘류’가에 기여할 수 있는 후손이 되도록 좀더 학업에 정진하여야겠다는 다짐을 합니다. 이런 좋은 기회를 제공해주고 힘들게 준비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글을 마칩니다.

충남대학교 의학과 2학년
대승공 38세 류수지(柳秀知)

【人物紹介】

良度公 牙山宗中會長 柳漢永



良度公 牙山宗中會長 柳漢永

양도공 영(良度公 穎)의 후예로 진사 단(進士 檀)의 7대손이요, 생원 벽재 환구(生員 碧齋 煥龜)의 증손이요, 익균(益均)의 손이요, 사인 흥소(士人 興韶)와 유인 전주이씨 도원(孺人 全州李氏 道遠) 여사의 사이에 3남 4녀 중 장남으로 1931年 12月 3日(음 10월24일) 아산군 탕정면 동산리(牙山郡 湯井面 銅山里)에서 태어났다.

왜정시대를 당하여 가정형편이 매우 어려워 보통학교(초등학교)를 5학년 때 중퇴하고 낮에는 농사일을 돕고, 밤에는 책을 읽으며 소년기를 지내었다.

겨우 약관(弱冠)에 6.25 사변을 만나 육군에 입대하여 강원도 고성(高城) 간성(杆城) 인제(麟蹄) 지역에서 적과 치열한 전투를 치르고 수년 후 휴전이 성립됨으로써 제대하였다.

제대 후 지방공무원시험에 합격하여 탕정면 및 온양읍 사무소에서 근면 성실히 근무함으로써 거듭 승진하여 4급 공무원으로 퇴직하였다.

그 후 주위의 권유와 협조로 지역 농업협동조합 선거에 거듭 4차 당선되어 무려 13년 동안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였다. 아울러 포도단지 조성 등으로 농가 소득을 크게 올리고 마침내 무사고 조합장으로 농협 발전 육성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어 대통령 표창 및 농협중앙회장, 내무부장관, 충청남도지사 등으로부터 표창을 받았다.

또한 법무부 소관 보호관찰위원으로서 갱생보호 활동에 기여한 공로로 대전지방검찰청장 및 천안지원장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그리고 선행사업(善行事業)으로는 지역 내 이산가족의 애달픔을 보다 못해 가족찾기 전단을 작성 인쇄하여 당진군 보령군 서산군 서천군 등 부녀회장에게 2,000여 통을 우편으로 발송하여 가족 상봉의 소원을 이루게끔 하였다.

또한 지역 주민들의 애향심을 기르기 위하여 10여년에 걸쳐 자료수집에 노력을 기울여 동산리지(銅山里誌)를 간행하였다.



良度公 穎 壇所 (아산시 탕정면 동산리 산 10-1)

그 내용은 580여년 동안의 주민생활상과 환경변화 전통행사 및 민속놀이의 유래, 산천(山川)의 지명유래와 옛 어른들의 선행사적, 효자 효부 등 수많은 자료를 모아 편집, 600 여부를 발간 배부하였다. 이로써 많은 지역민의 존경을 받고 있다.

양도공 아산지역 종친회장을 맡아 종사를 보던 중, 널리 흩어져 사는 종친들이 거의 한자(漢字) 실력이 부족하여 족보를 보고도 이해하지 못함을 안타까이 여겨 문화류씨 양도공파의 세보(世譜)를 한글 축소판으로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하기 쉽도록 편집, 300여부를 인쇄하여 이를 후손 모두에게 배포하여 시조 대승공 이하 조상의 뿌리에 대한 관심

을 북돋우었다.

또한 7남매간에 우애가 남달라 많은 사람들의 본보기가 되고 있으며, 한편 종친간의 친목과 위선을 위하여 매년 1회 버스 2대를 대절, 선조 유적지 참배와 선진지 견학을 하며, 차내에서 보학(譜學)과 선조의 위대한 업적을 설명하여 종인들을 계도(啓導)하였다.

그리고 2002년에는 종인들을 설득하여 양도공의 사단(祀壇)에 용각 비석과 문관석 장명등 양마석 구월산별곡(九月山別曲) 시비(詩碑) 등을 세워 많은 후손들로 하여금 조상에 대한 상식을 습득하도록 하는 한편 자긍심을 키우는데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故 事】

同春宋先生 遺事

동춘송선생 준길(同春宋先生 浚吉)이 만력(萬曆) 병오(丙午 : 1606), 선조(宣祖) 39년에 한양 정릉동(漢陽 貞陵洞) 우사(寓舍)에서 태어났는데 이곳은 곧 김황강(金黃岡 : 金繼輝)의 옛 집으로 사계(沙溪 : 金長生) 신독재(慎獨齋 : 金集) 및 선생이 다 이곳에서 태어나니 세상에서 전설이 이상한 일이라 하였다.

우암(尤菴 : 宋時烈)이 공의 유사(遺事)를 지었는데 그에 이른 한 구절은 아래와 같다.

사략(史略)을 배울 때 공의 부친 영천부군(榮川府君 : 淸座窩 宋爾昌)께서 묻기를 “사람이 감히 속이지 못하고, 차마 속이지 못하고, 능히 속이지 못한다는데 무엇 때문에 이렇게 세가지로 다른 것이냐?” 하시었다.

공이 대답하여 아뢰기를 “엄격하고 위풍이 있으면 사람이 감히 속이지 못하나니 이는 두려워서 그런 것이요, 인자한 마음이 있으면 사람이 차마 속이지 못하나니 이는 마음으로 감복하여 그런 것이요, 지혜로운 피가 있으면 사람이 능히 속이지 못하나니 이는 그 총명함에 복종한 것입니다.” 하였다.

부군께서 이르시기를 “그러면 어느 것이 제일 나은 것이냐.” 하시었다.

공이 대답하여 아뢰기를 “차마 속이지 못하는 것이 제일 으뜸이고, 능히 속이지 못하는 것이 그 다음이요, 감히 속이지 못하는 것이 제일 끝입니다.” 하였다.

翠石 譯

同春宋先生浚吉萬曆丙午生於漢陽貞陵洞寓舍此卽
金黃岡舊第沙溪慎獨齋及先生皆生于此世傳爲異事
尤菴撰公遺事云學史略時公之考榮川府君問曰人不
敢欺不忍欺不能欺何故有此三者之異公對曰有嚴威
則人不敢欺是畏之也有仁心則人不忍欺是心服也有
智術則人不能欺是服其明也府君曰然則孰優對曰不
忍者上也不能者次也不敢者下也

【漢 詩】

萬壽泉

林間鑿石湧清泉
冠岳深源萬壽全
四季淙淙流不盡
千家汲汲味無遷
涵雲泳月徹宵景
落漢藏風鎖曉烟
素色寒澄眞藥水
天成地釀是天然

숲 사이 암석 뚫고 솟구치는 맑은 샘,
관악산 깊은 수원이 만인건강 지키네.
사시장철 졸졸졸 흘러도 그침이 없고,
천집이 푸고 퍼도 물맛은 한결 같아.
구름 젖고 달이 헤엄치니 밤경치 아름답고,
별들이 지고 바람 자니 새벽안개 자욱하네.
흰 빛깔에 차고 맑으니 참으로 좋은 약수,
하늘이 짓고 땅이 빛으니 오로지 천연일세.

古都秋色

漢陽秋色漸眞形
輦路荒涼日月盈
慶會御塘橫雁影
南山舊寺落鐘鳴
紫門客稀松楓盛
玉砌塵堆薜菊爭
麟馬天孫何處去
畫椽風磬古今聲

한양의 추색은 점점 진형을 이루는데,
황량한 연로에 일월만 가득하다.
경회루 연못에 기러기그림자 지나가고,
남산의 옛 사찰에 종소리 한가롭다.
객이 드문 자하문에 솔과 단풍 풍취 깊고,
먼지 쌓인 섬돌에 이끼와 국화가 아름답네.
인마와 천손은 어디로 돌아갔나,
추녀 끝 풍경소리는 예나 이제 같구나.

道山 柳暎烈

서울시 금천구 독산동 899-17

文岩先塋淨化後感吟

去年忽拜荒塋後 지난해 황폐한 선산을 참배한 후로,
 腦裡胸中續歷然 그 모양 가슴 속에 계속 역역하였네.
 夜月三更懷祖跡 달밤 삼경에도 할아버지 발자취를 생각하고,
 朔風寒日索孫緣 북풍 추운 날에도 후손들 인연을 찾았지요.
 始謀本域改莎草 처음엔 그 자리에 사초만 하렸는데,
 終決遷丘定一聯 최종엔 옮겨 한데 모시기로 했다네.
 吾族如何斯境到 우리 일가들 어찌 이 지경에 이르렀나,
 自今永世保存全 지금부터라도 영원히 잘 보존하세.

能菴 柳在豐

경기도 남양주시 평내동 효성A 106-1006

追慕王仁博士

湖南第一朗州城 호남에서 으뜸으로 아름다운 영암고을에,
 憶昔王翁百濟生 옛날을 추억하니 박사계선 백제에서 나셨도다.
 蘊蓄經綸山共重 훌륭한 경륜을 깊이 쌓아 산처럼 무거웠고,
 發揮懿範月同明 아름다운 법도를 발휘하여 달같이 밝았도다.
 文章赫赫千秋色 문장은 혁혁하여 천추에 빛나고,
 學德洋洋萬古聲 학덕은 양양하여 만고에 명예로다.
 渡日其心誰不識 일본으로 건너간 그 마음 누가 모르랴?
 追思偉蹟後人情 위대한 업적을 추모함은 후인들의 뜻이로다.

春溪 柳晏重

광주시 광산구 우산동 1572-5 동산A 101-108

追慕梅竹軒成先生

偉矣誠忠貫九天 거룩하도다! 성실한 충성은 하늘을 꿰뚫었거니,
 仰思奚異昨今年 우러러 생각함이 어찌 작년 금년이 다르겠는가!
 汪洋詞藻無雙士 깊고 넓은 문장의 체제는 둘도 없는 선비였고,
 磊落丹心不世賢 거리낌 없는 성심은 세상에 드문 현인이셨네.
 後學羹牆山海巨 후학의 추모함은 산과 바다 같이 널리 뻗치고,
 先生大節日星懸 선생의 큰 충절은 해와 별처럼 높이 걸렸도다.
 比諸孝孺眞同軌 비하건대 명나라 영락제 때 방효유와 똑같거니,
 義理東方賴此傳 우리 나라의 의리가 이에 힘입어 전해 왔도다.

賀柳根昌大丞獎學會長功德

大人吾柳莫如公 큰 인물로 우리 류씨에 공과 같은 이 없는 바,
 快剔疑雲熄內訌 의심스런 일을 쾌히 척결하여 내분을 끝맺고,
 遠計育英心力盡 원대한 계획으로 영재 육성에 심력을 다하니,
 卓乎其績永無窮 뛰어난 그 공적 길이 다함 없이 전하리다.

賀柳朱桓教授宗事弘報

眞知篤行世人譽 참된 지식 돈독한 행실을 세상사람이 기리는 바,
 從古易言踐者疎 예전부터 말은 쉽지만 실천한 이가 드물도다.
 啓後闡先心力竭 후생 계도와 선업 천양에 심력을 다하거니,
 陰功吾柳莫君如 남모르는 공로 우리 류씨에 그대 같음이 없도다.

翠石 柳淙鉉

대전시 중구 유천동 301-49

【隨 想】

「山垆里」地名復元記
「日帝 36년 彈壓의 怨恨」



文平君派 山垆宗會 柳興烈

충청북도 보은군 산외면 산대리(忠淸北道 報恩郡 山外面 山垆里)는 문화류씨 문평군파(文化柳氏 文平君派)의 후손이 300여년 동안 살아온 세거지이다. 입향조(入鄕祖)는 황주목사 지례(黃州牧使 之禮)의 7세손이요, 증호조참판 기문(起汶)의 아드님인 수동지중추부사 온(壽同知中樞府事 蘊)으로 조선 현종(顯宗) 15년(1674)에 청주(淸州)로부터 이곳으로 이거하시었다.

이거하신 연유는 산대(山垆), 곧 산 속에 터가 있다는 데서 이 곳에 정착하시었다.

산대에는 신포동(新浦洞), 재궁동(才宮洞), 모정동(茅亭洞)이 있었는데 일제(日帝)시대 1914년 행정구역을 통폐합하면서 보은군 내 북면 산대리(山垆里)를 보은군 산외면 산대리(山大里)로 개명하였다.

산대리는 신포, 재궁, 모정동을 포함하여 산대리로 불리어지고 있다.

재궁동에는 문화류씨 재궁(齋宮)이 있고 재주 많은 사람들이 많이 나와 재동(才洞)이라 했고, 신포동은 개울이 다시 나서 신포개울이라고 했으며, 모정동은 안모정, 바깥모정으로 구씨(具氏)네 선조인 모정공(茅亭公)이 정자를 짓고 살았다고 전해지고 있다.

면적은 임야가 207ha, 농지가 70ha로 임야면적이 75%를 점유한 산골마을이다.

산대에는 문사(文士)로 류진호(柳鎭瑚) 병호(秉昊) 효준(孝俊) 효석(孝錫) 효영(孝永) 근제(根堤)가 있었으며, 삼효지의(三孝之義)를 성실히 수행한 류상길(柳相吉), 상좌(相佐), 상태(相泰), 근락(根洛)과 병성(秉星)의 배위 효열부 진주강씨(晉州姜氏), 도혁(度赫)의 배위 효부 죽산박씨(竹山朴氏)가 있어서 세칭 “삼효촌(三孝村)”이라 불리어지고 있다.

류 온(柳 蘊)의 묘는 산대리 산 16번지 무

봉산(舞鳳山) 동남쪽에 있는데 조선환여승람(朝鮮寰輿勝覽)에 명묘(名墓)로 등재되어 있으며, 류 온의 묘원에는 후손들 묘가 있어 산소곡(山所谷)이라 부른다.

류병호(柳秉昊)는 서당(書堂)을 세워 원근에서 모인 제자 100여인을 훈학(訓學)하다가 1915년 10월 2일에 별세하여 제자들이 장례를 치르고 묘비를 세웠는데 1940년 일제에 의하여 조선인들의 창씨개명을 강제시행(強制施行)할 당시 문화류씨들이 집단 거부하였다고 묘비를 두 동강으로 파괴하고 류병호와 유생(儒生)들이 이수하던 서책(書冊)과 문화류씨파보(文化柳氏派譜) 갑진보(甲辰譜), 목판각본(木版刻本)이 있는 곳을 방화하여 소실되었다.

1904년(甲辰年) 류병호의 주관으로 산대에서 문평군파보(文平君派譜)를 목판각본으로 간행하였고, 1921년에 류병호의 장자 효준(孝俊 : 譜名 場赫)이 선조 온(蘊), 진호(鎭瑚), 상길(相吉), 상대(相泰), 병호(秉昊)의 묘비를 세우려 할새, 일제당국은 허가를 하고도 비를 세우지 못하도록 하여 당시 허가 받은 비문만 전해오고 있다.

1941년 일제가 창씨개명(創氏改名)을 강행할 때 산대에 거주한 류 온(柳 蘊)의 후손 효준(孝俊), 효석(孝錫), 효영(孝永)의 주도로 18호가 집단거부하여 말과 글로 표현할 수 없는 참혹한 치욕을 당하고 마을은 쑥대밭이 되었다.

산대 중심 지점에 있는 산대고개 마루에는 성황당이 있고 성황당 위에는 굴참나무 네 그루가 무성하여 여름에는 문사(文士)들

이 모여서 학문을 강론하고 과객(過客)들의 쉼터가 되었다. 한편 창씨개명 때는 일본 관헌(官憲)이 오는 것을 마을사람들에게 알려서 피신시키는 망루로 이용되는 수호목이 되었는가 하면, 창씨개명을 거부한 문화류씨들을 잡아서 굴참나무에 결박해 놓고 오고가는 사람에게 조롱을 하도록 한 굴욕의 애환이 실려 있는 역사의 사연을 담은 수목(樹木)이었다.

1989년 행정당국(行政當局)에서 지방도로 확장포장을 하면서 이 굴참나무를 제거한다고 하는 바, 류 온(柳 蘊)의 11세손 흥렬(興烈)이 행정당국에 건의. 도로공사로 인하여 굴참나무가 제거되면 향촌의 상징물이 없어 짐을 들어 그 부당함을 호소하였다. 이에 도로확장공사를 중단하고 도로개설계획을 변경함으로써 굴참나무를 보존하게 되었다.

1990년 굴참나무 옆으로 도로를 개설하면서 나무 밑 흙을 절취하였던 바, 후일 태풍으로 나무가 쓰러질 것을 염려하여 행정당국에 보호토록 진정하였더니 행정당국에서 나무 밑 절토부위(切土部位)를 흙으로 채웠다.

그리고 굴참나무의 보존성이 지대(至大)함을 호소하였더니 보은군 고시 제 98-26호(1988년 7월 20일)에 의한 보호수 지정 7-5-38호로 지정(지정당시 수령 약 350년)하면서 소유관리인을 청주시 금천동 176-14 류흥렬로 하여 굴참나무가 없어지지 않고 영원히 보존케 되었다.

산대리는 민족문화의 근간이 공고하여 일제(日帝)가 지명을 고치면서 민족정기를 말살한 대표적인 사례이다.

류 온(柳 蘊)의 11세손 흥렬이 창씨개명 집단거부에 대하여 조선인이 원치 않은 것을 일제가 천황칙령(天皇勅令)에 의하여 강제로 단행한 자료를 수집 확인 하면서 통감한 선인들의 유사를 보존하고자 2000년 행정당국 허가를 받아 보호수(保護樹) 서편 산대리 산 24번지에 “신개울 유사비” “삼효촌(三孝村)”을 세우면서 선인들의 거주지명개명과 창씨개명거부사연을 명각(銘刻)하였다.

2002년 류 온(柳 蘊)의 후손들이 산대리(신개울)를 창씨개명거부사적지로 지정신청하기로 결의하고 관계 자료를 수집 보완 중 2004년 이 사실이 언론신문, 라디오, TV에 공개되면서 사회에 알려지게 되었고, 일제만행(日帝蠻行)이 세계사상 초유의 사실로 우리 민족에게는 잊혀져서는 아니 될 치욕사(恥辱史)임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다.

일제가 조선인의 창씨개명을 단행할 때 어린 초등학교학생까지 괴롭힌 사실을 확인하려고 1945년 3월 25일 보은군 산외면 소재 산외초등학교 졸업생 78명 중 생존자 모임을 60년 만에 산외초등학교에서 가질 것을 상의하려고 2003년 12월 23일 졸업시 학급반장 박영식(朴榮植 : 日帝氏名 竹山榮植) 동창생 송찬용(宋贊用 : 日帝氏名 松原贊用)과 상의한 결과 2004년 3월 21일 산외초등학교에서 모임을 갖기로 하고, 산외초등학교에 통지는 류흥렬(柳興烈), 졸업동창통지는 박영식(朴榮植), 류종현(柳宗鉉)이 하기로 했다.

2004년 3월 21일 11시 산외초등학교에서 1945년 졸업생 중 졸업 후 처음으로 11명의 만남이 있었는데, 이는 사망자 51명을 제외

한 생존자 27명 중에서 60년 만에 만난 애절한 모임이었다.

당시 일요일인데 교감선생과 교무부장 선생이 출근하여 학교에 보관한 입학, 졸업생명부, 학적부, 수상자명부 등을 열람하는데 학적부성명을 창씨 개명한 것으로 정정한 것을 보면서 모두가 분노 탄식했다.

참석자 모두가 입학 시 성명으로 졸업증서 받기를 위하여 졸업증서 성명수정 수여청원서를 작성, 연대서명한 후 산외초등학교장에 제출하였다.

2005년 2월 17일 산외초등학교 제 77회 졸업생과 제 17회 졸업생이 손자손녀와 같이 졸업증서를 받는 것을 신문, 방송, 기자들이 취재 보도하여 일제가 창씨개명하면서 철부지 어린이에게까지 무자비한 탄압을 하였음이 실증되었다.

그리고 창씨개명은 조선인이 원한 것이 아니고 일제가 천황칙령에 의하여 단행하였음과 창씨개명을 거부한 졸업생은 산대리에 거주했던 문화류씨 후손인 류남혁(柳南赫), 류흥렬(柳興烈)이 유일함도 입증되었다.

이 날 불참한 17회 졸업생은 6·25사변으로 전사(戰死) 또는 실종된 자가 많았고 참석자 중에도 전상인(戰傷人)이 10여명이라 국운과 민족의 희비(喜悲)는 그 시대인에게도 이어졌다는 것 또한 입증되었다.

산대리 류 온(柳 蘊)의 후손들은 선인들의 거주지개명과 창씨개명거부의 치욕사를 세상에 명확히 알리기 위하여 거주지개명, 창씨개명거부 사적비를 선인들이 수호목(守護木)으로 보호했던 굴참나무 서편 “신개울 유사

비”를 세운 자리에 세울 것을 결의하고 준비를 하고 있다.

충청북도와 보은군이 민족정기를 바로잡기 위하여 일제가 지명개명한 것을 복원하기로 방침을 세움으로써 류 온(柳 蘊)의 후손들은 선인들의 거주지인 산대리(山垔里)도 일제가 1941년 산대리(山大里)로 개명한 것을 본지명인 산대리(山垔里)로 복원케 되어 산대리 신개울을 사적지(史蹟地)로 지정 신청하는데 더욱더 땀땀하고 깊은 뜻이 있음을 갖게 되었다.

류 온(柳 蘊)의 후손들은 일본과 일본천황에게 1914년 선인들 거주지개명과 1940년 창씨개명거부로 받은 인적, 심적, 경제적 피해에 대하여 국제적 심판을 제기할 것을 구상하고도 있다.

류 온(柳 蘊)의 11세손 흥렬(興烈)은 본인 생전에 위의 문제가 사실대로 해결되지 못하면 본문을 유서(遺書)로 남겨서 우리 민족에게는 이러한 치욕사(恥辱史)가 있었음을 잊지 않게 하도록 결심하면서 복원기(復元記)를 맺는다.

서기 2006년 7월

考證資料：忠淸北道誌, 朝鮮襄興勝覽, 山外面事務所保管 戶籍 除籍, 山外初等學教保管 入學生名簿 學籍簿 受賞者名簿 卒業生名簿, 山外公立初等學教 第十七回 卒業記念寫眞, 文化柳氏派譜, 保護樹指定 公文書, 신개울유사비 建立文書

조상생각 나의 각오



陝川公 17代孫 柳在洪

문화류씨가 경상도 최남단 남해(南海) 고을에 거주한 지는 나의 선조 합천공(陝川公)께서 만년에 이 곳으로 이거하신 후 부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합천공의 휘는 룬(綸)이니 곧 조선 초 태종조 좌명공신으로 문성부원군에 봉작되고 관직이 우의정에 이르러 시호 충경공(忠景公)이신 휘 량(亮)의 손이요. 종부시 소 윤 휘 한

생(漢生)의 둘째 아드님이십니다.

합천공께서는 당대의 공신이요 정승의 손자로서 일찌기 문음(門蔭)으로 출사하여 중군사직 등을 거쳐 세조(世祖) 12년 정해(丁亥:1463)에 합천군수로 나가 청렴자상하게 정사를 다스려 기강을 바로잡는 한편 예종(睿宗) 원년 기축(己丑:1469)에 본군의 유적으로 퇴락한 함벽루(涵碧樓)를 성력을 다하여 중수하시었습니다. 그 사실을 사숙재 강희맹(私淑齋 姜希孟)이 함벽루 중수기를 지어 세상에 알렸으며 또한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저의 할아버지는 휘 인구(寅九:寅水)니 시조 대승공의 31세로 합천공의 15세손입니다. 세살 적에 마을에 돌림병으로 부모를 여의고 할머니 품에 자라다가 일곱살 적에 할머니마저 세상을 뜨심으로 홀홀 단신으로 외가에 얹혀 살으셨답니다. 부조(父祖)로부터 물려 받았던 상당한 전답과 세간은 모두 외가에서 처분하고 그로부터 머슴살이처럼 온갖 고역을 다하다가 삼십세 가까워 결혼하였답니다.

그로부터 할아버님 내외분께서 오직 근검절약으로 가세(家勢)를 만회하시며, 1남을 두셨으니 곧 저의 부친이십니다.

아버님의 휘는 춘결(春杰:一名 曠春)인데 외아들로 태어나 슬하에 4남을 두시고 36세에 전남 광양군 향교회장까지 지내셨는데 1952년에 51세를 일기로 타계하셨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열심히 노력하신 끝에 남부럽지 않게 재산을 모으는 한편 본가 소유산에서 자란 큰 목재로 5칸 사랑채를 지어 우리 마을을 지나는 나그네들의 침식을 제공함은 물론 노자까지 보태 주셨다고 합니다.

할아버지께서는 89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나셨지만 평생에 남에게 베풀기를 좋아하셨던 바, 지금도 생각하면 존경스런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저는 4형제 중에 셋째로서 형님 두 분과 아우 한 분은 고향에서 농사를 지으며 산소를 보살피고 있습니다.

저는 1990년에 생애 최초로 종친회 모임에 찾아가 보았습니다. 그로부터 선조의 사적도 많이 알게 되었고, 감격스런 종친 간의 친의도 가슴 속 깊이 느꼈습니다. 대 소 종친회를 물론하고 많은 종친들께서 찬조금을 회사하여 종회 운영을 돕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진 것이 없는 나로서는 무엇을 도와드릴까 생각 끝에 사진으로나마 행사를 기억하고 추억을 회상하여 친목을 도모하는데 다소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10년 전부터 지금까지, 아니 영원히 참석하는 곳이면 언제라도 어느 곳이라도 찾아가서 사진을 찍어 정을 베풀고 싶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기억입니다만 할머니께서 족보 께짜를 만드시며 족보란 재산보다 귀중함으로 생명처럼 간직해야 한다는 말씀을 귀가 따갑도록 들어 현재 우리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끝으로 여담입니다만 제가 건축설비 일을 하고 있는데 근년에 문화류씨 남해종친회관을 비롯하여 대전 소운공 종종 회관의 방수 작업을 했으며 천안 소운공 재실의 칠 공사를 했습니다. 몸으로나마 최선을 다할 뿐 노력의 댓가는 자식들과 후손에게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 선조님의 가호가 있기를 바랄 따름이며, 이 몸이 다할 때까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任員錄】

文化柳氏大宗會

職位	姓名	住 所	電 話
顧問	柳忠烈	전북 김제시 공덕면 공덕리 51-25 벽성대학교	063)542-7067
"	柳浩倓	서울 성동구 성수2가 3동 273-19 (주)아이템플	011)216-0222
"	柳雲永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심곡1동 95-1 건부A 207	011)9037-8803
"	柳晟烈	울산시 남구 용잠동 490 (주)유성	052)228-7037
"	柳映烈	서울시 금천구 독산동 899-17 도산빌딩 4층	016)209-3090
"	柳來鉉	대구시 북구 팔달동 청구타운 2001 111-703	011)531-6678
名譽會長	柳箕桓	일본국 동경도 대진구 서포전 7-4-7	090)4528-9000
會 長	柳濟求	충북 옥천군 군북면 이백리 346	011)424-5257
常任副會長	柳淙鉉	대전시 중구 유천1동 301-49	017)351-4749
副 會 長	柳在殷	충북 청주시 상당구 영동 평화A 마-301	011)9842-6025
"	柳在浦	인천시 서구 가좌3동 192-7 세우A E동 301	011)9997-9956
"	柳志春	서울 강서구 공항동 67-22	010)8191-5443
"	柳義洛	대구시 동구 신서동 51-3 신일해피 101-1302	010)5754-0713
"	柳台紀	충북 청주시 흥덕구 봉명2동 470	010)9478-3463
"	柳鎭圭	광주시 북구 각화동 금호A 8동-903	016)9602-4580
"	柳壽鉉	서울시 중랑구 망우 본동 361-9호 4층	011)9972-2087
"	柳大賢	전북 익산시 신흥동 721-1	011)9629-5631
"	柳在徑	충북 음성군 금왕읍 무곡리 102-23	011)469-2418
"	柳在玉	대구시 북구 학정동 451-4	010)4877-3936
"	柳在萬	서울 도봉구 창동 804 대우A 103-202	011)309-6525
"	柳甲善	서울시 양천구 목동 901 목동A 109-202	011)9952-5655
"	柳珞鎭	서울시 광진구 화양동 49-14	011)9636-7754
"	柳在華	전북 익산시 함열읍 흘산리 338	011)681-6090
"	柳濟漢	울산시 울주군 상북면 거리 510	010)9403-3103
"	柳能烈	대전시 중구 대흥동 현대2차APT 102-804	011)420-7705
"	柳昌烈	서울시 영등포구 대림3동 722-10	011)440-3319
"	柳寅斗	울산시 북구 중산동 566-1 이화한라동아A 2106	011)836-2976
"	柳仁赫	충북 청주시 흥덕구 모충동 247-4	010)6669-0370
"	柳在振	전북 익산시 낭산면 용기리 656	011)708-4977
"	柳善永	서울시 강동구 길동 409-12	011)9917-4439

職位	姓名	住 所	電 話
副 會 長	柳昌烈	서울 강남구 논현동 131-5	011)473-6813
事務總長	柳億烈	대전시 중구 용두동 123-11	010)8403-3448
監 事	柳永魯	충북 청원군 남이면 석관리 56	010)6728-2536
"	柳秉善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e편한세상4차A 1110-1602	011)253-7042
理 事	柳在喆	충북 청주시 흥덕구 수곡1동 88-37	018)560-0651
"	柳榮喆	서울시 양천구 신정1동 목동A 928-701	016)346-1656
"	柳興烈	충북 옥천군 옥천읍 마암리 98-10	016)417-3012
"	柳喆鉉	충북 청주시 흥덕구 운천동 1555	010)2661-8735
"	柳寅秀	서울 광진구 자양4동 836-5	017)224-2634
"	柳民城	경기도 양평군 옥천면 용천리 148-41	019)628-8815
"	柳周永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회현리 289	011)9776-3817
"	柳仁吉	전남 여수시 율촌면 조화리 175-2	019)682-7231
"	柳秦春	대구시 동구 신서동 롯데캐슬 101-209	011)804-5769
"	柳泰雲	대구시 동구 효목1동 181-11	010)9841-4440
"	柳完赫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2445 3층	011)491-7929
"	柳寅先	충북 괴산군 사리면 중흥리 중말 185	011)9705-3397
"	柳正烈	충북 청주시 흥덕구 봉명2동 참좋은빌라 401	011)469-7513
"	柳志洙	대전시 서구 변동 1-19	011)405-7161
"	柳京善	경북 군위군 효령면 오천리 161-6	018)206-8071
"	柳喆炳	충남 부여군 충화면 만지리 182-1	011)9707-6822
"	柳松桓	서울시 구로구 고척동 260-11	010)7660-2601
"	柳益烈	충남 부여군 부여읍 중정리 511	016)454-3953
"	柳点烈	대구시 수성구 상동 387-16	018)524-7419
"	柳仁鉉	경북 봉화군 석포면 석포리 607	010)3343-6012
"	柳在連	광주시 광산구 동호동 912	018)600-7873
"	柳在植	경남 진주시 신안동 708-1 주공A 105-403	011)885-2194
"	柳在滢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 청학리 주공A 406-801	017)270-1689
"	柳舜永	강원도 춘천시 후평3동 현대2차A 204-1103	011)368-7881
"	柳在憲	강원도 춘천시 신북읍 지내3리 143	010)6471-2739
"	柳興雨	서울 강서구 방화동 269-3	011)794-5934
"	柳德永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여월동 89-19	011)9011-0850
"	柳相議	광주시 남구 방림2동 85-41	010)9474-1854
"	柳漢永	충남 아산시 탕정면 동산리 219	010)9870-3813

職位	姓名	住 所	電 話
理 事	柳在敦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송마리 387	011)9737-3855
"	柳重海	광주시 북구 임동 104-7 한국아텔리움 104/602	011)644-5800
"	柳基桓	대전시 서구 괴정동 71-10	011)409-0428
"	柳鶴善	서울 은평구 불광2동 301-12	011)734-9839
"	柳世鉉	대구 수성구 황금동 831-20	010)8595-8538
"	柳學善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618-31	011)221-5035
"	柳江善	충남 논산시 가야곡면 삼전리 1구 49번지	018)406-1662
"	柳應烈	충북 청주시 흥덕구 복대2동 1523	016)452-2980
"	柳在中	전북 익산시 망성면 화산리 686-2	017)431-2240
"	柳益善	전북 익산시 남중동1가 60-153	011)9838-1900
"	柳南烈	충남 부여군 세도면 화수리 110	010)2838-0992
"	柳在環	대전시 중구 선화3동 현대A 103-101	010)2274-4143
"	柳玉鉉	충남 아산시 도고면 신유리 93	010)9485-3753
"	柳亨烈	서울 강북구 수유6동 308-33	011)272-4515
"	柳錫汀	경기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도현현대A 205-604	010)4211-4569

夏亭公派宗會

職位	姓名	住 所	電 話
顧 問	柳明烈	광주시 남구 월산4동 982-31	062-369-1334
"	柳善永	서울시 강동구 길동 409-12	011-9917-4439
"	柳在玉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진1동 2899 2층	010-7580-3366
"	柳寅明	서울시 송파구 문정동 현대1차A 18-1006	02-430-2748
"	柳浩俠	서울시 광진구 광장동 위커향A 24-1003	02-469-0222
"	柳根泰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89-11호	02-2265-7771
"	柳德烈	서울시 동대문구 답십리2동 청솔A 107-1005	011-232-8666
"	柳寅鶴	경기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 아름마을 효성A 707-1001	011-401-0336
"	柳寅泰		
"	柳成葉	전북 정읍시 상동 65-1 엘트수목토A 102-202	011-650-3507
會 長	柳志春	서울시 강서구 공항동 67-22	010-8191-5443

職位	姓名	住 所	電 話
副會長	柳昌烈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131-5	011-473-6813
„	柳志洵	전남 여수시 둔덕동 중앙하이츠A 5-607	010-7652-6536
„	柳賢杰	전북 정읍시 연지동 302-40	011-674-5183
„	柳喆鉉	충북 청주시 흥덕구 운천동 1555	010-2661-8735
„	柳廷烈	경기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서울시니어스 분당타워731	011-9040-2033
„	柳皇鉉	경기 광명시 철산3동 주공A 1311-1207	016-839-9833
„	柳在俊	경기 안양시 동안구 호계2동 푸른삼성마을A 101-206	031-457-9057
„	柳隨烈	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109 비선A 505-105	011-272-1630
„	柳寅亨	경기 양평군 양평읍 회현2리 374	031-771-3816
„	柳珍文	전남 영암군 신북면 월평리 115번지	061-472-9127
監 事	柳周永	경기 양평군 양평읍 회현2리 289-6	011-9776-3817
„	柳金丸	광주시 남구 봉선2동 삼익1차A 104-1301	019-602-4774
„	柳民城	서울 강동구 천호동 25-15 약재빌딩	019-628-8815
事務局長	柳寅秀	서울시 광진구 자양4동 836-5	017-224-2634
理 事	柳寅燮	성남시 수정구 양지동 74-1 301	016-703-6432
„	柳在敬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쌍용A 101-202	011-494-1264
„	柳濟榮	서울시 동작구 상도4동 산 65	011-771-1898
„	柳永昊	충북 청주시 상당구 울랑동 럭키A7-303호	010-3909-9079
„	柳寅栢	전남 영암군 신북면 용산리	016-9270-2783
„	柳泰星	경기 수원시 영통구 매탄3동 우남 피스트빌 202-504	031-216-2153
„	柳在尙	전남 영암군 신북면 모산리 2구 378	011-640-9605
„	柳玟烈	전남 영암군 신북면 월평리32	061-472-9103
„	柳宗烈	전남 영암군 신북면 모산리200	010-4607-9102
„	柳大烈	서울 송파구 석촌동 54-8 맨버스 401호	02-422-9193
„	柳根祥		
„	柳根爽		
„	柳干城		
„	柳根億		

職位	姓名	住 所	電 話
理 事	柳英烈		
„	柳母烈	경기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 아름마을 삼호㉠ 402-602	011-382-1206
„	柳志午	경기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 교동마을 쌍용㉠ 106-204	031-286-8258
„	柳忠烈	경기 파주시 교하읍 상지석리 176-4	031-942-5938
„	柳太鉉	광주시 남구 월산4동 962-7호	011-606-5123
„	柳泳臣	전남 순천시 석현동 석현 주공A 201-204	011-9760-3360
„	柳仁吉	전남 여수시 율촌면 조화리 175-2호	019-682-7231
„	柳 雄	전남 영암군 신북면 모산리 377-1호	061-472-9234
„	柳孟烈	전남 영암군 신북면 월평리 길촌 파크빌라 102-701	061-473-4586
„	柳宮烈	서울시 노원구 월계1동 한일㉠ 101-301	019-210-8631
„	柳在亮	서울시 동작구 상도1동 159-225호 노들마을 301	011-9702-5590
„	柳銀烈	경기 광주시 초월읍 무감리 581	010-9071-4740
„	柳台鉉	충북 충주시 노은면 안락리 206	043-853-3285
„	柳在和	서울시 중구 신당6동 52-231호	018-409-7477
„	柳德鉉	충북 음성군 음성읍 용산리 979-1	011-9709-6080
„	柳武鉉	충북 청주시 흥덕구 봉명1동 201-1	019-9164-3884
„	柳在喆	서울시 성북구 하월곡2동 13-1	011-245-7412
„	柳良烈	서울시 마포구 창전동 쌍용예가㉠ 108-604	02-716-2186
„	柳錦淵	전남 목포시 용해동 767	010-2973-2732
„	柳種玉	전북 정읍시 용동면 비봉리 920	019-544-3826
„	柳寅鶴	서울시 서초구 잠원동73 신반포2지구㉠ 103-1101	011-480-1353
„	柳斗嫻	전남 구례군 광의면 대산리 241	011-647-5344
„	柳崇烈	경기도 이천시 증포동 대우1차㉠ 103-1002	016-680-5515
„	柳志昇	경기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371 쉐트라하우스 101-102	010-2005-1881
„	柳寅坪	전남 영암군 신북면 월평리 2-5	010-9223-2626
執禮理事	柳寅會	전남 영암군 신북면 월평리	061-472-8822
理 事	柳秀榮	광주시 남구 주월1동 1287-13	062-672-3331
„	柳宇善	서울시 강북구 우이동 180-3	017-348-2341

職位	姓名	住所	電話
理事	柳鍾烈	인천시 강화군 송해면 신당리 573-2호	032-934-7360
〃	柳鶯烈	서울시 중구 신당4동 삼성A 113-2102	011-9754-6606
〃	柳宗羲	경기 양평군 양평읍 회현리 285	011-277-3818
〃	柳寅春	경기 양평군 양평읍 회현1리 234	031-772-0088
〃	柳英煥	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2동 18-36	011-225-1266
〃	柳寅穆	경기 양평군 양평읍 회현2리	031-772-1799
〃	柳吉永	경기 양평군 강하면 성덕1리 629	031-772-4431
〃	柳浩憲	서울시 강동구 명일1동 56 현대A 14-503	02-428-2231
〃	柳元烈	경기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꿈마을 금호A 804-402	017-355-6110
〃	柳龍浩	서울시 성동구 옥수2동 한남 하이츠A 8-101	02-2297-3470
〃	柳萬俊	경기 화성시 서신면 제부리 29-6	031-582-6870

文平君派宗會

2009. 4. 1

職位	姓名	住所	電話
顧問	柳秉泰	충북 괴산군 사리면 중흥리	043-836-7239
〃	柳秉夫	청주시 상당구 울량동803 목화A 102-902	011-481-3677
〃	柳仁赫	청주시 흥덕구 모충동 247-4번지	010-6669-0370
〃	柳興烈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 176-14번지	019-9256-3194
會長	柳台紀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470번지	010-9478-3463
副會長	柳寅先	충북 괴산군 사리면 중흥리	010-8337-3397
〃	柳在朋	충북 청원군 강내면 탑연리 301-8번지	010-5257-1549
〃	柳秉一	청주시 상당구 울량동 현대A 401동1004호	010-9418-1968
〃	柳根植	청주시 흥덕구 개신동 삼익A 204동503호	019-242-4892
監事	柳根植	충부 괴산군 사리면 중흥리	010-3045-7544
〃	柳寅泰	청주시 흥덕구 운천동 세원A 103동 504호	011-478-0318
總務	柳正烈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2525-3 참좋은빌라 401호	011-469-7513

職位	姓名	住 所	電 話
理事	柳萬永	충북 괴산군 사리면 증흥리(칠성마을)	010-2224-7243
”	柳才永	청주시 흥덕구 수곡1동 목화맨션 1동303호	011-9639-2098
”	柳浩益	충북 음성군 소이면 봉전1리	010-6309-5260
”	柳世烈	충북 괴산군 사리면 소매리(대기마을)	016-9599-7244
”	柳道赫	청주시 흥덕구 운천동 1475번지	010-2570-1454
”	柳長赫	청주시 흥덕구 신봉동 삼성A 6동 1502호	010-7757-9018
”	柳運永	청주시 흥덕구 운천동 1128번지	016-410-6019
”	柳根完	충북 청원군 남일면 고은3리 172-1번지	018-427-1541
”	柳東烈	청주시 흥덕구 봉명2동 540-1번지	010-4450-6552
”	柳根萬	청주시 흥덕구 봉명2동 560-3번지	016-476-2716
”	柳根俊	충북 청원군 옥산면 장남리 7-5번지	010-6475-0867
”	柳宗杰	충북 청원군 내수읍 초정리 188-8번지	010-5468-4347
”	柳昌烈	청주시 흥덕구 사직2동 687-11번지	010-8033-6628
”	柳穆烈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2418번지 301호	010-8737-5110
”	柳斗赫	청주시 흥덕구 운천동 678번지	011-469-6421
”	柳完赫	청주시 상당구 용암1동 2445번지 3층	011-491-7929
”	柳根重	청주시 흥덕구 남일면 효촌리 37-8번지	010-5469-3733
”	柳昌烈	청주시 흥덕구 사창동 454번지(문화빌딩4층)	010-5650-2452
”	柳雄烈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78-1번지	010-2285-4525

中門祇候使公派宗會

職位	姓名	住 所	電 話
名譽會長	柳漢相	광주광역시 북구 우산동 559-78	016-9686-1197
會 長	柳鎭圭	광주광역시 북구 각화동 금호A 8-903	016-9602-4580
副會長	柳忠鉉	전북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한양A 103-1501	063-252-2051
”	柳濟善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 5가 효성A 106-401	011-759-4145
理 事	柳在雄	충북 진천군 이월면 내촌리 문화마을	011-312-6286

職位	姓名	住 所	電 話
理 事	柳松桓	서울시 구로구 고척2동 260-11	011-263-2601
"	柳沂桓	경북 군위군 효령면 병수2리	057-882-8619
"	柳光鉉	전북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 2가 1571-18	063-241-6767
"	柳鎭性	전남 담양군 창평면 해곡리 내동	061-382-8345
"	柳志善	서울시 구로구 고척동 72-7 문화골든타워 702	011-989-5768
"	柳喆炳	충남 부여군 충화면 만지리	011-9707-6822
監 事	柳炳寅	충남 부여군 충화면 복금리	041-833-1357
"	柳石鉉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 4가 153-6 문화빌딩 501	011-287-1947
總 務	柳晏重	광주시 광산구 우산동 1572-5 동산A 101-108	017-618-6709

左相公派宗會

職位	姓名	住 所	電 話
顧 問	柳仲奇	서울시 관악구 신림4동 525-33	02-855-4950
"	柳三鉉	서울시 관악구 은천동 두산A 111-702	011-251-2345
"	柳寅靑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풍림1차A 1001	011-445-2678
"	柳百烈	경기도 포천시 신읍동 120-3	031-535-2634
"	柳在升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기지리 888-1	011-9120-8878
"	柳灌烈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신현리 411	011-466-9903
"	柳興淑	부산시 사상구 모라1동 409-13 찬산A 912	051-317-1556
"	柳淙鉉	대전시 중구 유천1동 301-49	017-351-4749
名譽會長	柳浩弼	서울 서대문구 홍은3동 진흥A 101-1305	011-9766-5812
會 長	柳壽鉉	서울시 중랑구 망우1동 361-9	011-9972-2087
副 會 長	柳寅斗	울산시 북구 중산동 566-1 이화한라동아A 2106	011-836-2976
"	柳金烈	경기도 포천시 가산면 마산리 152	010-5248-2101
"	柳希烈	경기도 포천시 신읍동 28-10	011-789-5007
"	柳仁鉉	경북 봉화군 석포면 석포리 667	010-3343-6012
"	柳在甲	경남 진주시 일반성면 답천리 260	055-754-6304

職位	姓名	住 所	電 話
監 事	柳浩吉	경기도 남양주시 호평동 92-11	010-7927-3579
”	柳浩龍	서울시 강서구 내발산2동 651-20	011-748-7717
理 事	柳基亨	경기도 포천시 어릉동 593	011-353-2989
”	柳在藤	인천시 서구 검암동 1차 201-1301	010-3320-6607
”	柳在晟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 뉴서울A 108-1509	017-323-3350
”	柳在聖	경기도 의정부시 신곡2동 91-4	017-221-9104
”	柳益烈	충남 부여군 부여읍 중정리 511	016-454-3953
”	柳浩德	경기도 남양주시 호평동 92-11	016-252-3660
”	柳在彬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기지리	011-335-1634
”	柳訓烈	서울시 강북구 미아3동 은진스톤하우스 402	017-216-1477
”	柳寅元	경기도 포천시 가산면 우금리 188	011-9120-8878
”	柳金烈	경기도 양평군 옥천면 옥천리 546	011-9041-5071
”	柳浩綱	강원도 춘천시 효자1동 427-15	010-3029-1487
”	柳殷相	서울시 강서구 내발산2동 675-8	011-9936-3578
”	柳興述	경남 김해시 진례면 송정리	010-4544-5013
”	柳台烈	서울시 동작구 신대방2동 344-72	011-285-9028
”	柳在植	경남 진주시 신안동 주공A 105-403	011-885-2194
”	柳甲曾	경남 진주시 하대동 100 대림A 312	019-468-7810
”	柳慶鉉	경기도 가평군 청평읍 청평3리 69-7	011-9755-3050
”	柳奇相	광주시 서구 화정3동 745-1	011-609-0855

文化君, 檢漢城公 二代祀壇 祭享管理委員會

職位	姓名	前現宗職	住 所
顧 問	柳忠烈	前文化柳氏大宗會長	전북 김제시 공덕면 공덕리 51-25
”	柳洸烈	前文化柳氏大宗會顧問	전북 김제시 공덕면 황산리 1054
”	柳暎烈	現文化柳氏大宗會顧問	서울시 금천구 독산동 899-17 도산빌딩 4층
”	柳寅銑	前靈光公宗中會長	전북 김제시 공덕면 황산리 564

職位	姓名	前現宗職	住 所
顧問	柳寅起	前檢漢城公派宗會長	전북 김제시 공덕면 황산리 593
會長	柳大賢	現檢漢城公派宗會長	전북 익산시 신흥동 721-1
副會長	柳寅昶	前懷仁公宗中會長	전북 김제시 공덕면 공덕리 809
”	柳煥鎬	現威安公宗中會長	전북 김제시 공덕면 공덕리 757
”	柳台烈	現昌平公宗中會長	전북 부안군 하서면 석상리 44
”	柳興奎	現靈光公宗中會長	전북 김제시 공덕면 황산리 634
”	柳寅卓	現靈光公宗中任員	전북 김제시 서암동 443
理事	柳韶永	現威安公宗中任員	전북 김제시 공덕면 황산리 218
”	柳寅滿	現威安公宗中任員	전북 김제시 공덕면 황산리 446
”	柳垸杰	現昌平公宗中任員	전북 김제시 공덕면 황산리 643
”	柳在植	現昌平公宗中任員	전북 김제시 공덕면 황산리 891-12
”	柳寬永	前威安公宗中任員	전북 김제시 봉남면 신호리 330
”	柳萬烈	現靈光公宗中任員	전북 김제시 공덕면 황산리
監事	柳梧永	現懷仁公宗中會長	전북 김제시 공덕면 공덕리 843
”	柳洪烈	派宗會監事兼職	경기도 과천시 부림동 49 주공A 735-402
幹事長	柳寅昶	派宗會幹事長兼職	
總務	柳煥鎬	派宗會總務兼職	

檢漢城公派宗會

2006.12.13以後

職位	姓名	住 所	電 話
元老顧問	柳忠烈	전북 김제시 공덕면 공덕리 51-25	063-542-7067
”	柳洸烈	전북 김제시 공덕면 황산리 1054	063-546-7148
”	柳寅起	전북 김제시 공덕면 황산리 593	063-542-2442
常任顧問	柳暎烈	서울시 금천구 독산동 899-17 도산빌딩 4층	016-709-3090
”	柳德永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여월동 89-19	011-9011-0852

職 位	姓 名	住 所	電 話
常任顧問	柳舜永	강원도 춘천시 후평3동 현대A 204/1103	011-368-7881
”	柳興雨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 269-3	011-794-5934
”	柳基謨	전남 화순군 화순읍 만연리 4구 금호타운 101/901	010-7567-9988
會 長	柳大賢	전북 익산시 신흥동 721-1	011-9629-5631
副 會 長	柳在滢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 청학리 411 주공A 406/801	017-270-1689
”	柳健永	경기도 용인시 상현동 851 현대성우A 292/1401	011-281-3663
”	柳在河	서울시 구로구 고척동 53-320 한효A 3/606	011-252-5862
”	柳根重	대전시 중구 문창동 112-30	011-301-4821
”	柳寅昶	전북 김제시 공덕면 공덕리 809	011-1719-6233
”	柳在慮	강원도 춘천시 신북읍 지내3리 143	010-6471-2739
理 事	柳在寬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태봉마을 주공A 312/106	011-9958-8592
”	柳寬鉉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 민속마을 신창맨션A 205/1102	011-9129-7768
”	柳基謨	검 직	
”	柳相議	광주시 남구 방림2동 85-41	010-9474-1854
”	柳漢永	충남 아산시 탕정면 동산리 219	010-9870-3813
”	柳在敦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송마리 387	011-9737-3855
”	柳法永	경기도 의정부시 금오동 384-37	011-765-2003
”	柳寬永	전북 김제시 봉남면 신호리 330	011-9215-8854
”	柳台烈	전북 부안군 하서면 석상리 44	011-672-1608
”	柳興奎	전북 김제시 공덕면 황산리 634	018-404-0604
監 事	柳梧永	전북 김제시 공덕면 공덕리 843	011-651-2034
”	柳洪烈	경기도 과천시 부림동 49 주공A 735/402	010-3123-4426
幹 事 長	柳寅昶	검 직	
總 務	柳煥鎬	전북 김제시 공덕면 공덕리 757	018-600-6190

檢漢城公派 靈光公宗中

2006. 12. 13以後

職位	姓名	住 所	電 話
顧問	柳寅銑	전북 김제시 공덕면 황산리 564	017-626-2107
”	柳興堤	전북 김제시 백산면 상리 자학	011-9627-3985
”	柳大賢	전북 익산시 신흥동 721-1	011-9629-5631
”	柳在慮	강원도 춘천시 신북읍 지내3리 143	010-6741-2739
會長	柳興奎	전북 김제시 공덕면 황산리 634	018-404-0604
副會長	柳寅鳳	전북 김제시 공덕면 황산리	063-542-2753
”	柳寅範	전북 김제시 공덕면 황산리	016-648-2348
理事	柳寅卓	전북 김제시 서암동 443	016-9543-2838
”	柳興先	전북 김제시 백산면 상리 연동	011-9454-3863
監事	柳正雄	전북 김제시 공덕면 황산리	011-684-8044
”	柳在準	전북 김제시 공덕면 황산리	011-672-7887
總務	柳萬烈	전북 김제시 공덕면 황산리	011-9668-5002
財務	柳守一	전북 김제시 백산면 상리 소음방	019-656-3877

忠景公派宗會

職位	姓名	住 所	電 話
會長	柳甲善	서울 양천구 목동901 목동A 109-202	011-9952-5655
副會長	柳充烈	서울 구로구 개봉동 401-11 현대A 117-1901	010-3024-8355
”	柳瑢鎭	서울 광진구 화양동 49-14	011-9636-7754
”	柳在華	서울 서초구 잠원동 70 신반포A 210-603	011-650-6090
”	柳濟漢	경남 울산시 을주군 상북면 거리 510	010-9403-3103
事務總長	柳鶴善	서울 종로구 부암동 237-8	010-5329-3441
監事	柳亨烈	서울 강북구 수유6동 308-33	011-272-4515
”	柳公烈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한일타운A 144-1102	017-203-2193
”	柳益善	전북 익산시 남중동1가 60-153	011-9838-1900

忠景公派 部令公宗中

2009.03.01 ~ 2012.02.28

職位	姓名	住 所	電 話
顧問	柳基碩	전북 군산시 신창동 49-31 8통 4반	063-446-4072
”	柳昌鎬	전북 익산시 망성면 화산리 686-2 (금지마을)	063-861-8233
”	柳重鎬	전북 익산시 함열읍 흘산리 363(학선마을)	063-861-1740
”	柳在明	전북 익산시 어양동 652-1 부양1차A 101-803	010-2522-3682
”	柳在振	전북 익산시 낭산면 용기리 656 (중리마을)	011-708-4977
會長	柳在華	전북 익산시 함열읍 흘산리 338 (학선마을)	011-681-6090
副會長	柳益善	전북 익산시 남중동 1가 60-153	011-9838-1900
”	柳鎰善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765-1 현대A 101-1004	011-9649-8760
事務總長	柳在中	대전시 서구 도마2동 배재로 237 경남A 102-403	017-431-2240
監事	柳達善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1008-2 번지 솔잎빌라 401	010-6545-4566
”	柳明浩	전북 익산시 영등동 698-3	018-424-0484
運營委員	柳在源	전북 익산시 용안면 칠목리 479-2 (화정마을)	011-9965-2537
”	柳在植	전북 익산시 낭산면 구평리 145	019-688-5227
”	柳在盛	서울시 강북구 우이동 342 대우A 102-312 (와리114)	010-9045-3183
”	柳在柒	서울시 강서구 내발산동 길성그랑프리텔A 101-802	011-674-0656
”	柳在江	전북 익산시 함열읍 흘산리 344번지 (학선마을)	011-9025-0804
”	柳在洙	전북 익산시 함열읍 와리 163 제일A 103-303	010-5525-6686
”	柳洪善	전북 익산시 황등면 용산리 297-20	016-9248-2030
”	柳 洪	전북 익산시 함열읍 흘산리 390 (학선마을)	011-656-1956

忠景公派 少尹公 宗中

2009년 11월 5일 현재

職位	姓名	住 所	電 話
顧 問	柳東明	부산시 동래구 복천동 우성베스토피아 104-803	010-3337-4336
”	柳在環	대전시 중구 선화동 현대A 103-101	010-2274-4143
會 長	柳濟漢	울산시 울주군 상북면 거리 510	010-9403-3103
副會長	柳權垂	경남 남해군 상주면 상주리 1105-3	010-5516-6107
”	柳億烈	대전시 중구 용두2동 123-11	010-8403-3448
總 務	柳東鉉	대전시 서구 내동 13-4	011-9800-5314
監 事	柳公烈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881 한일타운A 144-1102	017-203-2193
”	柳寅爽	전북 장수군 계남면 화양리 명동	011-9787-5858
理 事	柳在復	충남 천안시 성남면 석곡리1구 317-6	018-321-4793
”	柳明錫	대전시 동구 가오동A 101-403	016-575-7536
”	柳星寅	경남 남해군 설천면 금음리 990	010-5221-2647
”	柳榮治	경남 남해군 서면 대정리 182-3	010-8627-1882
”	柳東鉉	대전시 서구 내동 13-4	011-9800-5314
”	柳濟先	충남 예산군 신양면 가지리 495	011-426-7304
”	柳南烈	충남 부여군 세도면 화수리	010-2838-0992
”	柳基雄	충남 부여군 세도면 화수리	010-6285-5848
”	柳根三	대구시 북구 동변동 유선수촌A 201-106	010-8000-0649
”	柳興燮	전북 장수군 계남면 신전리 양신	017-226-3840

忠景公派 天安公后主簿公宗中

2008.10.01 ~ 2010.09.30

職位	姓名	住 所	電 話
顧 問	柳忠烈	충남도 천안시 성남면 대정2리 342	041-553-0691
”	柳在環	대전시 중구 선화동 현대A 103-101	010-2274-4143
”	柳玉鉉	충남도 아산시 도고면 신유리93	010-9485-3753
會 長	柳在斗	충남도 연기군 소정면 대곡리170	011-9806-6158
副會長	柳寅權	충남도 천안시 목천읍 도장2리	011-456-1037
”	柳孔鉉	충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동 LG/SK APT 113-701	011-439-5486
理 事	柳淸烈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삼성A 133-1203	016-270-3989
”	柳在彦	충남도 천안시 동남구 구성동 향목A 103-1201	016-445-0582
”	柳晚鉉	충남도 천안시 동남구 대흥동 258-2(상미사)	011-455-2470
”	柳鍾烈	충남도 천안시 동남구 원성동 518-11	011-283-0006
”	柳東善	충남도 천안시 동남구 신방동 6	011-454-0176
”	柳明鉉	충남도 천안시 성남면 대정1리 168	011-435-0326
”	柳在完	충남도 천안시 성남면 석곡1리	041-553-0962
”	柳範鉉	충남도 천안시 성남면 석곡리	041-553-9150
”	柳濟昌	충남도 천안시 동남구 구성동 433-7 13통7반	017-422-1811
監 事	柳在復	충남도 천안시 성남면 석곡2리	010-4321-4793
”	柳昱鉉	충남도 천안시 목천읍 삼성리 부영1차A 103-507	011-296-4756
總 務	柳濟弘	충남도 천안시 성남면 석곡1리 416-2	010-4413-8388
宗山管理	柳澤烈	충남도 천안시 성남면 대정2리 331	011-9240-9138

【年例報告】

主要宗務報告

事務總長 柳 億 烈

(2009년 4월 9일 정기총회 이후)

- 4월 9일. 대종회 정기총회에서 류제구 회장, 류억렬 사무총장 인준
- 4월 15일. 대종회 류제구 회장 대종회 사무실에 T.V 기증
- 4월 17일. 사무실환경개선(족보이적.커텐세탁.화장실문교체)
- 4월 21일. 회장 및 사무총장 사무 인수인계 (감사.신임회장 입회)
- 4월 26일. 서대전 농협, 대종회 일반 입출식 통장 명의변경 완료
- 4월 27일. 재일교포 류기환씨 대종회 방문. 대승공 묘소 정비협의
- 4월 30일. 광주 중문지후사공파 석헌선생 학술세미나, 대종회장 참석
- 5월 7일. 서대전 농협, 대종회 정기예금 5계좌 3인(류제구.종현.억렬)
공동 명의 변경 완료
- 5월 12일. 대종회 임시이사회 개최, 류종현 상임부회장 종보업무시작
- 5월 15일. 문화류씨수도권종친회, 류제구 대종회장 참석
- 6월 5일. 1층 식당 폐업
- 7월 13일. 서울특별시 “하정청백리상” 제정
대종회에서 유인물 발송하여 종원에게 홍보
- 7월 30일. 문화류씨 청장년 수련회 실시(1박 2일 15명 참석)
- 8월 4일. 장학생 선발심사위원회
대승장학생 6명, 대종회(순치)장학생 6명 선발
- 8월 25일. 충청공파 부령공종중에서 대종회에 에어컨 2대 기증(150만원)
- 8월 27일. 장학증서 수여식, 대종회 임원 13명, 학부모 다수 참석
- 10월30일. 종보 「유주춘추」 15집 발간

文化柳氏大宗會 沿革

74년 3월22일	대전시 중구 유천동 소재 종친회 건물에서 文化柳氏大宗會를 창립. 초대 회장에 根榮宗장을 추대하고, 당일 증증규약을 제정함과 아울러 修譜를 결의
76년 8월	대동보 (병진대보 : 17권 1질)를 완간
83년 4월26일	대전시 중구 유천동 301-43 소재 신축 文化柳氏宗親會館(지하 1층 지상 4층 건평 300평)에서 800여 종인의 참석리에 회관 준공식 거행
84년 2월	회관건립성금 납입자를 등재한 文化柳氏世系譜(5권 1질)를 완간
86년 3월	文化柳氏寶鑑 편찬 착수
90년 3월	文化柳氏寶鑑(3권 1질) 완간
89년 4월19일	根榮회장 사임
"	寅範회장 취임
97년 8월16일	寅範회장 서거
98년 4월10일	忠烈회장 취임
03년 8월	文化柳氏大同譜 간행규정 제정, 보사착수
03년 12월14일	貞肅公派 濟求회장 장학금 1억원 대종회에 출연
04년 2월4일	韓國氏族總聯合會에 「韓國姓氏總鑑」 文化柳氏 登載資料 제출
04년 8월11일	車門의 柳氏先系 날조 및 폄훼에 따른 시정촉구문 발송
05년 2월15일	忠烈회장 사임
05년 4월22일	浩倓회장 취임
07년 5월28일	車柳大宗會 해체
07년 9월	大法院 戶籍例規에 의하여 성 「류」자 國文表記 認可
08년 5월	大同譜(戊子大譜 : 23권 1질) 완간
08년 8월2일	大丞獎學會 재창립
08년 10월	대전시 중구 침산동 소재 뿌리공원에 文化柳氏由來碑 조형물 설치
09년 4월9일	浩倓회장 퇴임
"	濟求회장 취임

2009년도 정기총회 성금록

2009. 04. 09

	과	개인 or 단체	금 액
1	총/부	부령공 종중	100,000
2	좌	공주시 원선	50,000
3	총/전	연산 백석리 지권	50,000
4	중	안산 종친회	200,000
5	문	문숙공 과중회	100,000
6	곤	곤산군 과중회	200,000
7	하	하정공 과중회	100,000
8	총	판윤공 종중	100,000
9	부	부윤공 과중회	100,000
10	중	희익 종친회	100,000
11	총	충경공 과중회	100,000
12	총	전사령공 종중	100,000
13	총	송암공 종중	100,000
14	좌	찬성공 진주 사정공 원천재	100,000
15	총	소윤공 천안 현풍공종중	100,000
16	좌	문원군 진주 문중	50,000
17	하	고양공 종중	300,000
18	판	판사공 과중회	100,000
19	김	김한성 과중회	100,000
20	총	성곡공 대구 문회	100,000
21	총	대구 대열	50,000
22	좌	대구 점열	100,000
23	중	희익 종중 원로회	50,000
24	김	천안 성환 준열	100,000
25	김	천안 성거 주열	100,000
26	총	연산 지찬	100,000
27	총	대전 능열	100,000
28	김	강화김포종중회 류재하	200,000
29	하	류중기	200,000
30	하	류종열	50,000
31	총	류인권	50,000
32	총(송암공)	류지용	50,000
33	하	류강희	50,000
34	학암공	류의열	20,000
35	김	류춘혁	30,000
36	좌	류재만	30,000
37	좌	류대선	30,000
38		대전종친회	100,000
		합계	3,660,000

大同譜 분질 현황

2009. 8. 31

과별	구분	인쇄량	분질량	과부족	비율(%)
시량공·문숙공		340	299	41	87.9
하정공·장령공		400	237	163	59.3
곤산군		180	164	16	91
문평균		230	235	-5	102
중문지후사공		360	381	-21	105.8
좌상공		1080	880	200	81.5
검한성공		950	652	298	68.6
정숙공·판사공 수사공·부윤공		300	247	53	82.3
충경공 전사령공·판윤공 부령공·소윤공		2020	1367	653	67.7
계		과질 5860	4462	1398	76.1
		전질 960	790	170	82.3

2009년도 獎學生 名單

(대승장학생)

성명	과명	학교명	학년	주소
류승지	충경공과	이화여대	2	충북 청주시 상당구 사천동 407-7
류태희	곤산군과	고려대	2	서울시 강남구 개포1동 경남A 2동 906호
류아람	충경공과	동우대	3	충북 옥천군 군북면 대정리 257-1
류은수	좌상공과	대진대	4	경기 남양주시 평내동 대명A 101-603
류주성	검한성과	아주대	2	경기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13 두진A 102-705
류한승	하정공과	연세대	2	광주시 북구 문흥1동 현대A 104-605

(대중회 순차 장학생)

성명	과명	학교명	학년	주소
류가연	시랑공과	청주대	4	충북 청원군 내수읍 학평리 274-1
류형선	충경공과	동국대	2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60-14
류상철	충경공과	목원대	4	대전시 동구 용운동 377-10 101호
류호림	중문사과	울산대	2	부산시 해운대구 송정동 191-10 대림빌라 501호
류수지	중문사과	충남대	2	대전시 중구 문화1동 12-2 은성주택 202호
류재현	하정공과	공주대	4	경기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썬트라우스 101-102

【刊行後記】

儒州春秋第十五輯後記



柳淙鉉

근년에 大同譜 간행으로 인하여 부득이 휴간한지 3년만에 宗報『儒州春秋』 제15집의 발간을 보게 되었습니다. 본인이 宗報(3집~9집, 12집~15집)를 편간한지도 어느덧 11권 짜입니다.

본인이 30대 전반 譜事에 참여한 인연으로 중년에 大田으로 이주한지 거의 30년, 그 동안 대중회의 중대한 사업이 있을 때마다 불러 나와 소임에 심력을 다하였습니다.

근래 가장 어려웠던 일은 大同譜의 간행과 車門의 소요에 대한 대응이었습니다. 大同譜의 간행은 시조 大丞公 이후 선세 조상과 현세 후손들간의 血統을 체계적으로 연결하여 編修하는 작업이었고, 車門의 소요에 대한 대응은 公私家文獻을 다방면으로 탐구, 논리적으로 記述하여 내외에 입증하는 筆戰이었습니다.

이는 오직 우리 文化柳氏의 宗史를 올바로 세우고 굳게 지키기 위한 莫重莫大한 사업이었습니다. 실로 종친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열화와 같은 聲援에 힘입어 이 兩大課業을 훌륭히 마쳤음을 국내외 많은 종친과 함께 경하하여 마지 않는 바입니다.

본인의 거취에 대해서 所懷를 밝히겠습니다. 세월이 물 흐르듯 빠르다더니 어느덧 70이 가까워 옴으로써 정신이 예전만 못하고 시력도 심히 약해져 글을 보고 이해하는데 한계를 실감하고 있으며, 더욱더 큰 이유는 후진의 양성과 진출을 촉구하기 위해서도 勇退할 때가 되었음을 진작부터 생각하던 중이었습니다.

이로서 지난해 겨울 譜事를 마무리 지은 직후에 대종회 상임부회장 겸 宗報주간의 직책을 사임하고 蟄居하였습니다.

그런데 금년 5월, 신임 濟求 회장께서 이사회 의 석상에서 현 시점에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할진대 일방적인 사임은 시기상조라며 유임을 권유하고는 곧바로 폐회를 선언하였습니다. 당시 상황은 이의를 제기할 틈도 없었으며, 그 후로도 회장은 물론 여러 임원들께서 유임을 간곡히 권유하였습니다.

본인이 진퇴를 쉽게 결단하지 못한 이유는, 譜事로 인한 휴간 기간 동안 팔방 종친들이 보내 온 많은 투고와, 근래 대종회의 대소사업을 종종에 널리 알릴 사안이 누적되어 있었습니다.

이 難題를 모두 방임하거나 방치한다는 것도 종친과 종사를 저버리는 행위로 생각되어 많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얼마 후 회장과 토의 끝에 금번만의 宗報 발간을 조건부로 본인의 퇴임을 확약 받고, 그로부터 원고를 정리하는 한편 보완 記述하고 편집 교정하여 이제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금번 다양하고 복잡한 내용의 植字에 성의를 다하여 宗報 간행에 크게 이바지한 여직원 張恩周 양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오랜 세월 동안 宗報에 게재할 玉稿를 내주신 종친 여러분께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 한편, 앞으로도 더욱더 투고를 많이하여 후임 편집자로 하여금 알차고 훌륭한 宗報를 계속 발간하여 대종회의 전통을 지켜 나갈 수 있도록 倍前의 聲援을 거듭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아뢰 말씀은 본래 淺學菲才로서 고지식한데다 더욱이 세상물정에 어두워 임기응변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權謀로서 趨時附勢는 아예 싫고, 오직 涇渭에 입각한 公明正大한 用心과 處事만이 인간의 至高至善한 삶이란 것이 본인의 인생관입니다.

돌이켜 생각하건대 장기간 종사에 간여하는 동안 본인의 이 같은 성벽과 융통성의 부족으로 인하여 혹 어느 종중, 어느 종친에게 본의 아닌 누를 끼치지는 않았는지? 혹 있었다면 본 지면을 통해서나마 진심으로 사과 드립니다.

경향 각처 종친 여러분의 가정에 늘 행운이 가득하시길 빌면서 이만 宗報 편간의 후기로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 10. 20

“投稿案内”

『儒州春秋』는 先世의 遺德을 闡揚하고 宗族의 敦睦을 振作하는데 目的을 두고 每年 刊行하는 文化柳氏의 宗報입니다. 宗親 諸位께서는 先世의 遺文, 遺筆, 狀碣과 宗中の 事業, 行事 및 紀行, 隨筆, 提言 등 多樣한 記錄을 該當 寫眞과 本人 寫眞을 同封, 每年十二月末日까지 投稿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儒州春秋 第十五輯

二〇〇九年 陽十月二五日 印刷
二〇〇九年 陽十月三〇日 發行

發行人 柳 濟 求

編輯人 柳 淙 鉉

發行所 文化柳氏大宗會

大田廣域市 中區 柳川一洞 三〇一四三

電話(〇四二)五八二一〇七七二

電送(〇四二)五八二一〇七七九

印刷所 沃川印刷社

代表 沈 大 輔

忠北 沃川郡 沃川邑 三陽里 一六一

電話(〇四三)七三二一一四四

複製不許